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최윤경·김근진·정익중·최 영·송신영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저 자

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 영, 송신영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최 윤 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 근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최 영 (중앙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송 신 영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연구보고 2021-13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경성문화사 02) 786-2999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95-1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팬데믹의 종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간 팬데믹으로 인해 누적된 아동 생활 전반의 변화와 개별 가정이 경험한 자녀 양육 및 교육·보육·돌봄의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들은 지금까지의 양육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대해 새로운 질문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도서관과 같은 공적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휴원·휴업·휴관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교육과 돌봄은 유례없는 큰 공백과 부담, 누적된 격차와 사각지대를 드러내었다. 특히 학대와 방임에 취약한 가구, 집단 양육시설과 같은 환경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환경에서의 고립과 통제가 가져오는 발달상의 결핍 또한 미처 파악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미친 변화는 긍·부정의 영향이 공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에듀테크를 활용한 원격수업 및 육아 관련 디지털화의 진행이 적잖은 우려와 혼란, 실행력의 부재 속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당면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와 저출생의 심화가 낳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변화 또한 그 속도와 심화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기 현안과 미래 과제로서의 대응은 현재의 양육지원 체계가 고려해야할 중요한 변화의 지점으로, 팬데믹 이후 회복 전략의 수립이 긴밀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당면한 현행 양육지원체계의 과제를 자녀양육가구가 경험하는 고용·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보고,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인 학대 상황의 위기아동 발굴과 개입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현장의 대응력 제고, 그리고 팬데믹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대응체계와 교육과정 운영상의 차이가 보이는 분절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았다. 연구자료에 기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중기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를 제안하였다.

의견수렴 과정에 적극 참여해주신 부모님,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육아정책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안해주신 전문가, 그리고 연구참여를 통해 주요 과제별 제언을 집필해주신 외부 연구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연구에서 제안한 단-중기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제언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입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202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요약	1
I.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17
3. 연구방법	17
4. 연구범위 및 연구의 틀	20
II. 육아분야 국내외 팬데믹 대응 정책	23
1. 국내 팬데믹 대응 정책	25
2. 해외 팬데믹 대응 현황	49
III. 위드코로나 쟁점 및 포스트코로나 어젠더 분석	57
1. 팬데믹이 드러낸 육아분야 쟁점(문제점, 사각지대)	59
2. 포스트코로나 미래 어젠더	79
IV.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85
1. 수요자 부모 의견 조사 결과	87
2.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의견 조사 결과	134
3.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조사 결과	159
4. 청년 조사 결과	182
5. FGI/면담조사 결과 분석	197
6. 의견조사 결과의 시사점	216
V. 포스트코로나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	219
1. 어린이집·유치원 대응체계 개선방안	221
2.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한 시간-비용-서비스 지원 개선	226
3. 사각지대 해소 방안: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	238
4. 포스트코로나 미래 대응 전략	252

참고문헌	259
-------------	------------

Abstract	273
-----------------	------------

부록	275
-----------	------------

부록 1. 부모 조사표	275
부록 2.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조사표	303
부록 3.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설문지	328
부록 4. 청년 설문지	344
부록 5. 조사결과 표	360



표 목차

〈표 Ⅰ-3-1〉 면담조사	18
〈표 Ⅰ-3-2〉 전문가 자문회의	19
〈표 Ⅰ-3-3〉 설문조사 내용	19
〈표 Ⅱ-1-1〉 어린이집 대응지침	26
〈표 Ⅱ-1-2〉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29
〈표 Ⅱ-1-3〉 유치원 학사운영 관련 조치	31
〈표 Ⅱ-1-4〉 가정내 자녀돌봄 지원	38
〈표 Ⅱ-1-5〉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2021년 기준)	44
〈표 Ⅱ-1-6〉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2021년 기준)	45
〈표 Ⅱ-1-7〉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개요 (2021년 기준)	48
〈표 Ⅱ-2-1〉 코로나 19 이후 등교 수업일수의 국가별 차이	53
〈표 Ⅲ-1-1〉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해 활용한 제도	61
〈표 Ⅲ-1-2〉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73
〈표 Ⅲ-1-3〉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지역규모별 3수준 (보통학력) 이상 비율	74
〈표 Ⅲ-1-4〉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지역규모별 1수준 (기초학력 미달) 비율	74
〈표 Ⅳ-1-1〉 부모조사 응답자 특성	88
〈표 Ⅳ-1-2〉 부모조사 가구-맞벌이여부	89
〈표 Ⅳ-1-3〉 부모조사 가구-취약특성	90
〈표 Ⅳ-1-4〉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전-후 변화	92
〈표 Ⅳ-1-5〉 2020년 2월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경험_부	93
〈표 Ⅳ-1-6〉 2020년 2월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경험_모	94
〈표 Ⅳ-1-7〉 직장을 그만 둔 이유	95
〈표 Ⅳ-1-8〉 팬데믹 이후 변화에 대한 긍-부정 영향	95
〈표 Ⅳ-1-9〉 팬데믹 종식 예상 시기	96
〈표 Ⅳ-1-10〉 포스트코로나 시기 자녀양육과 돌봄 및 일생활 균형에서의 변화	97
〈표 Ⅳ-1-11〉 현재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기관유형 (중복응답)	98

〈표 IV-1-12〉 현재 초등저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공공 돌봄서비스 유형 (중복응답)	98
〈표 IV-1-13〉 현재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주5일 정상 등원/등교 실시	99
〈표 IV-1-14〉 현재 주5일 정상 등원·등교를 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100
〈표 IV-1-15〉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서의 변화 (중복응답)	101
〈표 IV-1-16〉 막내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및 유형 (중복응답)	102
〈표 IV-1-17〉 2020년 2월 이후 자녀양육에 이전에 없던 돌봄공백 발생여부 ..	104
〈표 IV-1-18〉 긴급돌봄 이용 경험	105
〈표 IV-1-19〉 2020-2021년 긴급돌봄 이용 이유(N=612)	106
〈표 IV-1-20〉 2020-2021년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N=1,000)	107
〈표 IV-1-21〉 긴급돌봄이 돌봄공백 해소에 충분히 기여	107
〈표 IV-1-22〉 긴급돌봄 이용 월 동향(막내자녀기준, 중복응답)	108
〈표 IV-1-23〉 자녀양육가구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108
〈표 IV-1-24〉 지난 2년간 육아분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대한 평가	109
〈표 IV-1-25〉 자녀양육가구 대상 정부 코로나 대응 중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복응답)	111
〈표 IV-1-26〉 기관/학교의 코로나 대응 현황 및 평가(1)-검사, 자가격리, 소독방역 등의 대응체계	113
〈표 IV-1-27〉 기관/학교의 코로나 대응 현황 및 평가(2)-긴급돌봄 및 온라인/원격수업 운영	116
〈표 IV-1-28〉 주요 요소별 코로나 대응 평가①_5점평균	117
〈표 IV-1-29〉 주요 요소별 코로나 대응 평가②_5점평균	118
〈표 IV-1-30〉 재난 단계별 정부의 정책 대응 평가_5점평균	120
〈표 IV-1-31〉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자녀들의 적응 정도	121
〈표 IV-1-32〉 휴원 기간 자녀에 대한 가정내 양육과 돌봄에 대한 평가	122
〈표 IV-1-33〉 팬데믹 이전 대비 자녀의 발달 지연과 결손에 대한 의견 (5점평균)	124
〈표 IV-1-34〉 팬데믹 이전 대비 양육/교육환경 및 아동 관련 현재수준의 문제/심각성	125

〈표 IV-1-35〉 본인 및 자녀(들)의 현재	126
〈표 IV-1-36〉 팬데믹기간 자녀돌봄을 위해 직장에서 이용한 제도 (부-모 이용률)	127
〈표 IV-1-37〉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한 경험	128
〈표 IV-1-38〉 재택근무의 적절성	129
〈표 IV-1-39〉 팬데믹 전-후 심리정서적 건강 변화	130
〈표 IV-1-40〉 발달지연/문제행동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 및 모니터링	130
〈표 IV-1-41〉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재난상황이 미래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	131
〈표 IV-1-42〉 미래 재난 대응체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과제	131
〈표 IV-1-43〉 미래사회 모습	132
〈표 IV-1-44〉 포스트코로나 시대 육아분야 미래대응 전략	132
〈표 IV-1-45〉 포스트코로나 육아/교육·돌봄 분야 중장기 중요 과제	133
〈표 IV-2-1〉 교사조사 응답자 특성	134
〈표 IV-2-2〉 조사참여 유치원 현황	135
〈표 IV-2-3〉 조사참여 어린이집 현황	135
〈표 IV-2-4〉 2021년 조사시점 현재 긴급돌봄/긴급보육 운영 현황	135
〈표 IV-2-5〉 2020년, 2021년 방역인력 추가배치	136
〈표 IV-2-6〉 조사참여기관 감염확진 및 자가격리 현황(2020-2021년)	136
〈표 IV-2-7〉 2020~2021 감염여부 검사 및 자가진단키트 사용 현황: 평균 요약표	137
〈표 IV-2-8〉 팬데믹 이후 교사 근로 및 아동 자원 변화(1)	137
〈표 IV-2-9〉 팬데믹 이후 교사 근로 및 아동 자원 변화(2)	138
〈표 IV-2-10〉 긴급돌봄/긴급보육 이용률-최저/최고 : 평균 요약표	139
〈표 IV-2-11〉 긴급돌봄/긴급보육의 돌봄공백 해소 기여도	140
〈표 IV-2-12〉 긴급돌봄/긴급보육 이용기준 안내 및 적용 실제	141
〈표 IV-2-13〉 긴급돌봄/긴급보육 과정 표준안 필요성	142
〈표 IV-2-14〉 긴급돌봄/긴급보육 과정 자율운영시 운영지침 필요성	142
〈표 IV-2-15〉 온라인(원격수업) 교육과정 표준안 필요성	143
〈표 IV-2-16〉 어린이집·유치원의 코로나 대응(1)-검사, 자가격리 등의 대응체계	144
〈표 IV-2-17〉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1	145

〈표 IV-2-18〉 어린이집·유치원의 코로나 대응(2)-교사 배치 및 근로/처우(2020, 2021년)	145
〈표 IV-2-19〉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2 (긴급돌봄 운영)	147
〈표 IV-2-20〉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3	147
〈표 IV-2-21〉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4	148
〈표 IV-2-22〉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5	148
〈표 IV-2-23〉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6	149
〈표 IV-2-24〉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7	150
〈표 IV-2-25〉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8	151
〈표 IV-2-26〉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9	151
〈표 IV-2-27〉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10	152
〈표 IV-2-28〉 아이들의 팬데믹 적응 정도	153
〈표 IV-2-29〉 팬데믹 이후 아동의 발달지연 및 (영)유아간 격차 영향 - 1 ...	153
〈표 IV-2-30〉 팬데믹 이후 아동의 발달지연 및 (영)유아간 격차 영향 - 2 ...	154
〈표 IV-2-31〉 코로나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154
〈표 IV-2-32〉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분야(ECEC) 미래 대응전략 - 1 ..	155
〈표 IV-2-33〉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분야(ECEC) 미래 대응전략 - 2 ..	156
〈표 IV-2-34〉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분야(ECEC) 미래 대응전략 - 3 ..	156
〈표 IV-2-35〉 ECEC 중장기 중요 과제 중 1순위 - 1	157
〈표 IV-2-36〉 ECEC 중장기 중요 과제 중 1순위 - 2	157
〈표 IV-2-37〉 ECEC 중장기 중요 과제 중 1~3순위(중복응답) - 1	158
〈표 IV-2-38〉 ECEC 중장기 중요 과제 중 1~3순위(중복응답) - 2	158
〈표 IV-3-1〉 응답자 특성 - 아동양육시설	160
〈표 IV-3-2〉 코로나19 전-후 변화(기관운영, 교직원, 아동)	163
〈표 IV-3-3〉 코로나19 전-후 변화(관계, 상담/치료, 공간/설비/인력)	164
〈표 IV-3-4〉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추가 배치한 인력_현원 (현재시점)	165
〈표 IV-3-5〉 코로나19 전후 원가정 교류 및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 변화 ...	167
〈표 IV-3-6〉 휴업기간 제공되는 긴급돌봄 이용률	168
〈표 IV-3-7〉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이유(N=38) ...	169
〈표 IV-3-8〉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N=63)	169
〈표 IV-3-9〉 코로나19로 기관에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N=101)	170

〈표 IV-3-10〉 코로나 발생으로 기관에서 경험한 큰 어려움(중복)	171
〈표 IV-3-11〉 아동양육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	172
〈표 IV-3-12〉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	173
〈표 IV-3-13〉 변화된 환경에 대한 아동의 적응 인식	174
〈표 IV-3-14〉 코로나19가 미친 긍-부정의 영향 평가	175
〈표 IV-3-15〉 코로나19가 아동양육시설 아동, 교직원, 기관에 미친 영향 (전체, N=101)	176
〈표 IV-3-16〉 코로나19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미친 영향- 발달지연	177
〈표 IV-3-17〉 발달지연 의심/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	177
〈표 IV-3-18〉 코로나19 아동양육시설 대응 중 개선 시급 및 보완 과제 (중복응답)	178
〈표 IV-3-19〉 미래사회 대응 아동돌봄의 최우선 과제와 전략, 재구조화 방안 (중복응답)	180
〈표 IV-4-1〉 청년 응답자 특성	182
〈표 IV-4-2〉 청년 응답자의 취업 및 사회경제적 특성	184
〈표 IV-4-3〉 2020년 2월 이후 일을 그만둔 경험	185
〈표 IV-4-4〉 2020년 2월 이후 하던 일/직장을 그만둔 이유 (N=88, 중복응답)	185
〈표 IV-4-5〉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비자발적 미취업인 경우) ..	186
〈표 IV-4-6〉 저출생이 가져오는 긍-부정의 효과	186
〈표 IV-4-7〉 청년의 2040 미래 전망(N=300)	187
〈표 IV-4-8〉 현재/2040년 삶의 만족도	188
〈표 IV-4-9〉 결혼/출산 및 입양 의향	188
〈표 IV-4-10〉 향후 계획 및 미래 사회상이 미치는 영향	189
〈표 IV-4-11〉 출산장려정책의 양육지원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	190
〈표 IV-4-12〉 필요한 양육지원 정책(N=300)	191
〈표 IV-4-13〉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N=300)	191
〈표 IV-4-14〉 2020년 2월 이후 팬데믹기간 사회경제적 변화의 긍-부정의 영향	192
〈표 IV-4-15〉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예상 시기	193
〈표 IV-4-16〉 코로나19와 유사한 위험/재난이 가까운 미래 재발생 가능성 ...	193
〈표 IV-4-17〉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적응(N=300)	193

〈표 IV-4-18〉 코로나19 재난 단계별 예측과 대응에 대한 의견(N=300) ……	194
〈표 IV-4-19〉 미래사회 모습 ……	194
〈표 IV-4-20〉 포스트코로나 육아/교육·돌봄 분야 중장기 중요 과제 ……	195
〈표 IV-4-21〉 미래 재난 대응체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과제-청년 (N=300) ……	196
〈표 IV-5-1〉 면담대상자 목록 ……	197
〈표 V-2-1〉 유연한 근로형태 사례 ……	231



그림 목차

〈그림 Ⅰ-4-1〉 연구진행 개념도	21
〈그림 Ⅰ-4-2〉 연구의 틀	22
〈그림 Ⅱ-1-1〉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단계	43
〈그림 Ⅱ-1-2〉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체계	44
〈그림 Ⅱ-1-3〉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단계 및 주체	46
〈그림 Ⅱ-1-4〉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추진 단계 및 주체	48
〈그림 Ⅲ-1-1〉 직장내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이용 현황	61
〈그림 V-2-1〉 OECD국가의 2007-2008 경제위기 전후 상대빈곤율 - 연령별	229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가정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의 육아 현장에서는 휴원·휴업 조치와 함께 긴급돌봄의 운영을 통해 돌봄의 공백과 어려움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각 계 부처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긴급돌봄의 운영, 현금지원, 돌봄휴가 및 유연근로제와 같은 시간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개별 가정과 아동, 교직원과 기관에서 경험한 돌봄의 공백과 어려움, 취약계층이 경험하는 양육지원체계에서의 소외와 사각지대는 상당히 컸음.
- 이 연구는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현재의 양육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파악하고, 감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분야 양육지원체계가 육아의 주체와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격차와 부정적 영향의 단면을 살펴보고 지속되는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또한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과제와 요구를 담은 양육지원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행 서비스-시간-현금 지원 간 정합성과 교육-보육-돌봄의 통합적 운영을 검토함.
- 이 연구의 목적은 감염위험이 고조된 재난 상황에서의 양육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양육지원체계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현 시점 적용가능한 양육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연구내용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육아분야에 드러난 문제점과 주요 영향(impacts)을 살펴봄.

- 국내외 주요 정책과 지원체계 고찰을 통해 위드/포스트 코로나 상황의 육아분야 주요 쟁점과 어젠더를 살펴보고,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를 논의함.
- (1) 재난상황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체계(긴급돌봄 교육과정 운영 포함)를 정비하고, (2)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 어젠더와 뉴노멀에 대한 중장기 대응 방안으로 현행 양육지원체계에서 전환 및 재구조화가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코로나19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고찰
- 양육지원체계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 자문회의와 수요자/종사자 면담(FGI)
- 설문조사 자료 분석: 0~9세 자녀를 둔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및 아동양육시설, 청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라. 연구의 범위

- 이 연구의 ‘육아분야’는 아동 대상의 교육·보육·돌봄 및 서비스-시간-비용 지원으로서의 양육지원체계, 취약아동/가구 지원을 포괄함.
 - (단기적 접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육아분야 쟁점 3가지(①위험/재난 상황의 ECEC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개선, ②서비스-시간-비용 지원으로서의 양육지원체계 개선, ③취약위기 가구/아동 발굴 및 지원 시스템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 (중기적 접근)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가시화 된 육아분야 미래 어젠더(①기후위기 패러다임 전환, ②저출생 심화, ③디지털화, ④육아주체의 역량과 웰빙 중심 접근)를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
- 이 연구의 ‘자녀양육가구’는 막내자녀 기준 0~만9세(초등 3학년까지) 자녀를 둔 가구이며, 아동을 양육 및 돌보는 육아의 주체를 주 양육자 부 또는 모,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의 교직원으로 한하여 살펴봄.

2. 위드코로나 쟁점 및 포스트코로나 어젠더 분석

가. 팬데믹이 드러낸 육아분야 쟁점(문제점, 사각지대)

1) 육아분야에 미친 영향

- 아동, 가족에 미친 영향: 아동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돌아감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 재택근무 증가, 외부활동 제한,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시간 증가 등 가족 생활시간 사용 변화, 가족갈등 증가와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 양육비용 및 식비 증가 등 지출상의 변화
- 기관운영 및 교육·보육·돌봄에 미친 영향: 1) 휴원 장기화, 긴급보육,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교직원 역할 변화, 매뉴얼 및 지침 부재로 인한 어려움 등 운영 및 예산 관리상의 어려움 경험, 2) 공간 부족으로 인한 방역지침 준수 적용 어려움, 3) 방역에 대한 부담, 4)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5) 다양한 활동 부족 등
- 지역사회/전달체계에 미친 영향: 방과 후 기관, 학원, 위탁가정 및 드림스타트 등 가정내 양육사업의 휴원, 비대면 전환, 대면서비스의 최소화

2) 드러난 문제점과 사각지대

- 돌봄공백의 발생
 - 공식적인 교육·돌봄 체계의 휴업·휴원 조치로 돌봄의 (재)가족화 과정에서 자녀 돌봄과 학습의 공백 발생
- 학습·교육·발달 격차와 지연
 -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습시간 및 가용한 자원의 차이로 인한 격차
 - 비대면 원격교육의 진행이 아동의 학습격차를 유발할 가능성
 - 교사와 부모의 역량 차이, 가정의 물리적 자원 차이, 부모의 시간 제약, 부모의 교육수준 등 원격교육에서 아동 간 차이를 유발함.
 - 코로나19로 인한 부모 실직, 부부갈등, 스트레스 증가 등 위험요인 증가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 존재
 - 교육격차 확대, 언어/신체운동 발달 지연 및 미디어 노출시간 증가
 - 팬데믹의 돌봄공백 및 가정에서의 돌봄환경 차이 등으로 아동의 주요 행동

방식 변화와 경제선적 문제행동 증가 보고

□ 취약계층의 어려움 및 지원체계의 단절

- 장애 영유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 아동/가구 대상 지원체계(급식, 돌봄서비스 등)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아동학대 증가 등 위기가구 관리의 취약성 심화

- 가정양육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아동과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 보호자의 휴업/실직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아동학대의 위험성 증가. 동시에 아동학대 탐지와 조사 및 사례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아동학대의 발생/재발 위험을 높임.
-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학대 관련 서비스 중단 및 지연, 공적돌봄체계 휴원 등으로 위기가동 발견은 어려워짐.

나.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 어젠더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과 함께 육아환경의 주요 과제와 변화를 설명하는 어젠더를 통해 육아정책의 방향과 대응력 제고가 필요함.

1) 기후변화에의 대응

□ 변화하는 육아환경과 저출생의 파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미래 삶의 양식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에의 대응은 아동의 삶이 당면한 과제임.

- 환경을 고려한 탈인간주의(post-humanism)의 미래 삶의 양식을 고려하여, 미래세대 아동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 테크놀로지의 발전, 주기적 상시성을 갖는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과 회복력을 갖춘 교육과정과 평생학습 및 지원 체계를 갖추도록 함.

2) Digitalization

□ 온-오프라인 Blended educare system 이 적용되고, 디지털 환경이 교육·보육·돌봄 및 보호(위기가동 발굴과 지원)로서의 육아환경에 반영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와 대응을 고려한 양육지원체계를 모색

- 돌봄과 보호, 교육의 양육지원체계는 디지털 온라인 과정이 개별 아동과 가정에서 어떻게 긍·부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

3) 초 저출산의 심화

□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축소가 가져오는 변화를 수용 적응하는 뉴노멀의 전략이 필요함.

- 육아정책은 1) 코로나세대 아동의 코호트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보육·돌봄의 지원을 설계하고, 2) 인구(규모)의 관점에서 과거 100만명 대비 1/4로 줄어든 아동에 대한 전환적 접근을 통해 미래세대 아동과 자녀양육가구에 내재된 다층적 수요와 요구/어려움을 반영한 세밀한 지원체계 필요
- 일하는+일하지 않는 부모 대상의 양육지원을 포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보육·돌봄의 과정과 보호를 긴밀히 연계하는 보편적·포괄적 지원 체계로 발전하도록 함.

4) 웰빙/역량 중심 접근

□ 축소된 인구규모에 맞게 아동 중심의 접근 외에 부모의 웰빙과 양육역량의 지원, 교사의 웰빙과 전문성(역량) 증진이 중요한 과제임. 육아주체(아동, 부모, 교사)별 접근이 필요함.

-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교직원의 근로환경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교사복지 정책 필요

3.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 2020년 2월 이후 팬데믹기간 경험한 아동 돌봄 및 교육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의견과 개선방안에 대해 수요자 부모와 교직원(유치원·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의 의견을 조사하고 FGI를 실시하였음. 미래 예비부모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육아분야 미래 전망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조사함.

- 설문조사
 - 0~만9세(초등 3학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1,000명
 - 유치원 교사 405명, 어린이집 교사 401명,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101명
 - 18~29세 청년 300명
- FGI: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대상

□ 설문조사 및 FGI 면담조사 결과 시사점

- 코로나19 방역체계: 확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매도로 인한 사회적 위축과 통제
-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응체계
 - 과도한 지침과 지침 간 상충
 - 교사의 업무 가중과 어려움
 - 교육과정 운영의 주요 대응의 유아교육-보육 격차 심화
 - 개별 기관 및 교사 특성에 따른 격차 확대
 - 운영상의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 요구
 - 기관보육과 가정내돌봄, 부모양육의 관계 설정
 - 저출산과 팬데믹의 영향이 겹친 상황에서 기관운영 어려움 및 인프라 감소
- 긴급돌봄체계 점검 및 재난대응 시스템 제고
- 아동발달에 대한 회복/중재 대응 필요(Recovery, Resilience)
 - 아동의 학습 격차 가시화
 - 마스크 착용, 제한된 활동으로 인한 발달상의 어려움
 - 유·아동 생활시간 설계의 부재
 - 미디어 이용의 증가: 긍·부정 영향 공존
 - 부모 양육역량의 중요성 증대
 - 긴급돌봄 이용 아동 vs. 기관 밖에 머무는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 양육지원체계 개선
 -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위기를 반영한 지원체제로 개선
 - 지역사회 자생적 양육지원체계 구축 필요
- 취약계층 지원: 보호대상아동
 - 과도한 통제
 - 방역물품, 인력, 원격수업을 위한 공간 및 기자재 등 부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있어 대응 초기 극심한 어려움을 겪음.
- 온·오프라인 교육·보육·돌봄 과정 운영 체계 대비 필요

4.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①: 재난상황의 양육지원체계 개선

- 육아분야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드러난 주요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단중기 개선방안을 제시함.
 - ECEC(어린이집·유치원) 대응체계 개선, 시간-비용-서비스 지원의 양육지원체계 정합성 제고,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실행력 제고의 3개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함.

가. 어린이집·유치원 대응체계 개선방안

- 향후 유사 재난/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의 아동 교육·보육·돌봄(ECEC) 대응은 다음의 요소를 고려하는 (긴급) 돌봄체계로 정비
- 인력 운영 및 배치: 위험/재난상황의 추가인력 배치 기준 마련
 - 감염발생시 공백 대응을 위한 대체교사 운영 정비, 비담임교사, 보건인력 배치 보강
- 시설·설비 및 공간 운영
 - 놀이공간과 교실공간의 유연한 활용, 반/학급 내 아동 수 및 교사대아동 비율 축소 기준 필요
 - 교실/집단 크기의 소규모화를 통한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모색
 - 격리공간 확보 의무화 및 최소한의 면적 확보
- 교육·돌봄 서비스 운영의 변화와 타 서비스 연계 활성화
 - 긴급돌봄: 개별돌봄서비스 제공 및 부모가 자유롭게 다른 형태의 개별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돌봄 수요 간 서비스 연계 활성화
 - 비대면 수업 운영 제고 및 맞춤형 지원 필요: 소규모 운영 전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아동의 교육자원에 대한 접근성 제고, 아동의 흥미와 역량을 제고하는 질 높은 교육/놀이 콘텐츠 제공이 필요함.
 - 유치원/어린이집-가정 간 소통방식 개선: 영유아 건강, 감염증 대비 부모-교사 대상의 매뉴얼 개발과 공유, 소통의 체계화
- 재난상황 긴급지원체계 마련 및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지원체계 개선과 연계
 - 재난상황 시 인력배치와 방역체계 가동 및 방역물품 지원, 관련 시스템 개발

등 인력-예산-공간(시설설비 포함)-서비스 간 연계협력을 포괄하는 긴급지원 체계 마련

□ 긴급돌봄 및 교육·보육과정 운영

- 긴급돌봄 및 (휴원/휴업 시)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공통의 가이드라인 제공: 적용 기준과 실행 차이에서 발생하는 격차 해소 방안 마련
- 취학전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커리큘럼으로 (재난상황의) 긴급돌봄/긴급보육을 위한 편성·운영 기준/지침 필요. 긴급과정의 유보-유초연계 고려
-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지침이 적용가능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아동중심’ 교육을 실행·융합하는 교실 내 실천방법 모색
-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가정 및 온-오프라인 원격수업 연계에서 격차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제고하고 부모교육 병행 필요

나.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한 시간-비용-서비스 지원 개선

□ 일상 및 재난 상황의 지속가능한 아동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안

□ 빈곤예방을 위한 아동 중심의 소득보장제도 확충

-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 다자녀수당 도입
- 기존 선별적 수당의 적정성 검토: 증거 기반 상향조정 또는 대상 확대 필요
- 영아수당의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기관 이용 보육료·교육비 지원과의 정합성. 아동 1인당 단가로서의 보육료·교육비 지원에서 고정비용/인건비 지급 중심의 지원체제로 변화

□ 유연한 노동·돌봄 지원 체계 구축

- 돌봄관련 휴가 확충: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재난상황의 휴가일수 확대
- 유연한 노동시간 확보를 통한 소득지원 대책 마련: 줄어든 노동시간 대비 늘어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돌봄수당제 도입

□ 비대면 시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

- ICT, 인터넷 활용 서비스 확충: 1) 부모 육아 및 돌봄서비스 정보 제공 강화, 2) 데이터에 기반한 위기사례 아동 조기발견과 예방, 공공사례관리 체계 내실화

- 가정형 보호 체계 구축
 - 보호대상아동을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형 보호로 전환의 방향성: 단기적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각 시설에 외출, 활동 등에 대한 재량권 부여. 방역수칙에 대한 상세기준과 매뉴얼을 제공하고 현행 분리와 통제 위주의 아동양육시설 대응체계를 개선
 - 영유아 대상 가정형돌봄 체계 정비: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른 유연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충 필요(정기, 일시, 긴급 등),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한 틈새 보완
- 기존 공식적 돌봄체계에 긴급 대응 능력 확충: 상시 긴급 대응 및 돌봄체계 확보
 - 영유아대상 보육서비스
 - 상시 긴급돌봄이 가능하도록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과 연계
 - 주기적, 상시적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여유공간 확보와 공간/인력 운영의 대응 전략과 기준 마련
 - 지역사회 중심의 연속성 있는 취학 전-후 방과후돌봄 체계 가동
 - 학교중심의 교육·돌봄체계와 지자체 및 마을 중심의 돌봄인프라 정비와 관련 법적 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돌봄의 안전성과 연속성, 요구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가용한 돌봄인프라 간 협의체와 연계·협력 제고
 - 돌봄인력의 자격, 근로환경, 임금의 일원화 된 접근 필요

다. 사각지대 해소 방안: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

1) 위드코로나 개선 방안

- 본인 신청과 외부 발굴 사이에서 선제적 맞춤형 정보 제공
 - SNS, 문자정보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과 간단한 신청절차 안내를 통한 신청-발굴 사이의 중간단계 강화
 - 복지멤버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판정,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맞춤형 신청 유도

- 미취학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및 보편적 가정방문 체계 확립
 - 미취학 아동에 대한 빅데이터 정보 부족, 의사표현의 어려움으로 발견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타개책 실행
 - 영유아건강검진, 예방접종, 병원기록 등에 가중치 부여, 미취학 아동 관련 정보 보강, 미취학 아동학대 사건 집중 분석을 통해 학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연계
 - 가정방문 지속의 법적근거 마련 및 보편적 아동복지 지원 서비스 체계로 접근성 제고
- 수요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사정 전문성 및 재량권 강화
 - 통합사례관리 수행 조직: 읍면동 및 권역별 별도 통합사례관리센터 설치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팀 활용
 - 충분한 교육과 수퍼비전을 통해 초기방문 담당인력의 대응력과 전문성 향상
- 아동보호의 구심점으로써 학교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강화. 장기결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학대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속 협력
 - 아동복지시설 퇴소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가정방문 의무화, 학적정보 관리 시스템 개선, 지자체 아동보호체계 구축, 지역사회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다분야 간 통합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개선의 중기 과제
 - 빅데이터 한계와 보완사항 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실무자 교육 강화
 - 차등 대응체계를 통한 아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 강화
 - 담당 인력 확보와 적정 처우를 통한 위기 아동 누락 예방
 - 아동복지서비스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분절성 해결
 - 과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아동 돌봄서비스 도입

5.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②: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 대응 전략

-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재난 상황의 상시화와 함께, 저출생 및 4차산업혁명, 기후위기에의 대응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육아분야 주요 정책과 양육지원체계에 주요 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가. 저출생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육아분야 대응체계 정비

- (재난 대응력/회복력 제고 및 미래역량 증진 전략)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위험/재난 상황에서의 대응체계뿐만 아니라, 상시화 된 또다른 형태의 위험/재난 상황에서의 대응과 준비를 돕는 아동과 부모, 교사의 역량과 웰빙 관점의 재난 대응과 회복력 제고가 매우 중요
 - 아동 대상의 교육과정 운영, 교사교육과 부모교육의 과정에 재난 대응 및 회복력을 필수영역으로 하여 구체적인 콘텐츠 개발과 실행 필요
 - 기후위기에의 대응과 디지털화, 저출생 추세에서 발생하는 주요 시나리오별로 교육·보육·돌봄 및 양육지원체계의 대응력 제고를 위한 정비 필요
- (긴급 교육-돌봄체계 마련 및 연계) 앞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체계 정비와 함께 향후 유사 재난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다양한 교육-돌봄 수요(일시, 긴급, 틈새, 위기/재난 수요 등)를 충족하는 교육-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자체/지역사회의 협의체 활성화
 - 일상상황에서의 정례화 된 교육-돌봄 수요 파악을 통한 대응 및 재난상황의 단계별 교육-돌봄 수요 파악을 통한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협력 체계화

나.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 대응 전략

- 국가수준 교육과정 운영의 다변화 및 아동·부모 관점의 연속성 확보
 - 취학전 교육과정이 더 이상 기관-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머물지 않음에 따라, 교육돌봄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운영과 변화된 교육-돌봄 서비스 환경(학교밖, 기관밖, 가정밖)에서의 학습지원 체계화 및 격차 완화와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 중요

□ 확장된 지원체계 - 포괄적 육아종합지원체계로의 변화

- 기관 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 유관 협력체계와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 확대 방안
- 지자체 및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 함께 가동하여 공백과 결손 보완
- 경계선적 아동 증가에 따른 조기중재와 상담/치료 지원의 연계 체계화

□ 비용-서비스-시간 지원의 정합성 제고 및 비용지원체계 개선

- 저출생으로 인한 재원아동 수 감소가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아동 1인당 단가로서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고정비용 중심의 지원체계로 변화
 -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재정통합 이슈, 인건비-운영비 지원체계로의 변화, 비용산정에 기관 평가 및 운영 요소 반영과 컨설팅 장차 지원체계와의 연동, 부모 바우처 비용지원체계에 대한 검토 필요
- 영아수당 도입과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다부처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간 정합성 제고

□ 교육·보육·돌봄 및 보호의 통합적 접근

- 현재의 아동학대 의무신고 및 예방 체계와 실제 아동학대 발굴과 모니터링/신고에 관한 체계는 주요 주체 간에 실행단계에서 간극이 있으므로 이를 육아환경 내에서 상시 가동되고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보육·돌봄 및 보호 체계의 연동이 반영된 양육지원체계로의 전환 필요
- 분절되어 있는 교육-돌봄의 과정과 운영체계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통합적 접근과 논의 필요. 아동 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과 연계
- 일상 및 재난 상황에 필요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는 일상-긴급 돌봄 운영 기준의 마련.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일상 및 재난/위기 상황 별로 필요한 돌봄수요조사 실시 기반 구축

□ 저출생시대 역량과 웰빙에 기초한 양육지원체계

- 비용지원 및 서비스 공급 중심에서 돌봄권과 육아주체(아동, 부모, 교사)의 역량 및 웰빙을 지원하는 촘촘하고 개별화 된, 찾아가는 육아지원체계로 변화
- 일하는-일하지않는 부모를 포괄하는 양육지원-일하는 부모의 일가정양립 뿐만 아니라 일하지않는 부모의 양육의 질과 돌봄권의 역량/웰빙을 증진하는 양육 지원체계 마련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02 연구내용
- 03 연구방법
- 04 연구범위 및 연구의 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0년 2월 이후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육아 분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큰 규모의 제약과 균열을 경험하였다. 2021년에 들어서면서 방역체계가 정비되고 백신접종률이 증가하면서 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대비와 함께 팬데믹 제약과 봉쇄가 가져온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회복 전략의 마련이 논의된 바 있으나, 2021년 12월 현재에도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계속 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종식과 회복 전략이 마련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제 재난/위험 상황이 지속되고 그 영향이 누적되어있는 위드코로나 상황에서의 대응체계 개선, 그리고 팬데믹 종식 이후의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준비와 대응은 더욱 무거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팬데믹 초기 K-방역 모델은 사회 전반의 봉쇄조치(lock-down) 없이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성공적인 대응 체계로 대체로 그 효과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와 견주어 감염차단의 방역 효과 외에 사회경제적 체계의 운영, 그 중에서도 특히 육아분야를 살펴보면 현행 양육지원체계가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과정, 육아의 주체인 아동과 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했는가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팬데믹 하의 정부 대응체계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휴원 조치 하에서도 긴급보육의 제공과 보육료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가구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직원의 고용이 유지되는 기저선을 제공하였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하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과 대응에 필요한 방역 지침을 배포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방역의 대응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온라

인 원격수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놀이중심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누리과정 포털에 탑재를 지속하였으며, 놀이꾸러미 제공 등 취학전 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중심의 조치를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신속히 대응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도 지원 요건과 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휴업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휴가는 지원금 지급과 휴가일수를 확대 적용하였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각 계 부처의 돌봄 서비스의 제공과 운영, 현금지원, 돌봄 휴가 및 유연근로제와 같은 시간지원의 다양한 조합에도 불구하고, 개별가정과 아동, 교직원과 기관에서 경험한 돌봄의 공백과 어려움, 취약계층이 경험하는 양육지원체계에서의 소외와 사각지대는 상당히 컸다. 가정에서의 돌봄과 교육의 부담이 누적되고, 이로써 나타나는 교육격차와 아동학대와 폭력 등 위기아동의 증가, 주요 육아주체의 신체·정신 건강의 저해, 그리고 공적돌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은 다수의 연구결과와 실증자료를 통해 비판적으로 고찰될 바 있다(예: 김아름·박은영, 2020; 은기수, 2020; 정익중, 2020b; 조숙인·송하나·김연수·김주련·김문정, 2020;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 2020). 그러나 다수 논의에도 불구하고 방역 우선의 팬데믹 상황에서 육아와 돌봄 현장에서의 변화와 개선의 과제 도출은 더디고, 문제점으로 제기된 학습과 돌봄의 공백과 어려움, 사각지대 위기 발굴의 어려움은 현재에도 진행형이다. 따라서 팬데믹 경험을 통해 드러난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한 대응방안을 필요로 한다.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의 재난상황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촉매제로, 초 저출생 등의 시대적인 과제와 뉴노멀의 쟁점은 큰 틀에서 변화하지 않았다고 논의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팬데믹과 같이 상시화 된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의 구축 및 정비와 함께, 육아분야 미래 대응을 위한 중기적 관점의 방향성과 전환의 전략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팬데믹의 재난상황을 경험하면서 현재의 양육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파악하고, 2020년 2월부터 감염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육아분야의 양육지원체계가 육아의 주체와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 격차와 부정적 영향의 단면을 살펴보고 지속되는

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하고자 한다. 또한 뉴노멀의 시대적 과제와 요구를 담은 육아지원체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행 서비스-시간-현금 지원의 틀과 교육-보육-돌봄의 지원체계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감염위험이 고조된 재난상황에서의 양육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미래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양육지원체계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현 시점 적용 가능한 양육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육아분야에 드러난 문제점과 이로 인해 아동 돌봄과 교육 및 육아 전반에 미친 주요 영향(impacts)을 살펴본다.

둘째, 국내외 주요 정책 및 지원체계 고찰을 통해 위드/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요 쟁점과 어젠더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논의를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셋째, 주요 쟁점과 과제 도출을 통해 (1) 재난 상황에서의 양육지원체계 정비를 3개 연구내용(어린이집·유치원 대응체계, 시간-비용-서비스의 정합성, 위기아동 발굴 체계)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2) 육아분야 미래 어젠더와 뉴노멀에 대한 중기적 관점의 대응 방안으로 현행 양육지원체계에서 전환 및 재구조화가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로써 재난상황의 양육지원체계의 정비와 미래 어젠더를 반영하는 육아분야 정책 설계를 제안한다.

3. 연구방법

연구의 수행을 위해 다음의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하의 정부의 양육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코로나19가 아동과 가족, 교육과 보육, 돌봄 환경에 미친 영향과 이로 인해 드러난

문제점에 관해 고찰하였다. 관련 실태자료를 살펴보고, 국내외 대응정책을 고찰하였다.

둘째, 양육지원체계 전문가 및 현장실무자 자문회의와 수요자/종사자 면담(FGI)을 통해 양육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고, 재난상황의 지원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 의견, 육아분야 미래대응의 어젠더를 도출하였다. 전문가 회의 및 주요 정책 주체별(부모(아동), 기관, 취약부문 등) 면담조사를 통해 수요자 부모와 교육·보육·돌봄 인력 대상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육아주체(stakeholder)인 부모(1,000명)와 교육보육돌봄 교직원/인력(어린이집교사 400명, 유치원교사 406명,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101명)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과 아동 돌봄 및 교육 현장의 현황과 주요 쟁점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 분야별 요구와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청년세대(300명)의 우리사회 아동/돌봄 친화 정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취·학업과 결혼/출산 등의 생애주기 이행 및 미래 육아분야 대응과 양육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1-3-1〉 면담조사

구분	일시	대상	내용
부모 (아동)	4.28(수)	영아, 유아, 초등자녀 부모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주요 쟁점 - 유아녀가구의 자녀돌봄 현황 및 자녀의견 전달
	5.21(금)	영아, 유아, 초등자녀 부모	- 자녀연령별 서비스이용 및 양육 변화/어려움 - 부모 취업특성 고려 - 팬데믹 경험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의견
기관	4. 9(금)	대구지역 장애통합 어린이집 원장	- 특별재난지역 돌봄 경험 및 환경 - 장애아동가족 대상 지원과 대응 - 재난상황 장애통합어린이집의 과제와 요구
	4.13(화)	어린이집 원장	- 어린이집 긴급돌봄체계 점검 - 기관운영상의 쟁점 및 교직원 역할 수행 - 아동에 미치는 영향 등
	5.25(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 유아교육(교육부)-보육(복지부) 대응 점검 - 대응체계 유보격차 및 정단점 - 향후 개선 방안
지역사회	6.29(화)	돌봄공동체 운영자	- 지역사회 대응 현황 및 주요 현안 - 재난상황에서의 돌봄공동체 운영 - 주요 제언
아동양육 시설 및 관련 기관	9.16(목)	지역 아동복지협회 담당자	- 팬데믹상황의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체계 - 애로사항 및 주요 쟁점 - 향후 지원방안
	9.23(목)	아동양육시설	- 재난상황에서의 운영 현황 및 지원체계

구분	일시	대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및 주요 쟁점 - 향후 지원방안
	10. 5(화)	한국아동복지협회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에서의 운영 현황 및 지원체계 - 문제점 및 주요 쟁점 - 향후 지원방안

〈표 I-3-2〉 전문가 자문회의

구분	일시	구분	내용
전문가 자문회의	1차	ECEC분야 (교육·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주요 쟁점 파악 - 연구의 방향성
	2차	양육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정책 - 취약계층 지원체계 점검
	3차	취약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 시설양육 아동, 한부모가족에 대한 논의 등
	4차	양육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상황의 양육지원체계 개선방안 - 포스트코로나 미래대응 정책제언
원내멘토링	1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주요 쟁점 - 연구설계 및 방향성 논의
	2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주요 쟁점 - 유아녀가구의 자녀돌봄 현황 및 자녀의견 전달

〈표 I-3-3〉 설문조사 내용

조사대상	조사내용
0~9세(초3)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취약가구 유의표집, 고용·노동 특성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자녀 돌봄 현황(서비스 이용) 및 변화 • 코로나19 이후 교육·보육·돌봄 공백과 결손 및 그 특성 • 육아지원 수혜 및 정부 지원과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 코로나19 팬데믹이 자녀돌봄과 아동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팬데믹이 일가정양립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이후 육아분야 중장기 미래 전망 및 대응 • 코로나19 이후 재난상황의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어린이집·유치원·아동양육시설 교사/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기관 운영 및 이용 변화 • 코로나19 이후 정부 대응 및 지침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체계 점검·평가) 긴급돌봄체계 • 교육·보육·돌봄 과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과 쟁점 • 교직원 역할과 지역사회 연계 • 코로나19 팬데믹이 기관운영/교직원 및 돌봄인프라에 미친 영향 • 코로나19 팬데믹이 자녀돌봄 및 아동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이후 육아분야 중장기 미래 전망 및 대응 • 코로나19 이후 재난상황의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의견
청년 조사 (18~2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업 현황 및 계획, 일을 그만 둔 경험 • 현재 삶의 만족도 및 2040년 우리사회 미래 전망 • 결혼/출산/입양/위탁양육에 대한 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및 적응 • 본인 생애주기 이행 현황 및 계획, 우리사회 돌봄친화정도 • 코로나19 이후 육아분야 중장기 미래전망 및 중요 과제

4. 연구범위 및 연구의 틀

이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기와 ‘양육지원체계’라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과제로 주요 쟁점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드러난 육아분야 과제와 쟁점의 파악을 통해, 그러나 제한된 연구 기간의 과제 수행을 고려하여 다음의 연구내용을 범위로 설정하였다.

첫째, 지난 2년간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내돌봄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의 긴급돌봄체계를 통해 이루어진 아동의 돌봄과 교육의 과정을 살펴보고,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기관 서비스 중심의 팬데믹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파악한다.

둘째, 육아분야 주요 쟁점으로 돌봄의 공백과 학습 격차, 취약계층의 어려움, 그리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관해 논의하고, 팬데믹 기간 드러난 아동 발달의 지연과 결손, 사각지대를 파악한다.

셋째, 자녀양육가구의 변화하는 고용·노동 특성과 자녀 돌봄 및 교육에의 요구/수요를 고려하여, 이를 충족하는 서비스-비용-시간 지원으로서의 양육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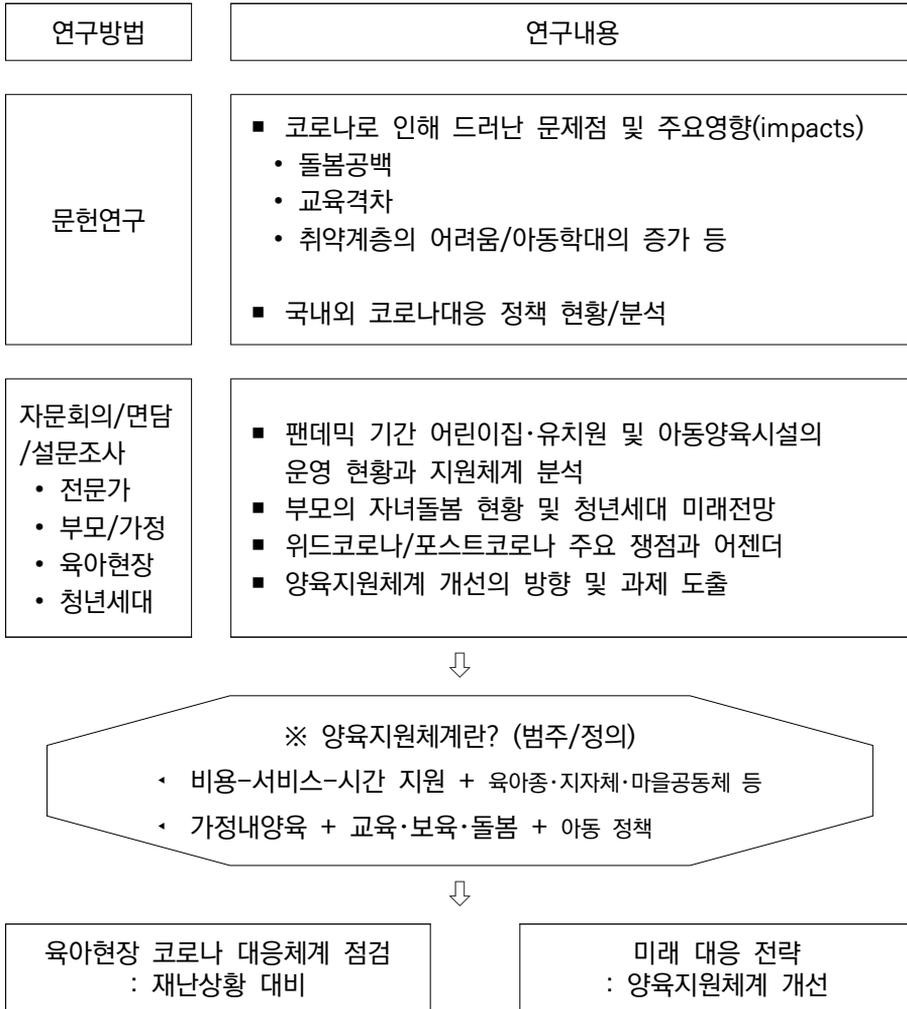
넷째, 재난 상황을 통해 드러난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서의 아동학대 등 취약·위기 아동/가구의 발견과 중재, 지원에 관한 쟁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다섯째, 미래 예비부모라 할 수 있는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생애주기 이행에 대한 의견 분석을 통해, 육아정책의 확장성과 연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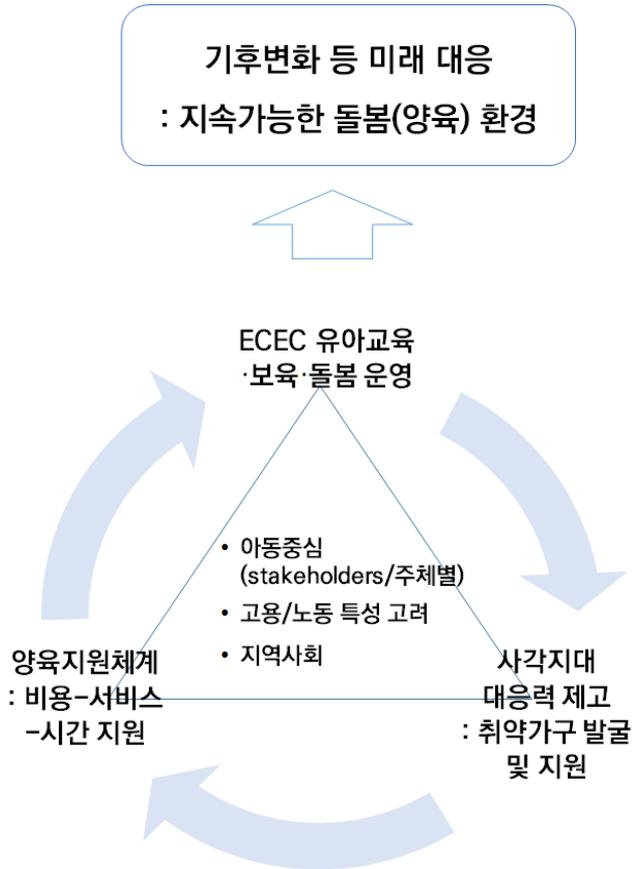
아동 대상의 교육·보육·돌봄의 서비스 제공과 양육지원체계에 관하여 (1) 기관(공급자/종사자)의 관점에서 팬데믹 상황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의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의 제공과 운영의 개선점을 살펴보고, (2) 부모(수요자)의 관점에서 재난상황과 변화하는 노동 및 돌봄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비용-시간 지원인지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팬데믹 이후의 변화된 육아환경과 요구(needs)를 반영한 육아정책의 개선 방안을 재구조화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연구추진의 과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I-4-1, 그림 I-4-2 참조).



<그림 I-4-1> 연구진행 개념도



〈그림 I-4-2〉 연구의 틀



II

육아분야 국내외 팬데믹 대응 정책

01 국내 팬데믹 대응 정책

02 국외 팬데믹 대응 현황

II. 육아분야 국내외 팬데믹 대응 정책

1. 국내 팬데믹 대응 정책

2020년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팬데믹의 상황으로 인해, 취약한 높은 ECEC 이용률과 접근성, 공적 돌봄체계의 확충으로 성장과 확대선상에 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의 제공과 교육과정의 운영이 크게 위축되었다. 강화된 소독 및 방역 체계 하에서 긴급돌봄과 제한된 교육·보육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기존의 유아 교육·보육의 운영 방향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감염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인지, 교직원의 고용 유지 및 반/학급 구성의 변화, 교육·보육 과정과 긴급돌봄의 운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쟁점이 있었는지 그 간의 정부 대응을 유아교육·보육 정책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 자료를 통해 점검하였다.

가. (중앙)정부의 육아지원 정책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교육과 돌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대응 보육·교육 정책¹⁾

가) 보육정책-어린이집 대상 조치

(1) 어린이집 대응지침 배포

코로나19 감염 팬데믹 상황 이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대응지침(1~9판)을 배포하였으며, 여기에는 소독 기준과 방역 업무의 수행, 일시 폐쇄와 휴원 실시와 보

1)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 2020)의 유치원·어린이집 대응 부분을 참조 및 내용을 업데이트 구성함.

육공백의 방지 조치, 시간제보육 등의 어린이집 운영 안내,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평가 및 교직원 교육 진행에 대해 공지하였다(최윤경 외, 2020: 25).

〈표 II-1-1〉 어린이집 대응지침

단계	일시	개요	내용
주의→경계	20. 1.27	어린이집 초기 대응요령	초기 대응요령 및 일시폐쇄·휴원 기준 안내
	20. 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대응요령 긴급 배포	전면 휴원 실시, 출입제한 강화, 방역책임자 지정, 물품 지원(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통한 자체 방역관리 실시. 어린이집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중국 후베이성 방문시 2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 자체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출석으로 인정, 보육료 지원
	20. 2. 3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배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다중이용시설 및 집단시설 대응지침 배포(중수본)에 따른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누리과정 처우개선비/운영비 지급 유예기간 연장 * 어린이집 대응요령 추가 안내(2.6.)
	20. 2. 5	어린이집 소독 기준 안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소독 지침(평시 및 소독/감염병발생(유행시) 구분) 안내
경계→심각 (20. 2. 23)	20. 2.24	어린이집용 대응지침(II 판) 배포	위기단계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II 판 배포
	20. 2.27	어린이집용 대응지침(III 판) 배포	등원중단 및 업무배제 범위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III 판 배포
휴원 연장 (3월)	20. 3.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IV 판) 배포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보완 배포 - 접촉 최소화,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 등 방역 강화, 구입이 어려운 방역물품(마스크) 현물 지원
휴원 장기화 (4월)	20. 4. 6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보완	어린이집 대응지침 보완 - 개정사항 안내(4.6.) 밀집도 완화, 가정양육 콘텐츠 제공, 방역물품 추가 지원
	20. 5.29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전국 단위 휴원 해제, 지역별 개원·휴원 결정으로 전환.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은 휴원 연장 휴원 연장 지역 긴급보육 계속 실시 매일 2회 교직원 및 아동 대상 발열 체크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 프로그램 운영 확진자/접촉자 발생 시 해당 어린이집 일시폐쇄(출입금지) 아동 마스크 의무사항 아니나, 착용 권고
수도권 2.5 단계 시행	20. 8.28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된 방역조치(휴원) 시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휴원 권고) 이후, 어린이집 휴원과 긴급보육 이용 최소화(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 제한). 외부인출입/집합교육 금지.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교대근무). 가정돌봄 콘텐츠 안내(EBS,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단계	21. 3.31	어린이집 방역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300,353명, '21.3월 기준)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수검사(PCR) 실시(4.1~) 보육교직원 대상 백신 접종 실시(4.8~) 및 접종이상반응 시 유급 휴가 제공

단계	일시	개요	내용
수도권 4단계 시행	21. 7. 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휴원) 이후, 어린이집 휴원과 긴급 보육 이용 최소화(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 원 제한). 긴급보육 이용 시 꼭 필요한 일자, 시간 동안 만으로 최소화. 외부인출입/특별활동/외부활동/집단행사/ 집합교육 금지.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교대근무). 가정돌 봄 콘텐츠 안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공지사항)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1. 8.20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Ⅷ-2판) 배포	원내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어린이집 청소, 공기 정화, 수시환기 기준 강화 (특별활동) 외부강사 출입관리 기준 안내 (휴원 명령) 지자체장 결정, 휴원시 긴급보육 제공 (일시폐쇄) 확진자 발생 시 최대 14일간 (외부인 출입관리) 2~3단계 자제원칙, 4단계 금지원칙 (등원·출근 중단) 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방문력 등 사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제한 조치
4단계	21.10. 7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Ⅷ-3판) 배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정에 따라 어린이집 단계별 조 치사항 준수 및 지자체장 자율결정. 수동감시대상자/자가격리중인 경우 등 보육교직원 해당 기간 출근 중단 기준 안내. 원내 확진자/접촉자 발생 시 어린이집 일시적 이용제한 및 휴원 기준 안내
위드 코로나	21.11.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Ⅸ판) 배포	(21.11.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종료 안내 - 다만, 미접종취약영유아 대상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은 유지 - 동시에 백신접종완료자 중심 방역조치 점진적 완화와 미접종 외부인 관리 강화를 발표 - 지자체장 지역의 코로나 발생 현황을 고려하여 휴원, 재개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

자료: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p.26-27 <표 II-1-1> 일부 내용 재인용 및 업데이트 구성함.

- 1) 보건복지부(2020.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 2) 보건복지부(2020. 2.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I 판.
- 3) 보건복지부(2020. 2.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II 판.
- 4) 보건복지부(2020. 3.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V 판.
- 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 3. 3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
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 6)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 7. 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 7) 보건복지부(2021. 8.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Ⅷ-2판.
- 8) 보건복지부(2021. 10.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Ⅷ-3판.
- 9) 보건복지부(2021. 11.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Ⅸ판.

2020년 어린이집 휴원 조치와 함께 실시된 긴급보육의 경우, 대응지침 1판과 안전돌봄 지원 안내2)를 통해 긴급보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
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의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고 개별 가정의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 19 안전돌봄 지원

돌봄부담이 커짐에 따라 긴급보육의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10.0%(2.27), 28.4%(3.23), 55.1%(4.23), 72.7%(5.29)³⁾, 이후 (2020년 8월)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집단감염이 전국 대유행의 확산으로 위험수준이 고조됨에 따라, 긴급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하도록 등원 제한 조치를 하였다⁴⁾.

이후 2021년 중반 4차 대유행 및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응지침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및 관리 기준의 강화를 안내하고, 가정내돌봄을 위한 자료 안내에 관한 내용도 제시하였다. 2021년 지역별로 감염 전파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의 적용의 차이가 유진됨에 따라, 지자체 장의 책임 하에 관할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어린이집의 휴원 및 재개원 등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2)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보육공백 방지 조치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 등원 시 독립반의 편성, 접촉 최소화를 위해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거리를 확보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마스크와 소독제 등 물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결석 시 보육료와 인건비, 수당이 정상 지급되도록 하였다⁵⁾.

그러나, 2020년 8월말 이전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대근무 등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으며 (필수노동자 논의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와 보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소독·방역(매일 2회이상 발열체크 등)과 등원/미등원 아동에 대한 가정돌봄지원 및 모니터링과 같은 업무가 부가됨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으며,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의 연장과 가정내돌봄의 권고로 어린이집 등록을 취소하고 가정양육수당을 수령하는 아동이 증가하여 재원 아동의 감소로 인한 기관 운영과 교사 고용 유지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2021년 3월 어린이집 내 이용자와 종사자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전수검사를 실시와 예방접종, 이상반응 시 유급휴가의 제공, 이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 수요 조사를 통한 긴급보육의 운영과 교사배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을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5. 29). 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8. 28).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원제한 등 조치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22).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

마련하였다.

한편 2020년 11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5단계까지는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 휴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각 단계별 어린이집 운영은 1단계에서는 정상운영, 1.5~2.5단계는 가정내돌봄을 권고하며, 3단계에서는 긴급보육을 실시하되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특별활동, 외부활동, 집단행사 및 교육, 외부인 출입관리 등은 1단계만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하고, 1.5단계, 2단계에서는 자제 원칙, 2.5단계, 3단계에서는 단계별로 자제 또는 금지해야 한다.

〈표 II-1-2〉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어린이집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구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자체	기본 방향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관할 어린이집에 휴원명령 또는 상위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어린이집 조치 시행 가능			휴원 명령
어린이집	운영		정상운영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접촉의 최소화	특별 활동	가능 *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자제 원칙 -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 이력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간 밀접 접촉 최소화 *보호자 동의 필요		금지
		외부 활동	가능 *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자제 원칙 -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 두기 준수, 밀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 서 진행 *보호자 동의 필요		금지
		집단행사 및 교육	가능 * 생활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취소 및 연기 원칙 -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 보호자 동의 필요		취소 및 연기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가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자제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		금지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 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 에서 작업하도록 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 1. 7.). 보건복지부 1차관,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
〈붙임 2〉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사항.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및 인건비 지원을 지속하였다. 인건비 현원 기준을 완화 적용하였으며, 보육료 출석인정 및 인건비 지원 특례 조치,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 완화 등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교직원의 근속 유지를 위한 변화된 비용지원체계를 적용하였다(최윤경 외, 2020: 29). 또한 교직원이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유로 휴무 시 근무일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어린이집 현원 감소와 미입소에 따른 인건비 지원 적용 기준 유예,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 실적과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출석 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미적용, 대체교사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최윤경 외, 2020: 29). 연장보육교사 복무와 임면관리 안내, 코로나19로 출석아동 감소 상황에서 급간식 재료비 최저기준 적용과 절감분 사용을 안내하였으며, 휴원기간 보육료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직원의 복무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고 휴원기간 유급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안내하였다.

나) 교육정책-유치원 대상 조치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수업 운영에 관한 학사운영 위주의 조치를 취하고, 교육청 및 자자체와 협의하여 초·중등학교 대응과 연계된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부는 2020년 유치원의 개학을 수차례 연기하던 방침에서 벗어나 이후 단계적인 등교수업의 적용과 원격수업의 진행을 적극 실행하는 조치를 취했다(최윤경 외, 2020: 31).

(1) 유치원 학사운영-원격수업의 확대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은 우선 원격교육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교육부는 2020년 3월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27.). 해당 기준은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3. 27.). 원격수업 확대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 운영,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 점진적 확대, 주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를 추진함을 발표하였다(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 2020. 9. 15.).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교육부 2020. 7. 31. 발표)는 유치원 및 초·중·고에 적용되는데, 1단계(등교·원격수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도 유지 권장), 2단계(등교·원격 수업, 유·초·중 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3단계(원격수업 또는 휴업, 전국단위 조정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으로 구분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8. 16.).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세분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등 등교 원칙은 1단계(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1.5단계(밀집도 2/3 준수), 2단계(밀집도 1/3 원칙,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밀집도 1/3 준수), 3단계(원격수업 전환)로 조정, 구분되었다(교육부 보도 참고자료 2020. 12. 6.).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에 따라 원격수업 범위와 시행도 달라지게 되었다.

원격수업 확대에 따라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와 같은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이 활용되었으나, 접속 지연과 학생 초대 링크 발송 기능 오류 등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불편을 경험하였다(MBC 뉴스, 2021. 3. 10.).

〈표 II-1-3〉 유치원 학사운영 관련 조치

일시	구분	내용
20. 2. 23.	전국 유치원 개학 연기 결정(1차 개학연기, 1주간)	2020. 3. 2.에서 3. 9.로 개학 1주 연기 결정
20. 3. 2.	전국 유치원 개학 연기 결정(2차 개학연기, 2주간)	2020. 3. 9.에서 3. 23.로 2주 추가 연기 결정
20. 3. 17.	전국 유치원 개학 연기 결정(3차 개학연기, 2주간)	개학 2주간 추가연기 - 전국 학교 4월 3일까지 휴업기간 연장 -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20. 3. 31.	전국 유치원 개학 연기 결정(4차 개학연기, 무기한)	유치원생의 발달 단계와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상 온라인 개학이 불가능하며, 등교 개학 시 감염 통제 어려운 점을 고려 - 학부모 및 유치원 대상 개정 누리과정 연계한 놀이 지원 자료 안내
20. 5. 4.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유치원 등교수업을 생활속거리두기 시행 이후 2주 경과한 5. 20.(수)로 결정 - 원격수업 적응이 어렵고, 교육격차 문제, 가정의 돌봄 부담과 함께 상대적으로 활동 반경이 좁고 부모의 보호가 수월 등교 수업 대비 학교 방역 준비
20. 5. 7.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등원수업 곤란 시 원격수업을 통한 유아의 학습 지원과 출결 및 건강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일시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원개학 이후 등원이 중지된 유아 및 고위험군 유아, 출결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인정' - 유치원 여건에 맞는 원격수업계획 마련(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및 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놀이꾸러미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지원)
20. 5. 24.	유치원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개학 준비	<p>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돌봄) 탄력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유치원 여건에 따라 등원·원격수업 병행 등 밀집도 최소화 방안 마련하여 운영 <p>유치원 원격수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학부모 도움자료 제작·공유, EBS 교육 방송 콘텐츠 6월 연장 제공 계획 <p>유치원 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 환경 조성 및 통학버스 차량 내 거리 두기 방안 등 마련
20. 7. 9.	<p>등교수업 현황 자료(7. 9)</p> <p>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p>	<p>(유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p> <p>학생 미등교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학기 코로나 대비, 방역·학사일정·원격교육환경 협력 논의 -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 마련 시행령개정추진 -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권역별 지역포럼 및 간담회 공동개최
20. 8. 11.	교육안전망 강화 방안	<p>2학기 개학 앞두고 교육(학습)-방역-돌봄의 통합 안전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교육지원청에 감염병/방역 전문가 배치 - <학습격차> 줄이기 위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수석교사의 온오프라인 컨설팅, 등교/원격수업 방식의 집중지도 및 2학기 부터 소그룹별 대면지도 - 교사 수업준비에 전념하도록 원격수업 인프라구축과 테크매니저 배치 추진
20. 8. 25.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전환	<p>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8. 18 ~ 9. 11) 및 원격수업 전환.</p> <p>수도권 외 지역 밀집도 2/3 유지 강력 권장, 시도교육청/학교에 방역전문가와 지원인력 배치</p>
20. 8. 27.	<p>5개 부처,</p> <p>「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발표</p> <p>(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p>	<p>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7. 2) 일환으로, 디지털 공동체 실현-4대 전략, 12개 세부과제</p> <p>온·오프라인 융합 미디어교육 인프라 전국 확대-유아 미디어교육 강화/놀이형 프로그램·교구 개발</p> <p>누구도 미디어교육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서비스 제공</p>
20. 9. 15.	<p>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관련</p> <p>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p>	<p>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9월 21일(월)부터 10월 11일(일)까지 수도권 포함 전국 유·초·중 1/3 이내, 고교 2/3 이내에서 등교수업 실시</p> <p>원격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 운영,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 점진적 확대,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와 상담하는 등 원격수업의 질 제고 및 교사-학생 간 소통 강화 추진</p>
20. 10. 11.	<p>추석 연휴 특별</p> <p>방학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p>	<p>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부 학사운영 조정: 학교 밀집도 2/3 원칙에서 시도·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 가능, 대형학원 집합금지 해제</p>

일시	구분	내용										
		거리두기 단계별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및 학교밀집도 조정 절차와 방역수칙 강화, 초등 저학년 중심의 등교수업 확대 방역인력 1만명 추가 배치(총 4.7만명), 특수학교(급) 등교확대·돌봄 강화										
20. 1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table border="1"> <tr> <td>1단계</td> <td>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td> </tr> <tr> <td>1.5단계</td> <td>밀집도 2/3 준수</td> </tr> <tr> <td>2단계</td> <td>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td> </tr> <tr> <td>2.5단계</td> <td>밀집도 1/3 준수</td> </tr> <tr> <td>3단계</td> <td>원격 수업 전환</td> </tr> </table>	1단계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 수업 전환
1단계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 수업 전환											
20. 12. 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 수준으로 준수 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학교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내에서 학교 밀집도 등을 조정하며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 가능										
21. 2. 18.	교육부, 안전한 신학기 개학·개강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	2021학년도 학사 및 수업 운영 점검: (등교 확대) 돌봄·진학준비 등 사회적 요구와 발달단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유치원, 초등 1·2학년, 고3, 특수학교(급) 우선 등교 ※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원칙 적용 제외 가능										
21. 3. 18.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 발표	새 학년 학교 등교상황 및 방역 지원상황 점검 실시 6월, 8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 돌봄인력 대상 예방접종										
21. 8. 9.	2학기 학사운영 방안-단계적 등교회복을 통한 교육회복-	(개학 시점) 거리두기 4단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 중심 부분등교 (9월 2주) 거리두기 3단계 전면등교 가능 및 4단계 학교급별 2/3 내외										

자료: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표 II-1-6> 일부 내용 재인용 및 업데이트 구성함.

- 1) 교육부 보도자료(2020a. 8. 11.).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 2) 교육부 보도자료(2020. 8. 25.).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적극적 조치로서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 3) 관계부처 합동보도자료(2020. 8. 27.).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
- 4) 교육부 보도자료(2020. 9. 15.).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관련 교육부-시도 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 5) 교육부 보도자료(2020. 10. 11.).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 6) 교육부 보도자료(2020. 1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 7) 교육부 보도자료(2020. 12. 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 8) 교육부 보도자료(2021. 2. 18.). 교육부, 안전한 신학기 개학·개강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
- 9) 교육부 보도자료(2021. 3. 18.).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계획 발표
- 10) 교육부 보도자료(2021. 8. 9.). 2학기 학사운영 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

2020년 2학기부터는 등교를 확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세분화에 따라 등교 기준을 재정비하였다. 1단계, 1.5단계에서는 밀집도 2/3, 2단계, 2.5단계에서는 1/3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3단계부터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2021년 1

학기에는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은 사회적 요구와 발달단계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등교하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원칙에서 제외하고 정상 등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감염 예방을 위해 교사 및 돌봄인력 대상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년 1학기 평균 등교율 현황은 유치원 89.6%, 초등학교 74.6%이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8. 9.).

교육부는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한 2021년 2학기 전면등교를 공표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8. 9.). 개학 시점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년을 중심으로 부분등교를 추진하고, 2021년 9월 2주부터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전면등교를 가능하게 하고, 4단계에는 학교급별로 2/3 내외로 등교하게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8. 9.).

(2) 돌봄서비스 확대

교육부는 2020년 1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긴급돌봄 운영에 이어 2학기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8. 27.). 당시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및 단위 학교 여건을 고려,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코로나 상황을 고려,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용범위 초과 시 저학년 맞벌이 가정 우선 고려 검토)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하며, 돌봄이 필요함에도 우선 수용이 안되는 경우, 학교별 신청자 대기 명부를 작성하는 등 단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 인원을 확충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 8. 27.). 또한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교에서는 등교하여 원격수업을 받게 되는 돌봄 학생들에게 점심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나(교육부 보도자료, 2020. 8. 27.), 현장에서는 학교급식의 제공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과정을 거치지 않은 1학년의 경우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에 대한 이용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한계점이 나타난 바 있다(최윤경 외, 2020: 39).

다)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인정 근거 신설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국공립유치원의 약 90%)의 경우 수업일수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와 방학기간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 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b. 8. 11.).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의 발생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에서 감축할 수 있으며,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 또는 휴원 기간을 수업일수에서 줄일 수 있게 되었다(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또한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유아교육법 제12조제2항).

라) 한시적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⁶⁾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취학전 아동의 기관 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휴원·휴업·휴관 조치로 사실상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정책적으로 권고되었다. 즉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공기관 등 기존 돌봄, 교육기관의 휴원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내 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유연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 지원 강화를 통해 가족내 시간지원을 강화하며, 유아녀가구 소득 및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등을 제공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유치원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실시하였다.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조치를 살펴보면, 가정내돌봄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건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실시한 것이 주요한 가운데, 초등돌봄교실의 긴급돌봄 운영과 아이돌봄

6) 정부합동 보도자료(2020. 2. 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서비스의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등학교 취학과정을 거치지 않은 1학년의 경우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적응이 이루어지기 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에 대한 이용이 떨어지는 제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초등돌봄의 경우, 긴급돌봄의 운영시간은 기존 일과 시간에 준해서 17시까지 운영하며, 돌봄교실은 감염증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당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되, 10명 내외로 배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이후 돌봄시간을 저녁 19시까지 운영으로 확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학부모의 긴급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하였다. 긴급보육은 통상의 보육시간인 오후 19:30분까지 운영하며, 긴급보육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 또한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도록 조치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에게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의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하고, 아이돌보미서비스를 확충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개원·개학연기 등으로 인한 돌봄 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사업은 휴원·휴업 시 양육돌봄의 공백을 경험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이용이 가능하도록 비용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휴업 조치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였다⁷⁾. 2020년 9월 기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휴원·원격수업을 하게 될 경우 평상시 정부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라형을 포함한 모든 유형(가~라)의 가구에게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하였다⁸⁾. 2021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비율은 5%p 상향하였다(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⁹⁾. 의료진과 방역 인력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시간과 요일의 제한 없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 0%~85%에서 40%~90%로 확대하였다¹⁰⁾. 2021년부터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7)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2. 28).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8)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1. 19.).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1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2. 23.). 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비율을 5%p 상향하였고, 2021년 9월부터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에게도 5%p 상향하여 최대 90% (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¹¹⁾) 지원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고용노동부)에 아이돌보미를 포함시켜 2021년 3월부터 아이돌보미에게 50만원의 한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 그러나 아이돌보미 대상 예방접종 계획 수립이 지연 되는 등의 어려움이 지적된 바 있다.

마)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 등 시간 지원¹³⁾

코로나19로 자녀를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어린이 집 및 유치원의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른 부모들의 직접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맞벌이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임시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로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 정부의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 10인 미만(39.1%, 20,799명)과 10인-100인미만(27.1%, 14,402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업종별로는 제조업(24.8%, 12,226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6.5%, 8,771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사용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였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대상과 증빙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토록 하였다.

1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7. 24.).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p 상향.

1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7. 7.).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계기,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 점검.

1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지원확대.

〈표 II-1-4〉 가정내 자녀돌봄 지원

구분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와 한부모가족 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시간) 휴원·원격수업으로 인한 돌봄은 연 720시간 한도에서 제외, (지원비율) 0~85% → 40~90% - 2021년부터 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 (지원시간) 720시간→840시간, (지원비율) 종일제 가형 80%→시간제 나형 55%→60%,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5%p 상향, 최대 90%까지 지원(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 - 의료·방역인력 특별지원: (지원시간) 시간과 요일의 제한 없이 이용 가능 (지원비율) 0~85% → 60~90% -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긴급돌봄 제공: (공동육아나눔터) '20년 268개소 → '21년 332개소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고용노동부)에 아이돌보미를 포함시켜 2021.3부터 한시지원금(50만원) 지원
가족돌봄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 최대 10일의 휴가 신설 - 자녀 양육 사유로 사용 가능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 - 1인당 일 5만원(한부모 및 부부 합산 최대 10일)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 보장,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근로시간 단축 1년 보장(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2년) -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 -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지원기준 한시적 대폭 인상> *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40만원 * 임금감소보전금: 월 24, 40만원 → 40, 60만원 * 대체인력 지원금: 월 30, 60만원 → 30, 80만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연근무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지원대상 - 활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최대 520만원 지원
특별돌봄쿠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만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를 대상 - 아동 1인당 4개월, 40만원 상당의 돌봄 쿠폰을 지급
아동특별돌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 - 아동 1인당 20만원의 현금을 지급

자료: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표 II-1-10〉 일부 내용 재인용 및 업데이트 구성함:

-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15.).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
-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11. 22). 코로나19 극복, 돌봄·가족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1. 19.).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2. 23.). 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5)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7. 24.).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p 상향.
- 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9. 24.).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바) 일시적 아동돌봄가구 현금성 지원 - 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등 영유아 돌봄서비스 기관의 휴원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4월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형태의 '아동돌봄쿠폰'을 제공하였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183만 명의 보호자에게 아동 1인당(약 230만명) 40만원의 돌봄포인트로 지원되었다¹⁴⁾.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쿠폰 지급이후 4월 동안 지급액의 약 43.5%인 4,100억원을 사용하였고, 동네마트, 일반음식점, 의류·잡화, 병원·약국 등에서 전체 소비의 72%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¹⁵⁾.

또한 정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 5. 3.). 2020년 3월에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을 지원하였으며(보건복지부, 2020), 2020년 9월에는 미취학아동 약 252만명과 초등학생 아동 약 28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을 지급하였다¹⁶⁾.

2) 코로나19 어린이집·유치원 대응체계 점검¹⁷⁾

가) 긴급돌봄체계 운영의 실효성

팬데믹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긴급돌봄의 이용률이 상승세를 지속하여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5월말 긴급보육 이용률이 전국 평균 약 72%로 나타났다. 이로써 감염위험단계에서의 긴급돌봄의 의의와 실효성이 제대로 작동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거리두기 심각 단계별로 감염위험의 심각 수준에 따른 필수인력(Essential Workers) 우선순위 등 세분화 된 긴급돌봄 운영과 이용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1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1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5. 11.). 아동돌봄쿠폰으로 동네 상권에 활력 불어 넣다.

16)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9. 24.).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17)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최윤경·문무경(2020). 코로나19와 영유아 교육보육돌봄(ECEC) 대응 전략 보고서 내용을 재구성 함.

둘째, 긴급돌봄에 등원하는 아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별도의 긴급돌봄 제공, 온라인 원격교육이 병행되어 이루어짐에 따라 교사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최윤경 외, 2020). ‘긴급돌봄 운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등원하는 아동의 마스크 착용과 발열검사 등과 같은 ‘감염예방과 건강수칙 이행’이 어렵다는 응답이 공통 40% 이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에서는 ‘교육과정의 운영(18.9%)’을, 어린이집에서는 ‘교직원 감염예방(18.4%)’으로 나타나 교육·보육과정의 운영과 커리큘럼에 대한 고민과 대응에서 차이를 보였다(최윤경 외, 2020: 77).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준비와 전달이 가장 안 된 부분’에 대해 유치원의 경우 ‘가정내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지침’과 ‘긴급돌봄 운영 지침’의 순으로 대응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가정내돌봄 아동 모니터링 지침’과 기관 ‘비용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에 이어 긴급돌봄 시 아동 보호와 교육에 관한 상세지침이 부족하다는 응답(10% 이상)으로, 두 기관 간에 차이를 보였다(최윤경 외, 2020: 80).

재난상황에서 교육보육과정의 커리큘럼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제공, 온-오프라인 원격교육 병행, 그리고 가정내돌봄 지원과 방역·소독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이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지원체계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 하겠다.

나) 아동중심 심리방역과 바깥놀이/신체활동의 기준 마련

교직원의 업무 과중과 함께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어느정도+상당히’ 그러함: 원장/교사 응답률 80% 내외). 재원 아동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설문조사 결과 약 40%로 응답되었다(최윤경 외, 2020: 82)¹⁸⁾. 동 연구결과를 통해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리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감염위험으로 인해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룹활동 대신 아동 혼자놀이가 위주로 진행되며 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이 제한되는 교육·보육 과정의 운영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어

18) 2021 본 연구조사 결과에서는 영유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10%대로 감소함.

있으며, 장기간 가정내양육에 머물던 아동 중 일부는 과도한 미디어 사용과 교육적 자극의 증가로 인해 사회정서의 발달과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보인다는 유치원·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이 있다¹⁹⁾ 연구의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대상 FGI 면담).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 되고 조기 종식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지속적인 대응을 위한 심리방역과 면역력 증진을 위해 영유아의 소통과 상호작용, 신체활동과 바깥놀이가 매일 적정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보육·돌봄의 최소기준 마련이 시급하며, 팬데믹 거리두기 하에서도 영유아 대상의 대면 상호작용과 수업을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코로나세대로 성장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양육환경의 마련과 성장 발달상의 회복과 중재의 전략이 요구된다.

다) 유치원·어린이집 대응체계 이원화¹⁹⁾

감염위험 모니터링 상황에 맞는 방역조치와 지침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감염위험 초기 비등하는 방역관리와 소독에의 요구 대비 감염확산 방지에 대한 상세정보와 관련지식, 안내의 부족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20).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지침이 정비됨에 따라, 이에 따른 상세지침과 백서가 보완되고 교직원 및 부모, 영유아 대상 교육자료가 업데이트되어 '일원화 된' 정보와 지침으로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내돌봄이 영유아자녀 양육의 주요한 대응방안이 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이용과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기관운영의 어려움과 폐원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이 아동수 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추세에 의한 것인지,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가중된 일시적 반응인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인프라 변화와 기관 운영 현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점이다.

셋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대응조치가 이원화 된 체계 내에서 대응의 방향성과 주요 전략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유보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초·중·고등학교 학사운영체제로 이루어지는 유치원의 경우 교수학습법 등 교

19)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내용 참조 재구성

육과정 위주 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과 체계가 제시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격차해소의 기준도 일정부분 반영되어 있다. 수업일수 조정과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등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로, 동일한 교육보육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출석 인정과 학교준비도, 구체적인 온·오프라인 교육·보육·돌봄과정(원격교육의 실시 및 커리큘럼 운영)의 세부 적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취약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침과 지원체계의 부재가 드러났으므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감염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아동/장애아동 지원에 관한 적극적인 개입과 모니터링 및 지원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성장·발달 및 돌봄에서의 취약아동을 발견하고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위험/재난 상황의 적극적인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된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교직원의 감염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고, 단계 및 상황별로 요구되는 업무내용과 근무요건(예: 교대근무,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나. 지역사회 대응 정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휴원 조치가 내려지고,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가정돌봄쿠폰을 지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휴원이 장기화되며 영유아 가구에 육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마을공동체와 같은 조직에서도 다양한 자구책이 마련되었다(조수빈·김현아, 2020: 27).

정부는 중앙에서 하달하는 Top-down 형식의 표준화된 보육·교육·돌봄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공동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팬데믹과 별개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활성화와 함께 육아공동체 또는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이 각 지자체 및 여성가족부 정책으로 운영되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돌봄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당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육아공동체는 대체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운영 형태 또한 다양하고 유연한 운영이 가능해 팬데믹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

인 대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절에서는 다양한 지역 중심의 공동체 대응 중,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과 서울시, 경기도의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각 사업별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²⁰⁾

가) 운영 개요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주도의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사회사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여성가족부, 2020)²¹⁾. 1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례를 발굴하고 2단계에서는 돌봄공동체를 육성,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와 연계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돌봄공동체 모델의 성장과 전국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43개 돌봄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림 II-1-1〉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단계

1단계 (2019)	공동육아나눔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형태의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사례 발굴 ('19년 완료)
2단계 (2020)	돌봄공동체 육성,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및 모델 개발('20년): 10개 지역 33개 돌봄공동체 지원
3단계 (2021~)	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와 연계)로 돌봄공동체 모델의 성장과 전국 확산 유도('21년~) : 12개 지역 43개 돌봄공동체 지원

출처: 여성가족부(2020.10). 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기관 공모 계획.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7280에서 2021. 6. 14. 인출

해당 사업은 전달체계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총괄 관리와 운영을 하고 각 지자체에서 사업 운영·집행·정산을 담당한다. 지자체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2020년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21)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2020.10.) 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기관 공모 계획.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7280에서 2021. 6. 14. 인출

터는 돌봄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돌봄공동체의 운영 실재를 지원한다. 전체 사업예산은 2021년 1년간을 기준으로 690백만원이며, 돌봄 활동비, 전문가 컨설팅·교육·네트워킹 등을 지원한다. 돌봄 비용은 각 공동체별로 자율적으로 유료화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그림 II-1-2〉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체계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총괄 관리·운영 기관(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컨설팅·교육 지원, 네트워크 연계 지원, 모니터링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확산, 각종 매뉴얼 개발 등
지자체	사업 운영·집행·정산 돌봄공동체 발굴 및 운영 지원, 지역 돌봄자원 연계 등
운영 기관(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돌봄 활동 운영 지원, 돌봄 장소 발굴·연계, 지역 맞춤형 활동 연계 등
협업	
돌봄공동체	공동체 운영 및 돌봄 활동 실시

출처: 여성가족부(2020.10). 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 기관 공모 계획.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sSn=707280에서 2021. 6. 14. 인출

이 사업에서 제시하는 돌봄공동체는 부모자조모임인 ‘품앗이형’, 마을 커뮤니티 공간 기반 주민모임인 ‘마을공동체형’, 비영리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주민경제조직형’으로 나뉜다. 별도의 공간을 새로 제공하지는 않고 각 지역별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희공간, 체험학습장 등의 유희공간을 이용하거나, 북카페나 마을카페, 쉼터, 녹색가게 등을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다.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 놀이, 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의 돌봄활동을 제공한다. 운영 시간 역시 지역별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표 II-1-5〉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2021년 기준)

구분	내용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아동이 안전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생태계 구축
공동체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앗이형: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돌봄 활동을 하는 부모 자조 모임 및 품앗이 그룹 등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체형: 부모 및 지역주민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 등(* 커뮤니티 공간: 북카페, 마을카페, 마을밥상, 마을농장, 쉼터, 녹색가게 등) ▶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등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돌봄대상	만0세~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운영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돌봄장소	지역주민이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면 어디나 가능 * 공동육아나눔터, 마을카페, 마을농장, 작은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유희공간, 체험학습장 등
프로그램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출처: 우리동네 돌봄공동체 홈페이지 <https://dolbomnetwork.kr/introduce> 에서 2021. 6. 12. 인출

2)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²²⁾

가) 운영 개요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에 돌봄과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 이웃 간 소통을 통해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서울시에 거주, 생활하는 주민 3가구 이상이 모여 아이와 함께하는 육아공동체를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활동비 및 업무진행비, 홍보비, 사업비로 일정 비용을 지원한다. 주요 활동 조건은 주 2회 이상 실내공간, 공원, 숲이나 인근 열린육아방에 모여 공동육아를 하는 것으로, 공동육아, 품앗이육아 참여를 필수 활동으로 하며 취업모·전업모가 협업하는 공동육아와 열린육아방 연계활동, 아빠육아 참여 등을 권장한다. 여성가족부의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장소 제공은 없고, 운영시간 및 대상연령도 공동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표 II-1-6〉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개요 (2021년 기준)

구분	내용
사업목적	지역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공동육아 문화 확산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모임: 3가구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대표 1인 지정) ▶ 아이 돌봄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비영리 단체
돌봄대상	만0세~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3명 이상)
운영시간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22) 베이비뉴스(2021년 코로나19 보육 공백, 공동육아로 해결해볼까요? (2020. 8. 18 기사) 내용을 참조함.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061>에서 2021. 6. 12.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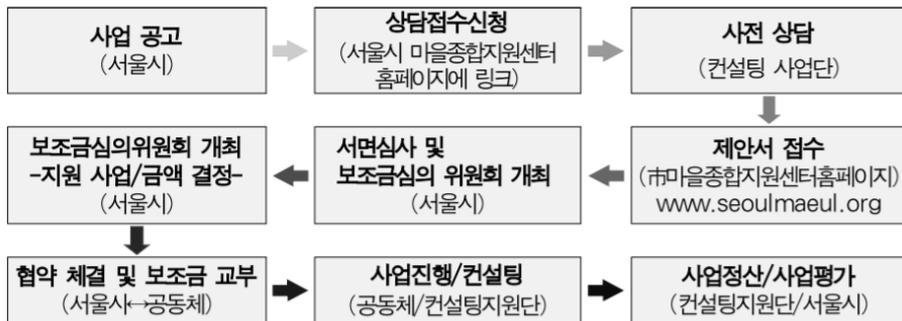
구분	내용					
돌봄장소	▶ 공원, 숲 등 안전한 공간을 활용하되, 실내공간은 열린육아방 또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가능					
프로그램	▶ 필수활동: 공동육아 활동, 품앗이 육아, 마을주민 참여(공개) 활동, 공동육아 교육 참여(기본 및 심화교육) ▶ 권장활동: 생태친화 및 세시절기 교육 관련 활동, 아나바다(나눔장터) 또는 환경 지킴 관련 활동, 랜선(비대면) 활동 등 ※ 모든 활동에 아빠 참여 및 직장맘 참여 가능 형태 권장 ※ 학습이나 예체능 교육 등 사교육 프로그램은 보조금 지원 불가					
지원액	돌봄아동 수 규모에 따라 차등					
	돌봄아동 수	3~4명	5~6명	7~8명	9~10명	11명 이상
	한도액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921호 「2021년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지원기간은 1년 단위로 지원되며, 최대 지원기간은 3년까지이다. 지원액은 돌봄아동수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표 II-1-3 참조, 활동비, 업무진행비, 홍보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단 자부담 10% 이상을 필수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육아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업체를 선정하여, 관리, 교육을 맡기며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중간지원을 맡아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신청서 접수부터 사업진행 및 정산, 평가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그림 II-1-3〉 서울시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단계 및 주체



출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921호. 「2021년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나) 코로나 팬데믹 관련 지침 여부 및 실제 운영

2021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동육아활동 주2회 이상, 월정기모임 1회 이상의 활동주기를 주되 법정 전염병 유행 시기에는 질병관리본부 등의 권고에 따라

활동 주기를 조정하고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돌봄아동수도 소규모 모임을 권장하고 대규모 모임은 지양하는 지침을 주었지만, 별도의 강제 규정은 없다.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서울시 육아공동체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자발적인 소규모 돌봄이 지속된 것으로 보이나, 지역별 모임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가) 운영 개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은 2019년도에 최초로 도입해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경기도 내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돌봄 사각시간을 해소하는 등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돌봄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경기도내 공동육아, 보육, 아동 대상 돌봄사업을 주로 하는 공동체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순수 주민모임이면 참여 가능하며 지역 내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아동돌봄관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과 협업이 가능하다.

만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일시·긴급돌봄, 공동육아 및 육아풀앗이, 등하원 서비스, 문화·독서·스포츠 등 프로그램, 상담 및 부모교육, 식사·간식제공 등의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 여건 및 수요에 따라 다양한 돌봄특화서비스 등의 운영도 가능하다. 3년을 단위로 지정하며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5천만원 이내의 내부 시설공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공간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의 사업과 다르다. 선정 이후에도 돌봄공간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멘토-멘티 사업, 회계교육, 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진행하는 등 사업관리 측면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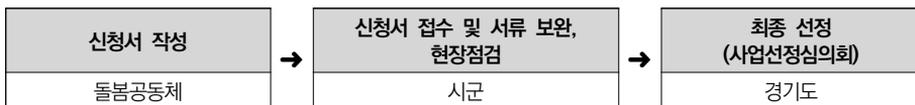
프로그램 지원비는 2021년 기준 3년간 5천만원 이내 분할 지원되며, 강사비, 홍보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체험비, 임차료, 식사·간식비로 사용 가능하며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표 II-1-7〉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개요 (2021년 기준)

구분	내용
사업목적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를 구성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을 추진함으로써 돌봄 사각시간을 해소하는 등 마을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 돌봄 문화를 조성
신청자격	경기도에 거주하는 10명 이상의 순수 주민으로 구성된 아동돌봄 공동체
돌봄대상	만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 소득수준 무관, 영유아/초등학생 구분없이 통합적 운영, 돌봄수요 및 공간 등 지역여건 고려하여 세부연령 결정
운영시간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돌봄장소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되 아동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확보 * 유휴공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근린생활 1층 2층, 노유자시설 등
프로그램	일시·긴급돌봄: 출·퇴근시간, 유치원·초등 방과후 돌봄공백 시간, 주말·휴일, 부모 긴급상황 발생 시 등 육아품앗이: 공동육아 공간·정보 제공, 육아품앗이 관련 프로그램 등하원지원: 연령, 이동방법 등 공동체 여건 및 안전문제 고려 지원 교육지원: 아동의 수요를 고려하여 문화·독서·스포츠·현장학습 등 프로그램 제공 식사 및 간식제공: 방과후, 야간돌봄, 방학기간 주간돌봄 중 제공
지원액	3년 단위 지원 ▶ 시설공사비: 5천만원(단년도 지원) ▶ 프로그램운영비: 5천만원(1차년도 1천만원, 2차년도 2천만원, 3차년도 2천만원)
운영인력	운영인력 규모 및 자격은 서비스 내용, 지역자원 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대표자: 돌봄공간 운영 및 관리 총괄 ▶ 실무자: 대표자 외 사업회계 운영 등 실무 업무 ▶ 프로그램 운영인력은 협업단체 지원,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원, 사회복지사, 참여부모 등을 통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 등 지역주민 적극 활용

출처: 경기도 공고 제2020-2301호. 2021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공고.

〈그림 II-1-4〉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추진 단계 및 주체



출처: 경기도 공고 제2021-2301호 「2021년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그밖에 정부는 2021년 1월 개최한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2018년 온종일돌봄계획에서 제시된 초등돌봄의 확대(2017년 24만명→2022년 34만명)를 위해, 교실은 학교가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음으로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기본계획으로 구성, 운영 중임을 밝혔다(관계부처합동, 2021. 1. 19.). 기존 초등돌봄교실이 학교에서 운영관리까지 맡는 모델이라면 학교돌봄터는 공간은 학교에서 제공하

고 돌봄의 운영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의 운영 모델이
나, 학교돌봄터는 지자체-학교 협력돌봄을 구체화 한 사업방식으로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 운영이 지자체로 이관 및 협력하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뉴스
원, 2021. 1. 19.)²³⁾.

즉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협력의 돌봄 운영이 '지역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한
축으로 하여 운영모델의 다양화 및 인프라 확대를 추진 중으로, 이는 '지역사회
(community) 중심'의 자발적 공동체 모임과는 구분되는 또다른 top-down 방식
의 운영을 확대 시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지역의 돌봄생태계
는 학교 중심과 마을 중심의 주요 주체간 협력과 연계가 돌봄 운영의 주요한 쟁점
으로 부각, 운영모델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2. 국외 팬데믹 대응 현황

팬데믹 상황에서 각 국의 교육과 돌봄의 정책은 감염위험 상황과 보건·의료 인
프라 등을 고려한 방역정책의 기초 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방향 설정에 따라 전면 휴원·휴업에서부터 부분 운영 및 전면 수업 재개에 이르기
까지 적지않은 차이를 보였다. 위드코로나로 전환되는 현 시점 그 간의 학교 수업
일수와 전면등교 및 부분등교 등의 정책 설계가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 상당히 큼이 드러나고 있다. 백신접종률이 증가하고, 수업일수 및 운영시간 단
축이 해제됨에 따라 각 국에서는 팬데믹 기간의 휴업과 폐쇄, 격리 조치가 남긴
부정적 영향과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포용적 회복의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
고 있다. 현 시점 가용한 국제자료를 기초하여 각 국의 그 간의 교육정책 대응을
등교수업(전면수업-부분수업-전면휴업)의 전략을 통해 살펴보았다.

23) 뉴스원(2021. 1. 19.). 공간은 학교가, 운영은 지자체가.. 학교돌봄터 1500실 신설.
<https://www.news1.kr/articles/?4185564> 2021. 10. 11 인출.

가. 코로나19 이후 교육 관련 대응의 국제비교²⁴⁾

1)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의 국가별 차이

코로나19 이후(2020년 3월 11일 - 2021년 2월 2일 기준) 각국의 등교 수업일 수 등 유니세프 국가별 자료를 분석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아시아

한국은 방학은 12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방학이 매우 짧은 반면, 부분등교는 116일로 길게 나타났다. 이는 수업시수를 맞추기 위해서 방학을 줄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전면등교는 57일, 부분등교는 116일인 반면, 일본의 전면등교는 154일, 부분등교는 40일로 일본은 한국에 비해 전면등교에 집중한 양상을 보인다. 일본의 전면등교 일수는 아시아 이외의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전면등교 128일, 부분등교 38일), 태국(전면등교 97일, 부분등교 20일), 베트남(전면등교 117일, 부분등교 28일)이 부분등교보다 전면등교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방학기간도 50일 이상으로 확보하여 방학을 줄이지 않고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전면등교 75일, 부분등교 76일)은 전면등교와 부분등교 일수가 비슷하였고, 인도(전면등교 0일, 부분등교 89일)는 전면등교는 시행하지 않은 반면, 전면휴교 기간이 146일로 전면휴교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나) 중동

터키(전면등교 3일, 부분등교 41일), 이스라엘(전면등교 33일, 부분등교 74일)은 전면등교보다 부분등교에 집중하였다. 전면휴교는 터키(129일)가 이스라엘(65일)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다) 아메리카

북미에서는 미국(전면등교 0일, 부분등교 192일)과 캐나다(전면등교 2일, 부분

24) UNICEF 홈페이지. COVID-19 and school closures: One year of education disruption 에서 다운로드한 UNICEF(2021b). School closures database 국가별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리함.

등교 97일)는 대부분 부분등교에 집중하였다. 전면휴교에 있어서는 미국(0일), 캐나다(66일), 멕시코(180일)는 전면휴교 일수에 있어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은 전면휴교보다는 부분등교를 실시하였고, 멕시코는 전면휴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남미의 브라질 역시 전면휴교 191일로 전면휴교가 수업일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라) 오세아니아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전면등교 73일, 부분등교 125일)는 전면등교보다 부분등교에 집중한 반면, 뉴질랜드(전면등교 133일, 부분등교 26일)는 전면등교에 집중하였다. 전면휴교에 있어서는 호주(0일)와 뉴질랜드(14일) 모두 낮은 수준을 보였다.

마) 유럽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전면등교 128일, 부분등교 13일)는 전면등교를 시행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프랑스는 봉쇄기간이 130일에 달하지만 전면휴교는 30일만 시행하여 방학 64일을 제외하고도 봉쇄기간 중에도 전면등교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국(전면등교 79일, 부분등교 40일)은 프랑스에 비해 전면등교보다 부분등교에 집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전면휴교에 있어서도 영국(62일)은 프랑스(30일)보다 더 길게 나타났는데, 봉쇄기간이 프랑스(130일)보다 영국(195-223일)이 길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네덜란드(전면등교 112일, 부분등교 18일), 벨기에(전면등교 102일, 부분등교 40일)는 부분등교보다 전면등교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면휴교에서는 네덜란드(56일)가 벨기에(36일)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중부유럽에서는 독일(전면등교 92일, 부분등교 50일), 오스트리아(전면등교 85일, 부분등교 21일)는 부분등교보다 전면등교에 집중하였다. 전면휴교는 독일(42일)보다 오스트리아(71일)가 더 길었던 반면 부분등교는 독일(50일)이 오스트리아(21일)보다 더 길었다. 스위스(전면등교 152일, 부분등교 2일)는 등교의 대부분을 전면등교로 시행하였다.

남유럽에서는 스페인(전면등교 106일, 부분등교 25일), 포르투갈(전면등교 84

일, 부분등교 33일)은 부분등교보다 전면등교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탈리아(전면등교 35일, 부분등교 57일)로 전면등교가 부분등교보다 적었는데, 전면휴교에서도 이탈리아(66일)는 스페인(50일), 포르투갈(34일)보다 더 길었다. 봉쇄기간에서도 이탈리아(129일)는 스페인(56일), 포르투갈(73일)보다 더 길게 나타났다.

북유럽에서는 스웨덴(전면등교 115일, 부분등교 72일), 노르웨이(전면등교 149일, 부분등교 10일), 덴마크(전면등교 115일, 부분등교 39일), 핀란드(전면등교 120일, 부분등교 0일)가 모두 부분등교보다 전면등교에 집중하였다. 전면휴교에 있어서는 스웨덴(0일), 노르웨이(22일), 덴마크(37일), 핀란드(42일)로 나타났는데, 스웨덴은 전면휴교(0일)를 시행하지 않고, 부분등교(72일)를 시행한 반면, 핀란드는 부분등교(0일)를 시행하지 않고, 전면휴교(42일)를 시행하였다. 방학 기간에 있어서도 스웨덴(48일)보다 핀란드(73일)가 길게 나타나, 핀란드는 스웨덴보다 학교에 가지 않는 일수를 더 길게 운영하였다.

바) 종합

2020년 3월 11일부터 2021년 2월 2일 사이의 기간에 전면휴교를 한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 95일에 달하는데, 이는 수업일수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다(UNICEF, 2021b:2). 전체 국가들 중 53퍼센트는 전면등교에 집중하였으나, 전체 국가의 약 1/4은 부분등교에 집중하였고, 27개 국가(전체 국가의 13퍼센트)는 전면휴교에 집중하였다(UNICEF, 2021a: 2)

한국의 경우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한국은 방학이 12일로 인도(0일)의 사례를 제외하면 국제적으로 매우 짧은 방학을 운영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전면휴교 기간이 2020년 초반에 집중되어 수업시수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전면등교 일수는 57일인데, 인도(0일), 미국(0일), 브라질(1일), 캐나다(2일), 터키(3일), 멕시코(8일), 이스라엘(33일), 이탈리아(35일), 폴란드(42일) 등의 국가들이 한국보다 전면등교 일수가 적었다. 그 외의 국가들은 모두 전면등교 일수가 한국보다 길었다. 한국의 부분등교 일수는 116일인데, 표에 있는 국가들 중 한국보다 부분등교 일수가 많은 국가는 미국(192일)과 호주(125일) 뿐이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국제적으로 전면등교보다 부분등교에 집중한 국가로 볼 수 있다.

한국(전면등교 50일, 부분등교 116일)과 전면등교 및 부분등교 일수에서 비슷한 국가는 호주(전면등교 73일, 부분등교 125일)가 있는데, 호주는 봉쇄기간이 지역별로 52-168일이 운영되었으나 한국은 봉쇄가 없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한국과 같이 봉쇄를 실시하지 않은 일본은 전면등교 일수가 154일로 한국의 57일보다 훨씬 길게 나타났다.

봉쇄기간이 130일인 프랑스(전면등교 128일, 부분등교 13일), 148-218일인 독일(전면등교 92일, 부분등교 50일), 195-223일인 영국(전면등교 79일, 부분등교 40일)도 전면등교 일수는 한국보다 훨씬 길게 나타났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코로나19 발병률이 매우 낮은 국가에 해당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봉쇄를 시행하지 않고도 코로나19 발병률을 낮은 수준으로 통제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봉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면등교보다는 부분등교에 집중하였다. 부분등교는 원격수업의 확대를 불러왔는데, 이와 같은 원격수업의 확대는 교육격차 및 학습결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 II-2-1〉 코로나 19 이후 등교 수업일수의 국가별 차이

국가	방학	전면휴교	전면등교	부분등교	수업일수: 전면휴교+전면등교 +부분휴교	봉쇄기간
한국	12	50	57	116	223	
일본	30	11	154	40	205	
중국	51	33	75	76	184	76
인도	0	146	0	89	235	74
싱가포르	50	19	128	38	185	83
태국	54	64	97	20	181	67
베트남	66	24	117	28	169	21-60
터키	62	129	3	41	173	18
이스라엘	63	65	33	74	172	72
미국	43	0	0	192	192	30-110
캐나다	70	66	2	97	165	14-123
멕시코	47	180	8	0	188	99
브라질	34	191	1	9	201	21-47
호주	37	0	73	125	198	52-168
뉴질랜드	62	14	133	26	173	49
영국	54	62	79	40	181	195-223

국가	방학	전면휴교	전면등교	부분등교	수업일수: 전면휴교+전면등교 +부분휴교	봉쇄기간
아일랜드	64	90	81	0	171	227
프랑스	64	30	128	13	171	130
독일	51	42	92	50	184	148-218
오스트리아	58	71	85	21	177	98
스위스	52	29	152	2	183	83
이탈리아	77	66	35	57	158	129
스페인	54	50	106	25	181	56
포르투갈	84	34	84	33	151	73
스웨덴	48	0	115	72	187	
노르웨이	54	22	149	10	181	
덴마크	44	37	115	39	191	99
핀란드	73	42	120	0	162	20
네덜란드	49	56	112	18	186	99
벨기에	57	36	102	40	178	119
폴란드	58	96	42	39	177	85
러시아	68	0	102	65	167	33-43

주: 기준일은 2020년 3월 11일 - 2021년 2월 2일이며 봉쇄기간은 2021년 5월 28일 기준.
 자료: UNICEF(2021b). School closures database.
 (<https://data.unicef.org/resources/one-year-of-covid-19-and-school-closures/>) 에서 국가별 데이터를 분석, 정리함.

2) 코로나19 이후 장기화 된 휴교의 부작용²⁵⁾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휴교는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다음의 부작용들이 유네스코 보고서를 통해 논의되었다.

가) 학습결손(Interrupted learning)

학교가 휴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학습결손이 발생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학습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습결손은 계층이 따라 불균형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5) UNESCO(2021). Adverse consequences of school closures. 주요 내용을 번역함.

나) 원격수업의 어려움(Challenges creating, maintaining, and improving distance learning)

휴교에 의해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므로 원격수업 요구가 폭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원격수업을 위한 기존의 포털에는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들은 원격수업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수업을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였다.

다) 가정양육부담 증가(Parents unprepared for distance and home schooling)

휴교에 의해 등교수업이 이루어지 못하므로 부모들은 기존의 가정양육부담 외에 가정에서 원격수업 등을 통해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게 되었다.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용자원이 제한된 부모들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하게 된다.

라) 돌봄 격차(Gaps in childcare)

다른 돌봄 수단이 없는 경우 맞벌이 부모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 때 자녀들을 집에 혼자 두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아이들의 위험한 행동을 증가시키는데 동료압력(peer pressure) 및 약물남용(substance abuse)의 증가를 포함하게 된다.

마) 영양 불균형(Poor nutrition)

많은 아동은 학교의 무상급식에 균형잡힌 영양을 의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가 문을 닫을 때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아동의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

바) 교사 스트레스 증가(Confusion and stress for teachers)

학교가 문을 닫을 때, 특히 예상치 못하게 닫았거나 휴교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을 때, 교사들은 학생과의 접촉을 상실함에 따라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원격수업 플랫폼으로의 전환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매우 혼란스럽

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의 스트레스는 증가하게 된다.

사) 가구소득 감소(High economic costs)

맞벌이 부모는 학교가 문을 닫을 때 자녀 돌봄을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및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아) 보건의료 시스템 과부하(Unintended strain on health-care systems)

아이를 가진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학교가 문을 닫음에 따라 발생하는 자녀 돌봄 부담 때문에 업무 참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되는 보건 위기 기간에 많은 보건의료 전문 인력들이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학교는 사회적 활동(social activity) 및 상호작용의 허브이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많은 아동은 학습과 발달(learning and development)에 핵심적인 사회적 접촉(social contact)을 할 수 없게 된다.

차) 학습 측정의 어려움(Challenges measuring and validating learning)

학교가 문을 닫으면 교육 측정·평가 및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III

위드코로나 쟁점 및 포스트코로나 어젠더 분석

01 팬데믹이 드러낸 육아분야 쟁점(문제점, 사각지대)

02 포스트코로나 미래 어젠더

Ⅲ. 위드코로나 쟁점 및 포스트코로나 어젠더 분석

1. 팬데믹이 드러낸 육아분야 쟁점(문제점, 사각지대)

가. 코로나19 시기 아동돌봄 현황 분석²⁶⁾

1) 2020년 아동 돌봄 실태

2020년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만0-8세)를 둔 부-모 5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휴원기 아동양육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최윤경 외, 2020),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휴업으로 인한 돌봄의 공백을 가정내 양육(73.3%)이나 조부모/친인척의 도움(24.0%)을 받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외벌이 가구의 경우 대부분 가정내 돌봄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있는 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정내돌봄, 조부모/친인척 도움, 기관이용 지속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험 상황에서, 부모들은 자녀를 직접 돌보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접 돌봄이 어려운 경우 조부모/친인척 돌봄이나 정부의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휴원 전-후 서비스 이용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영아(만0-2세)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나 사설놀이공간 등을 이용하던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고, 부모직접 돌봄과 조부모/친인척 돌봄의 경우는 미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원 이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영아를 돌보기 위해 상대적으로 조부모/친인척에 의존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아(만 3-5세)의 경우, 휴원 전-후 서비스 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유

26)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 pp.58-61 내용을 참조, 정리함.

지원, 사설놀이공간 등 집단시설 중심의 이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친인척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일부 아이돌봄미나 민간베이비시터 활용이 증가하였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조부모/친인척 돌봄과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보미 등의 이용 비율이 외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모 직접돌봄 이외에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저학년(만 6-8세)의 경우, 휴원 전-후 서비스 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초등 돌봄교실, 학습관련 또는 예체능 학원 등 집단시설이 이용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부모직접돌봄, 조부모/친인척 돌봄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함께돌봄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도 일부 증가하였다. 부모나 다른 돌봄서비스 없이 자녀 혼자 있는 경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공백의 우려가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조부모/친인척 돌봄 비중이 영유아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동 연령에 따라 자녀돌봄에서 어느정도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어린이집과 같은 교육/돌봄 시설의 휴관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1차적으로는 부모에 의한 가정내 돌봄이나 조부모/친인척의 도움과 같은 비공식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자원이 없는 경우 정부의 긴급돌봄이나 아이돌보미 등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돌봄서비스 없이 자녀 혼자 있는 경우도 일정비율 이상으로 나타나 코로나19상황에서 돌봄공백 문제가 심각한 것을 파악되었다. 이는 2020년 상반기 조사 자료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된 2021년의 아동 돌봄의 역할과 가정내 양육, 돌봄서비스의 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다.

2) 근로자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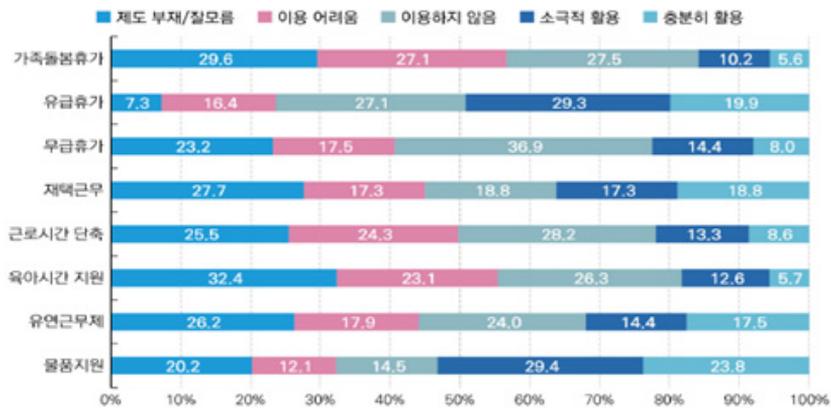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직장내 자녀돌봄 관련지원제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그림 IV-2-5), 물품지원이 가장 많고, 이어 유급휴가,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무급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20: 66-67). 한편, 연차와 같은 유급/무급 휴가를 돌봄목적으로 대체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외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등 유연한 근로형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는 15.8%가 이용하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감염위험 상황 및 휴원기간 동안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자녀양육 전반

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부모직접돌봄, 아동수당 추가지원, 조부모/친인척 돌봄 등이 높게 나타나, 가족내 자원을 활용한 가정내 돌봄과 이에 필요한 현금성 수단제도에 선호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1.)의 가족돌봄휴가 이용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족내돌봄을 위해 활용한 제도로는 연차유급휴가(25.8%), 회사자체 휴가(18.2%),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의 순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 직장내 자녀돌봄 관련 지원제도 이용 현황



자료: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 방안 연구(p.67), [그림 III-1-6].

〈표 III-1-1〉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해 활용한 제도

단위: %

*휴원/휴교 기간 돌봄 방법 - 조부모/친척(42.6%), 부모직접(36.4%), 긴급돌봄(14.6%)

구분	사업주	근로자(부모돌봄)
연차유급휴가	47.0	25.8
회사자체 유(무)급휴가	18.5	18.2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17.0	25.3
가족돌봄휴가	9.5	23.6
(8세미만 자녀)	-	28.6
(8-12세 미만 자녀)	-	10.6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1).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족돌봄휴가" 도입 3개월만에 빠르게 확산.

결과적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부모나 조부모/친인척 등 가족 내 돌봄자원을 활용한 가정내돌봄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아동돌봄보다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휴식을 목적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나 직장내 유(무급)휴가 등을 활용하여 가정내돌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가족돌봄휴가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질병 등으로 인한 아동의 가정내돌봄이 필요할 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유급휴가 제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육아분야에 미친 영향(impacts)

1) 가족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은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영향을 준 가운데, 우선 첫째, 가족의 돌봄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주지하다시피 코로나19는 공적돌봄체계의 마비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부분에서 공공화 되었던 아동돌봄을 개별 가족의 역할로 되돌려놓음으로써 돌봄의 공공성 증대의 노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나타났다(최아라, 2020). 아동과 가족의 일-생활 균형이 일상에 큰 균열이 오면서 가정내돌봄 역할 수행과 미등원으로 인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축소가 뉴노멀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일상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기관 보육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은 맞벌이, 한부모, 자영업 등 가구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다. 김영란(2020b)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긴급돌봄을 이용한 비율은 영유아 46.9%, 초·중·고등학생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의 경우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영유아 56.0%, 초·중·고등학생 41.8%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불안과 이로 인해 돌봄공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드러났으며, 가정내돌봄을 지원하고자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가 팬데믹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사업의 운영도 공통 대응매뉴얼 미흡, 온라인매체 활용의 어려움, 담당자 업무 과다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김경미, 2021), 아이돌보미나 육아가사도우미의 경우에도 감염의 두려움으로 이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권현

속, 2020; 김영란, 2020b). 또한 휴원, 휴교 및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인하여 자녀가 홀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 돌봄공백의 발생이 주요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었다(김영란, 2020a; 최윤경 외, 2020).

둘째, 가족의 생활시간 사용에도 변화가 발생,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의 시간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진미정·성미애·손서희·유재언·이재림·장영은(2020)의 연구에 따르면 가사노동시간의 경우 코로나확산 이전 하루 평균 2.20시간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2.45시간으로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자녀를 둔 응답자의 자녀돌봄 시간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2.17시간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2.76시간으로 증가하였다. 가사노동과 자녀돌봄의 부담 인식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사노동이 힘들어졌다는 비율이 33.02%로 나타났으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응답자 중 자녀돌봄이 힘들어졌다는 응답은 49.1%로 나타나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의 시간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부담도 함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경제에도 변화가 있어, 부채 증가 21.55%, 수입 감소 37.87%로 나타났다. 김영란(2020b)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한 비율은 75.1%,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증가한 비율은 67.1%로 나타나는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다. 정익중·이수진·강희주(2020)의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시간사용의 변화도 발견되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운동시간은 감소한 반면, 미디어 사용시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2시 이후에 취침하는 비율이 코로나19 이전 35.1%에서 코로나19 이후 62.2%로 크게 증가해 수면의 질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자녀 돌봄 시간이 증가하는 등의 시간 사용의 변화는 셋째,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2020b)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원과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37.4%로 나타났으며, 갈등을 겪은 원인으로는 식사 등 가사노동 증가로 인한 분담 문제 27.8%, 각자의 생활습관 문제 21.7% 등으로 나타났다. 진미정 등(2020)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및 초등학생 자녀와의 관계가 모두 변화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오히려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비율도 배우자 19.17%, 초등자녀 21.67% 등으로 나빠졌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그러나 배우자와 관계가 나빠진 비율은 6.8%, 자녀와 관계가 나빠진 비율

은 12.5% 등으로 나타나 일부 가정에서는 가족관계가 나빠지기도 하였으며, 배우자보다 자녀와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Q방 법론을 활용하여 코로나사태에서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유형을 분류한 주하나(2020)의 연구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해 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인식 유형은 자녀발달 근심형, 스트레스 가중형, 전화위복 준비형, 현실적응 만족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자녀발달 근심형의 경우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긴 것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았지만, 자녀가 또래와 어울리며 얻을 수 있는 경험과 행복에 대한 아쉬움, 실내생활로 인해 체력이 약해지거나 비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스트레스 가중형의 경우 자녀와 놀아주는 것의 어려움 및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소진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실적응 만족형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양육스트레스는 쌓이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의 증가가 모든 어머니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해 필요한 지원 요구도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자녀양육가구의 가계지출상의 변화로,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양육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14.6%(평균 16만 7천원 감소), 양육비용이 증가했다 17.3%(평균 11만 5천원 증가), 변동없음 68.1%로, 가구소득 변동(가구소득 감소 21.9%, 증가 2.0%, 변동없음 76.1%)에 비해 양육비용의 변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평균 58만 3천원으로, 약 4만8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목별로 교육보육비는 2019년 양육비용 지출 중 가장 큰 비중(26.3%)을 차지하는 비목이었으나, 2020년에는 12만3천원(16.8%)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면 식비는 2019년 대비 3.6%p 소폭 증가하였고, 여가문화생활비는 2019년 평균 9만 7천원에서 8만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코로나19 전후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2) 기관운영 및 교육·보육·돌봄에 미친 영향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육아 관련 기관의 운영방식 및 교육방식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먼저 첫째, 운영방식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에 관한 것으로, 휴원의 장기화 및 긴급보육에서 발생한 변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보육교사의 역할 변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전국 어린이집의 휴원이 실시되고 휴원 기간이 재연장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이후 원아 감소에 대한 우려, 등록 취소와 입소 연기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 양육수당을 위한 퇴소 결정, 교사 대 아동 비율 관리 등 운영 및 예산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준희·김선희·이희영, 2020). 휴원 기간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취약 계층 등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정의 수요를 고려하여 긴급보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에서는 이를 적용하는데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코로나19 확진 및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로 인해 주변에 미치는 피해와 낙인에 대한 우려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최예린, 2020), 어린이집 원장들은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원아의 수가 적은 상황에서 교육의 질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을 경험하기도 하였고, 긴급 보육 매뉴얼 부재로 인한 혼란을 경험하였다(손준희 외, 2020).

코로나 19시기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보육 현장에서는 유증상자 관리, 감염예방교육, 방역, 문서 업무, 외부인 관리 등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하여 보육교사의 건강관리직무 수행경험을 분석한 권혜진(2021)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은 영유아 건강문제사정, 영유아 건강문제 조치, 건강교육, 문서 및 환경관리, 교사의 자기건강관리 등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건강문제사정의 경우 등원시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 점검,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증상 여부 관찰, 체온측정 등을 수행하였으며, 건강교육의 경우 보육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 및 영유아의 개인위생교육 등을 수행하고, 영유아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영유아를 격리하거나, 보육교사의 자가격리시 학급 통합운영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1 감염증 대응 건강교육으로 영유아의 경우에는 손 씻기 방법, 마스크 착용방법 등 개인 위생교육을 진행하고, 보육교직원에게도 예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있었다. 또한 문서 및 환경관리 업무로 영유아 체온 측정기록 및 관리, 보육실 방역일지 기록 및 관리, 영유아 건강검진 서류관리, 코로나 대응지침 숙지 및 관리, 종이타월 비치 및 관리, 공용 공간 청결,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둘째, 어린이집의 공간부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였다. 기관에서 유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일부 기관에서는 격리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원장실을 활용하기도 하는 등 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공간 부족의 문제는 간식 및 식사, 개별놀이 등을 지도할 때 영유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하여 방역지침의 준수가 현장 적용에 어려웠다(박영아·조미현, 2020; 구수연·최예린, 2021).

셋째, 시설 방역의 경우 일부 기관은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을 수행하고 일부 기관은 보육교사가 직접 소독 등 방역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방역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경비 지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보육교사가 직접 소독하는 기관에서는 방역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권혜진, 2021). 또한 소독 및 방역 물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박영아·조미현, 2020).

넷째, 어린이집에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부모 상담 및 참관 활동이 어려워져 가정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상호신뢰 및 친밀감 형성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험도 있었으며, 외부활동 제약으로 인해 영아들의 짜증과 다툼이 발생하는 등 문제행동의 발생이 보고되었다(박영아·조미현, 2020). 2021년 어린이집 휴원 조치가 해제되고 개원이 이루어지면서 등원하는 재원아동이 보이는 행동의 편차와 경계선적 문제행동 지도에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섯째, 교육방식의 경우 대면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아 콘텐츠 부족, 통솔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유치원 교사의 원격교육 경험을 조사한 김민정·김희영·김남연·문가영(2020)의 연구에서 유치원 교사들은 준비 없이 갑자기 시작된 원격교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일부 유치원에서는 원격 교육 내용을 부장교사가 선정하여 담임 교사가 정작 원격교육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원격교육이 개정된 누리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 EBS TV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 등을 활용하거나 상업화된 자료를 구매하는 등의 과정에서 시장의 콘텐츠에 교육이 끌려가는 등의 경험을 하였다.

대면교육 수행에도 어려움과 편차가 있어, 먼저 보육교직원이 자가격리되어 학급이 통합 운영되거나 등원하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권혜진, 2021; 구수연·최예린, 2021). 또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등원 시작시기가 달라짐에 따라 이로 인해 아동 간 시설 적응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지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손준희 외, 2020). 신나리·김상림·이주연·송승민·백선정(2021)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의 부정적 행동변화에 대한 질문에 41.13%는 특별활동 및 실외활동의 부족으로 활기가 부족해졌다고 응답하였으며, 30.07%는 장기결석 또는 적응 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초기 부적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감염병 대응 지침의 적용 이후 신입원아 적응상의 어려움으로 37.34%는 입소시기 차이로 적응지도가 곤란하다고 응답하였으며, 31.70%는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친밀감 형성이 곤란했다고 응답하였다.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은 시설 보육 외의 다양한 돌봄 관련 지원체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정양육 지원사업의 경우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상 제작 및 프로그램 활용방법을 익히는 과정에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대체사업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또한 비대면 방식의 사업을 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부가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하였는데, 예를 들어 가정내 놀이환경 지원 사업의 경우 놀이키트 택배 발송 및 수령 확인, 강좌 수강여부 확인, 비대면 강의 참여에 대한 동의서 수령 등의 부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다(김경미, 202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감염의 두려움과 동시에 잦은 연계 취소로 아이돌보미의 일자리의 안정성과 생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권현숙, 2020). 유치원·어린이집의 휴원·휴업 조치로 가정내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 조치하였으나, 1:1 대면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특성 상, 오히려 돌봄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줄어드는

감소세를 보였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저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인프라 부족의 문제로 팬데믹 초기 초등돌봄의 이용률이 취학전 영유아기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주 이용대상인 초등 저학년의 경우 교실에서의 교육과정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실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이 보고되었다(본 연구의 FGI 내용 참조).

3) 지역사회/전달체계에 미친 영향 - 교육·돌봄의 연계와 역할

코로나19의 확산은 지역사회의 돌봄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집단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학교, 방과후기관, 학원 등의 기관은 임시 휴업하거나 운영일과 이용자 수를 조정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취하였으며, 정부, 지자체, 국내 NGO와 기업체 등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병 예방 용품과 식료품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기도 하였다(김선숙·조소연·이정애, 2020). 위탁가정, 드림스타트 등의 가정내 양육 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방문이 어렵게 되자 아동의 안전 여부를 우선으로 확인하고, 고위험 사례 중심으로 우선 방문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20a; 김선숙 외, 2020: 425에서 재인용).

한편 지역사회에서 팬데믹 기간 드러난 아동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체적 대응이 2021년에 들어서면서 점차 가시화되어, 초등학교의 휴업기간에 맞추어 운영되는 자발적 돌봄공동체 운영의 유연성과 대응력이 제고되었다. 이로써 학교 등교 및 대면수업의 제한을 보완하는 지역사회 돌봄체계 운영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역내 교육-돌봄 간 연계와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위기 상황에 교육과 돌봄의 역할 수행과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쟁점과 숙제가 드러났으며, 이는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다. 드러난 문제점과 사각지대

1) 돌봄공백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휴원 및 휴교 등 돌봄 시설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돌봄 공백을 경험하는 아동이 늘어났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국 아동복지시설의 아

동, 보호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38%의 아동이 집에서 아동끼리 있거나 아동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집에서 보낸 시간이 3~5시간인 아동은 약 12.3%, 5시간 이상인 아동은 약 27.7%로 나타나는 등 혼자 집에 있는 아동이 많아져 방임의 위험이 높아졌다(아동권리보장원, 2020b: 59). 이러한 상황은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익중 외(2020)의 연구에서 주관적 사회계층이 낮고 양부모 가족이 아닌 한부모 가족이나 친인척 가족인 경우 낮시간 성인 보호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식사 챙김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최윤경 외(2020)의 연구 결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휴교기간동안 돌봄공백을 경험한 집단이 37.5%로 나타났으며, 특히 맞벌이가구가 외벌이가구에 비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가정내돌봄의 수요가 증가하였고 재택근무, 단축근무, 시차출퇴근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김영란(2020b)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금근로자 여성의 66.1%가 재택근무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51.8%는 단축근로, 43.7%는 시차출퇴근 제도를 이용하였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14.5%에 불과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 34.5%가 사용하고 싶었으나 업무공백, 회사사정 등 눈치가 보여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여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직장문화 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돌봄이 운영되었으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가정 내 돌봄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나 육아가사도우미 이용도 보건위생 안전에 대한 우려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2020a).

2) 학습·교육·발달 격차와 지연

코로나19의 확산은 아동의 학습 및 발달 격차와 지연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먼저 학습의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학습 시간의 차이,

학습을 위한 자원의 차이를 유발하여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에 따른 초등학생의 시간사용을 분석한 결과(이시효, 2020), 학습시간의 경우 고소득층 거주지 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4%,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7.6%인 반면 저소득층 거주지 학생의 경우 학습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1%,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9%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습시간은 증가한 경우가 더 많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학습시간이 감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 반면 게임시간의 경우 고소득층 거주지 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약 78분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 거주지 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약 110분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게임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 외(2020)의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공부시간은 코로나19 이전 3시간 49분에서 코로나19 이후 4시간 45분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학습시간의 변화가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회계층 상 집단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4시간 19분에서 5시간 25분으로 약 66분 증가, 중 집단의 경우 3시간 43분에서 4시간 43분으로 약 55분 증가, 하 집단의 경우 3시간 21분에서 3시간 59분으로 약 38분 증가하는 등 사회계층이 높은 집단의 학습시간 증가량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 집단별 시간 사용의 차이는 학습 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인한 학교 폐쇄와 원격 교육의 진행이 학습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와 부모의 역량 차이, 가정의 물리적 자원 차이, 부모의 시간 제약,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은 원격교육에서 아동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미희, 2020).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의 실태를 조사한 박미희(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교육 여건,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육 활동, 가정의 교육 지원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전용 디지털기기 보유 여부의 경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온라인 수업시 사용하는 디지털기기가 낡아 방해받을 경험은 많은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집단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은 약 11.5%인 반면 '하'인 집단은 약 29.3%로 나타나 기기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기기의 성능에 따른 학습 참여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수업 내용을 이해하

기 어려울 때의 해결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인 집단에서는 보호자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34.2%로 나타났으나, 하인 집단에서는 13.4%에 불과하였으며,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상인 집단은 6.7%인 반면 하인 집단은 22.4%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경우에도 자녀의 온라인 학습 및 교육활동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 상 집단에서는 약 45.3%, 하 집단에서는 72.3% 등으로 차이를 보였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수업 내용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습격차의 누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우려가 있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교육의 경우,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아동,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아동의 학습 결핍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의 경우 더욱 취약한 디지털 활용 환경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이로 인한 학습 격차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영유아의 경우에도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권혜진(2021)의 연구에서 보육교사들은 보육교사의 자격리로 인해 학급이 통합 운영되거나, 일부 아동들만 등원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어려워하고 있었다. 등원하지 못한 기간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될 경우 등원하지 못한 아동들과 등원한 아동간의 격차가 발생하며, 등원을 늦게 시작한 아동과 일찍 시작한 아동의 적응 차이로 인해 학습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지속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의 실직과 부부갈등 등의 위험요인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전에 역경을 경험한 적이 없는 아동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이 이후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의 한계치를 약화시키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이 보고된다(Wade, Prime & Browne, 2020). 셋다운, 휴교, 사회적 제약 등 코로나19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들이 부모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우울증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발달지연 및 성인기의 건강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Araújo, Veloso, Souza, Azevedo, & Tarro, 2020).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한 실업률은

빈곤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아동의 영양 결핍을 유발하여 아동의 건강 악화와 발달 지연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egert, Vitiello, Plener, & Clemens, 2020).

상기한 내용을 쟁점별로 근거자료(evidence-based)에 기초하여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격차 확대²⁷⁾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을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도 긴급하게 도입된 원격수업은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이길호, 2020). 핀란드의 경험을 보면 학교라는 유사한 공간 환경이 아닌 소득 격차가 다른 가정이라는 공간 환경에서의 스마트 기기 보유의 차이, 컴퓨터 등 디바이스를 다루는 실력의 차이, 학부모의 지원이 가능한지에 따라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이길호, 2020). 국내에서도 원격수업 도입 이후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양한 격차가 나타났는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800개 초·중·고 보호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교육경험과 인식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원격수업 환경에 격차가 나타났다(김위정, 2020: 4). 가정 환경이 열악할수록 원격수업 집중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서 원격수업을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원격수업을 위한 전용 디지털 기기 소유 여부 및 기기의 성능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김위정, 2020: 4).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도와 학습 과정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는데, 가정의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원격수업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고, 친구와 의견 교환, 정보교류, 교사에게 질문 등 상호작용 부족으로 즉각적인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함에 따라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경우가 발생한 반면, 가정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보호자가 온라인 학습 지원과 지도를 더 잘하고 있었고, 학습의 어려움 발생 시 사교육을 통한 학습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김위정, 2020:4).

2021년 6월 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6. 2.). 중3 및 고2 학생 총

27) 취학전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에 대한 교육격차의 실증자료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가용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내용을 인용함.

- 본 연구의 부모 및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4장에 관련 인식 및 의견 조사 결과를 제시함

771,563명의 약 3%인 21,179명(424개교)을 대상으로 2020년 11월에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교과별 성취수준에서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국어는 75.4%로 전년 대비 7.5% 포인트 감소, 중학교 영어는 63.9%로 전년 대비 8.7% 포인트 감소, 고등학교 국어는 69.8%로 전년 대비 7.7% 포인트 감소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2). 1수준(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국어 및 영어는 각각 6.4%, 7.1%로 전년 대비 2.3% 포인트, 3.8% 포인트 증가하였고,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는 각각 6.8%, 13.5%, 8.6%로 전년 대비 2.8% 포인트, 4.5% 포인트, 5.0% 포인트 증가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6. 2.:2).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로,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6. 2.: 2)

〈표 III-1-2〉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단위: %

구분	3수준(보통학력) 이상						1수준(기초학력 미달)					
	중3			고2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2019	82.9 (0.54)	61.3 (0.94)	72.6 (0.82)	77.5 (0.90)	65.5 (1.24)	78.8 (0.98)	4.1 (0.28)	11.8 (0.44)	3.3 (0.24)	4.0 (0.40)	9.0 (0.59)	3.6 (0.35)
2020	75.4 (0.76)	57.7 (1.01)	63.9 (1.1)	69.8 (1.14)	60.8 (1.27)	76.7 (1.07)	6.4 (0.4)	13.4 (0.59)	7.1 (0.43)	6.8 (0.52)	13.5 (0.75)	8.6 (0.64)

주: 1) 표집시행에 따라 '19~'20년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3) 음영은 연도 내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함.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1. 6. 2.).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p.2

이와 같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어 초등학교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 감소 및 원격수업 확대를 거치면서 중고등학교의 학력 저하가 일어났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초등학교 역시 코로나19 이후 학력저하가 일어났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1-3〉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지역규모별 3수준(보통학력) 이상 비율

단위: %

구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대도시	읍면										
2019	84.9 (0.86)	79.6 (1.43)	64.9 (1.68)	51.8 (2.14)	75.4 (1.40)	65.9 (1.86)	77.7 (1.28)	74.9 (2.64)	68.2 (1.67)	61.1 (4.15)	80.0 (1.39)	75.4 (3.10)
2020	78.8 (1.11)	68.5 (2.21)	63.5 (1.47)	46.3 (2.57)	69.9 (1.65)	51.1 (2.86)	70.2 (1.79)	67.6 (2.63)	62.9 (1.74)	56.8 (3.45)	76.7 (1.57)	73.7 (2.88)

주: 1) 표집시행에 따라 '19~'20년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3) 음영은 연도 내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함.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1. 6. 2.).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p.4

〈표 III-1-4〉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지역규모별 1수준(기초학력 미달) 비율

단위: %

구분	중3						고2					
	국어		수학		영어		국어		수학		영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대도시	읍면
2019	3.8 (0.43)	4.9 (0.65)	10.3 (0.76)	15.2 (1.18)	3.4 (0.44)	3.6 (0.53)	3.9 (0.58)	3.1 (0.89)	7.6 (0.81)	9.3 (1.69)	3.6 (0.58)	3.0 (0.77)
2020	5.4 (0.58)	9.6 (1.52)	11.2 (0.86)	18.5 (1.78)	6.1 (0.68)	9.5 (1.48)	7.9 (0.88)	6.6 (1.23)	13.7 (1.04)	13.7 (1.95)	9.6 (1.05)	8.1 (1.30)

주: 1) 표집시행에 따라 '19~'20년 결과는 모집단 추정치이므로 괄호 안에 표준오차를 제시함.
 2) 통계적 유의도는 95% 신뢰구간(표본의 통계치±1.96*표준오차)을 활용함.
 3) 음영은 연도 내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표시함.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1. 6. 2.).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p.4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교생활 행복도 및 정의적 특성 등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 행복도(심리 적응도, 교육환경만족도)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중학교(59.5%)는 4.9% 포인트, 고등학교(61.2%)는 3.5% 포인트 감소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6. 2.: 3).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또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중고등학교에서 낮아진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6. 2.: 3).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국어, 수학, 영어 등의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학교생활만족도(심리적응, 교육환경만족도) 및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

미, 학습의욕)과 심리적 측면에서도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지역규모별 성취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지역규모별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으나, 중학교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교육부, 2021: 4). 3수준(보통 학력) 이상의 경우 중학교는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의 비율이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1수준(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는 국어, 수학에서 읍면지역의 비율이 대도시에 비해 높았다(교육부, 2021: 4).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은 대도시보다 읍면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학계 및 현장 교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2021.4.),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축소 및 원격수업 전환에 대한 적응 등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이 충분하게 이루어지 못했고, 학교생활 행복도 및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흥미, 학습의욕 등)의 하락이 학업성취 수준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였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6. 2.: 4).

이러한 결과는 등교수업의 축소에 따른 원격수업의 확대가 가정의 교육 부담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학습 결손 및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나) 아동발달 지연

초중등교육에서는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학습 결손 및 교육격차를 판단할 수 있지만, 유아교육 및 보육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아동발달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기준으로 아동발달에 미치는 코로나19의 영향을 판단하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울·경기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709명, 학부모 742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원장 및 교사의 71.6%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양신영, 2021: 4). 구체적으로 원장 및 교사의 74.9%는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77.0%는 ‘바깥놀이 위축으로 인한 신체운동시간 및 대근육·소근육 발달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양신영, 2021: 4). 또한 원장 및 교사의 63.7%는 ‘과도한 실내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고, 55.5%는 ‘낮가림, 기관 적

응 어려움 및 또래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응답하였다(양신영, 2021: 4).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아동과 교사가 모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의 언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있고, 바깥놀이 감소는 신체운동의 발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생활 시간 증가는 아동들의 스트레스 증대로 인해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및 문제행동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한국보육지원학회(2021)에서는 팬데믹의 돌봄공백과 가정에서의 돌봄 환경의 차이 등으로 나타나는 아동의 주요 행동양식의 변화와 경계선적 문제행동의 증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현장의 대응방안을 교사 지도의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다) 학습공백 및 가정부담 확대

코로나19 이후 아동이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돌봄공백 및 이에 따른 가정의 부담이 증대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아동의 기관 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휴교·휴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개별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정책적으로 권고되었다(최윤경 외, 2020: 39). 이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은 가정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조사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낮시간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형제/자매끼리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고,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낮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교하지 않는 날에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서 및 심리상태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였다(김위정, 2020: 4).

등교수업의 축소 및 원격수업의 확대는 가정양육 부담 및 사교육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양신영(2021)은 학부모들에게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전후로 자녀의 사교육 프로그램 이용에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 시 55.1%가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양신영, 2021: 6). 학부모의 72.9%는 '가정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양육자가 직간접적 도움을 주는 등의 엄마표 사교육'이 늘었다고 응답하였고, 60.0%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화상영어수업 등 온라인 플랫폼 사교육 이용'이 늘었다고 응답하였다(양신영, 2021: 6).

이러한 결과는 등교수업의 축소 및 원격수업의 확대는 학습에서 가정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온라인 플랫폼 형태로 진행되는 사교육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유치원 원격교육의 법적 근거

코로나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유치원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등원수업이 어려울 경우 원격수업을 병행한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 대응 초기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김동훈·김은영, 2020: 99). 유치원의 경우 등원과 원격수업, 돌봄교실(방과후과정) 운영을 병행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 원격수업을 인정받지 못하여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 2020: 258).

이후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 2021년 9월 24일 제정되어 유치원이 포함되어(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제1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 2022. 3. 25.][법률 제 18459호, 2021. 9. 24., 제정. 2022. 3. 25 시행]. 그동안 등교/대면 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공교육 체계에서 원격/디지털 수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미래 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기여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²⁸⁾.

3) 취약계층의 어려움 및 지원체계의 단절

코로나19 시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최윤경 외(2020)의 연구 결과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 부부관계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나빠진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으며, 돌봄 공백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도 더 높았다.

장애 영유아의 경우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한계가 있으며, 가정과 기관의

28)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B%90%EA%B2%A9%EA%B5%90%EC%9C%A1+%ED%99%9C%EC%84%B1%ED%99%94#liBgcolor0> (2021. 12. 10 인출)

연계가 어려워지면서 교육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강성리·허계형·Lee·Hix-Small·Steed, 2020). 특히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형성 기회가 부족해졌으며, 개인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다(한진희·심재환·정세원·최진우, 2020).

한부모가족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및 돌봄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한국일보, 2020. 3. 19.), 가정 내 양육을 위한 가용자원이 부족해 자녀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청락·김혜정·문정희·이자형·박금식·이진숙, 2020).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자녀 돌봄 및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부족, 체력의 한계, 교육방법의 부재, 소통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최청락 외, 2020), 다문화가족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심화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 및 의료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고, 교육의 측면에서도 자녀의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아동의 학력 결핍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최아라, 2020; 최청락 외, 2020). 지역아동센터와 복지관의 폐쇄 및 휴관으로 인한 무료 급식 및 도시락 서비스 중단, 학교 개학 연기 및 급식의 중단은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김선숙 외, 2020).

4) 아동학대의 증가 등 아동돌봄의 취약성 심화

코로나19의 확산은 가정 양육 및 원격수업으로 인한 아동과 양육자의 스트레스 증가, 보호자의 휴업 실직 등 아동학대 위험성을 높이고 있으며, 동시에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어렵게 만들어 아동학대의 발생 및 재발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김선숙 외, 2020; 서한욱, 2020; Cabrera-Hernández & Padilla-Romo, 2020). 많은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스트레스도 증가하여 아동학대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선숙 외, 2020; 최아라, 2020; 최지옥, 2021). 코로나19의 확산은 휴교, 원격교육 등으로 인한 양육 수요를 발생시키지만 부모의 가용 자원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양육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이는 부모의 번아웃(burnout)을 유발한다. 특히 부모의 실직, 재정적 어려움, 낮은 수준의 사회적지지(친구 및 친척의 지원), 여가시간의

부족 등은 부모의 번아웃을 유발하며, 부모의 번아웃은 아동학대 및 방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Griffith, 2020).

아동학대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반면 아동학대의 발견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면조사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아동학대조사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대면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법원이 휴정하여 사법절차가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감염 우려로 인해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가정방문 대면상담이 중단되어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으며,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기관의 휴관으로 심리치료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기도 하였다(김선숙 외, 2020; 서한욱, 2020). 서한욱(2020)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신고의무자인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8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공적돌봄체계의 휴원휴업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일련의 아동학대 대응의 과정이 제한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후 대면 돌봄활동이 재개되고 아동학대 등의 의심사례 발견이 증가하면서 지연된 아동학대 신고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bounce-back 효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정선재, 2021).

이봉주와 장희선(2021)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아동폭력의 잠재유형을 분류하고 해당 잠재유형을 경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코로나19 발생이후 자녀끼리 홀로 있는 날이 증가했거나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의 증가, 소득 감소 등의 요인은 정서학대/방임 유형에 속할 승산이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형에 소속된 아동의 행복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포스트코로나 미래 어젠더

육아분야 위드코로나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체계의 개선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당면한 문제점과 우선 개선사항의 도출 외에, 포스트코로나 육아환경의 변화와 과제를 고려하여 미래 어젠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ECEC(아동 교육·보육·돌봄) 및 양육지원체계의 개선, 위기아동에 대한 발견 및 지원의 체계적 대응은 다음의 추세 변화와 과제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 기후변화에의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후위기에서 파생되는 위험/재난의 발생이 증가 및 상시화 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의 대응과 탄소제로 관련 입법화, 지속가능성장의 세계시민성과 ESG 운영의 필요성이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의 대응이 환경의 관점과 사회경제적 운영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주체인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교육과 지원의 측면에서 육아분야의 대응과 고려는 제한적이다.

서비스-비용-시간 지원으로서의 양육지원체계와 아동 교육·보육·돌봄 및 보호정책으로서의 육아지원이 환경 관점의 기후변화에의 대응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변화하는 육아환경과 저출생의 파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미래 삶의 양식을 고려할 때 이는 분리할 수 없는 당면과제이다.

이제 육아지원정책은 교육·보육·돌봄의 과정(curriculum, pedagogy)과 미래교육의 전략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대응에서 요구되는 패러다임과 가치체계를 반영하는 육아정책의 기초와 방향성을 필요로 한다. 즉 근대화 이후 지금까지 사회 운용의 기제가 된 경제적 성장과 발전주의에 기초한 노동(시간)과 출산, 양육 및 교육, 취업의 과정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점들이 가시화 되고 있으므로(예: 결혼율/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청년실업과 니트(NEET) 등), 급격히 줄어드는 아동과 출산을 선택한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육아지원 정책은 보다 포괄적·전향적으로 미래사회의 방향과 가치체계를 고려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예: 가족의 다양성, 비혼가구 대상 지원, 교육과정 다변화 등).

환경을 고려한 탈인간주의(post-humanism)의 미래 삶의 양식을 고려한 보다 광범위한 교육·보육·돌봄 정책에 대한 고민이 담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육아지원과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의 제공이 일하는 부모의 자녀돌봄을 지원하는 일가정양립 위주에서 확장되어, 일하지 않는 부모 대상의 촘촘한 양육지원을 포괄하고, 무엇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교육·보육·돌봄의 과정과 보호 및 상시 모니터링의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미래세대 아동이 정책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가 되는 기후변화에의 대응과 관련 테크놀로지의 변화, 주기적 상시성을 갖는 재난 상황의 대응과

회복력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평생학습 및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 학교 교과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 지역사회의 체험학습을 통해 기후 변화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변화와 (이제 뉴노멀이 된) 재난/위기 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 회복의 적응력에 관한 실행이 교육·보육·돌봄의 과정(curriculum, pedagogy)과 미래교육을 통해 적극 운영될 필요가 있다.

나. Digitalization

코로나19으로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과 원격수업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온라인 교육·돌봄 환경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대면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 돌봄의 과정이 어린 아동의 양육과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의 쟁점이 있으나, 온-오프라인 Blended educare system은 피하기 어려운 당면과제이다. 메타버스와 에듀테크, AI와 같은 디지털 환경이 교육·보육·돌봄 및 (위기아동 발굴과 지원) 보호로서의 육아환경에도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와 대응을 고려하여 포스트코로나 양육지원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돌봄에 관한 디지털 온라인 체계의 구축과 이에 대한 경험의 증가가 낳는 긍-부정의 영향이 개별 아동과 가정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 비대면의 소통이 아동의 또래관계와 상호작용의 빈도 및 관계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SNS 미디어 위주의 사회적 관계형성이 갖는 아동·청소년 성장발달의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돌봄과 보호, 교육의 양육지원체계는 디지털 온라인화의 과정이 개별 아동과 가정에 어떻게 긍-부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필요로 한다.

다. 초 저출생의 심화

1960~70년대 100만명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4~6명을 보이던 지표가 2020년 27만명 0.84로 변화하였다. 글로벌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가시화를 경험하면서 저출생의 경향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의 감소가 사회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으나, 다른 한편 인구축소가 가져오는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 적응하는 뉴노멀의 전략이 필요하며(예: 저출산 패

러다임 전환, 적응-완화의 전략), 환경의 관점에서 인구감소를 바라보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육아정책의 관점에서는 첫째, 지난 2년 팬데믹의 환경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코로나세대 아동의 코호트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보육·돌봄의 지원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둘째, 인구(규모)의 관점에서 100만명 대비 1/4로 줄어든 아동과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의 체계는 전환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미래세대 아동과 자녀양육가구에 내재된 다층적인 수요와 요구/어려움을 반영한 보다 세밀한 지원체계와 (앞서 논의한)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의 운영을 필요로 하며, 이는 역량과 웰빙에 기초한 정책 설계를 필요로 한다. 이는 아동 개개인과 가정 및 부모 특성에 맞는 개별화 전략과 맞춤형지원의 설계를 의미한다.

라. 웰빙/역량 중심의 접근

초 저출생 기조에서 27만명 규모로 축소된 아동에 대한 돌봄과 양육, 교육의 과정은 웰빙과 건강, 역량을 증진하는 아동 중심의 개별화 된 접근과 모니터링에 기초한 촘촘한 양육지원체계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아동중심의 접근 외에 부모의 웰빙과 양육역량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교사의 웰빙과 전문성 증진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며, 주요 육아주체(아동, 부모, 교사)별 접근이 요구된다.

OECD는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의 중요성에 관한 정책 권고를 지속적으로 실시, 교사의 전문성이 역량과 웰빙에 기초함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교사의 웰빙은 정서와 직무효능감, 성취감과 우울감/소진에 관한 것으로, 교사의 역량은 학력과 자격 및 인성적 자질 외에 유연성과 융합적 사고, 교수학습의 질과 상호작용, 행동관리 등의 하위개념을 가짐을 보고하였다(예: OECD Future of Education & Skills 2030²⁹⁾). 부모의 양질의 양육과정과 부모됨에서도 역량과 웰빙(행복감)의 중요성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점차 개별화 되어가는 양육 및 교육·보육·돌봄의 과정과 수요, 문제상황과 어려움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개별 육아 주체가 경험하는 과정적 질과 역량

2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skills/> 2021. 6. 10 인출

을 증진하는 지원체제로 보강될 필요가 있다.

즉 서비스-시간-비용 지원으로서의 자녀양육가구 대상 지원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교사의 역량 제고를 위해 교직원의 근로환경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교사복지 및 보호체계와 연계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참여와 학습력 제고가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위해 학교 안팎과 가정에서 연속성 있게 운영되도록 그 확장성과 연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IV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 01 수요자 부모 의견 조사 결과
- 02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의견 조사 결과
- 03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조사 결과
- 04 청년 조사 결과
- 05 FGI/면담조사 결과 분석
- 06 의견조사 결과의 시사점

IV.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19 기간 경험한 아동 돌봄 및 교육 현황과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수요자 부모와 돌봄 현장의 교직원(유치원·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육아정책과 양육지원체계가 아동이 출생한 시점 이후의 지원에서 확장되어 산전 및 예비부모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필요로 함에 따라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생애주기 상에 보다 연속성 있는 대응 전략의 마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살펴본 팬데믹 대응과 이로 인해 드러난 돌봄과 학습의 공백과 격차, 아동의 성장·발달에 누적된 어려움 등 제 측면에 대해 2021년 10월 시점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코로나 전-후 비교 분석 및 진단하였다.

1. 수요자 부모 의견 조사 결과

가. 응답가구 특성

0~만9세(초등 3학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회사 패널을 대상으로 주요 변인(부-모, 자녀연령별, 지역/지역규모, 맞벌이여부, 취업가구)에 대한 유의할당을 통해 대표성에 편향의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1,000명으로, 부와 모,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가 동수로 균등 참여하였으며, 취업모의 경우 56.9%로 응답가구의 과반이 넘었다. 가구소득수준에 의하면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가 조사참여 응답자의 약 10%로 나타났으며, 모든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유아, 초등저학년(1~3학년) 부모가 40% 내외로 균등하게 참여하였다.

지난 2년간 자녀가 휴원·휴업 기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학교의 긴급돌봄을 이용한 정도를 질문한 결과, 이용하지 않음 38.8%, 가끔이용 47.5%, 자주이용 13.7%로 응답되어 이를 분석변인으로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표 IV-1-1〉 부모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전체	100.0	(1,000)
성별		
남(부)	50.0	(500)
여(모)	50.0	(500)
지역		
대도시	49.4	(494)
중소도시	37.0	(370)
농어촌	13.6	(136)
연령		
30대(이하)	48.2	(482)
40대(이상)	51.8	(518)
학력		
고졸이하	9.2	(92)
3년제 대졸	18.4	(184)
4년제 대졸	61.6	(616)
대학원이상	10.8	(108)
모 취업여부		
취업	56.9	(561)
미취업	43.1	(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0	(500)
외벌이	50.0	(500)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10.0	(100)
200~400만원이하	22.9	(229)
400~600만원이하	34.8	(348)
600~800만원이하	18.5	(185)
800만원초과	13.8	(138)
자녀연령		
영아부모	40.0	(400)

IV.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구분	비율(수)	
유아부모	38.0	(380)
초등부모	46.7	(467)
긴급돌봄이용		
미이용	38.8	(388)
가끔이용	47.5	(475)
자주이용	13.7	(137)
취약여부		
취약가구	19.2	(192)
비취약가구	80.8	(808)
재난특별지역여부		
해당	6.2	(62)
비해당	93.8	(938)
특수고용		
부모돌다	11.2	(112)
부모중1명	23.3	(233)
둘다아님	65.5	(655)

주: 1) 20대 1.6%, 50대이상 3.1%로 조사참여 비율이 적어 30대, 40대 범주로 합하여 제시함.
 2) 하위분석변인 '초등부모'는 초등저학년(1~3학년) 부모를 의미함.
 3) 조사에 참여한 남-녀가 응답한 본인-배우자에 대한 내용을 부-모에 대한 응답결과로 구성함.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한부모, 조손, 장애, 다문화, 질환 등의 취약특성을 갖는 가구는 총 19.2% 참여하였으며, 2020년 팬데믹 초기 특별재난지역으로 구분된 대구, 봉화, 청도, 의성에서 6.2%가 참여하였다.

조사참여가구 중 대도시지역과 30대연령 부모에서, 최종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연령이 많을수록(초등저학년 자녀 부모에서), 비취약가구에서 맞벌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의 경우 취업 93.9%, 비취업 5.4%, 비해당 0.7%, 모의 경우 취업 56.1%, 비취업 41.5%, 비해당 1.4%로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취업에 휴직중, 미취업에 구직중 응답을 포함함).

〈표 IV-1-2〉 부모조사 가구-맞벌이여부

단위: %(명)

구분	맞벌이	외벌이	사례수
전체	50.0	50.0	(1,000)
지역			
대도시	55.1	44.9	(494)

구분	맞벌이	외벌이	사례수
중소도시	43.0	57.0	(370)
농어촌	50.7	49.3	(136)
연령			
30대(이하)	52.3	47.7	(482)
40대(이상)	47.9	52.1	(518)
학력			
고졸이하	34.8	65.2	(92)
3년제 대졸	45.1	54.9	(184)
4년제 대졸	52.6	47.4	(616)
대학원이상	56.5	43.5	(108)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7.0	93.0	(100)
200~400만원이하	17.9	82.1	(229)
400~600만원이하	50.9	49.1	(348)
600~800만원이하	84.3	15.7	(185)
800만원초과	86.2	13.8	(138)
자녀연령			
영아부모	43.3	56.8	(400)
유아부모	50.5	49.5	(380)
초등부모	55.7	44.3	(467)
취약여부			
취약가구	47.4	52.6	(192)
비취약가구	50.6	49.4	(808)

조사참여가구 중 다음의 취약특성을 (과거+현재) 갖고 있는 경우를 질문한 결과, 전체 19.2%가 이 중 한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중에 장애 및 장기입원/질환을 갖고있다고 응답한 가구(각 58, 64사례)에서 부모가 갖고있는 경우가 65.5%, 81.3%,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가 37.9%, 28.1%로 나타났다.

〈표 IV-1-3〉 부모조사 가구-취약특성

구분	단위: %(명)				사례수
	현재	과거	아님	모름	
기초생활수급	2.8	3.0	92.3	1.9	(1,000)
법정차상위	1.6	4.1	86.9	7.4	(1,000)
다문화가족	4.0	2.3	92.6	1.1	(1,000)
한부모가족	2.1	-	96.3	1.6	(1,000)

구분	현재 어려움	과거 어려움	아님	모름	사례수
조손가족	2.4	-	95.1	2.5	(1,000)
장애가족	3.6	2.2	92.8	1.4	(1,000)
장기입원·질환	2.1	4.3	87.5	6.1	(1,000)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비정형 근로시간과 일의 형태를 갖는 경우를 별도의 질문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체 23.3% 가구에서 부모 중 1명이 이러한 특수고용/플랫폼/비정형의 일자리를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업 외 부업/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부 12.2%, 모 6.2%로 나타났으며, 근로시간과 일의 형태와 양이 비정형적/불규칙적인 일에 부 7.5%, 모 5.9%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가구에서 특수고용/플랫폼노동/비정형일자리를 갖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학력, 취약가구에서 종사하는 비율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³⁰⁾.

본 조사에 참여한 자녀응답가구의 월평균 소득(세전)은 555만 8천원으로 부 근로소득 평균 약 370만원, 모 근로소득 평균 약 146만원, 양육 관련 공적이전소득 약 20만원, 기타소득 약 25만원, 자녀양육비 지출은 월 평균 126만원(사교육비 지출 60만원 포함)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조사결과는 상기한 응답자 특성 및 부모/가구의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양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수립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및 향후 예상

1) 팬데믹으로 인한 자녀양육가구의 사회경제적 변화 및 경험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과 지출, 근로시간과 자녀돌봄시간, 여가문화활동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변화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긍-부정의 응답이 모두 있는 가운데, 5점 평균 2점대로 가구소득과 부모의 근로소득은 늘었다는 응답보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지출은 늘었다고 응답한 가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가구지출의 경우 자녀 돌봄비용과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30) 본 조사에 참여한 부모의 플랫폼/비정형일자리 등의 근로형태에 관한 자료는 <부록 표> 참조

근로시간의 경우 늘었다는 응답과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는데, 대면 근로시간은 줄고 비대면/재택 근로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자녀의 수업과 공부를 챙기고 지원하는 시간과 온라인 소통 시간이 증가한 반면, 가족의 여가/문화활동과 휴식, 신체활동 및 바깥활동 시간,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모-자녀 관계와 부부관계는 좋아졌다는 긍정응답이 부정응답에 비해 좀 더 많았으며,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팬데믹 전-후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는 2020년 상반기에 조사된 결과(최윤경 외, 2020)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IV-1-4〉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전-후 변화

단위: %(명)

구분	(약간+매우) 감소함	변화없음	(약간+매우) 증가함	5점 평균	(수)
가구소득	36.2	47.9	15.9	2.70	(1,000)
- 부 근로소득	26.1	52.1	15.7	2.83	(1,000)
- 모 근로소득	17.2	30.7	8.2	2.77	(1,000)
가구지출	15.0	36.3	48.7	3.39	(1,000)
- 자녀 돌봄비용	10.8	41.6	47.6	3.43	(1,000)
- 자녀 사교육비	11.4	44.2	44.4	3.39	(1,000)
근로시간	14.2	53.5	12.2	2.97	(1,000)
- 대면근로시간	20.2	48.9	10.8	2.86	(1,000)
- 비대면근로시간	7.2	50.5	22.2	3.21	(1,000)
- 재택근무시간	0.8	5.4	6.9	3.54	(1,000)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	8.4	32.8	58.8	3.66	(1,000)
자녀의 수업과 공부를 챙기고 지원하는 시간	9.0	35.2	55.8	3.58	(1,000)
여가 및 문화활동 시간	41.1	36.6	22.3	2.71	(1,000)
휴식시간	38.2	40.6	21.2	2.76	(1,000)
신체활동시간	47.4	36.1	16.5	2.59	(1,000)
바깥활동시간	61.1	25.6	13.3	2.31	(1,000)
TV/미디어 이용 시간	11.1	30.9	58.0	3.60	(1,000)
온라인 소통 시간	10.8	39.5	49.7	3.46	(1,000)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	62.0	27.7	10.3	2.19	(1,000)
부모-자녀 관계	9.6	62.3	28.1	3.22	(1,000)

구분	(약간+매우) 감소함	변화없음	(약간+매우) 증가함	5점 평균	(수)
부부 관계	15.9	61.7	20.3	3.06	(1,000)
부 경제활동(취업상태)	15.5	66.8	11.6	2.94	(1,000)
모 경제활동(취업상태)	12.9	36.2	7.0	2.86	(1,000)

주: 1) 각 항목별 비해당 응답률 제시를 생략함. 응답 계가 100%가 아님에 유의.
 2) '감소함'은 '상당히+약간' 감소함(또는 나빠짐) 5점척도에서 1+2점 응답률의 합
 '증가함'은 '상당히+약간' 증가함(또는 좋아짐) 5점척도에서 4+5점 응답률의 합임.

2020년 2월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경험에 대해서는 부 13.0%, 모 12.0%로 나타났다. 애초 일하지 않음 응답이 모(여성)에서 많음을 고려할 때, 취업모에서 팬데믹 기간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부의 경우 학력과 가구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취약특성을 가진 경우, 특수고용/플랫폼노동/비정형시간 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경우 고졸학력 이하와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 및 취약 가구에서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3년이하 대졸학력과 가구소득 400~800만원 이하 중위소득 가구에서도 모의 취업중단 응답이 많았다. 자녀연령에 따른 취업중단 응답은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1-5〉 2020년 2월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경험_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일하지않음)	사례수
부(전체)	13.0	80.9	6.1	(1,000)
학력				
고졸이하	23.9	63.0	13.0	(92)
3년제 대졸	13.6	80.4	6.0	(184)
4년제 대졸	12.0	82.0	6.0	(616)
대학원이상	8.3	90.7	0.9	(108)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14.0	36.0	50.0	(100)
200~400만원이하	13.1	83.4	3.5	(229)
400~600만원이하	18.4	81.0	0.6	(348)
600~800만원이하	7.6	91.9	0.5	(185)
800만원초과	5.8	94.2	0.0	(138)
자녀연령				
영아부모	14.3	77.8	8.0	(400)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일하지않음)	사례수
유아부모	11.8	82.6	5.5	(380)
초등부모	13.3	82.0	4.7	(467)
취약여부				
취약가구	20.3	68.8	10.9	(192)
비취약가구	11.3	83.8	5.0	(808)
특수고용				
부모둘다	17.9	82.1	0.0	(112)
부모중1명	16.7	71.7	11.6	(233)
둘다아님	10.8	84.0	5.2	(655)

〈표 IV-1-6〉 2020년 2월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경험_모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일하지않음)	사례수
모(전체)	12.0	44.1	43.9	(1,000)
학력				
고졸이하	13.0	34.8	52.2	(92)
3년제 대졸	18.5	32.6	48.9	(184)
4년제 대졸	10.7	47.9	41.4	(616)
대학원이상	7.4	50.0	42.6	(108)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27.0	30.0	43.0	(100)
200~400만원이하	7.4	14.0	78.6	(229)
400~600만원이하	11.2	40.2	48.6	(348)
600~800만원이하	14.6	70.3	15.1	(185)
800만원초과	7.2	79.0	13.8	(138)
자녀연령				
영아부모	10.5	40.8	48.8	(400)
유아부모	11.8	44.2	43.9	(380)
초등부모	12.2	48.2	39.6	(467)
취약여부				
취약가구	22.4	35.9	41.7	(192)
비취약가구	9.5	46.0	44.4	(808)
특수고용				
부모둘다	29.5	70.5	0.0	(112)
부모중1명	14.2	36.1	49.8	(233)
둘다아님	8.2	42.4	49.3	(655)

팬데믹기간 직장을 그만둔 이유로는 ‘직장 상황이 어려워져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자녀 돌봄과 교육을 위해서’라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모(여성)의 경우 ‘직장 상황이 어려워져서’와 ‘자녀 돌봄과 교육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부(남성)에 비해 좀 더 많았다.

〈표 IV-1-7〉 직장을 그만 둔 이유

단위: %(명)

구분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워진 직장 상황으로 인해	자녀 돌봄 및 교육을 위해	개인적인 상황 및 선택으로	기타	사례수
전체	46.9	43.4	35.8	0.9	(226)
성별					
남(부)	43.8	40.0	37.1	1.9	(105)
여(모)	49.6	46.3	34.7	0.0	(121)

팬데믹 이후 변화에 대해 긍-부정의 영향 중 어떤 것이 더 컸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응답(43.8%)이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응답(14.5%)에 비해 많았다(5점평균 2.6점). 부정적 영향이 컸다는 응답은 부에 비해 모에서,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영아부모 및 긴급돌봄 미이용 가구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V-1-8〉 팬데믹 이후 변화에 대한 긍-부정 영향

단위: %(명)

구분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부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비슷하다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긍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9.4	34.4	41.7	13.8	0.7	2.62	(1,000)
성별							
남(부)	7.0	36.0	41.4	15.0	0.6	2.66	(500)
여(모)	11.8	32.8	42.0	12.6	0.8	2.58	(500)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14.0	42.0	35.0	9.0	0.0	2.39	(100)
200~400만원이하	7.4	39.3	43.2	9.2	0.9	2.57	(229)
400~600만원이하	11.2	33.3	38.8	16.1	0.6	2.61	(348)
600~800만원이하	8.6	28.6	45.4	16.8	0.5	2.72	(185)

구분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부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비슷하다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긍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5점 평균	사례수
800만원초과	5.8	31.2	46.4	15.2	1.4	2.75	(138)
자녀연령							
영아부모	8.0	32.0	43.8	16.0	0.3	2.69	(400)
유아부모	9.2	37.6	37.6	14.2	1.3	2.61	(380)
초등부모	10.7	36.0	41.1	11.3	0.9	2.56	(467)
긴급돌봄이용							
미이용	8.2	28.9	47.2	14.7	1.0	2.71	(388)
가끔이용	9.9	38.1	40.2	11.2	0.6	2.55	(475)
자주이용	10.9	37.2	31.4	20.4	0.0	2.61	(137)
취약여부							
취약가구	10.4	42.7	36.5	9.4	1.0	2.48	(192)
비취약가구	9.2	32.4	42.9	14.9	0.6	2.65	(808)

2) 팬데믹 종식과 이후 변화에 대한 예상

팬데믹 종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위드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는 응답이 38.9%로 많았으며, 2022년에 종식 39.6%, 2023년 종식 12.3%, 2024년 이후 7.3%로 나타났다. 육아분야 팬데믹 대응이 위드코로나 상황의 지속 및 종식 이후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팬데믹이 종식되고 포스트코로나 상황이 된다면 자녀양육과 돌봄 및 일생활균형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질문한 결과, 변화가 (약간+매우) 클 것이라는 응답이 66.0%로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보다 모에서, 대도시지역에서 변화가 있으리라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표 IV-1-9〉 팬데믹 종식 예상 시기

단위: %(명)

구분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음 (위드코로나 상황 지속)	2022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2024년 이후	2021년	사례수
전체	38.9	25.2	14.4	12.3	7.3	1.9	(1,000)

〈표 IV-1-10〉 포스트코로나 시기 자녀양육과 돌봄 및 일생활 균형에서의 변화

단위: %(명)

구분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다	변화가 별로 없을 것이다	보통	변화가 약간 있을 것이다	변화가 매우 클 것이다	5점평균	사례수
전체	0.5	7.3	26.2	55.0	11.0	3.69	(1,000)
성별							
남(부)	0.8	7.0	28.6	52.0	11.6	3.67	(500)
여(모)	0.2	7.6	23.8	58.0	10.4	3.71	(500)
지역							
대도시	0.4	5.9	25.7	57.9	10.1	3.71	(494)
중소도시	0.5	9.5	24.6	53.5	11.9	3.67	(370)
농어촌	0.7	6.6	32.4	48.5	11.8	3.64	(136)

다. 팬데믹 기간 서비스 이용 현황

1) 현재 이용중인 유치원·어린이집 기관유형 및 초등돌봄서비스

조사참여가구의 취학전 영유아자녀(들)가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자원 분포를 살펴본 결과(모든 영유아자녀 기준 중복응답),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공립유치원 18.8%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자원 비율은 각 9.5%, 15.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사참여가구의 초등 1~3학년 자녀(들)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질문한 결과(모든 초등자녀 기준 중복응답), 초등자녀를 둔 467가구 중 38.5%에 해당하는 180가구에서 초등돌봄서비스(방과후과정 포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방과후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각 67.8%, 5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온종일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1〉 현재 영유아 자녀가 이용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기관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회복지 법인/법인/단체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사례수
전체	39.1	18.8	12.6	9.5	9.1	7.6	6.7	0.9	(581)
지역									
대도시	39.9	18.2	11.9	11.5	9.1	6.6	4.5	0.7	(286)
중소도시	40.4	17.8	13.1	5.6	9.9	7.5	10.8	1.4	(213)
농어촌	32.9	23.2	13.4	12.2	7.3	11.0	3.7	0.0	(82)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0	16.4	13.0	11.3	12.0	7.2	3.8	1.4	(292)
외벌이	40.1	21.1	12.1	7.6	6.2	8.0	9.7	0.3	(289)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40.0	24.0	6.0	8.0	4.0	18.0	4.0	0.0	(50)
200~400만원이하	39.3	22.9	12.1	5.7	6.4	7.1	11.4	1.4	(140)
400~600만원이하	41.7	16.5	15.5	7.8	7.8	7.8	6.3	0.5	(206)
600~800만원이하	38.1	24.7	13.4	9.3	9.3	4.1	4.1	1.0	(97)
800만원초과	33.0	8.0	9.1	20.5	19.3	5.7	4.5	1.1	(88)
취약여부									
취약가구	52.1	26.0	16.7	1.0	0.0	2.1	7.3	0.0	(96)
비취약가구	36.5	17.3	11.8	11.1	10.9	8.7	6.6	1.0	(485)

〈표 IV-1-12〉 현재 초등저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공공 돌봄서비스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초등 방과후 과정	초등돌봄 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 가족부)	지역아동 센터 (보건 복지부)	온종일 돌봄센터/지자체 돌봄센터 (각 지자체)	다함께 돌봄센터 (보건 복지부)	잘 모름	사례수
전체	67.8	53.3	18.9	17.2	7.8	7.2	2.2	(180)
지역								
대도시	72.4	54.1	20.4	16.3	8.2	5.1	2.0	(98)
중소도시	63.5	50.8	17.5	19.0	6.3	7.9	1.6	(63)
농어촌	57.9	57.9	15.8	15.8	10.5	15.8	5.3	(19)
연령								
30대(이하)	61.5	61.5	19.2	23.1	9.6	5.8	0.0	(52)
40대(이상)	70.3	50.0	18.8	14.8	7.0	7.8	3.1	(128)
맞벌이 여부								

구분	초등 방과후 과정	초등돌봄 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 가족부)	지역아동 센터 (보건 복지부)	온종일 돌봄센터/ 지자체 돌봄센터 (각 지자체)	다함께 돌봄센터 (보건 복지부)	잘 모름	사례수
맞벌이	67.6	53.2	15.3	13.5	6.3	8.1	2.7	(111)
외벌이	68.1	53.6	24.6	23.2	10.1	5.8	1.4	(69)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60.0	60.0	33.3	53.3	20.0	0.0	0.0	(15)
200~400만원이하	73.3	46.7	6.7	20.0	13.3	6.7	0.0	(30)
400~600만원이하	74.6	52.4	25.4	14.3	3.2	6.3	3.2	(63)
600~800만원이하	65.9	52.3	15.9	13.6	4.5	6.8	2.3	(44)
800만원초과	53.6	60.7	14.3	7.1	10.7	14.3	3.6	(28)
취약여부								
취약가구	55.3	57.4	25.5	29.8	19.1	6.4	0.0	(47)
비취약가구	72.2	51.9	16.5	12.8	3.8	7.5	3.0	(133)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경우 조사시점 현재(2021년 10월 중순) 주 5일 정상적인 등원/등교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조사 참여가구의 약 60% 내외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에서의 정상등원 응답이 좀 더 많았다.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방식도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IV-1-13〉 현재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주5일 정상 등원/등교 실시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어린이집	65.9	34.1	(422)
유치원	59.7	40.3	(518)
초등학교	59.7	40.3	(518)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현재 주 5일 정상적인 등원/등교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원격수업을 실시중(주중 일부+주5일 모두)이라는 응답이 전체 6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휴원·휴업기간으로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된다는 응답이 32.3%로 나타났다.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과 농어촌지역에서 원격수업 실시중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IV-1-14〉 현재 주5일 정상 등원·등교를 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주중 일부 원격수업 실시중	휴원기간임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	주5일 모두 원격수업 실시중	기타	사례수
전체	57.5	32.3	11.0	1.7	(362)
지역					
대도시	59.4	30.5	10.7	1.1	(187)
중소도시	52.8	37.6	11.2	1.6	(125)
농어촌	62.0	26.0	12.0	4.0	(50)
자녀연령					
영아부모	45.5	48.0	7.3	3.3	(123)
유아부모	47.1	48.4	6.5	2.6	(155)
초등부모	74.1	12.7	15.9	0.5	(220)

2) 팬데믹 기간 자녀의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변화와 선호

코로나 상황 전후로 자녀 양육을 위한 서비스 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기관을 다니지 않고 주로 가정내양육을 한다(45.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휴원·휴업 기간 다니던 기관 이용을 지속함(37.4%), 조부모/친인척 도움을 받음(23.2%),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용(19.6%), 돌보는 사람 이용을 그만둠(9.1%)로 나타났다.

모 취업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모취업/맞벌이가구에서 휴원기간 기관이용과 함께 다니던 기관/서비스 이용을 그만두고 조부모/친인척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학력/고소득일수록 기관이용을 지속하고 조부모/친인척 도움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유아부모의 경우 휴원기간 기관이용을 지속하였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초등부모에서는 그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5〉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서의 변화(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휴원기간 기관을 다녀않고, 주로 집에서 가정내양육	휴원기간 기관이용을 지속함	조부모 /친인척에게 돌봐달라고 하여 도움을 받음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을 그만두고 다른곳 이용	돌보는 사람 이용을 그만 둠/잡정 취소함	기타
전체	45.3	37.4	23.2	19.6	9.1	0.9
학력						
고졸이하	54.3	29.3	19.6	18.5	4.3	2.2
3년제 대졸	41.3	40.8	16.3	20.7	9.2	1.6
4년제 대졸	46.9	36.7	25.6	18.3	9.3	0.5
대학원이상	35.2	42.6	24.1	25.9	12.0	0.9
모 취업여부						
취업	38.1	42.6	28.2	21.7	10.0	0.5
미취업	55.1	29.9	16.9	16.9	7.5	1.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6.4	45.0	29.8	21.6	9.8	0.6
외벌이	54.2	29.8	16.6	17.6	8.4	1.2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48.0	29.0	18.0	25.0	11.0	0.0
200~400만원이하	54.1	32.3	14.0	15.7	5.7	1.7
400~600만원이하	45.1	36.8	26.4	17.5	7.2	0.9
600~800만원이하	39.5	41.6	26.5	23.8	12.4	1.1
800만원초과	37.0	47.8	29.7	21.7	13.8	0.0
자녀연령						
영아부모	45.0	37.0	22.5	19.0	8.3	1.5
유아부모	45.0	44.5	22.9	18.9	8.4	0.0
초등부모	46.5	39.0	22.1	21.2	10.1	0.6

구체적으로 막내자녀 1명을 기준으로 2021년 10월 현재시점 이용하고 있는 교육·돌봄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게 한 결과, 낮시간 어머니가 돌본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44.2%로 나타났으며, 부 돌봄(18.6%), 부모 함께 돌봄(12.5%) 비율은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친인척 돌봄의 비율이 35.6%로 나타났으며,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 58.1%, 유치원 이용 21.0%, 그리고 시간제보육과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21.4%로 나타났다. 시간제학원과 학습지 등의 영유아 사교육과 사설놀이공



간 이용률이 약 30%, 26%로 응답되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육아공동체 이용률은 10%대를 보였다. 2020년 6월말 조사(N=349)에서 응답된 이용률(최윤경 외, 2020)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인다.

초등자녀의 경우 초등돌봄교실 이용 32.0%, 초등방과후과정 40.7%. 지역아동센터 10.3%, 온종일/다함께 돌봄센터 각 4.75, 4.3%를 보였다. 학습 및 예체능 관련 사교육 이용이 40~5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 이용은 16.5%, 문화/오락/체험활동의 이용은 19.1%로 응답되었다. 2020년 6월말 조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공·사 영역 모두 돌봄과 교육 서비스 이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장기화 된 팬데믹 상황에서 서비스의 이용이 회복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공적인 돌봄서비스 이용에 비해 사교육 위주의 사적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였으며, 자녀혼자있음의 비율 또한 4.3%에서 17.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긴 시간,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인프라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16〉 막내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 및 유형(중복응답)

단위: %(명)

구 분	이용 현황		미래 유사 재난상황 시 선택 희망 서비스/유형 ('21. 10월)	사례수	
	'21. 10월 (N=1000)	'20. 6월 (N=349)			
부모	부(낮시간돌봄)	18.6	2.9	25.8	(1,000)
	모(낮시간돌봄)	44.2	22.3	37.9	(1,000)
	부모(낮시간 함께 돌봄)	12.5	33.2	23.4	(1,000)
인력	조부모/친인척 돌봄	35.6	29.5	34.2	(1,000)
	아이돌봄서비스	13.0	4.3	20.6	(1,000)
	민간육아도우미	9.6	3.7	13.3	(1,000)
영유아 기관	어린이집 이용	58.1	35.2	32.8	(700)
	유치원이용	21.0	13.5	22.2	(700)
	시간제보육/돌봄	21.4	2.9	16.5	(700)
영유아 사교육	반일제이상 영유아학원	6.6	2.6	15.1	(700)
	영유아사교육	29.9	6.6	18.0	(700)
	영유아사설놀이공간	26.4	5.2	14.3	(700)
공공	육아종합지원센터	13.0	1.1	12.6	(1,000)
	공동육아나눔터	10.7	1.7	10.7	(1,000)
	육아공동체/마을공동체	10.3	1.1	10.1	(1,000)

구 분	이용 현황		미래 유사 재난상황 시 선택 희망 서비스/유형 (‘21. 10월)	사례수	
	‘21. 10월 (N=1000)	‘20. 6월 (N=349)			
-	자녀혼자있음(주중 하루라도)	17.4	4.3	12.0	(1,000)
초등 돌봄	초등돌봄교실(긴급돌봄포함)	32.0	5.2	20.0	(300)
	초등방과후과정	40.7	1.4	23.5	(300)
	지역아동센터	10.3	1.1	10.9	(300)
	온종일돌봄센터(지자체포함)	4.7	8.9	12.0	(300)
	다함께돌봄센터	4.3	9.5	9.9	(300)
	초등 사교육	학원-학습관련	53.0	8.9	23.7
학원-예체능관련	43.3	9.5	22.6	(300)	
학원 외(학습지, 온라인수강 등)	40.3	8.9	18.3	(300)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도서관등)	16.5	1.4	16.9	(1,000)
	문화/오락/체험 활동	19.1	0.6	17.9	(1,000)

자료. 1) 본 연구 부모 조사 결과(2021년 10월 응답)

2)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연구 부모 조사 결과(2020년 6월 응답) <표 III-1-6>

3) 자녀 돌봄공백

팬데믹 기간 자녀 돌봄공백의 발생에 대해 2020년, 2021년으로 구분하여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낮시간 자녀를 돌볼 사람/서비스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지”로 질문), (어느정도+상당히) 그렇다 48.8%, 50.0% (전혀+별로) 그렇지않다 51.2%, 51.2% 로 나타났다. 이는 휴원/휴교 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경험했는지 질문한 2020년 3월/6월 말 시점 조사결과(36.2%, 37.5%) 응답(최윤경 외, 2020)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로, 1년이라는 보다 긴 기간의 경험이 축적되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하위분석에서 드러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의한 주요 경향에서는 2020-2021년 큰 차이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에 비해 모에서, 대도시지역, 모취업/맞벌이가구, 가구소득이 높은 그룹, 초등부모, 긴급돌봄을 자주 이용하는 그룹, 취약가구 및 재난특별지역에서, 그리고 특수고용/플랫폼노동/비정형일자리를 갖는 경우 자녀 돌봄공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17〉 2020년 2월 이후 자녀양육에 이전에 없던 돌봄공백 발생여부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부정 응답	긍정 응답	4점 평균	사례수
전체(2020년)	15.2	36.0	40.7	8.1	51.2	48.8	2.42	(1,000)
전체(2021년)	13.9	36.1	42.6	7.4	50.0	50.0	2.44	(1,000)
학력								
고졸이하	14.1	39.1	32.6	14.1	53.3	46.7	2.47	(92)
3년제 대졸	18.5	35.9	39.7	6.0	54.3	45.7	2.33	(184)
4년제 대졸	12.7	34.9	45.1	7.3	47.6	52.4	2.47	(616)
대학원이상	13.0	40.7	41.7	4.6	53.7	46.3	2.38	(108)
모 취업여부								
취업	8.6	34.0	49.0	8.4	42.6	57.4	2.57	(561)
미취업	20.7	38.4	34.8	6.1	59.1	40.9	2.26	(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7.8	33.4	49.8	9.0	41.2	58.8	2.60	(500)
외벌이	20.0	38.8	35.4	5.8	58.8	41.2	2.27	(500)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13.0	40.0	40.0	7.0	53.0	47.0	2.41	(100)
200~400만원이하	18.3	35.4	39.3	7.0	53.7	46.3	2.35	(229)
400~600만원이하	13.8	39.1	40.8	6.3	52.9	47.1	2.40	(348)
600~800만원이하	11.9	29.7	48.6	9.7	41.6	58.4	2.56	(185)
800만원초과	10.1	35.5	46.4	8.0	45.7	54.3	2.52	(138)
자녀연령								
영아부모	13.8	36.8	42.0	7.5	50.5	49.5	2.43	(400)
유아부모	15.5	37.1	39.2	8.2	52.6	47.4	2.40	(380)
초등부모	11.8	35.3	46.0	6.9	47.1	52.9	2.48	(467)
긴급돌봄이용								
미이용	24.5	40.7	29.1	5.7	65.2	34.8	2.16	(388)
가끔이용	5.9	34.1	54.1	5.9	40.0	60.0	2.60	(475)
자주이용	11.7	29.9	40.9	17.5	41.6	58.4	2.64	(137)
취약여부								
취약가구	7.8	39.1	45.3	7.8	46.9	53.1	2.53	(192)
비취약가구	15.3	35.4	42.0	7.3	50.7	49.3	2.41	(808)
재난특별지역여부								
해당	9.7	24.2	62.9	3.2	33.9	66.1	2.60	(62)
비해당	14.2	36.9	41.3	7.7	51.1	48.9	2.42	(938)
특수고용								
부모둘다	2.7	34.8	50.9	11.6	37.5	62.5	2.71	(112)
부모중1명	15.0	36.5	40.8	7.7	51.5	48.5	2.41	(233)
둘다아님	15.4	36.2	41.8	6.6	51.6	48.4	2.40	(655)

주: 1) 부정응답은 '전혀+별로' 그렇지않다(1+2점) 응답의 합
 긍정응답은 '어느정도+상당히' 그렇다(3+4점) 응답의 합임.

2) 제시된 하위변인별 자료는 2021년에 대한 응답 내용임.

4) 팬데믹 기간 긴급돌봄 이용 및 돌봄공백에의 기여

팬데믹 기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거의+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38.8%, 가끔 이용 47.5%, 자주/많이 이용 13.7%로 이용률 61.1%로 조사되었다. ‘가끔+자주/많이’ 이용한 경우는 유아(70.0%)-초등(62.0%)-영아(59.6%) 자녀 부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주/많이’ 이용한 경우를 하위변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도시지역, 고학력/고소득 가구, 모취업/맞벌이가구, 영유아부모, 비취약가구, 플랫폼노동을 부모 둘 다 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18〉 긴급돌봄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이용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자주/많이 이용함	사례수
전체	38.8	47.5	13.7	(1,000)
지역				
대도시	34.8	51.0	14.2	(494)
중소도시	45.1	41.1	13.8	(370)
농어촌	36.0	52.2	11.8	(136)
학력				
고졸이하	41.3	46.7	12.0	(92)
3년제 대졸	40.8	45.1	14.1	(184)
4년제 대졸	37.8	48.9	13.3	(616)
대학원이상	38.9	44.4	16.7	(108)
모 취업여부				
취업	30.3	52.8	16.9	(561)
미취업	49.6	40.9	9.4	(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28.4	53.6	18.0	(500)
외벌이	49.2	41.4	9.4	(500)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42.0	47.0	11.0	(100)
200~400만원이하	48.5	43.2	8.3	(229)
400~600만원이하	38.2	45.7	16.1	(348)
600~800만원이하	34.1	53.5	12.4	(185)
800만원초과	28.3	51.4	20.3	(138)



구분	이용하지 않음	가끔 이용함	자주/많이 이용함	사례수
자녀연령				
영아부모(59.6%)	40.0	42.3	17.8	(400)
유아부모(70.0%)	30.0	53.7	16.3	(380)
초등부모(62.0%)	37.9	50.7	11.3	(467)
취약여부				
취약가구	26.0	63.0	10.9	(192)
비취약가구	41.8	43.8	14.4	(808)
재난특별지역여부				
해당	32.3	53.2	14.5	(62)
비해당	39.2	47.1	13.6	(938)
특수고용				
부모둘다	18.8	64.3	17.0	(112)
부모중1명	33.9	52.4	13.7	(233)
둘다아님	44.0	42.9	13.1	(655)

팬데믹 기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이용한 또는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용이유 1순위로 현재 맞벌이 및 가정상황으로 인해 가정내돌봄이 불가능하여(35.9%), 긴급돌봄이 제공되어서(33.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가정내돌봄을 할 수 있으나 가정내돌봄만으로 자녀(들)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14.5%)라는 양육부담에 대한 응답 또한 있었다. 1,2,3순위 응답을 중복으로 합산한 결과에서도 위 항목에 대한 동일한 순서로 긴급돌봄 이용 이유가 응답되었다. 긴급돌봄을 이용해야 하는 돌봄필요사유 외에 가정내돌봄 부담과 어려움 또한 긴급돌봄 이용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표 IV-1-19〉 2020-2021년 긴급돌봄 이용 이유(N=612)

구분	단위: %	
	1순위	1+2+3순위
현재 맞벌이 출근 및 가정상황으로 가정내양육이 불가능하여	35.9	60.8
긴급돌봄이 제공되어	33.3	57.8
가정내양육만으로 아이(들)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14.5	51.0
비용지원이 되어서	7.8	38.1
자녀의 또래관계 등 다양한 경험과 발달/ 학습을 위하여	2.9	35.3
다들 보내는 분위기여서	2.8	34.8
방역지침 준수 등 기관/학교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6	21.7

주: 기타 응답을 생략함.

팬데믹 기간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1순위 가정내돌봄이 가능하여 (27.9%)와 코로나 감염 우려 때문(27.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공식적인 휴원휴업 조치로 인해(17.8%)라는 응답이 있었다. 1,2,3순위 응답을 중복 합산한 결과에서도 위 항목과 비슷한 순서로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가 응답되었다. 코로나 감염 우려와 가정내돌봄이 가능하여, 공식적인 휴원휴업 조치 때문이라는 미이용 이유 외에, 이용 의향이 있었으나 원하는 시간대에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워서 이용하지 못했다는 긴급돌봄 수요 미충족의 이유 또한 응답되었다.

〈표 IV-1-20〉 2020-2021년 긴급돌봄 미이용 이유(N=1,000)

단위: %

구분	1순위	1+2+3순위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어	27.4	60.2
가정내돌봄이 가능하여	27.9	56.1
공식 휴원/휴업 조치 (긴급돌봄 이용 자제 권고로)	17.8	34.9
원하는 시간/시기에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워	3.8	30.2
이용의향이 있었으나,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없어	6.3	27.3
다들 안 보내는 분위기여서	3.1	25.6
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가능한 장소/방법을 몰라서	4.4	24.4
비용이 부담되어	3.1	19.4
항상 이용함	6.8	6.8

주: 기타 응답을 생략함.

팬데믹 기간 긴급돌봄의 제공이 돌봄공백의 해소에 충분히 기여했는지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기여했다는 긍정응답(35.4%)이 부정응답(8.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 평균 3.58점).

〈표 IV-1-21〉 긴급돌봄이 돌봄공백 해소에 충분히 기여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비해당 (이용한 적 없음)	5점 평균	계(수)
비율	1.3	7.1	17.4	25.7	9.7	38.8	3.58	100.0(1,000)

팬데믹 기간 긴급돌봄을 이용한 비율을 초등 3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해당 월(과반 이상을 이용한 경우에 한함)을 표기하게 한 결과, 연중 4, 5월



을 지나 7, 8월에 들어서면서 긴급돌봄 이용률이 30%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시점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모취업/맞벌이 여부에 의한 차이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저학력/시간제취업, 초등자녀보다 영유아자녀를 둔 경우 긴급돌봄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2〉 긴급돌봄 이용 월 동향(막내자녀기준,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
2020년	-	11.9	21.1	22.5	29.2	30.1	29.7	31.7	28.9	26.8	23.7	23.2	(612)
2021년	21.4	24.3	28.9	30.1	30.9	33.2	37.4	31.5	24.5	18.3	-	-	

5) 코로나 발생으로 경험한 자녀양육가구의 어려움

팬데믹 기간 자녀양육가구의 어려움을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으로 모 출근 및 근무(직장생활의 유지)에 대한 어려움이 17.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계수입의 변화(소득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부 출근 및 근무(직장생활의 유지)에 대한 어려움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녀돌봄이용의 증가와 자녀양육 전반 및 자녀 돌봄공백의 발생으로 응답되었다.

1~3순위 응답을 종합 집계한 결과, ‘가계수입의 변화’와 ‘부-모의 출근 및 근무(직장생활 유지)’에 대한 어려움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적교류와 바깥활동의 제약’, ‘자녀양육 전반’, ‘자녀돌봄공백의 발생’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팬데믹 기간 자녀양육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자녀돌봄공백’의 발생 및 (자녀의 온라인 학습 지원을 포함하여) ‘가정내양육의 부담 전반’이 팬데믹상황에 주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IV-1-23〉 자녀양육가구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1순위	1+2+3순위
1. 모 출근 및 근무(직장생활 유지)	17.6	24.5
2. 부 출근 및 근무(직장생활 유지)	13.5	27.2
3. 가계 수입 변화(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14.6	31.8
4-1. 자녀돌봄비용 증가	8.4	19.9
4-2. 자녀 사교육비 증가	5.5	16.4

구분	1순위	1+2+3순위
5. 자녀 돌봄공백의 발생(자녀혼자/자녀들끼리있음, 식사거름 등)	8.1	22.6
6.-1 자녀 양육 전반(예: 가정내돌봄 부담)	8.2	24.0
6-2. 자녀 온라인수업 및 학습 지원의 어려움	4.0	18.7
6-3. 자녀 학업/교과과정의 결손, 공백	2.3	16.3
7. 사회적 교류와 바깥 활동의 제약	5.7	26.3
8. 코로나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2.9	18.2
9.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우울/스트레스(심리정서적 건강)	2.4	18.6
10.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상의 어려움	0.2	6.2
11. 감염확진자 인근발생 및 감염관련 경험(예: 치료, 자가격리 등)	0.5	6.7
12. 자녀 마스크 착용 및 관리	0.9	6.9
13. 특별히 없음	5.2	5.2

라. 팬데믹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의견

1) 육아분야 팬데믹 대응에 대한 의견

가) 지난 2년간 육아분야 팬데믹 대응에 대한 평가

지난 2년간 육아분야 팬데믹 대응에 대한 평가 의견을 질문한 결과, (전혀+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응답이 (어느정도+매우 잘) 이루어졌다는 긍정응답에 비해 많았다(5점평균 2.75점). 모보다 부, 중소도시지역, 모 미취업/외별이가구, 저학력/저소득 가구, 긴급돌봄 미이용가구와 취약가구에서 부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장기화 된 팬데믹 상황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한 모 미취업/외별이가구의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보이며, 취약가구의 어려움 또한 충분히 대응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24〉 지난 2년간 육아분야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에 대한 평가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	매우 잘 이루어졌다	5점 평균	계(수)
전체	10.8	32.8	30.1	23.6	2.7	2.75	100.0(1,000)
성별							
남(부)	13.4	34.8	27.4	22.6	1.8	2.65 ↓	100.0(500)
여(모)	8.2	30.8	32.8	24.6	3.6	2.85	100.0(500)

구분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	매우 잘 이루어졌다	5점 평균	계(수)
지역							
대도시	7.5	35.0	29.6	23.5	4.5	2.82	100.0(494)
중소도시	14.1	32.2	29.2	23.5	1.1	2.65 ↓	100.0(370)
농어촌	14.0	26.5	34.6	24.3	0.7	2.71	100.0(136)
학력							
고졸이하	19.6	30.4	27.2	20.7	2.2	2.55 ↓	100.0(92)
3년제 대졸	13.0	32.1	32.1	21.2	1.6	2.66	100.0(184)
4년제 대졸	9.3	32.6	31.2	24.0	2.9	2.79	100.0(616)
대학원이상	8.3	37.0	23.1	27.8	3.7	2.81	100.0(108)
모 취업여부							
취업	10.7	31.4	29.8	25.3	2.9	2.78	100.0(561)
미취업	10.6	34.8	30.1	21.9	2.6	2.71 ↓	100.0(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0	31.4	30.6	25.2	2.8	2.79	100.0(500)
외벌이	11.6	34.2	29.6	22.0	2.6	2.70 ↓	100.0(500)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16.0	35.0	22.0	24.0	3.0	2.63 ↓	100.0(100)
200~400만원이하	11.8	33.2	32.3	21.0	1.7	2.68	100.0(229)
400~600만원이하	11.2	34.2	27.0	25.0	2.6	2.74	100.0(348)
600~800만원이하	7.6	30.3	34.6	23.8	3.8	2.86	100.0(185)
800만원초과	8.7	30.4	34.1	23.9	2.9	2.82	100.0(138)
긴급돌봄이용							
미이용	10.8	34.5	30.2	21.6	2.8	2.71 ↓	100.0(388)
가끔이용	11.2	32.2	30.9	22.7	2.9	2.74	100.0(475)
자주이용	9.5	29.9	27.0	32.1	1.5	2.86	100.0(137)
취약여부							
취약가구	14.6	33.9	30.2	17.7	3.6	2.62 ↓	100.0(192)
비취약가구	9.9	32.5	30.1	25.0	2.5	2.78	100.0(808)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으로 '긴급돌봄의 시행'과 '사회적거리두기에 기초한 학교/공공기관 휴원·휴업 조치'로 나타났다. 1+2순위 중복응답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긴급돌봄의 시행'과 '사회적거리두기에 기초한 학교/공공기관 휴원·휴업 조치', 그리고 '비대면 온라인 활동과 원격수업의 진행', '가정내양육 최우선 권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2021년 2학기 전면등교의 실시’와 ‘아동수당 지급’, ‘유연근로제와 재택근무’의 실시, 가족돌봄휴가 적용 등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회적거리두기에 기초한 제반 조치에 대해 자녀양육가구의 부모는 팬데믹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2순위 중복응답을 기준으로 개별정책별로 긍정응답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긴급돌봄 시행의 경우 모 취업/맞벌이가구, 저학력/저소득, 취약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긍정응답이 많았으며, 초등부모에서는 긍정응답이 적었다. 사회적거리두기에 기초한 휴원·휴업·휴관 조치에 대해서는 저학력, 모 미취업/외벌이가구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의 경우 대도시지역, 모 미취업/외벌이가구, 초등부모, 고험력/비취약가구에서, '21년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해서는 농어촌과 대도시 지역, 초등부모, 취약가구에서, 아동수당 추가 지급의 경우 모 미취업/외벌이가구, 유아부모에서, 가정내양육 최우선 권고는 농어촌지역, 영아부모, 취약가구에서, 유연근로와 재택근무의 사용은 대도시지역, 모취업/맞벌이가구, 비취약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고졸이하 저학력가구에서는 긍정응답이 적었다. 가족돌봄휴가는 대학원이상 고험력가구와 영아부모에서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를 통해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과 현금 및 시간 지원과 온라인 원격수업의 진행과 같은 세부 정책대응별로 개별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선호 및 활용가능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다른 다층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 IV-1-25〉 자녀양육가구 대상 정부 코로나 대응 중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긴급 돌봄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초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원	비대면 온라인 활동 및 원격수업 실시	2021년 2학기 전면 등교 실시	아동수당 추가지급	가정내 양육 최우선 권고	유연 근로제 및 재택 근무 사용 권장	가족돌봄 휴가 적용 및 이용기준 완화	(수)
1순위	20.7	20.0	13.3	12.0	11.6	8.9	7.3	6.0	(1,000)
1+2순위	35.5	26.8	25.5	23.8	23.6	23.3	20.6	20.2	(1,000)
지역									
대도시	35.6	25.3	28.1 ↑	24.7 ↑	20.9	21.7 ↓	22.9 ↑	20.2	(494)
중소도시	37.3 ↑	26.5	23.5	21.6	27.0	23.5	19.5	20.3	(370)

구분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긴급 돌봄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초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원	비대면 온라인 활동 및 원격수업 실시	2021년 2학기 전면 등교 실시	아동수당 추가지급	가정내 양육 최우선 권고	유연 근로제 및 재택 근무 사용 권장	가족돌봄 휴가 적용 및 이용기준 완화	(수)
농어촌	30.1	33.1 ↑	21.3 ↓	26.5 ↑	24.3	28.7 ↑	15.4 ↓	19.9	(136)
학력									
고졸이하	45.7 ↑	34.8 ↑	10.9	23.9	31.5 ↑	25.0	7.6 ↓	20.7	(92)
3년제 대졸	35.9	22.3	28.8	23.9	23.4	26.6	19.0	19.0	(184)
4년제 대졸	34.9	27.6	25.6	24.4	22.1	22.2	22.7	20.0	(616)
대학원이상	29.6	23.1	31.5 ↑	20.4	25.9	22.2	22.2	23.1 ↑	(108)
모 취업여부									
취업	38.7 ↑	23.5	23.4	24.1	22.8	22.8	23.2 ↑	20.9	(561)
미취업	31.1	31.5 ↑	28.5 ↑	23.3	25.4 ↑	23.5	16.9	19.3	(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8 ↑	24.0	23.4	23.8	22.0	22.8	23.6 ↑	20.8	(500)
외벌이	32.2	29.6 ↑	27.6 ↑	23.8	25.2 ↑	23.8	17.6	19.6	(500)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38.0 ↑	24.0	22.0	30.0	24.0	20.0	22.0	20.0	(100)
200~400만원이하	32.3	31.9 ↑	24.0	22.7	26.6	29.3	12.7	19.7	(229)
400~600만원이하	37.9	25.6	26.1	24.4	25.0	19.0	21.8	19.3	(348)
600~800만원이하	33.5	27.0	28.1	17.3	20.0	24.3	25.4	23.2	(185)
800만원초과	35.5	23.2	25.4	28.3	19.6 ↓	25.4	23.2	19.6	(138)
자녀연령									
영아부모	37.0	26.3	24.3	16.3 ↓	25.5	28.0 ↑	20.5	21.8 ↑	(400)
유아부모	39.2	23.2	21.3	22.4	31.6 ↑	19.2	22.9	19.5	(380)
초등부모	33.6 ↓	26.1	29.8 ↑	31.5 ↑	20.3	19.9	19.3	18.6	(467)
취약여부									
취약가구	41.7 ↑	26.0	22.9	28.1 ↑	15.6	28.6 ↑	14.6	21.9	(192)
비취약가구	34.0	27.0	26.1 ↑	22.8	25.5 ↑	22.0	22.0 ↑	19.8	(808)
특수고용									
부모들다	32.1	19.6 ↓	20.5	27.7	16.1 ↓	33.0	23.2	27.7	(112)
부모중1명	36.1	24.9	25.3	28.8	27.5	22.7	18.5 ↓	15.9 ↓	(233)
둘다아님	35.9	28.7	26.4	21.4 ↓	23.5	21.8	20.9	20.5	(655)

주: 기타응답률 생략

나)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코로나 대응 현황 및 평가①-소득·방역 등 대응체계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서 이루어진 대응 전반에 대해 대응지침과 소득·방역

등의 관리체계, 긴급돌봄과 온라인 원격수업의 진행, 아동발달 및 모니터링과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위기아동/가구 발견과 대응 관련하여 5점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서 대응지침과 소독·방역 및 원에서의 반/학급 구성과 공간 운영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로 (어느정도+상당히) 잘 이루어졌다는 긍정응답이 50% 내외로 부정응답보다 많아, 5점 평균 3.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팬데믹 기간 기관/학교에서의 소독·방역 및 관리 방법(예: 약품농도, 시행방법, 횟수 등)에 대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응지침과 관리운영에 대해 긍정응답이 우세한 가운데에서도 현재의 소독방역 체계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6〉 기관/학교의 코로나 대응 현황 및 평가(1)-검사, 자가격리, 소독방역 등의 대응체계

단위: 점, %

구분	항목	5점 평균	긍정응답률
대응지침/이행	원내 및 주변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시 우리 원에서의 대응은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3.52	47.9
소독방역	팬데믹기간 우리 기관/학교에서는 소독·방역과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	3.69	57.5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기관/학교 대상 소독·방역 및 관리 지침 (예: 약품농도, 시행방법, 횟수 등)은 검증된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63	53.5
	팬데믹기간 기관/학교에서의 소독·방역 및 관리 방법(예: 약품농도, 시행방법, 횟수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76	58.2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원의 (긴급돌봄 등) 반 구성과 인력 배치와 운영은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3.61	48.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원의 공간 운영은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3.63	51.3

주: 긍정응답률은 '어느정도+상당히' 그러함(4+5점) 응답의 합임.

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코로나 대응 현황 및 평가②-긴급돌봄 및 온라인/원격수업, 아동모니터링 관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서 이루어진 긴급돌봄의 과정과 온라인/원격수업, 아동대상의 모니터링에 대해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부모를 대상으로 5점척도로 평정하게 한 결과, 우선 '긴급돌봄 과정 및 운영'에 대해 미래에 또다른 재난상황이



온다고 가정할 경우 긴급돌봄 이용기준은 현재수준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항목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5점평균 3.56점). 또한 팬데믹이 장기화 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제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과 긴급돌봄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필요한만큼 이용하지 못했다는 의견 또한 긍정응답이 부정응답에 비해 많아, 팬데믹과 같은 재난의 상황 및 위험수준(위기단계)별로 긴급돌봄의 이용가능과 이용제한에 대해 현재보다 세밀한 공급 및 이용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커리큘럼 운영으로서 긴급돌봄의 과정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별 차이가 없었다에 대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장기화 된 재난상황에서 긴급돌봄 이용이 지속되고 이용률이 과반을 넘는 경우 긴급돌봄의 과정은 현재수준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팬데믹기간 온라인활동과 원격수업의 실시에 대해 질문한 결과(11개항목), 온라인활동과 원격수업을 실시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54점), 이는 영아보다 유아-초등부모로 갈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 대상의 온라인활동과 원격수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과정으로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3.50점).

한편 팬데믹기간 온라인활동과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참여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는 점에 대해 (어느정도+상당히) 그렇다 37.1%, (전혀+별로) 그렇지않다 14.0%로 긍정응답이 더 많았다. 대도시/농촌 지역에서, 30대(이하)보다 40대(이상) 부모, 맞벌이가구, 영아(26.8%)보다 유아(38.4%)-초등(47.1%) 자녀를 둔 부모, 취약가구, 부모둘다 특수고용/프리랜서인 경우, 그리고 고소득/고학력일수록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원격수업의 경험을 상대적으로 많이 한 부모그룹의 특성과 함께 실제 온라인/원격수업 실시로 인해 어려움을 체감한 비율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가정에서 원격수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잘 되어있다(3.34점)에 대해 대도시지역, 맞벌이/모전일제취업 가구에서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체로 기관/학교에서는 가정에서 가능한 온·오프라인 교육활동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3.42점), 놀이/학습꾸러미와 물품 등을 가정에 지원하였다(3.44점)에서도 긍정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경우 부모보다 모,

대도시지역, 맞벌이가구, 초등부모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가구에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아, 초등학교의 원격수업 실시와 취약가정에 대한 기관/학교 차원의 안내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관/학교에서의 온라인/원격수업 안내에 대한 긍정응답이 고졸이하 학력 부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29.3%, 3.27점), 온라인/원격수업의 시행과 참여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가 함께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기관/학교에서는 동영상(수업)을 직접 만들어 전송 및 탑재하였으며(3.30점), 원격교육을 학급 아이들과 실시간으로 실시하였다(3.34점). 후자의 경우 대도시지역, 맞벌이가구, 가구소득 800만원초과, 초등부모로 갈수록, 그리고 고소득가구와 특수고용/프리랜서/비정형일자리 부모 그룹에서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실제 더 많은 경험과 지원을 받은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관/학교에서는 휴원·휴업 기간 및 원격교육 시 자녀의 건강과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5점평균 3.40점으로, 대도시지역, 맞벌이가구, 초등부모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가구에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았다.

휴원·휴업 기간 및 원격교육 기간 동안 기관/학교와 가정 간에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5점평균 3.32점으로, 상대적으로 고졸이하학력 부모(3.09점)에서 낮게 나타났다. 원격수업의 질이 우수하였다는 3.23점으로 긍정응답률 32.9%를 보였으며, 이에 대한 ‘부정응답’(전혀+별로 그렇지 않음)은 중소도시지역, 고졸이하학력, 외벌이, 모 시간제취업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위변인 분석을 통해 드러난 전반적인 경향은 유아(유치원이용)와 초등자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원격수업의 실시가 반영된 것으로, 다른 한편, 대도시 이외의 지역과 외벌이가구, 저학력/저소득가구에서 경험한 온라인/원격수업 및 동영상/실시간 운영 등에서의 상대적인 어려움과 소외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기관/학교에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예: 한부모, 조손, 빈곤 등) 안내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27〉 기관/학교의 코로나 대응 현황 및 평가(2)-긴급돌봄 및 온라인/원격수업 운영

단위: 점, %

구분	항목	5점 평균	긍정응답률
긴급돌봄 과정	긴급돌봄의 운영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3.17	31.5
	긴급돌봄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필요한만큼 이용하지 못했다	3.16	30.0
	팬데믹이 장기화 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제한이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3.29	34.1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미래에 또다른 재난상황이 온다고 가정할 경우, 긴급돌봄 이용 기준은 현재수준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3.56 ↑	47.2
온라인 /원격수업	팬데믹 기간 온라인활동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였다	3.54 ↑	44.1
	팬데믹기간 온라인활동 및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3.36	37.1
	기관/학교에서는 휴원·휴업 기간 및 원격교육시 자녀의 건강과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3.40	38.8
	기관/학교에서는 가정에서 가능한 온·오프라인 교육활동을 안내하고 관련정보(예: 사이트정보, 동영상자료)를 제공하였다	3.42	38.8
	기관/학교에서는 동영상수업을 직접 만들어 전송 및 탑재하였다	3.30	35.9
	기관/학교에서는 원격교육을 학급 아이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운영하였다	3.34	35.6
	기관/학교에서는 놀이/학습꾸러미와 물품 등을 가정에 지원하였다	3.44	41.4
	휴원·휴업 및 원격교육 기간 동안 기관/학교와 가정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3.32	37.6
	팬데믹 기간 온라인활동 및 원격수업의 내용과 질은 우수하였다	3.23	32.9
	아동 대상의 온라인활동과 원격수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과정으로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3.50 ↑	43.4
	이제는 가정에서의 원격수업 및 온라인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 준비가 잘 되어있다	3.34	34.7
	아동 모니터링	주변에 미등원/미등교가 지속되는 아동 중 건강 및 안녕에 대해 잘 몰라 걱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3.41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양육가구에서 감지되는 가정폭력과 학대의 징후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3.24	33.2
휴원·휴업 및 원격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등원이 지속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등원 및 가정방문 등의 별도의 지원체계와 대응이 필요하다		3.61 ↑	47.4
팬데믹 대응에 있어, 유치원과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의 대응은 상호연계될 필요가 있다		3.66 ↑	49.2

주: 긍정응답률은 '어느정도+상당히' 그러함(4+5점) 응답의 합임.

라) 주요 요소별 코로나 대응 평가

코로나 대응 전반에 대해 아동관점의 요소를 포함하여 질문한 결과, 긍정응답이 부정응답에 비해 많아 5점평균 3점대를 보이는 가운데 앞서 살펴본 기관/학교의 대응체계에 관한 개별 항목과 비교하여 긍정평가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긴급돌봄

과 휴원·휴업 및 소독·방역의 대응지침, 교사를 필수인력(essential worker)로 지정하는 등의 기관/학교 중심의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대로 유사한 긍정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와 비교하여 아동의 성장·발달 및 아동관점의 대응(3.27점: 부정응답 16.7%, 긍정응답 36.6%)과 취약/위기 아동/가구에 대한 발굴과 지원(3.15점: 19.2%, 29.9%), 위기/아동 가구에 대한 감지와 발견, 신고 및 대응체계(3.18점: 17.4%, 30.4%), 결손/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3.15점: 18.3%, 29.4%), 그리고 재난상황에서 자녀양육가구/부모에 대한 가정내돌봄 지원(3.20점: 16.7%, 32.7%)로 다른 항목 대비 긍정응답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다.

특히 아동의 바깥/신체 활동(3.01점: 29.8%, 30.9%)와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3.11점: 26.1%, 34.5%)의 측면에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약 30% 수준을 보였다. 팬데믹 종식과 포스트코로나 대응에서 아동관점의 회복과 중재의 전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동관점 대응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대도시, 모취업/맞벌이가구, 고소득, 초등부모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 외벌이가구, 자녀연령이 어릴수록(영아부모의 경우), 긴급돌봄 미이용 가구에서 아동의 성장·발달 관점에서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8〉 주요 요소별 코로나 대응 평가①_5점평균

단위: 점(명)

구분	1) 팬데믹 발생에 따른 조치전반	2) 긴급돌봄 운영전반	3) 교사를 필수인력(essential worker)으로 지정	4) 아동 성장·발달 및 아동관점의 대응	4-1) 아동의 바깥 및 신체 활동	4-2)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 발달	4-3) 기본생활 습관	사례수
전체	3.44	3.43	3.40	3.27	3.01	3.11	3.21	(1,000)
지역								
대도시	3.49	3.44	3.47	3.34 ↑	3.08	3.22	3.27	(494)
중소도시	3.39	3.41	3.31	3.19 ↓	2.90	2.96	3.11	(370)
농어촌	3.34	3.46	3.39	3.24	3.02	3.10	3.23	(136)
모 취업여부								
취업	3.47	3.43	3.45	3.30 ↑	3.01	3.15	3.22	(561)
미취업	3.39	3.44	3.34	3.23	3.01	3.06	3.19	(425)

구분	1) 팬데믹 발생에 따른 조치전반	2) 긴급돌봄 운영전반	3) 교사를 필수인력 (essential worker) 으로 지정	4) 아동 성장·발달 및 아동관점의 대응	4-1) 아동의 바깥 및 신체 활동	4-2)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 발달	4-3) 기본생활 습관	사례수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6	3.44	3.46	3.33 ↑	3.02	3.16	3.23	(500)
외벌이	3.41	3.43	3.34	3.22 ↓	3.00	3.06	3.19	(500)
자녀연령								
영아부모	3.36	3.37	3.38	3.21	3.01	3.08	3.21	(400)
유아부모	3.49	3.55	3.42	3.29	2.94	3.14	3.27	(380)
초등부모	3.48	3.42	3.44	3.35 ↑	3.09	3.17	3.23	(467)
긴급돌봄이용								
미이용	3.46	3.30	3.29	3.10 ↓	2.81	2.90	3.07	(388)
가끔이용	3.35	3.45	3.42	3.40	3.17	3.26	3.30	(475)
자주이용	3.66	3.66	3.61	3.28	2.98	3.16	3.25	(137)
취약여부								
취약가구	3.33	3.36	3.39	3.24	3.22	3.30	3.28	(192)
비취약가구	3.46	3.45	3.41	3.28	2.96	3.07	3.19	(808)
재난특별지역여부								
해당	3.51	3.42	3.55	3.38	3.14	3.18	3.48	(62)
비해당	3.43	3.43	3.39	3.27	3.00	3.11	3.19	(938)

언어 및 인지 발달, 심리정서적 건강과 관련하여 대체로 모, 중소도시지역, 외벌이 가구, 자녀연령이 어릴수록(영아부모의 경우), 긴급돌봄 미이용 가구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9〉 주요 요소별 코로나 대응 평가②_5점평균

단위: 점(명)

구분	4-4) 언어발달	4-5) 인지발달	4-6) 심리정서적 건강	5) 취약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6) 결손/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	7) 위기가구/아동에 대한 감지와 발견, 신고 및 대응체계	8) 재난상황 자녀양육 가구/부모에 대한 가정내 돌봄지원	사례수
전체	3.23	3.21	3.14	3.15	3.15	3.18	3.20	(1,000)
성별								
남(부)	3.23	3.24 ↑	3.20 ↑	3.15	3.16	3.21 ↑	3.18	(500)
여(모)	3.23	3.18 ↓	3.08 ↓	3.14	3.14	3.15 ↓	3.22	(500)

구분	4-4) 언어발달	4-5) 인지발달	4-6) 심리정서적 건강	5) 취약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6) 결손/문제가 있는 아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	7) 위기가구/아동에 대한 감지와 발견, 신고 및 대응체계	8) 재난상황 가구/부모에 대한 가정내 돌봄지원	사례수
지역								
대도시	3.29	3.28	3.20	3.22	3.19	3.23	3.29	(494)
중소도시	3.14 ↓	3.11 ↓	3.05 ↓	3.02 ↓	3.08 ↓	3.10 ↓	3.08 ↓	(370)
농어촌	3.25	3.19	3.17	3.20	3.14	3.23	3.21	(136)
모 취업여부								
취업	3.26 ↑	3.23	3.17	3.14	3.16	3.24	3.26	(561)
미취업	3.19	3.18	3.10	3.15	3.12	3.08	3.11	(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9 ↑	3.25 ↑	3.18 ↑	3.14	3.17	3.24 ↑	3.25 ↑	(500)
외벌이	3.17 ↓	3.17 ↓	3.10 ↓	3.15	3.12	3.12 ↓	3.15 ↓	(500)
자녀연령								
영아부모	3.15 ↓	3.15	3.09	3.10	3.12	3.13	3.14	(400)
유아부모	3.28	3.21	3.19	3.12	3.16	3.16	3.27 ↑	(380)
초등부모	3.32 ↑	3.25 ↑	3.16	3.19 ↑	3.17 ↑	3.22 ↑	3.21	(467)
긴급돌봄이용								
미이용	3.11 ↓	3.06 ↓	2.99 ↓	2.97 ↓	2.98 ↓	2.98 ↓	3.05 ↓	(388)
가끔이용	3.30	3.30	3.25	3.27	3.25	3.29	3.32	(475)
자주이용	3.29	3.29	3.17	3.10	3.17	3.30	3.16	(137)
취약여부								
취약가구	3.34	3.28	3.29	3.19	3.25	3.31	3.32	(192)
비취약가구	3.20	3.19	3.10	3.13	3.12	3.15	3.17	(808)

마) 재난 단계별 대응 평가

팬데믹 발생 이후 시간추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에 대해 질문한 결과, 팬데믹 이전의 재난예측과 대응준비에 비해 2020년 코로나 대응 초기 이후 2021년 중기 이후 대응에 대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았다.

팬데믹 종식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한 미래대응의 전략에 대한 질문에서는 부정응답 19.2%, 긍정응답 36.2%로 5점평균 3.20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중소도시 지역, 모 미취업/외벌이가구, 영아부모에서 포스트코로나 미래대응에 대한 부정응답률이 좀 더 높게 나타났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표 IV-1-30〉 재난 단계별 정부의 정책 대응 평가_5점평균

단위: 점, %, (명)

구분	(팬데믹 이전) 재난 예측과 대응 준비 (대응체계)	(팬데믹 기간: 2020년) 코로나 대응 초기	(팬데믹 기간: 2021년) 코로나 대응 중기이후	(팬데믹 종식 이전) 재난 회복단계에 대비한 전략과 계획	(팬데믹 종식 이후-포스트 코로나)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한 아동 돌봄과 교육에 관한 미래대응의 전략	사례수
전체(점)	3.13	3.18	3.25	3.24	3.20	(1,000)
긍정응답률(%)	35.4	39.7	40.7	39.9	36.2	
지역						
대도시	3.14	3.21	3.31	3.28	3.26 ↑	(494)
중소도시	3.10	3.16	3.20	3.16	3.12	(370)
농어촌	3.16	3.14	3.18	3.31	3.23	(136)
모 취업여부						
취업	3.17	3.22	3.31	3.29	3.31	(561)
미취업	3.08	3.14	3.19	3.19	3.07	(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16	3.24	3.32	3.29	3.29 ↑	(500)
외벌이	3.09	3.12	3.19	3.19	3.12	(500)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3.16	3.11	3.39	3.23	3.42 ↑	(100)
200~400만원이하	3.08	3.22	3.27	3.31	3.19	(229)
400~600만원이하	3.10	3.09	3.17	3.20	3.11	(348)
600~800만원이하	3.19	3.31	3.32	3.30	3.27	(185)
800만원초과	3.17	3.24	3.26	3.17	3.21	(138)
자녀연령						
영아부모	3.06	3.09	3.11	3.14	3.07	(400)
유아부모	3.12	3.18	3.31	3.23	3.17	(380)
초등부모	3.19	3.24	3.38	3.34	3.32 ↑	(467)
긴급돌봄이용						
미이용	3.06	3.03	3.14	3.11	3.05	(388)
가끔이용	3.19	3.30	3.36	3.36	3.35 ↑	(475)
자주이용	3.10	3.19	3.20	3.22	3.09	(137)

마. 팬데믹 기간 아동의 적응 및 발달

1) 팬데믹 대응 관련 아동 적응 및 발달지연

가) 팬데믹 기간 아동의 적응 및 가정내돌봄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자녀(들)의 적응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느정도+상당히)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응답이 64.2%로 5점평균 3.6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별로+전혀)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응답은 모 미취업/외벌이가구, 저소득, 영아부모, 취약가구, 부모둘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1〉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자녀들의 적응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잘 모르겠음	긍정 응답	부정 응답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0.7	9.1	24.5	50.8	13.4	1.4	9.8	64.2	3.68	(1,000)
모 취업여부										
취업	0.2	8.4	23.7	51.7	15.0	1.1	8.6	66.7	3.74	(561)
미취업	1.4	10.1	24.0	50.6	11.8	1.9	11.5↑	62.4	3.63	(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0.2	8.8	22.8	52.2	15.2	0.8	9.0	67.4	3.74	(500)
외벌이	1.2	9.4	26.2	49.4	11.6	2.0	10.6↑	61.0	3.62	(500)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2.0	13.0	28.0	46.0	7.0	4.0	15.0↑	53.0	3.45	(100)
200~400만원이하	0.9	10.0	26.2	51.5	9.6	1.3	10.9↑	61.1	3.60	(229)
400~600만원이하	0.6	8.9	23.0	51.7	14.4	1.4	9.5	66.1	3.71	(348)
600~800만원이하	0.0	8.6	20.0	53.5	17.3	0.5	8.6	70.8	3.80	(185)
800만원초과	0.7	5.8	29.0	47.1	16.7	0.7	6.5	63.8	3.74	(138)
자녀연령										
영아부모	1.3	12.3	28.5	43.0	12.3	2.5	13.5↑	55.3	3.54	(400)
유아부모	0.5	6.8	20.3	57.4	14.7	0.3	7.4	72.1	3.79	(380)
초등부모	0.0	7.3	22.5	53.5	15.4	1.3	7.3	69.0	3.78	(467)
긴급돌봄이용										
미이용	0.3	9.3	22.7	53.4	11.6	2.6	9.5	64.9	3.69	(388)
가끔이용	1.1	8.2	26.1	50.7	13.3	0.6	9.3	64.0	3.67	(475)
자주이용	0.7	11.7	24.1	43.8	19.0	0.7	12.4↑	62.8	3.69	(137)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잘 모르겠음	긍정 응답	부정 응답	5점 평균	사례수
취약여부										
취약가구	1.0	10.4	31.3	45.8	9.9	1.0	11.5↑	55.7	3.54	(192)
비취약가구	0.6	8.8	22.9	52.0	14.2	1.5	9.4	66.2	3.71	(808)

주: 기타응답률 생략

팬데믹으로 인한 휴원휴업 기간 가정내 양육과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한 결과, (어느정도+상당히) ‘잘 이루어졌다’는 긍정응답이 44.0% (별로+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응답이 10.7%로 5점평균 3.34점으로 나타났다. 긍정응답은 은 부, (대)도시지역, 고학력/고소득, 모 취업/맞벌이가구, 유아부모, 긴급돌봄 이용가구, 비취약가구에서 좀 더 많았다.

〈표 IV-1-32〉 휴원 기간 자녀에 대한 가정내 양육과 돌봄에 대한 평가

단위: %(명)

구분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잘 이루어 졌다	상당히 잘 이루어 졌다	긍정 응답	부정 응답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1.6	9.1	45.3	41.8	2.2	10.7	44.0	3.34	(1,000)
성별									
남(부)	1.8	8.0	48.0	39.6	2.6	9.8	42.2	3.33	(500)
여(모)	1.4	10.2	42.6	44.0	1.8	11.6	45.8↑	3.35	(500)
지역									
대도시	1.2	8.7	43.7	43.3	3.0	9.9	46.4↑	3.38	(494)
중소도시	1.9	10.3	44.1	42.7	1.1	12.2	43.8	3.31	(370)
농어촌	2.2	7.4	54.4	33.8	2.2	9.6	36.0	3.26	(136)
학력									
고졸이하	1.1	14.1	42.4	40.2	2.2	15.2	42.4	3.28	(92)
3년제 대졸	1.6	10.9	46.2	39.1	2.2	12.5	41.3	3.29	(184)
4년제 대졸	1.8	8.4	45.9	41.7	2.1	10.2	43.8	3.34	(616)
대학원이상	0.9	5.6	42.6	48.1	2.8	6.5	50.9↑	3.46	(108)
모 취업여부									
취업	1.2	10.3	41.9	44.6	2.0	11.6	46.5↑	3.36	(561)
미취업	1.9	7.8	49.4	38.6	2.4	9.6	40.9	3.32	(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	10.2	41.8	44.6	2.0	11.6	46.6↑	3.36	(500)

구분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잘 이루어졌다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	긍정 응답	부정 응답	5점 평균	사례수
외벌이	1.8	8.0	48.8	39.0	2.4	9.8	41.4	3.32	(500)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2.0	13.0	48.0	36.0	1.0	15.0	37.0	3.21	(100)
200~400만원이하	0.9	10.5	48.0	38.4	2.2	11.4	40.6	3.31	(229)
400~600만원이하	2.3	9.8	45.7	40.5	1.7	12.1	42.2	3.30	(348)
600~800만원이하	1.1	4.3	40.5	50.8	3.2	5.4	54.1 ↑	3.51	(185)
800만원초과	1.4	8.7	44.2	42.8	2.9	10.1	45.7 ↑	3.37	(138)
자녀연령									
영아부모	1.5	10.5	49.3	37.8	1.0	12.0	38.8 ↓	3.26	(400)
유아부모	1.3	8.7	41.8	45.5	2.6	10.0	48.2 ↑	3.39	(380)
초등부모	1.7	9.4	43.7	42.2	3.0	11.1	45.2	3.35	(467)
긴급돌봄이용									
미이용	0.5	8.8	48.5	38.9	3.4	9.3	42.3	3.36	(388)
가끔이용	1.9	7.6	46.3	43.2	1.1	9.5	44.2	3.34	(475)
자주이용	3.6	15.3	32.8	45.3	2.9	19.0	48.2 ↑	3.28	(137)
취약여부									
취약가구	3.1	10.9	44.8	39.1	2.1	14.1	41.1	3.26	(192)
비취약가구	1.2	8.7	45.4	42.5	2.2	9.9	44.7 ↑	3.36	(808)
재난특별지역여부									
해당	1.6	12.9	45.2	37.1	3.2	14.5	40.3	3.27	(62)
비해당	1.6	8.8	45.3	42.1	2.1	10.4	44.2 ↑	3.34	(938)

나) 팬데믹 이전 대비 자녀의 발달 지연과 결손에 대한 체감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자녀(막내자녀 기준)의 성장·발달과 심리정서적 건강 전반에 대해 지연과 결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5점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녀의 발달에 늦어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어느정도+상당히) 그러함 30.6%, (별로+전혀) 그렇지않음 29.9%로 긍-부정의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5점평균 2.97점). 자녀의 행복과 웰빙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긍-부정의 응답이 각 26.2%, 29.2% (5점평균 2.97점)로 응답되었다.

자녀의 발달에 늦어진 부분이 (어느정도+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부정적 응답은 (대)도시지역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모 미취업/외벌이가구, 모 시간제취업, 초등부모일수록, 취약가구에서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자녀의 행복과 웰빙이 (별로+전혀) 증가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응답의 경우, 모, 외벌이/모 시간제취업, 영아부모, 긴급돌봄 미이용 가구, 비취약가구, 부모 둘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인 경우에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긴급돌봄 등 서비스 미이용과 외벌이와 미취업, 시간제취업, 특수고용 및 플랫폼노동과 비정형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맞벌이가구와는 다른 취약성과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3〉 팬데믹 이전 대비 자녀의 발달 지연과 결손에 대한 의견(5점평균)

항목	5점 평균	긍정응답률
자녀의 발달에 늦어진 부분이 있음	2.96	30.2
(아이들 간에) 발달 및 학습의 격차가 있음	3.21 ↑	42.7
바깥활동 및 신체활동의 공백으로 인한 결손	3.45 ↑	49.9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의 결손	3.36 ↑	47.5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연	3.17	37.0
언어발달 지연	3.00	31.2
인지발달 및 학습능력 지연	3.03	32.1
심리정서적 건강 문제(우울, 불안, 무기력을 보임)	3.05	33.8
스트레스로 짜증/다툼 및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임	3.10	36.4
행복과 웰빙이 증가함	2.97	26.2

바깥활동 및 신체활동의 공백으로 인한 결손에 대한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의 결손(47.5%), 아이들 간에 발달 및 학습 격차가 있다(42.7%)에 대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언어발달과 인지 및 학습 능력, 심리정서적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와 부적응, 문제행동의 측면에서 자녀가 결손과 지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약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발달상의 지연과 격차, 결손을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정 비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및 중재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팬데믹 이전 대비 양육·교육 환경 및 양육·돌봄 현황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부모, 교사, 아동,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회전반의 양육환경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과 부모(본인)과 자녀의 '양육·돌봄 현황'을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양육·교육 환경에 대해 제시된 5개수준 16개 항목에 대해 모두

심각하다는 응답이 그렇지않다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가정내돌봄 부담’과 ‘아동 수의 감소(저출생의 심화)’,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국공립과 민간/사립 기관 간 격차’로 드러난 격차에 대한 심각성 응답이 있었으며, 교사 관점에서는 교사의 소진과 스트레스 등 ‘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해, 아동 관점에서는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이 문제로 그 심각성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표 IV-1-34〉 팬데믹 이전 대비 양육/교육환경 및 아동 관련 현재수준의 문제/심각성

단위: 점, %

구분	항목	5점 평균	긍정응답률
부모	가정내돌봄 부담	3.41 ↑	47.2
	부모의 양육역량	3.37	43.2
교사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3.23	34.7
	교사의 웰빙	3.25	35.0
	교사의 정신건강(소진, 스트레스, 우울 등)	3.35 ↑	43.0
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3.39 ↑	44.8
	취학전 유아교육·보육(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교육의 연계	3.32	37.3
	국공립과 사립 기관의 격차	3.34 ↑	41.3
	교육과 돌봄의 구분 및 차이	3.31	39.6
아동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3.31	40.0
	아동의 정신건강	3.35 ↑	42.6
	아동의 신체건강	3.37 ↑	43.0
사회	영유아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3.28	36.8
	아동 수의 감소(저출생의 심화)	3.50 ↑	47.0
	기후변화의 위기	3.41 ↑	43.3
	육아친화적 양육환경	3.33	36.7

주: 1점-전혀 심각하지 않음, 2점-별로 심각하지 않음, 3점-보통, 4점-어느정도 심각함, 5점-상당히 심각함 응답을 평균한 결과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부모(본인)과 자녀의 양육·돌봄 현황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해서는 부모의 긍정응답이 부정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돌봄의 공백’과 ‘자녀의 식사/끼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응답이 긍정응답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모 본인의 삶의 질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부모됨의 양육역량에서는 긍정적 응



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응답률이 20%대로 나타났으며. 양육의 어려움과 부담/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부모의 부정적 응답이 긍정응답에 비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됨의 '웰빙'과 '역량'의 제고가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부모의 성평등 육아참여와 육아행복, 일생활균형/일가정양립에 대해 긍정응답이 부정응답에 비해 많았으나, 좋지않다는 부정적 응답이 20% 내외로 일정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V-1-35〉 본인 및 자녀(들)의 현재

단위: 점, %

구분	항목	5점 평균	긍정응답률 (좋음)	부정응답률 (좋지않음)
부모-본인	나의 삶의 질	2.93 ↓	24.6	30.3
	나의 부모됨 역량(양육역량)	3.04 ↓	26.3	23.9
	양육의 어려움과 부담, 스트레스 관련	2.89 ↓	24.9	34.9
	업무스트레스 관련	2.96	28.0	29.4
	부모의 성평등 양육참여	3.12	28.6	20.3
	육아행복(부모역할의 행복감, 자긍심)	3.19	32.8	17.3
	일-생활균형/일-가정양립	3.05 ↓	27.9	24.0
자녀	집에서 돌봄/보호를 제대로 받음	3.45	45.8	11.9
	집밖에서 돌봄/보호를 제대로 받음	3.31	40.7	17.0
	돌봄공백(예: 자녀혼자/자녀끼리 있음,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없음 등)의 발생	2.87 ↓	27.0	33.1
	식사/끼니를 거름	2.59 ↓	22.0	44.2
	자녀(들)의 삶의 질/행복	3.23	32.3	14.9

주: 1) 5점평균: 1점-전혀 좋지않음, 2점-별로 좋지않음, 3점-보통, 4점-어느정도 좋음, 5점-상당히 좋음 응답을 평균한 결과임.

2) 긍정응답은 '어느정도+상당히' 그러함/좋음(4+5점) 응답의 합.
부정응답은 '전혀+별로' 그렇지않음.좋지않음(1+2점) 응답의 합임.

바. 팬데믹 기간 서비스 이용 현황

1) 팬데믹기간 자녀돌봄을 위해 이용한 시간지원

팬데믹으로 인한 휴원·휴업 기간 자녀돌봄을 위해 직장에서 이용한 시간지원 제도에 대해 이용률('소극적+적극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조사한 결과(물품지원에 대한 응답 제외), 전반적으로 부의 이용이 모에 비해 높게 나타나 시간지원 이용과

수혜에서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자리의 특성과 질이 반영된 것으로 모(여성)의 경우 시간제 위주 일자리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부의 경우 자녀돌봄을 위해 ‘유급휴가’의 사용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재택근무(24.9%), 유연근무제(21.3%)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모의 경우 유급휴가-재택근무-육아시간지원-유연근무제-근로시간단축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제시된 항목 중 팬데믹 기간 일가정양립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을 선택하게 한 결과, 부-모 공통적으로 ‘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나타나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지원(‘돌봄휴가제도’)의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물품지원’ 또한 자녀 양육가구 지원에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재택근무’와, 모의 경우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6〉 팬데믹기간 자녀돌봄을 위해 직장에서 이용한 제도(부-모 이용률)

구 분	항목	소극적+적극적 이용		일가정양립에 도움	
		부	모	1순위	1+2순위
시간지원	가족돌봄휴가	16.1	10.6	5.9	11.3
	유급휴가(연차)	35.3	19.9	14.1	22.3
	무급휴가	16.2	10.0	2.2	4.8
	재택근무	24.9	13.4	7.8	14.3
	육아휴직	17.0	11.7	2.6	7.6
	근로시간 단축	18.3	12.0	2.4	9.7
	육아시간 지원	16.4	13.2	2.8	5.9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등)	21.3	12.8	2.9	8.4
물품지원	물품지원(소독제, 마스크 등)	37.0	20.3	9.1	11.7

주: 제시된 결과는 (소극적+적극적) 이용률에서 비해당(미취업 등)이, 일가정양립에 가장 도움이 된 시간지원 1,2순위 응답에서 없음(30.3%), 비해당 (19.9%) 응답이 함께 반영된 수치임. 비해당/없음의 응답률 제시는 생략함.

2) 재택근무 이용률 및 자녀돌봄 병행의 적절성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N=216), 제한된 응답자 Base를 기준으로 78.7%가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부보다 모, 도시지역, 고학력/고소득 가구, 맞벌이가구, 초등부모, 비취약가구에

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농어촌지역, 저소득/저학력, 영아부모, 취약가구, 부모들 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을 하는 경우 재택근무 이용률이 적게 나타났다.

〈표 IV-1-37〉 재택근무를 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한 경험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전체	78.7	21.3	(216)
성별			
남(부)	76.9	23.1	(147)
여(모)	82.6	17.4	(69)
지역			
대도시	79.7	20.3	(128)
중소도시	81.9	18.1	(72)
농어촌	56.3	43.8	(16)
학력			
고졸이하	60.0	40.0	(10)
3년제 대졸	70.8	29.2	(24)
4년제 대졸	79.3	20.7	(150)
대학원이상	87.5	12.5	(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7	20.3	(143)
외벌이	76.7	23.3	(73)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77.8	22.2	(9)
200~400만원이하	57.7	42.3	(26)
400~600만원이하	90.0	10.0	(60)
600~800만원이하	73.4	26.6	(64)
800만원초과	82.5	17.5	(57)
자녀연령			
영아부모	74.3	25.7	(70)
유아부모	77.9	22.1	(86)
초등부모	80.3	19.7	(117)
취약여부			
취약가구	64.3	35.7	(42)
비취약가구	82.2	17.8	(174)
재난특별지역여부			
해당	71.4	28.6	(14)
비해당	79.2	20.8	(202)

구분	예	아니오	사례수
특수고용			
부모돌다	62.5	37.5	(32)
부모중1명	75.6	24.4	(41)
돌다아님	83.2	16.8	(143)

전체 응답자(N=1,000)에게 재택근무가 재난상황에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며 일을 병행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적절하다 39.2%, 적절하지 않다 31.3%로 부정적 의견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N=313), 자녀돌봄과 일을 병행하기 힘들다(25.6%),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돌 다 제대로 할 수 없다(23.0%), 재택근무 여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7.8%), 일하는 시간에 돌봄공백이 생긴다(2.6%), 직장에 눈치가 보인다(1.9%) 등 사실상 자녀돌봄과 일 병행의 어려움을 언급한 내용들이다. 일-돌봄 병행이 가능한 지원 제도로서의 재택근무의 활용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1-38〉 재택근무의 적절성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그렇다/ 그랬다	상당히 그렇다/ 그랬다	부정 응답	긍정 응답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8.7	22.6	29.1	31.4	7.8	31.3	39.2	3.07	(1,000)

사. 팬데믹 대응체계 개선 및 미래 어젠더

1) 팬데믹 전-후 심리정서적 건강의 변화

가족 구성원의 심리정서적 건강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불안/우울/스트레스가 증가했는지 질문한 결과, 아동 연령이 올라갈수록 부모가 인지하는 자녀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본인의 경우 과반 이상이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9〉 팬데믹 전-후 심리정서적 건강 변화

단위: 점, %, (명)

구분	영아자녀	유아자녀	초등자녀	부	모	조부모	사례수
5점평균	3.16	3.34	3.43	3.69	3.74	3.55	(1,000)
긍정 응답(증가함)	12.4	17.5	24.9	57.7	59.0	41.1	

2) 경계선적 행동과 지연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전문적인 소견과 진단에 앞서,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계선적 행동의 아동에 대해 별도의 지원과 모니터링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 질문한 결과, (어느정도+상당히) 필요하다 63.6%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행동과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필요 시 상담·치료 체계와 연계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이 69.9%로 높게 나타났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적절한 지원과 중재, 상담·치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1-40〉 발달지연/문제행동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 및 모니터링

단위: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어느정도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하다	부정 응답	긍정 응답	5점 평균	사례수
아동 지원 및 모니터링	2.4	7.9	26.1	41.7	21.9	10.3	63.6	3.73	(1,000)
상담·치료 체계 연계	1.1	5.9	23.1	44.2	25.7	7.0	69.9	3.88	(1,000)

3) 미래 유사 재난상황의 발생 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

가까운 미래에 유사한 대규모 재난상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표 IV-1-41〉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재난상황이 미래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

단위: %(명)

구분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어느정도 있다	상당히 있다	부정 응답	긍정 응답	5점 평균	사례수
전체	1.5	7.5	27.1	41.4	22.5	9.0	63.9	3.76	(1,000)

미래 재난상황의 발생 시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으로 가정내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금지원'과 '시간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1+2순위 중복응답에서도 일가정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간 및 현금 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밖에 긴급돌봄체계의 강화, 공적인 교육·보육·돌봄 체계의 운영 지속, 다양한 돌봄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연계 지원의 강화가 응답되었다. 상대적으로 육아분야의 특성상 비대면 온라인 환경의 구축에 대한 응답은 낮게 조사되었다.

〈표 IV-1-42〉 미래 재난 대응체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과제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자녀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현금지원 강화	부모의 가정내 자녀돌봄이 가능하도록 일가정양립/시간지원의 강화	긴급돌봄 체계 강화	재난상황 공적인 교육/보육/돌봄 체계 운영 지속	부모가 다양한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선택 및 연계 지원 강화	비대면온라인 교육/돌봄이 지속가능한 육아분야 스마트환경 구축(AI, ICT, 에듀테크 등)	사례수
1순위	38.5	32.7	11.7	8.7	5.9	2.5	(1,000)
1+2순위	48.2	60.4	25.4	28.5	26.8	10.4	

4) 미래사회 모습 및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대응 전략

포스트코로나 시대 육아분야 어젠더 도출을 위해, 제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미래 사회 모습을 예상하게 한 결과, (중복응답 기준) ①4차산업과 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격차와 사각지대의 심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②저출생/아동수 감소로 인한 새로운 삶의 방식(뉴노멀)의 등장과 이에 대한 적응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 ③기후위기 등 친환경/그린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혼란과 갈등, ④인구감소로 인한 인프라 소멸과 위기, 사회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으로 응답되었다. 즉 육아분야 미래 대응의 전략은 상기한 미래사회의 모습과 예측을 고려하여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IV-1-43〉 미래사회 모습

단위: %(명)

항목	긍정응답률	
	1순위	1+2+3순위
4차산업혁명/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전환으로 인한 격차/사각지대심화	26.0 ↑	55.8 ↑
일자리의 감소	20.1 ↑	31.5
4차산업혁명/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17.9	35.1
저출생 및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뉴노멀의 등장 및 이에 대한 적응	14.6	49.8 ↑
양육지원체계의 전반적 강화와 선진화	6.8	24.1
인구감소로 인한 인프라 소멸과 위기, 사회경제적 혼란과 어려움	6.6	37.6
기후위기 등 친환경/그린사회경제시스템전환으로 인한 사회적혼란과 갈등	5.4	38.3
기후위기 등 친환경/그린사회경제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뉴노멀의 등장과 이에 대한 적응	2.6	18.9

팬데믹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육아분야 미래 대응 전략에 대해 제시된 양육지원 및 교육·보육·돌봄 관련 큰 틀의 정책 기조에 대해 우선순위를 질문하였다(10개항목). 그 결과, (중복응답 기준)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시간지원’의 강화와 ‘비용지원’의 강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저출생에의 실질적 대응력’ 제고’와 ‘(비용지원 외) 질적/내용적 양육지원체계의 강화’로 조사되었다. (기존 양육지원체계에서 세밀히 보완해야할 부분과 새로이 구성해야할 축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

〈표 IV-1-44〉 포스트코로나 시대 육아분야 미래대응 전략

단위: %(명)

항목	긍정응답률	
	1순위	1+2+3순위
저출산/저출생에의 실질적 대응력 제고	29.1	40.3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비용지원체계 강화	17.2	43.5
(비용지원 외) 질적/내용적 양육지원체계의 강화	14.6	40.3
시간지원의 강화	12.9	47.5
기후위기에의 실질적 대응력 제고	10.2	26.9
서비스 지원의 강화	4.1	25.9

항목	긍정응답률	
	1순위	1+2+3순위
디지털사회 전환에의 적극적인 대응	3.9	23.6
공적 교육보육 체계 공고화 및 돌봄운영과의 연계	3.7	23.5
아동중심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기조 전환	3.0	18.8
기후위기 대비 교육/학습 체계 및 교육과정의 변화	1.3	9.6

포스트코로나 시대 육아분야 증장기 중요 과제 도출을 위해 육아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이슈와 쟁점에 대해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질문하였다(10개항목).

중요도 평정(5점척도)에서는 ‘(저출생 등)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응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 ‘교사의 역량/웰빙 제고’, ‘취약아동/가구 지원체계 보강’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돌봄의 격차 완화’, ‘양질의 돌봄생태계 공고화’에 대해 중요하다는 긍정응답이 많았다.

우선순위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교육-돌봄의 격차 완화’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저출생 등)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 ‘공-사립 격차의 해소’,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V-1-45〉 포스트코로나 육아/교육·돌봄 분야 증장기 중요 과제

단위: %(명)

항목	중요도	우선순위(긍정응답률)	
	5점척도	1순위	1+2+3순위
유아교육-보육 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3.40	20.3	29.2
공-사립 격차 해소	3.66	13.3	31.3
교육-돌봄 격차 완화	3.70	15.2	35.8
유아교육-초등교육 연계(유초연계)	3.59	6.2	21.6
(무상, 의무교육 등) 학제 개편	3.59	7.7	21.3
저출생 등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	3.80	12.3	33.2
(AI/메타버스/로봇/에듀테크 등) 디지털사회로의 변화 대응	3.64	4.4	23.1
기후변화/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SDG)의 전략	3.65	5.4	19.3
미래세대의 양성-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웰빙 제고	3.67	5.0	21.7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3.72	1.5	12.4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	3.77	5.3	23.2
취약아동/가구 지원체계 보강	3.71	1.6	11.9
전 국민 평생 학습·교육 체계로의 전환	3.58	0.8	8.0
양질의 돌봄생태계 공고화	3.70	1.0	8.0



2.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의견 조사 결과

취학전 교육·보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어린이집에서의 대응체계와 재원 아동 현황 및 육아분야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위해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응답자 특성

1) 교사 응답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현재 기관 재직 경력은 평균 6.6년(79개월)으로, 보육교사 평균 7.9년(95개월), 유치원교사 평균 6.1년(73개월)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의 경력이 평균 3년(36개월)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교사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총 경력은 평균 14.4년(173개월)로 나타났다.

〈표 IV-2-1〉 교사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수)	
전체	100.0	(806)
유형		
어린이집	49.6	(400)
유치원	50.4	(40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61.8	(247)
민간어린이집	21.8	(87)
가정어린이집	16.5	(66)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유치원	51.5	(209)
사립유치원	48.5	(197)

2) 유치원·어린이집 조사참여 기관 운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교사가 재직 중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특성을 살펴보면, 공립유치원은 정원 평균 70명, 현재학급수 4.2학급, 현원 유아 약 64명, 사립유치

원은 정원 평균 138명, 현재학급수 5.6학급, 현원 유아수 117명으로 조사되었다. 국공립·법인·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정원 평균 62명에 현재 반 수 약 7.1개, 현원 영유아 54.8, 민간어린이집은 정원 평균 약 82명에 현원 약 70명, 8.0개반, 가정 어린이집은 정원 평균 18명에 현원 약 15.2명, 3.7개반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유치원의 정·현원 규모가 어린이집에 비해 크며, 어린이집의 경우 기관유형에 따른 규모와 반 구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 조사참여 유치원 현황

구분	정원	인가 학급수	현재 학급 수	현원 유아 수	(수)
유치원	102.97	6.30	4.91	89.49	(406)
국공립유치원	70.35	5.07	4.22	64.03	(209)
사립유치원	137.57	7.60	5.64	116.50	(197)

〈표 IV-2-3〉 조사참여 어린이집 현황

구분	정원	소계_현재 반 수	소계_현원 영유아 수	(수)
어린이집	58.83	6.74	51.56	(400)
국공립/법인/직장	61.55	7.11	54.75	(247)
민간어린이집	82.00	8.02	70.07	(87)
가정어린이집	18.12	3.68	15.21	(66)

〈표 IV-2-4〉 2021년 조사시점 현재 긴급돌봄/긴급보육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현재 운영 중	운영하지 않음	(수)
전체	42.2	57.8	(434)
유형			
어린이집	63.8	36.2	(185)
유치원	26.1	73.9	(249)

가) 교직원 현황-방역인력 등 추가인력 배치

팬데믹 기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방역 관련 인력배치를 질문한 결과, 유치원에서의 추가인력 배치가 어린이집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사참여 유치원의 정원 규모가 어린이집에 큼을 고려하여도, 방역인력 배치에 대한 정책 대응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5〉 2020년, 2021년 방역인력 추가배치

단위: %(명)

구분		없음	1명	2명	3명이상	계(수)	평균(명)
2020년	전체	70.0	17.9	9.1	3.1	100.0(806)	0.48
	유형						
	어린이집	90.5	6.8	2.3	0.5	100.0(400)	0.14
	유치원	49.8	28.8	15.8	5.7	100.0(406)	0.82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90.7	7.3	2.0	-	100.0(247)	0.11
	민간어린이집	90.8	4.6	3.4	1.1	100.0(87)	0.18
	가정어린이집	89.4	7.6	1.5	1.5	100.0(66)	0.17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유치원	49.3	33.5	11.0	6.2	100.0(209)	0.78
사립유치원	50.3	23.9	20.8	5.1	100.0(197)	0.85	
2021년	전체	70.0	16.5	8.8	4.7	100.0(806)	0.52
	유형						
	어린이집	96.0	3.0	0.3	0.8	100.0(400)	0.07
	유치원	44.3	29.8	17.2	8.6	100.0(406)	0.9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96.8	2.8	0.4	-	100.0(247)	0.04
	민간어린이집	95.4	2.3	-	2.3	100.0(87)	0.13
	가정어린이집	93.9	4.5	-	1.5	100.0(66)	0.09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유치원	45.0	27.8	15.8	11.5	100.0(209)	1.03
사립유치원	43.7	32.0	18.8	5.6	100.0(197)	0.89	

팬데믹 기간 조사참여 기관의 감염 및 자가격리 경험은 다음과 같이 응답되었다.

〈표 IV-2-6〉 조사참여기관 감염확진 및 자가격리 현황(2020-2021년)

단위: 명(명)

구분	감염확진			자가격리			(수)
	교직원	재원아동	재원아동의 부모/가족	교직원	재원아동	재원아동의 부모/가족	
2020년	0.01	0.04	0.11	0.16	0.51	0.65	(806)
2021년	0.05	0.20	0.37	0.56	2.92	1.98	(806)

〈표 IV-2-7〉 2020-2021 감염여부 검사 및 자가진단키트 사용 현황: 평균 요약표

단위: 회(%)

구분	2020년		2021년		(수)
	보건소 등에서 감염검사 횟수	자가진단키트 검사 횟수	보건소 등에서 감염검사 횟수	자가진단키트 검사 횟수	
전체	0.99	0.04	3.08	0.18	(806)
유형					
어린이집	1.67	0.05	5.37	0.24	(400)
유치원	0.32	0.03	0.82	0.13	(406)

나) 기관 운영 변화

팬데믹 이전 대비 교사의 근로현황과 아동의 재원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질 문한 결과(N=806), 1) ‘재원아동이 줄었다’는 응답이 29.9%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기관이 59.0%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팬데믹으로 인해 교사의 근무패턴과 업무방식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었다 vs. 없었다는 응답이 각 34.7%, 51.1%로 나타났다. 3) 팬데믹으로 인한 교사의 업무량 증가에 대해서는 증가함 68.6%, 증가하지않음 17.5%로 나타났으며, 4) 교사에게 소독·방역 등의 추가된 업무가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68.2%, 그렇지않음 16.4%로 나타났다. 휴원·휴업 등의 조치로 5) 교사의 업무량이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않다 73.3%, 그렇다 10.9%로, 전반적으로 팬데믹 기간 교사의 업무는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팬데믹 이후 교사 근로 및 아동 재원 변화(1)

단위: %, 점

구분	1		2		3		4		5	
	4+5	평균								
전체	29.9	2.46	34.7	2.65	68.6	3.81	68.2	3.83	10.9	1.98
유형										
어린이집	33.8	2.56	29.5	2.48	60.8	3.56	62.8	3.66	14.8	2.09
유치원	26.1	2.37	39.9	2.82	76.4	4.05	73.6	4.00	7.1	1.88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24.3	2.26	26.3	2.40	62.8	3.60	63.2	3.68	13.4	2.04
민간어린이집	48.3	3.13	39.1	2.79	64.4	3.70	62.1	3.66	16.1	2.11
가정어린이집	50.0	2.95	28.8	2.36	48.5	3.26	62.1	3.56	18.2	2.26
기관유형2-유치원										

구분	1		2		3		4		5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국공립유치원	25.4	2.19	40.7	2.75	82.8	4.23	80.4	4.14	4.8	1.71
사립유치원	26.9	2.56	39.1	2.90	69.5	3.86	66.5	3.85	9.6	2.05

주: 4+5 : 5점척도에서 (어느정도+상당히) 그러함 긍정응답률의 합

- 1) 재원아동이 줄었다
- 2)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사의 근무패턴과 방식에 변화가 있다
- 3)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사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 4) 교사의 소독/방역 등 추가된 업무가 부담이 된다
- 5) 휴업기간 교사의 업무량이 줄었다

재원을 감소의 이유로 1순위 응답 결과, 팬데믹 발생 및 이로인한 휴원휴업조치 (긴급돌봄의 운영)이 42.7%, 저출생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 38.6%로 나타났으며, 중복응답 결과에서는 각 81.3%, 89.6%로 주된 이유로 응답되었다. 그밖에 주변에 국공립기관 확대 등 인프라 변화에 대한 응답이 중복응답 기준 65.6%로 나타났다.

6) 휴원·휴업기간 등원아동이 줄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및 하루일과가 편해진 측면이 있는지, 7) 등원아동이 줄어 누리과정의 운영과 교사의 역할수행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지않다'는 부정응답이 50% 이상으로 긍정응답보다 많았다.

8) 팬데믹이 장기화 됨에 따라 점차 등원 아동이 늘어나 반/학급 운영은 팬데믹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는 응답이 70.7%로 나타났다. 9) 팬데믹 기간 등원 아동 수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반/학급을 통합 운영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않다 (62.7%)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기존 반/학급을 통합 운영했다는 응답은 22.2%로 나타났다.

<표 IV-2-9> 팬데믹 이후 교사 근로 및 아동 자원 변화(2)

단위: %, 점

구분	6		7		8		9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24.9	2.40	26.8	2.57	70.7	3.92	22.2	2.21
유형								
어린이집	30.3	2.57	30.0	2.73	77.5	4.13	22.8	2.18
유치원	19.7	2.23	23.6	2.41	64.0	3.72	21.7	2.25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31.6	2.59	30.0	2.74	80.2	4.19	20.6	2.07
민간어린이집	27.6	2.54	36.8	2.93	71.3	3.97	31.0	2.40

구분	6		7		8		9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가정어린이집	28.8	2.53	21.2	2.44	75.8	4.08	19.7	2.27
기관유형2-유치원								
국립유치원	23.4	2.22	28.7	2.47	64.6	3.74	22.0	2.14
사립유치원	15.7	2.23	18.3	2.35	63.5	3.69	21.3	2.37

주: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함 긍정응답률의 합

- 6) 휴업기간 등원아동이 줄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및 하루일과가 편안해진 측면이 있다
- 7) 휴업기간 등원아동이 줄어 누리과정(유치원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역할 수행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었다
- 8) 시간이 지나면서 등원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학급 운영은 팬데믹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 9) 팬데믹으로 인한 등원 아동 수를 고려하여 기존 반/학급을 통합 운영하였다

다) 긴급돌봄 이용률 및 돌봄공백 해소 기여도

지난 2년 동안 기관에서 파악한 긴급보육/긴급돌봄 최고-최저 이용률을 질문한 결과, 최저 평균 34.2%, 최고 평균 76.9%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최저-최고 이용률이 유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위드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긴급돌봄 이용률이 약 80% 내외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IV-2-10〉 긴급돌봄/긴급보육 이용률-최저/최고 : 평균 요약표

구분	최저 이용률(%)	최고 이용률(%)	계(수)
전체	34.20	76.89	(806)
유형			
어린이집	37.49	87.57	(400)
유치원	30.96	66.36	(40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립/법인/직장어린이집	35.06	88.08	(247)
민간어린이집	32.31	80.72	(87)
가정어린이집	53.44	94.70	(66)
기관유형2-유치원			
국립유치원	28.00	59.01	(209)
사립유치원	34.11	74.16	(197)

단위: %, (명)

긴급보육/긴급돌봄 이용 이유를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맞벌이가구로 낮시간 집에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1순위응답결과 80.0%, 중복응답결과 91.3%), (돌봄필요사유는 없지만 팬데믹 장기화 등으로) 가정내양육이 힘들어서(82.1%), 긴급

돌봄 이용 자격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40.2%), 그리고 방역지침 준수 등 기관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30.6%), 다들 보내는 분위기여서(21.2%), 다문화/장애/조손/한부모/저소득 등 돌봄필요사유로(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맞벌이가구 및 다문화/장애/조손/한부모/저소득 등의 취약특성과 같은 긴급돌봄 필요 사유로 명시화 된 요건 외에, 가정내양육이 힘들어서, 긴급돌봄 이용에 대한 제한이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녀의 또래관계 등 다양한 경험과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중복응답결과 11.5%) 등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긴급)돌봄에의 다양한 수요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보육/긴급돌봄 미이용 이유를 유치원 이용 부모에게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코로나 감염 위험 우려 때문에(87.9%), 가정내돌봄이 가능해서(예: 맞벌이가 아님, 조부모 도움을 받을수 있음 등)(76.1%), 공식적인 휴원·휴업 조치로(즉 긴급 돌봄 이용 자제 권고로 인해)(42.9%), (자녀가 등원을 꺼리거나 마스크착용을 힘들다는 판단 등) 개별가정 및 부모의 특성으로(22.7%)로 나타났다.

긴급보육/긴급돌봄 미이용 이유를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코로나 감염 위험 우려 때문에(86.0%), 가정내돌봄이 가능해서(예: 맞벌이가 아님, 조부모 도움을 받을수 있음 등)(80.3%), 공식적인 휴원·휴업 조치로(즉 긴급 돌봄 이용 자제 권고로 인해)(63.0%), (자녀가 등원을 꺼리거나 마스크착용을 힘들다는 판단 등) 개별가정 및 부모의 특성으로(21.0%)로 유치원 부모와 동일한 응답 경향을 보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돌봄/긴급보육이 개별 가정의 돌봄공백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기여하였다’는 긍정응답이 전체 75.3%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부정응답(1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2-11〉 긴급돌봄/긴급보육의 돌봄공백 해소 기여도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평균	계(수)
전체	4.6	6.5	13.6	31.9	43.4	4.03	100.0(806)
유형							
어린이집	6.3	7.8	11.8	28.0	46.3	4.00	100.0(400)
유치원	3.0	5.2	15.5	35.7	40.6	4.06	100.0(406)

라) 긴급돌봄 과정에 대한 편성·운영 지침의 필요성

팬데믹 기간 정부 또는 교육청/지자체에서 긴급돌봄/긴급보육 과정에 대한 별도의 편성운영 지침이 전달되었는지 살펴본 결과, 전달됨 87.0%(어린이집 85.5%, 유치원 88.4%), 전달되지않음 13.0%(각 14.5%, 11.6%)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관에서 운영된 긴급보육/긴급돌봄의 과정(curriculum, program)과 온-오프라인 운영에 대한 의견을 2개 항목 선택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긴급돌봄의 운영이 돌봄필요사유를 갖고있는 경우에 제한되어 있음을 부모님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최대한 이용을 자제시키고자 하였는지, 혹은 부모님이 자녀를 등원시키는 경우 별도의 질문이나 확인없이 등원하도록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전자와 후자가 각 51.6%, 48.4%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둘째, 팬데믹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긴급돌봄 이용 기준을 유지 또는 변경에 대한 의견은 각 35.1%, 63.9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긴급보육/긴급돌봄의 과정(curriculum, program)은 국가수준 교육과정(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교사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함(국가수준 표준안 불필요)과 연령별 표준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 대한 찬성 의견은 각 54.6%, 45.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긴급돌봄 운영에 대한 교사 자율 편성·운영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2〉 긴급돌봄/긴급보육 이용기준 안내 및 적용 실제

단위: %(명)

구분	운영 취지와 이용기준에 대해 안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 적극안내함	운영 취지와 이용기준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부모 판단하에 등원시 수용함	계(수)
전체	51.6	48.4	100.0(806)
유형			
어린이집	48.0	52.0	100.0 (400)
유치원	55.2	44.8	100.0 (40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49.0	51.0	100.0 (247)
민간어린이집	43.7	56.3	100.0 (87)
가정어린이집	50.0	50.0	100.0 (66)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유치원	62.2	37.8	100.0 (209)
사립유치원	47.7	52.3	100.0 (197)

〈표 IV-2-13〉 긴급돌봄/긴급보육 과정 표준안 필요성

단위: %(명)

구분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교사가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게함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해당하므로, 연령별로 표준안을 제공하게 함	계(수)
전체	54.6	45.4	100.0(806)
유형			
어린이집	48.8	51.3	100.0(400)
유치원	60.3	39.7	100.0(406)
기관유형1-어린이집	·	·	·
국공립/법인/직장	54.7	45.3	100.0(247)
민간어린이집	39.1	60.9	100.0(87)
가정어린이집	39.4	60.6	100.0(66)
기관유형2-유치원	·	·	·
국공립유치원	63.6	36.4	100.0(209)
사립유치원	56.9	43.1	100.0(197)

넷째, 긴급보육/긴급돌봄의 과정(curriculum, program)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경우 이를 위한 운영지침이 제공될 필요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함 66.1%, 필요없음 33.9%로 편성·운영 지침의 제공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긴급돌봄/긴급보육 과정 자율운영시 운영지침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이를 위한 운영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운영지침을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없음	계(수)
전체	66.1	33.9	100.0(440)
유형			
어린이집	59.5	40.5	100.0(195)
유치원	71.4	28.6	100.0(245)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57.8	42.2	100.0(135)
민간어린이집	70.6	29.4	100.0(34)
가정어린이집	53.8	46.2	100.0(26)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유치원	75.9	24.1	100.0(133)
사립유치원	66.1	33.9	100.0(112)

다섯째, 팬데믹 경험을 통해 디지털 중심의 변화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온라인(원격수업) 편성에 대해 체계화 된 연령별 표준안과 운영지침의 마련이 필요한지 혹은 아동중심/놀이중심의 운영 기준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국가수준 온라인(원격수업) 교육과정 표준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필요함 66%, 필요하지 않음 34%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긴급돌봄 운영에 관한 국가수준의 표준안과 상세한 편성운영지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나, 대략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운영지침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2-15〉 온라인(원격수업) 교육과정 표준안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체계적인 연령별 표준안과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함	국가수준 온라인(원격수업)교육과정 표준안은 필요하지 않음	계(수)
전체	66.0	34.0	100.0(806)
유형			
어린이집	64.0	36.0	100.0(400)
유치원	68.0	32.0	100.0(40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63.6	36.4	100.0(247)
민간어린이집	69.0	31.0	100.0(87)
가정어린이집	59.1	40.9	100.0(66)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유치원	69.9	30.1	100.0(209)
사립유치원	66.0	34.0	100.0(197)

마) 어린이집·유치원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대한 평가 및 의견

(1) 소독·방역 및 검사·자가격리 조치 관련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루어진 팬데믹 대응에서 소독·방역과 검사, 자가격리 대응과 관련하여 기관 소독·방역 지침의 준수와 관리에 대한 긍정응답이 가장 많아 5점평균 4.6점으로 나타났으며, 원내/주변 확진자 발생 시 대응지침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도 5점평균 4.2~4.6점으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반면, ‘대체인력’ 파견과 ‘인력배치’와 운영에서는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IV-2-16〉 어린이집·유치원의 코로나 대응(1)-검사, 자가격리 등의 대응체계

단위: 점, %

구분	항목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
검사 실시	정부/지역(청)의 교사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의 실시(예: 시행 기준, 시기와 방법, 횟수 등)는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4.18	4.34	4.02
	정부/지역(청) 차원에서 교사의 자가진단 실시가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었다	3.19	3.14	3.25
예방 접종	정부/지역(청)의 교사에 대한 예방접종의 시행(시행 기준, 시기 등)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4.26	4.28	4.25
	정부/지역(청) 차원에서 교사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는 좀 더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	3.64	3.74	3.53
대응 지침/ 이행	원내 및 주변에 자가격리 및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관해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대응지침>은 잘 마련되어있다	4.23	4.31	4.14
	원내 및 주변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시 우리 원에서의 대응은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4.52	4.59	4.44
	교사로서 자가격리 및 확진자 발생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있다	4.55	4.66	4.43
전면 휴원	집단 확진자 발생으로 어린이집이 일시 전면휴원을 하는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대응지침>은 잘 마련되어있다	4.28	4.39	4.18
소독 방역	팬데믹기간 우리 원에서는 어린이집 소독·방역 지침과 관리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	4.61	4.68	4.54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소독·방역 및 관리 지침(예: 약품농도, 시행방법, 횟수 등)은 검증된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4.30	4.36	4.24
	팬데믹기간 어린이집에서의 소독·방역 및 관리 방법(예: 약품농도, 시행방법, 횟수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05	4.05	4.05
인력 운영	팬데믹기간 대체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대체인력의 파견과 배치는 잘 이루어졌다	3.37	3.11	3.61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원의 인력 배치와 운영은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3.90	3.90	3.90

(2) 교육과정·긴급돌봄 운영 및 교사배치와 처우

전반적으로 교사의 긍정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대응과 조치(4.10점) 및 교육과정 운영(4.15점)과 비교하여 휴원기간 긴급돌봄의 운영(4.02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항목 전체에 걸쳐 높게 응답되었다.

코로나19 기간 교사의 근로 및 처우와 인력 배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원 출근

과 정상근무를 하였다는 응답이 7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대근무 26.9%, 재택근무 16.1%, 유급휴가 사용 14.4%,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 14.1%, 당직제 운영 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자녀를 둔 교직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 적용 7.7%, 무급휴가 사용 5.1%로 나타나 필수인력으로서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근무지침과 자녀돌봄에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IV-2-17〉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1

단위: %, 점

구분	코로나 팬데믹 발생에 따른 조치		교육과정/보육과정의 운영		휴원기간 긴급돌봄/간급보육 운영 전반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76.0	4.10	79.4	4.15	72.0	4.02
유형						
어린이집	72.0	4.01	77.8	4.11	67.5	3.94
유치원	79.8	4.20	81.0	4.19	76.4	4.11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73.3	4.07	81.0	4.18	68.8	3.95
민간	71.3	3.91	71.3	3.94	65.5	3.88
가정	68.1	3.92	74.2	4.05	65.2	3.98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86.6	4.37	85.6	4.28	79.9	4.19
사립	72.6	4.02	76.1	4.09	72.6	4.02

주: 1. 비해당/모름 응답 생략함.
 2. 4+5 : '어느 정도'+'상당히' 그러한 긍정응답률의 합

〈표 IV-2-18〉 어린이집·유치원의 코로나 대응(2)-교사 배치 및 근로/처우(2020, 2021년)

단위: %(명)

구분	교사 전원 출근/ 정상근무	교대근무	재택근무 운영	당직교사 위주로 출근	1일 근로시간 조정(근로시간 단축)	무급휴가 사용
2020년	72.6	26.9	16.1	10.5	14.1	5.1
유형						
어린이집	66.5	37.3	8.0	14.3	24.3	7.5
유치원	78.6	16.7	24.1	6.9	4.2	2.7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68.4	37.2	11.3	12.6	22.3	8.1

구분	교사 전원 출근/ 정상근무	교대근무	재택근무 운영	당직교사 위주로 출근	1일 근로시간 조정(근로시간 단축)	무급휴가 사용
민간	57.5	41.4	4.6	24.1	32.2	9.2
가정	71.2	31.8	-	7.6	21.2	3.0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77.0	13.4	37.8	7.7	1.4	1.9
사립	80.2	20.3	9.6	6.1	7.1	3.6
2021년	96.5	5.1	3.1	3.8	4.1	2.1

구분	유급휴가 사용	기관 문을 열지않은 날이 일부 있음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제 적용	어린이녀를 둔 교직원에게 가족돌봄휴가 등 적용	급여조정	기타/없음/ 모름	(수)
2020년	14.4	3.7	8.8	7.7	1.5	0.4	(806)
유형							
어린이집	21.3	4.0	12.5	8.3	0.8	-	(400)
유치원	7.6	3.4	5.2	7.1	2.2	0.9	(40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23.5	2.8	12.6	6.9	0.8	-	(247)
민간	24.1	5.7	11.5	11.5	1.1	-	(87)
가정	9.1	6.1	13.6	9.1	-	-	(66)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3.8	2.4	4.3	11.0	0.5	0.5	(209)
사립	11.7	4.6	6.1	3.0	4.1	0.5	(197)
2021년	6.8	2.2	4.6	3.7	1.5	0.4	(806)

주: 유치원-긴급돌봄/원격수업 운영 기간, 어린이집-긴급돌봄 운영 기간 동안 기준 응답임.

긴급돌봄 운영에 관한 평가에서 5점 평균 3점대로(3.32~3.92점), 긴급돌봄의 취지와 운영 및 이용 기준에 대한 문제점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 교직원의 복지(업무부담, 건강관리 등) 측면에서 3.32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점수가 낮다.

〈표 IV-2-19〉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2 (긴급돌봄 운영)

단위: %, 점

구분	휴원기간 긴급돌봄/긴급보육의 이용기준 및 제한 적용		긴급돌봄/긴급보육 과정의 운영		긴급돌봄/긴급보육의 취지를 고려할 때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58.7	3.66	68.6	3.92	59.1	3.69
유형						
어린이집	53.0	3.49	67.5	3.85	59.0	3.68
유치원	64.3	3.83	69.7	3.98	59.1	3.69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56.3	3.56	70.4	3.93	59.9	3.72
민간	49.4	3.44	58.6	3.60	56.3	3.55
가정	45.5	3.33	68.2	3.86	59.1	3.70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68.9	3.93	72.7	4.05	60.8	3.76
사립	59.4	3.74	66.5	3.91	57.4	3.63

주: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함 긍정응답률의 합

〈표 IV-2-20〉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3

단위: %, 점

구분	교사대 아동비율, 아동중심/놀이중심의 측면에서		긴급돌봄/긴급보육의 실제 이용률 추이를 고려할 때		교직원 복지(건강관리, 업무부담 등)의 관점에서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60.5	3.73	58.3	3.68	47.3	3.32
유형						
어린이집	63.5	3.77	57.0	3.63	51.3	3.40
유치원	57.6	3.69	59.6	3.73	43.3	3.24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64.8	3.77	59.5	3.68	55.5	3.49
민간	59.8	3.74	49.4	3.45	41.4	3.12
가정	63.6	3.80	57.6	3.70	48.5	3.44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56.5	3.64	60.8	3.73	42.6	3.17
사립	58.9	3.73	58.4	3.72	44.2	3.31

주: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함 긍정응답률의 합

팬데믹 발생 이후 부모 대상의 보육료 지원과 유아학비 감면 등 기관 운영 지원에 대해 긍정응답이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팬데믹 기간 아동중심/놀이중심의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응답 63.6%, 5점 평균 3.81점으로 교사의 긍정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21〉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4

단위: %, 점

구분	팬데믹기간 아동/놀이중심 개정누리과정 운영 및 적용		기관 운영 지원		부모대상/휴원기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및 감면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63.6	3.81	62.3	3.81	56.8	3.72
유형						
어린이집	66.5	3.89	60.8	3.79	53.8	3.63
유치원	60.8	3.75	63.8	3.83	59.9	3.81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69.6	3.95	64.0	3.89	56.7	3.72
민간	60.9	3.72	55.2	3.55	48.3	3.42
가정	62.1	3.88	56.1	3.78	50.0	3.59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62.7	3.74	70.3	3.93	63.2	3.92
사립	58.9	3.75	56.9	3.73	56.3	3.69

주: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한 긍정응답률의 합

(3) 교사근속, 보건·의료·건강 지원체계와의 연계, 주요정보 전달과 공유, 소통

교사 근속 유지와 보건의료건강 지원체계와의 연계, 정부의 주요정보 전달과 공유, 소통에 대해 질문한 결과, 휴원기간 교사 근속 유지 4.02점, 보건의료건강 지원체계와의 연계가 3.81점, 정부의 주요정보 전달과 공유, 소통이 저조했다는 응답이 3.88점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유치원 교사의 평가가 다소 부정적으로 응답되었다.

〈표 IV-2-22〉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5

단위: %, 점

구분	(휴원기간) 교사 근속 유지		보건의료·건강 지원 체계와의 연계		정부의 팬데믹 관련 주요 정보 전달과 공유, 소통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69.7	4.02	60.7	3.81	65.1	3.88
유형						
어린이집	71.3	4.06	64.0	3.86	70.8	4.03

구분	(휴원기간) 교사 근속 유지		보건의료·건강 지원 체계와의 연계		정부의 팬데믹 관련 주요 정보 전달과 공유, 소통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유치원	68.2	3.98	57.4	3.75	59.6	3.73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73.7	4.18	67.6	3.98	73.7	4.13
민간	70.1	3.86	54.0	3.60	65.5	3.85
가정	63.6	3.92	63.6	3.78	66.7	3.91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74.2	4.13	62.7	3.88	63.6	3.76
사립	61.9	3.83	51.8	3.62	55.3	3.70

주: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함 긍정응답률의 합

(4) 아동발달 관점 평가와 의견

사회적거리두기에 의한 공간 운영과 재원아동 마스크 착용 등의 지침 준수에 대해서도 긍정응답 71.2%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관점의 대응에서도 긍정응답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바깥/신체활동'과 '언어발달', '심리정서적 건강'(잘 이루어지지 않음 15.9%, 20%, 13.8%)의 개별 항목에서는 부정응답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손/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 위기가구/아동에 대한 감지와 발견, 신고 및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긍정응답이 적게 나타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다.

〈표 IV-2-23〉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6

단위: %, 점

구분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초한 어린이집 운영 및 대응체계 전반		팬데믹기간 실내외 공간 운영 및 활용		재원(영)유아에 대한 거리두기/마스크 관련 지침의 적절성		재원(영)유아에 대한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시행 실제		재원(영)유아실 내외활동		교사를 필수인력으로 지정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68.1	3.93	61.7	3.79	71.2	4.04	73.4	4.10	65.4	3.88	65.1	3.93
유형												
어린이집	68.3	3.95	60.3	3.79	70.5	4.02	73.3	4.09	61.0	3.78	65.5	3.95
유치원	68.0	3.92	63.1	3.78	71.9	4.06	73.6	4.11	69.7	3.99	64.8	3.91
기관유형1-어린이집												

구분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초한 어린이집 운영 및 대응체계 전반		팬데믹기간 실내외 공간 운영 및 활용		자원(영)유아에 대한 거리두기/마스크 관련 지침의 적절성		자원(영)유아에 대한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시행 실제		자원(영)유아실 내외활동		교사를 필수인력으로 지정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국공립/법인/직장	69.6	4.04	62.3	3.86	72.1	4.08	74.5	4.15	62.8	3.88	68.0	4.00
민간	66.7	3.79	57.5	3.68	74.7	4.05	78.2	4.15	62.1	3.69	59.8	3.80
가정	65.2	3.81	56.1	3.70	59.1	3.77	62.1	3.80	53.0	3.50	63.6	3.95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72.7	4.03	67.5	3.87	73.7	4.11	74.6	4.14	73.7	4.09	66.5	3.97
사립	62.9	3.80	58.4	3.69	70.1	4.02	72.6	4.08	65.5	3.88	62.9	3.84

주: 4+5 : '어느 정도'+'상당히' 그러함 긍정응답률의 합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과 바깥/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응답이 각 13.8%, 15.9%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언어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전체 20%로 이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응답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본 생활습관의 경우 유치원 교사의 부정적 응답이, 인지발달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의 부정적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건강(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13.2%, 결손/문제가 있어보이는 아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8.9%로 나타났다. 재난상황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가정내돌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응답도 9.8%로 응답되었다.

〈표 IV-2-24〉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7

단위: %, 점

구분	아동의 성장·발달 및 아동관점의 대응			아동의 바깥 및 신체 활동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		
	1+2	4+5	평균	1+2	4+5	평균	1+2	4+5	평균
전체	7.2	61.4	3.82	15.9	53.5	3.58	13.8	54.8	3.61
유형									
어린이집	8.3	60.0	3.80	19.8	48.5	3.44	12.5	56.0	3.64
유치원	6.2	62.8	3.84	12.1	58.4	3.71	15.0	53.7	3.59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6.5	62.3	3.87	17.4	51.0	3.52	11.7	56.3	3.67

IV.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구분	아동의 성장·발달 및 아동관점의 대응			아동의 바깥 및 신체 활동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		
	1+2	4+5	평균	1+2	4+5	평균	1+2	4+5	평균
민간	11.5	54.0	3.64	23.0	47.1	3.38	14.9	55.2	3.56
가정	10.6	59.1	3.75	24.2	40.9	3.22	12.1	56.1	3.62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8.1	67.5	3.90	12.0	63.6	3.81	20.6	53.6	3.54
사립	4.1	57.9	3.77	12.2	52.8	3.60	9.1	53.8	3.63

주: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함 긍정응답률의 합

〈표 IV-2-25〉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8

단위: %, 점

구분	기본생활습관			언어발달			인지발달		
	1+2	4+5	평균	1+2	4+5	평균	1+2	4+5	평균
전체	11.3	59.4	3.72	20.0	47.0	3.41	10.5	54.7	3.64
유형									
어린이집	9.5	62.5	3.78	22.0	45.5	3.37	10.8	55.3	3.66
유치원	13.1	56.4	3.65	18.0	48.5	3.46	10.3	54.2	3.63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9.3	62.8	3.79	20.6	47.4	3.43	10.1	55.9	3.68
민간	10.3	58.6	3.72	21.8	42.5	3.28	10.3	51.7	3.61
가정	9.1	66.7	3.82	27.3	42.4	3.27	13.6	57.6	3.63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15.3	60.3	3.71	21.1	51.7	3.47	12.9	56.5	3.65
사립	10.7	52.3	3.59	14.7	45.2	3.45	7.6	51.8	3.60

주: 1+2: '전혀 잘'+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함의 합

〈표 IV-2-26〉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9

단위: %, 점

구분	심리정서적 건강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결손/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		
	1+2	4+5	평균	1+2	4+5	평균	1+2	4+5	평균
전체	13.2	50.2	3.55	8.4	48.5	3.65	8.9	42.3	3.59
유형									
어린이집	13.5	50.5	3.54	9.0	47.5	3.66	9.3	41.0	3.57
유치원	12.8	50.0	3.56	7.9	49.5	3.64	8.6	43.6	3.60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13.4	53.0	3.59	8.9	47.8	3.69	8.1	41.3	3.61
민간	12.6	46.0	3.48	9.2	51.7	3.70	11.5	43.7	3.55

구분	심리정서적 건강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결손/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		
	1+2	4+5	평균	1+2	4+5	평균	1+2	4+5	평균
가정	15.2	47.0	3.42	9.1	40.9	3.50	10.6	36.4	3.44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15.8	49.8	3.54	7.7	56.0	3.74	8.6	50.7	3.72
사립	9.6	50.3	3.59	8.1	42.6	3.53	8.6	36.0	3.46

주: 1+2: '전혀 잘'+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함의 합

〈표 IV-2-27〉 코로나 대응에 관한 평가 - 10

단위: %, 점

구분	위기가구/아동에 대한 감지와 발견, 신고 및 대응체계			재난상황 자녀양육가구/부모에 대한 가정내돌봄 지원		
	1+2	4+5	평균	1+2	4+5	평균
전체	6.7	45.8	3.70	9.8	49.4	3.64
유형						
어린이집	7.0	46.8	3.71	11.0	50.5	3.64
유치원	6.4	44.8	3.69	8.6	48.3	3.64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6.9	46.6	3.74	10.9	51.8	3.67
민간	6.9	51.7	3.70	12.6	55.2	3.64
가정	7.6	40.9	3.59	9.1	39.4	3.52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4.3	51.7	3.86	9.6	55.5	3.74
사립	8.6	37.6	3.50	7.6	40.6	3.53

주: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함 긍정응답률의 합

바) 아동의 팬데믹 적응 및 팬데믹이 미친 영향

아동이 코로나19 상황에 적응을 잘 하였다는 긍정응답이 전체 88.1%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5점평균 4.27점), 동시에 아동의 발달지연과 학습격차 및 결손, 신체/바깥활동 및 또래관계/사회정서발달, 기본생활습관의 결손과 지연이 (어느정도+상당히) '증가했다'는 응답 또한 모두 절반 가까이(49.4~50.5%) 나타났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cf. 부모 조사결과, 자녀에 대한 발달지연/결손이 있다는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남).

〈표 IV-2-28〉 아이들의 팬데믹 적응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잘 모르겠음	평균	계(수)
전체	0.5	0.9	9.9	49.4	38.7	0.6	4.27	100.0(806)
유형								
어린이집	0.5	0.8	8.8	51.5	37.8	0.8	4.28	100.0(400)
유치원	0.5	1.0	11.1	47.3	39.7	0.5	4.26	100.0(40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0.8	0.8	6.9	53.0	37.7	0.8	4.28	100.0(247)
민간	-	-	14.9	47.1	37.9	-	4.23	100.0(87)
가정	-	1.5	7.6	51.5	37.9	1.5	4.30	100.0(66)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0.5	0.5	7.7	43.5	47.4	0.5	4.38	100.0(209)
사립	0.5	1.5	14.7	51.3	31.5	0.5	4.13	100.0(197)

주: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함 긍정응답률의 합

〈표 IV-2-29〉 팬데믹 이후 아동의 발달지연 및 (영)유아간 격차 영향 - 1

단위: %, 점

구분	발달 지연		(아들들 간) 발달 및 학습의 격차		비개발동 및 신체활동의 공백과 결손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 결손 및 지연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지연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49.4	3.32	50.5	3.39	59.4	3.56	52.1	3.42	48.8	3.34
유형										
어린이집	45.0	3.24	45.5	3.27	59.8	3.60	45.8	3.27	42.3	3.21
유치원	53.7	3.40	55.4	3.50	59.1	3.53	58.4	3.56	55.2	3.4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43.7	3.19	45.3	3.25	61.9	3.63	44.1	3.23	42.1	3.20
민간	43.7	3.28	44.8	3.36	55.2	3.54	50.6	3.44	44.8	3.28
가정	51.5	3.33	47.0	3.26	57.6	3.59	45.5	3.18	39.4	3.14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49.3	3.26	51.7	3.36	56.5	3.40	55.0	3.46	50.7	3.34
사립	58.4	3.54	59.4	3.65	61.9	3.66	61.9	3.66	59.9	3.59

주: 4+5 : '어느 정도'+ '상당히' 그러함 긍정응답률의 합

아동의 심리정서적 건강과 스트레스 및 부적응행동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 36.8%, 43.8%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행복과 웰빙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31.6%

에 불과했다. 특히 인지발달과 학습능력의 지연 45.8%, 언어발달 지연 53.1%로 교사의 아동발달 상의 문제상황 인식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코로나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와 우울/불안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69.7%로 높게 나타났다.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유치원 교사에게서 증가했다는 비율이 좀 더 높다.

〈표 IV-2-30〉 팬데믹 이후 아동의 발달지연 및 (영)유아간 격차 영향 - 2

단위: %, 점

구분	언어발달 지연		인지발달 및 학습능력 지연		심리정서적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따름/다툼 및 부적응과 문제행동 보임		아동의 행복과 웰빙 증가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53.1	3.48	45.8	3.28	36.8	3.09	43.8	3.25	31.6	3.12
유형										
어린이집	51.0	3.45	42.5	3.20	33.0	2.98	42.0	3.19	29.8	3.07
유치원	55.2	3.50	49.0	3.35	40.6	3.19	45.6	3.30	33.5	3.1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49.0	3.43	40.5	3.16	31.6	2.97	41.3	3.19	27.5	3.04
민간	55.2	3.54	47.1	3.31	34.5	3.08	43.7	3.25	37.9	3.23
가정	53.0	3.42	43.9	3.18	36.4	2.91	42.4	3.09	27.3	2.95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51.2	3.38	45.0	3.23	43.1	3.14	44.5	3.18	30.6	3.06
사립	59.4	3.62	53.3	3.49	38.1	3.24	46.7	3.43	36.5	3.27

〈표 IV-2-31〉 코로나로 인한 교사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대체로 증가하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	매우 증가하였다	평균	계(수)
전체	3.1	7.3	19.9	50.6	19.1	3.75	100.0(806)
유형							
어린이집	3.5	7.5	20.5	49.8	18.8	3.73	100.0(400)
유치원	2.7	7.1	19.2	51.5	19.5	3.78	100.0(40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3.6	6.9	22.3	50.6	16.6	3.70	100.0(247)
민간	1.1	8.0	18.4	49.4	23.0	3.85	100.0(87)
가정	6.1	9.1	16.7	47.0	21.2	3.68	100.0(66)

구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대체로 증가하지 않았다	보통	어느 정도 증가하였다	매우 증가하였다	평균	계(수)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3.3	8.6	16.7	50.7	20.6	3.77	100.0(209)
사립	2.0	5.6	21.8	52.3	18.3	3.79	100.0(197)

사) 포스트코로나 ECEC 미래대응 전략

팬데믹 종식 이후 포스트코로나 미래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에게 12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질문한 결과,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가 (어느정도+상당히) ‘중요하다’는 응답이 83.3%(4.32점)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82.8%(4.30점), ‘저출생 등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 80.1%(4.35점)에 대한 긍정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미래세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역량/웰빙의 제고’ 78.3%(4.19점)와 ‘취약아동/가구 지원체계 보강’ 79.0%(4.19점)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육아주체 부모와 교사, 아동의 역량과 웰빙 중심의 양육지원체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IV-2-32〉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분야(ECEC) 미래 대응전략 - 1

단위: %, 점

구분	유보통합		공-사립 격차 해소		교육-돌봄 격차 완화		유초연계		(무상, 의무교육 등) 학제개편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55.8	3.53	73.2	4.04	74.2	4.06	76.2	4.11	70.5	4.07
유형										
어린이집	69.0	3.94	79.8	4.21	82.0	4.29	75.5	4.14	68.0	4.03
유치원	42.9	3.13	66.7	3.88	66.5	3.84	76.8	4.08	72.9	4.12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71.7	4.01	77.3	4.12	81.0	4.25	77.3	4.16	67.2	3.99
민간	67.8	4.00	82.8	4.37	81.6	4.32	72.4	4.14	77.0	4.26
가정	60.6	3.59	84.8	4.35	86.4	4.38	72.7	4.05	59.1	3.83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43.5	3.08	58.9	3.59	65.6	3.77	78.9	4.14	78.5	4.24
사립	42.1	3.18	75.1	4.19	67.5	3.92	74.6	4.02	67.0	3.98

주 4+5 : ‘어느 정도’+‘상당히’ 중요함



〈표 IV-2-33〉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분야(ECEC) 미래 대응전략 - 2

단위: %, 점

구분	저출생 대응		디지털사회로의 변화 대응		기후변화/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SDG)의 전략		미래세대의 양성-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웰빙 제고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4+5	평균
전체	80.1	4.35	71.7	4.00	75.1	4.12	78.3	4.19	82.8	4.30
유형										
어린이집	82.5	4.42	71.8	4.03	75.0	4.12	79.3	4.20	84.0	4.32
유치원	77.8	4.30	71.7	3.98	75.1	4.13	77.3	4.18	81.5	4.29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83.0	4.36	73.7	4.04	75.3	4.10	80.2	4.18	85.4	4.31
민간	80.5	4.45	67.8	4.02	74.7	4.18	77.0	4.23	82.8	4.32
가정	83.3	4.56	69.7	4.02	74.2	4.11	78.8	4.21	80.3	4.32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79.9	4.33	76.1	4.03	80.9	4.24	84.7	4.32	88.5	4.44
사립	75.6	4.26	67.0	3.92	69.0	4.00	69.5	4.03	74.1	4.14

주: 4+5: '어느 정도'+'상당히' 중요함

〈표 IV-2-34〉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분야(ECEC) 미래 대응전략 - 3

단위: %, 점

구분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		취약아동/가구 지원체계 보강	
	4+5	평균	4+5	평균
전체	83.3	4.32	79.0	4.19
유형				
어린이집	85.3	4.37	81.3	4.24
유치원	81.3	4.28	76.8	4.14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85.8	4.34	81.8	4.23
민간	85.1	4.40	80.5	4.26
가정	83.3	4.41	80.3	4.26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86.1	4.40	82.8	4.21
사립	76.1	4.15	70.6	4.07

주: 4+5 : '어느 정도'+'상당히' 중요함

제시된 과제 중 ECEC 분야 중장기 과제로서 중요도 우선순위(1,2,3순위)를 질 문한 결과, 1순위 응답에서 '공-사립 기관 간 격차 해소'(23.7%)와 '유보통합'(21.0%),

‘저출생 등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16.9%), 그리고 무상/의무교육등의 ‘학제개편’(13.0%)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1~3순위 중복응답 결과에서는 ‘공-사립 기관 간 격차 해소’(47.1%)와 ‘저출생 등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44.5%), ‘유보통합’(38.6%), ‘교육-돌봄 격차 완화’(36.0%), ‘교사 역량/웰빙 제고’(28.2%), ‘학제개편’(26.3%), 그리고 ‘부모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25.6%)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표 IV-2-35〉 ECEC 중장기 중요 과제 중 1순위 - 1

단위: %, 명

구분	유보통합	공-사립 격차 해소	교육-돌봄 격차 완화	유초연계	(무상, 의무교육) 학제개편	저출생 대응	(AI/메타버스/로봇/에듀테크 등) 디지털사회로의 변화 대응
1순위	21.0	23.7	8.4	2.5	13.0	16.9	1.9
유형							
어린이집	34.3	21.0	10.0	0.5	2.8	17.3	2.0
유치원	7.9	26.4	6.9	4.4	23.2	16.5	1.7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38.9	13.4	12.6	0.8	2.8	15.4	2.4
민간	34.5	28.7	5.7	-	3.4	13.8	-
가정	16.7	39.4	6.1	-	1.5	28.8	3.0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8.6	4.8	8.6	4.3	37.3	17.7	2.4
사립	7.1	49.2	5.1	4.6	8.1	15.2	1.0

〈표 IV-2-36〉 ECEC 중장기 중요 과제 중 1순위 - 2

단위: %, 명

구분	기후변화/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SDG)의 전략	미래세대 양성-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웰빙 제고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부모의 양육역량, 일-가정 양립 강화	취약아동/가구 지원체계 보강	기타/없음	계(수)
전체	1.6	1.9	4.6	3.5	0.6	0.4	100.0(806)
유형							
어린이집	1.0	1.3	4.8	3.8	1.0	0.6	100.0(400)
유치원	2.2	2.5	4.4	3.2	0.2	0.4	100.0(406)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1.2	1.2	5.3	4.0	1.6	0.4	100.0(247)

구분	기후변화/ 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SDG)의 전략	미래세대 양성-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웰빙 제고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부모의 양육역량, 일-가정 양립 강화	취약아동/ 가구 지원체계 보강	기타/ 없음	계(수)
민간	1.1	2.3	5.7	4.6	-	-	100.0(87)
가정	-	-	1.5	1.5	-	1.5	100.0(66)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3.3	4.3	3.8	3.3	0.5	1.0	100.0(209)
사립	1.0	0.5	5.1	3.0	-	-	100.0(197)

〈표 IV-2-37〉 ECEC 중장기 중요 과제 중 1~3순위(중복응답) - 1

단위: %, 명

구분	유보통합	공-사립 격차 해소	교육-돌봄 격차 완화	유초연계	(무상, 의무교육 등) 학제개편	저출생 대응	(AI/메타버스/ 로봇/ 에듀테크 등) 디지털사회의 변화 대응
전체	38.6	47.1	36.0	16.1	26.3	44.5	9.3
유형							
어린이집	55.3	49.3	45.8	10.0	13.8	45.5	5.8
유치원	22.2	45.1	26.4	22.2	38.7	43.6	12.8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57.1	38.1	49.4	11.7	13.4	42.9	6.9
민간	59.8	66.7	41.4	9.2	14.9	41.4	2.3
가정	42.4	68.2	37.9	4.5	13.6	60.6	6.1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20.6	17.2	22.5	19.1	49.8	43.1	16.3
사립	23.9	74.6	30.5	25.4	26.9	44.2	9.1

〈표 IV-2-38〉 ECEC 중장기 중요 과제 중 1~3순위(중복응답) - 2

단위: %, 명

구분	기후변화/ 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SDG) 의 전략	미래세대의 양성-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웰빙 제고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	취약아동/ 가구 지원체계 보강	기타/ 없음	계(수)
전체	9.2	13.2	28.2	25.6	4.8	1.0	(806)
유형							
어린이집	7.3	9.8	27.5	24.8	4.3	1.4	(400)
유치원	11.1	16.5	28.8	26.4	5.4	0.8	(406)

구분	기후변화/ 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SDG) 의 전략	미래세대의 양성-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웰빙 제고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	취약아동/ 가구 지원체계 보강	기타/ 없음	계(수)
기관유형1-어린이집							
국공립/법인/직장	6.9	12.1	30.8	25.5	4.0	1.2	(247)
민간	13.8	8.0	17.2	18.4	5.7	1.1	(87)
가정	-	3.0	28.8	30.3	3.0	1.5	(66)
기관유형2-유치원							
국공립	12.9	23.0	31.6	33.5	8.6	2.0	(209)
사립	9.1	9.6	25.9	18.8	2.0	-	(197)

현행 양육지원체계가 비용과 서비스 지원 위주로 구성된 데 반해, ‘공-사립 기관 간 격차 해소’와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이라는 미래지향적 대응과 기관 간 격차 완화와 통합적 접근에 대한 의견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음을 보여준다.

3.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조사 결과

팬데믹 기간 육아분야 가장 취약한 지점의 하나는 집단양육시설에 있는 아동 대상의 코호트 격리와 보호, 그리고 아동학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상황의 지속으로 학대 징후의 발견과 개입, 중재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지점이다. 이 절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돌봄 현황과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팬데믹 기간의 어려움과 대응의 사각지대 및 향후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의 발굴과 개입, 중재의 체계에 대한 논의는 5장 3절에서 다루었다.

가. 응답자 특성

1) 응답자의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 특성

조사에 참여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는 총 101명으로, 전국의 101개 기관의 응답을 수합한 결과이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보육원에 해당하는 아동양육시

설 종사자가 96.0%(N=97명)로 대다수였으며, 그 외 아동일시보호시설 1.0%, 아동보호치료시설 1.0%, 자립지원시설 2.0%의 담당자가 참여하였다. 직무별로 살펴보면, 보육사/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 36명, 직원/사무국에서 48명, 그 외 17명이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시설(N=101)의 재원 아동 정원은 평균은 54.6명, 현원 평균 39.6명으로, 조사참여기관의 대다수인 아동양육시설(N=97)의 경우 정원 평균 56명에 현원 평균 40.7명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 대도시에 위치한 전체 시설의 정원 평균 61.7명, 현원 평균 40.7명, 중소도시 시설 정원/현원 50.3명/40.4명, 읍면지역 정원/현원 49.3명/36명으로, 지역규모에 따라 시설 현원 규모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아동양육시설(N=97)의 경우 재원 아동 연령별 분포가 기관당 평균 영아(0~3세미만) 약 4.1명, 유아 7.7명, 초등저학년 아동 7.8명, 초등고학년 아동 7.1명, 중학생이상(13~18세) 14.0명이 재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시설장(1명) 외, 기관당 평균 보육사 약 17.8명, 사무국장 0.9명, 사무원 0.8명, 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 약 1.9명, 임상심리상담원 0.5명, 의사/간호(조무)사 0.7명, 조리원 1.7명, 위생원 0.8명, 확, 기타인력 1.7명으로, 근무 중인 교직원들은 기관당 평균 27.8명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참여자 성별로는 남성 33.7%, 여성 66.3%, 급여 평균 13.7 호봉(기본급 평균 약 440만원, 수당 평균 58만원; 시간외수당 지급 99%)로 조사되었다.

〈표 IV-3-1〉 응답자 특성 - 아동양육시설

구분	계	(수)
전체	100.0	(101)
기관유형		
아동양육시설	96.0	(97)
아동양육시설 외	4.0	(4)
기관규모(아동수)		
20인이하	12.9	(13)
21~50인이하	64.4	(65)
51~80인이하	22.8	(23)
지역규모		

IV.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구분	계	(수)
대도시	39.6	(40)
중소도시	39.6	(40)
읍면지역	20.8	(21)
지역1-권역		
수도권	26.7	(27)
충청권/강원	18.8	(19)
경상권	29.7	(30)
전라권/제주	24.8	(25)
응답자		
보육사/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	35.6	(36)
직원/사무국	47.5	(48)
그 외	16.8	(17)
연령		
20대	8.9	(9)
30대	38.6	(39)
40대	34.7	(35)
50대이상	17.8	(18)
경력		
6년 미만	25.7	(26)
6~9년 미만	15.8	(16)
9~12년 미만	13.9	(14)
12~16년 미만	13.9	(14)
16년 이상	30.7	(31)

재원 아동의 특성 및 현황을 살펴보면, 원가정과 교류(비대면 포함)하는 아동의 비중이 전체 44.4%로 나타났으며, 장애를 가진 아동 10.4%, 치료/상담을 받고있는 아동 33.3%, 기타 8.2%로 나타났다.

2) 코로나 전후 기관운영 및 재원/재직 변화

가) 아동수/교직원 수 및 기관 수입/지출 변화

아동양육시설의 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여 아동 수 및 교직원 수의 변화와 교직원 근로시간, 아동의 생활시간 및 관계상의 변화 등 시설 양육환경 전반에 걸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5점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재원 아동 수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약간+상당히) 줄어들 17.8%, 변화없음 60.4%, (약간+상당히) 늘어남 20.3%(5점평균 3.0점)로 나타났으며, 교직원 수는 줄어들 9.9%, 변화없음 41.6%, 늘어남 47.5%(5점평균 3.5점)로 교직원이 증가된 기관이 줄어든 기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수입은 5점 평균 2.9점으로 줄어들었다는 응답(24.8%)이 늘어난 경우(19.8%)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은 늘어났다는 응답(24.8%) 줄었다는 응답에 비해 많았다(3.24점).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기부금은 줄고, 기관 전체 지출이 증가했다는 응답(40.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급간식비 지출(3.8점)의 증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및 돌봄시설의 휴업·휴관 조치로 인해 재원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 머무는 시간과 원격수업 등 개별아동에 대한 학습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급간식비 외에 관리운영비(3.5점)와 교재교구 등 비품/설비비(3.5점), 그리고 인건비 지출(3.5점)도 늘어났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재난 상황의 휴업·휴관 조치에 따른 긴급돌봄체계의 운영이 아동양육시설에도 적용되어 추가 인력과 예산 운영에 관한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교직원 근무 및 아동의 생활시간 변화

코로나19로 교직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휴게시간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아동 돌봄 시간과 특히 원격수업과 공부를 챙기는 학습지원의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0% 내외로 많았다.

아동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에서의 학습/공부시간과 휴식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TV/미디어 시청과 온라인 소통시간이 70% 내외로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코로나19 전-후 변화(기관운영, 교직원, 아동)

단위: %(명)

구분	응답				평균 (점)	계(수)	
	줄어듦	변화 없음	늘어남	잘 모름			
기관 운영	아동 수	17.8	60.4	20.8	1.0	3.03	100.0(101)
	교직원 수	9.9	41.6	47.5	1.0	3.45	100.0(101)
	기관 총 수입	24.8	43.6	19.8	11.9	2.92	100.0(101)
	- 지자체 보조금/지원금	4.0	58.4	24.8	12.9	3.24	100.0(101)
	- 기부금	42.6	29.7	14.9	12.9	2.55	100.0(101)
	기관 총 지출	8.9	37.6	40.6	12.9	3.43	100.0(101)
	- 아동교육비 지출	20.8	42.6	25.7	10.9	3.08	100.0(101)
	- 인건비 지출	4.0	47.5	36.6	11.9	3.46	100.0(101)
	- 급간식비	2.0	31.7	55.4	10.9	3.81	100.0(101)
	- 관리운영비	5.0	42.6	42.6	9.9	3.48	100.0(101)
- 교재교구/비품/설비 구입	6.9	33.7	48.5	10.9	3.53	100.0(101)	
교직원	총 근로시간	4.0	76.2	14.9	5.0	3.14	100.0(101)
	- 대면근로시간(오프라인출근)	4.0	84.2	10.9	1.0	3.10	100.0(101)
	- 비대면근로시간(온라인근무)	6.9	76.2	4.0	12.9	2.93	100.0(101)
	아동을 직접 돌보는 시간	7.9	44.6	46.5	1.0	3.65	100.0(101)
	아동의 수업/공부를 챙기고 학습을 지원하는 시간	4.0	34.7	60.4	1.0	3.85	100.0(101)
	휴게시간	31.7	58.4	8.9	1.0	2.73	100.0(101)
아동	학습/공부 시간	14.9	41.6	42.6	1.0	3.32	100.0(101)
	놀이 및 여가/문화활동 시간	59.4	18.8	20.8	1.0	2.41	100.0(101)
	휴식시간	14.9	52.5	31.7	1.0	3.20	100.0(101)
	신체활동 시간	68.3	17.8	11.9	2.0	2.13	100.0(101)
	바깥활동 시간	84.2	7.9	6.9	1.0	1.71	100.0(101)
	TV/미디어 이용 시간	2.0	18.8	78.2	1.0	4.04	100.0(101)
	온라인 소통 시간(눈, 화상통화, 채팅, 유튜브 등)	2.0	26.7	69.3	2.0	3.96	100.0(101)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시간	68.3	17.8	12.9	1.0	2.04	100.0(101)

주: 1) 1점-상당히 줄어듦, 2점-약간 줄어듦, 3점-변화없음, 4점-약간 늘어남, 5점-상당히 늘어남의 긍-부정 응답률
과 5점척도 평균을 제시함.

2) 아동의 경우 0~9세(초등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응답함.

다) 아동-교직원 관계 및 상담/치료, 공간/설비, 인력 운영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아동-교직원 관계와 아동
간 관계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였다. 관계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아동 간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좋아졌다는 응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교직원 관계가 나빠졌다’는 응답은 다소 많은 것으로 응답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상담/치료를 필요로 하는 개별요구를 갖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증재가 좋아졌다’는 응답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V-3-3〉 코로나19 전-후 변화(관계, 상담/치료, 공간/설비/인력)

단위: %(명)

	구분	나빠짐	변화 없음	좋아짐	잘 모름	평균 (점)	계(수)
관계	아동-교직원 관계	21.8	57.4	18.8	2.0	2.98	100.0(101)
	아동 간 관계	26.7	57.4	13.9	2.0	2.85	100.0(101)
상담/치료	상담/치료 등 개별요구(special needs)를 갖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증재	22.8	50.5	22.8	4.0	3.02	100.0(101)
공간/설비/인력	공간/실 운영의 밀집도, 적정성	23.8	49.5	23.8	3.0	3.04	100.0(101)
	온라인/디지털 설비와 환경	21.8	36.6	40.6	1.0	3.23	100.0(101)
	성인대아동 비율	15.8	60.4	20.8	3.0	3.09	100.0(101)
	실/반별 아동 수(규모)	17.8	57.4	22.8	2.0	3.10	100.0(101)
	시설 양육환경 전반	15.8	48.5	34.7	1.0	3.30	100.0(101)

주: 1) 1점-상당히 줄어듦, 2점-약간 줄어듦, 3점-변화없음, 4점-약간 늘어남, 5점-상당히 늘어남의 긍-부정 응답률과 5점척도 평균을 제시함.

2) 아동의 경우 0~9세(초등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응답함.

코로나 기간 ‘공간과 실 운영의 적정성과 밀집도’에 대해서도 좋아졌다는 응답과 나빠졌다는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나, 긍-부정의 영향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공간/시설과 교사대아동비율 등 인력 및 공간 운영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좋아졌다는 긍정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온라인/디지털 설비와 시설 양육환경 전반이 좋아졌다는 응답이 부정적 응답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공간 및 설비, 인력 운영의 어려움과 함께 코로나 기간 개선된 환경의 변화가 긍정적인 응답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코로나 대응 현황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관별로 자가격리를 경험한 아동은 기관당 평균 5명으로 현원 평균 대비 12.6%로 나타났다. 기관규모가 클수록 자가격리를 경험한 평균 아동 수는 늘어났으며,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지역으로 갈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다. 지난 2년간 아동 1인당 감염여부 검사를 평균 2.2회 받았으며, 기관규모 51~80인 이하의 경우 검사횟수가 평균 3.1회로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아동 규모가 클수록 감염위험이 커지므로, 팬데믹상황에서 시설내 소규모 운영과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감염위험 시의 공간/설비 운영의 기준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1) 추가 인력 배치

코로나19 상황의 추가 배치 인력에 대해 질문한 결과, 2021년 10월 조사시점 ‘추가배치 인력 없음’ 96.0%, ‘있음’ 4.0%로, 앞서 살펴본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비교하여 추가배치 인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시 아동양육 시설의 인력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IV-3-4〉 (지자체 등에서) 코로나 상황으로 추가 배치한 인력_현원(현재시점)

단위: %(명)

구분	없음	있음	2명(명)	3명이상(명)	(수)
전체	96.0	4.0	1.0	3.0	(101)
기관유형					
아동양육시설	96.9	3.1	-	3.1	(97)
아동양육시설 외	75.0	25.0	25.0	-	(4)
기관규모(아동수)					
20인 이하	92.3	7.7	7.7	-	(13)
21~50인 이하	95.4	4.6	-	4.6	(65)
51~80인 이하	100.0	-	-	-	(23)
지역규모					
대도시	95.0	5.0	2.5	2.5	(40)
중소도시	95.0	5.0	-	5.0	(40)
읍면지역	100.0	-	-	-	(21)

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및 어려움

코로나19 발생 이후 팬데믹 이전(2019년)과 비교하여 현재(2021년 10월) 시점 원가정교류와 서비스 이용 등 증감에 대해 5점척도를 질문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1) 원가정교류 및 교육·돌봄서비스 이용 변화³¹⁾

가) 원가정교류 및 외부 자원봉사

코로나19로 재원아동의 원가정과의 교류 및 연락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44.6%, 변화없음 41.6%, 늘어남 10.9%로 ‘줄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평균 2.5점). 특히 원가정과 직접 만나는 대면접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줄어듦 83.2%), 비대면 온라인 접촉과 연락이 늘어났다(44.6%)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의 출입과 활동도 줄었다는 응답이 95.0%로 나타났다.

나) 상담치료 등 개별요구를 갖는 아동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상담/치료 등 개별요구(special needs)를 갖는 아동이 늘어남 35.6%, 변화없음 42.6%, 줄어들 20.8%로(3.2점)으로 ‘증가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공-사 교육 및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전반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늘어났다’는 응답보다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많아 5점척도 평균 3점 이하로 나타났다.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에 비해 사적 돌봄 및 사교육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영유아 사설 놀이공간(예: 키즈카페)과 초등 아동의 학원 이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5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 중에서 학원 외 학습지와 온라인수강 등의 비대면 사교육 서비스 이용의 감소는 다소 적어, 늘어났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31) 응답항목별 해당 (연령의) 아동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기됨. 즉 비해당 비율을 제외한 유효응답으로 재산출 시, 각 응답률은 더욱 커짐에 유의.

〈표 IV-3-5〉 코로나19 전후 원가정 교류 및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 변화

단위: %(명)

구분		줄어듦	변화 없음	늘어남	비해당	평균 (점)	계(수)
모든 아동 공통	원가정 교류/연락(전체)	44.6	41.6	10.9	3.0	2.49	100.0(101)
	- 원가정 교류/연락(대면)	83.2	12.9	1.0	3.0	1.43	100.0(101)
	- 원가정 교류/연락(비대면)	17.8	34.7	44.6	3.0	3.32	100.0(101)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활동	95.0	4.0	-	1.0	1.20	100.0(101)
	상담/치료등 개별요구를 갖는 아동	20.8	42.6	35.6	1.0	3.19	100.0(101)
	아이돌봄미(아이돌봄서비스) 이용	11.9	26.7	6.9	54.5	2.76	100.0(101)
	육아종합지원센터	5.0	30.7	1.0	63.4	2.81	100.0(101)
	공공기관/인프라 이용(도서관 등)	59.4	24.8	3.0	12.9	1.92	100.0(101)
문화/오락/체험활동	83.2	14.9	1.0	1.0	1.63	100.0(101)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긴급돌봄 포함)	32.7	40.6	4.0	22.8	2.47	100.0(101)
	유치원 이용(긴급돌봄 포함)	24.8	35.6	3.0	36.6	2.55	100.0(101)
	시간제보육/돌봄 이용	12.9	24.8	3.0	59.4	2.61	100.0(101)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 이용 (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포함)	16.8	25.7	2.0	55.4	2.49	100.0(101)
	영유아사교육(시간제학원, 학습지 등)	22.8	34.7	4.0	38.6	2.58	100.0(101)
영유아시설놀이공간(예: 키즈카페 등)	53.5	20.8	-	25.7	1.71	100.0(101)	
초등	초등돌봄교실(긴급돌봄 포함)	20.8	31.7	4.0	43.6	2.54	100.0(101)
	(초등) 방과후학교	43.6	29.7	5.9	20.8	2.35	100.0(101)
	지역아동센터	8.9	25.7	1.0	64.4	2.64	100.0(101)
	자자체 (온종일)돌봄센터	5.0	23.8	2.0	69.3	2.77	100.0(101)
	다함께돌봄센터	5.0	23.8	2.0	69.3	2.77	100.0(101)
사교육	학원-학습관련	58.4	17.8	6.9	16.8	2.07	100.0(101)
	학원-예체능 관련	59.4	17.8	5.9	16.8	1.90	100.0(101)
	학원 외(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수강 등)	47.5	23.8	14.9	13.9	2.43	100.0(101)

주. '줄어듦'은 '상당히+약간' 줄어듦 1+2점 응답의 합; '늘어남'은 '상당히+약간' 늘어남 4+5점 응답의 합임.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취학 전-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감소에 비해 (도서관 등) 기타 공공기관 이용과 문화/오락/체험 활동 및 사교육(학원이용)의 감소에 대한 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긴급돌봄 이용률 및 이용/미이용 이유

가) 휴업기간 긴급돌봄 이용률

아동양육시설의 초등 3학년 이하 아동(0~9세)의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휴업·휴원 기간 긴급돌봄 이용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가끔+자주) 이용함 15.8%, (대체로+전혀) 이용하지 않음 84.2%(4점평균 1.6점)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부모 응답에 의한 개별가정 아동의 긴급돌봄 이용률(61.1%)과 비교하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³²⁾. 하위변인을 살펴보면, 읍면지역에서, 충청/강원 지역의 아동 양육시설 아동의 긴급돌봄 이용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정도 및 지자체 지침과 개별기관의 긴급돌봄 운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6〉 휴업기간 제공되는 긴급돌봄 이용률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이용하지 않음	대체로 이용하지 않음	가끔 이용	자주/많이 이용	종합		평균 (점)	계/(수)
					미이용	이용		
전체	62.4	21.8	10.9	5.0	84.2	15.8	1.58	100.0(101)
지역규모								
대도시	70.0	17.5	10.0	2.5	87.5	12.5	1.45	100.0(40)
중소도시	62.5	22.5	10.0	5.0	85.0	15.0	1.58	100.0(40)
읍면지역	47.6	28.6	14.3	9.5	76.2	23.8	1.86	100.0(21)
지역1-권역								
수도권	63.0	14.8	14.8	7.4	77.8	22.2	1.67	100.0(27)
충청권/강원	47.4	31.6	10.5	10.5	78.9	21.1	1.84	100.0(19)
경상권	73.3	16.7	6.7	3.3	90.0	10.0	1.40	100.0(30)
전라권/제주	60.0	28.0	12.0	-	88.0	12.0	1.52	100.0(25)

나) 긴급돌봄 이용/미이용 이유

2020~2021년 휴업·휴원 기간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 그 이유로 1순위 응답에서 아동의 또래관계 등 다양한 경험과 발달 및 학습을 위해서(28.9%)와 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으나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23.7%)로 나타났다.

32) 부모 응답 결과와 아동양육시설의 실무담당자 응답 결과 간 비교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표 IV-3-7〉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이유(N=38)

단위: %

항목	응답률	
	1순위	1+2순위
긴급돌봄이 제공되어서	18.4	23.7
기관 사정/ 상황으로 시설에서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여	13.2	18.4
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으나,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23.7	52.6
방역지침 준수 등 기관/학교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15.8	39.5
아동의 또래관계 등 다양한 경험과 발달 및 학습을 위하여	28.9	52.6
다들 보내는 분위기여서	-	2.6
아동의 등원 희망여부를 고려	-	2.6

1+2순위 중복응답에서도 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으나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52.6%)와 아동의 또래관계 등 다양한 경험과 발달 및 학습을 위해서(52.6%)가 과반이상 가장 많이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 긴급돌봄 제공 기관/학교에서 방역지침 준수 등 긴급돌봄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39.5%, 긴급돌봄이 제공되어서 29.7%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제공에 대한 응답도 많았다.

〈표 IV-3-8〉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N=63)

단위: %

항목	응답률	
	1순위	1+2순위
공식적인 휴원·휴업 조치(즉 긴급돌봄 이용 자제 권고로)	7.9	9.5
감염 우려가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해	28.6	52.4
시설에서 아이들 돌봄이 가능하여	42.9	65.1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통제로 인해	17.5	52.4
이용의향이 있으나, 이용가능한 돌봄 서비스가 없어서(기관/학교에서 이용이 어렵다고 함)	-	7.9
원하는 시간/시기에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워	-	6.3
(긴급돌봄 이용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3.2	3.2

동 기간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1순위 응답 결과 시설에서 아이들 돌봄이 가능하여(42.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감염우려가 있어 감염예방을 위해(28.6%),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통제로 인해(17.5%)로 나타났다.

1+2순위 중복응답 결과에서도 시설에서 아이들 돌봄이 가능하여(65.1%), 시설

에 대한 방역조치와 통제(52.4%), 감염우려가 있어 예방을 위해(52.4%)에 대한 미이용 이유 응답이 많았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방역조치와 통제로 인한 긴급돌봄 미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그리고 긴급돌봄 미이용 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지원과 돌봄 등 취학전 교육과정 수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3)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19 발생으로 기관에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1~3순위로 질문한 결과, 1순위 응답 결과 ‘사회적교류와 바깥활동에 대한 제약과 통제’(30.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에서의 아동 돌봄과 양육 부담’(25.7%)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표 IV-3-9〉 코로나19로 기관에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N=101)

단위: %

항목	응답률	
	1순위	1+2+3순위
기관 수입/지출 변화	8.9	12.9
아동 돌봄 공백의 발생 (아이들끼리 있음, 식사 거름 등)	3.0	5.0
시설에서의 아동 돌봄과 양육 부담	25.7	45.5
아동 온라인수업 및 학습 지원의 어려움	5.0	21.8
아동 학업/교과과정의 결손, 공백	7.9	29.7
사회적교류와 바깥활동에 대한 제약과 통제	30.7	85.1
코로나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7.9	22.8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우울/스트레스 (심리정서적 건강)	7.9	38.6
관계 (아동간 관계, 교직원-아동 관계) 상의 어려움	1.0	11.9
감염 확진자 인근 발생 등 감염 관련 대응과 경험	2.0	19.8
아동 마스크 착용 및 관리	-	3.0
원가정 방문 단절	-	1.0

1~3순위 중복응답에서도 ‘사회적교류와 바깥활동에 대한 제약과 통제’(85.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설에서의 아동 돌봄과 양육 부담’(45.5%)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또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우울/스트레스 등 심리정서적 건강(38.6%)’과 ‘아동의 학습 결손과 공백’(29.7%), ‘코로나 감염 예방과 위생관리’(22.8%), ‘원격수업 등 학습지원’(21.8%)의 어려움에 대한 응

답이 나타났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으로 인해 증가한 아동 돌봄과 학습지원의 어려움과 부담,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의 부담, 심리정서적 건강의 문제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아동양육시설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응답되었다.

〈표 IV-3-10〉 코로나 발생으로 기관에서 경험한 큰 어려움(중복)

단위: %(명)

구분	사회적 교류와 바깥 활동의 제약과 통제	시설의 아동 돌봄 부담	불안/우울/스트레스 등 심리 정서적 건강	아동 학업/교과 과정 결손, 공백	코로나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원격수업/학습 지원	감염확진자 인근 발생 등 감염대응, 관련경험	기관 수입/지출 변화	관계상의 어려움 (아동간, 교직원-아동간)
1+2+3순위 응답	85.1	45.5	38.6	29.7	22.8	21.8	19.8	12.9	11.9
기관규모(아동수)									
20인이하	84.6	30.8	46.2	15.4	30.8	23.1	23.1	30.8	-
21~50인이하	84.6	44.6	40.0	32.3	29.2	18.5	18.5	10.8	10.8
51~80인이하	87.0	56.5	30.4	30.4	-	30.4	21.7	8.7	21.7
지역규모									
대도시	85.0	52.5	25.0	27.5	22.5	22.5	25.0	12.5	10.0
중소도시	82.5	45.0	42.5	32.5	22.5	27.5	20.0	7.5	12.5
읍면지역	90.5	33.3	57.1	28.6	23.8	9.5	9.5	23.8	14.3
지역1-권역									
수도권	81.5	66.7	33.3	29.6	7.4	25.9	22.2	7.4	14.8
충청권/강원	78.9	26.3	42.1	47.4	31.6	31.6	15.8	21.1	-
경상권	83.3	53.3	36.7	30.0	20.0	20.0	16.7	13.3	13.3
전라권/제주	96.0	28.0	44.0	16.0	36.0	12.0	24.0	12.0	16.0

하위변인 특성을 살펴보면, 1~3순위 중복응답 결과 ‘사회적교류와 바깥활동에 대한 제약과 통제’의 경우 기관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읍면지역에서 어려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시설에서의 아동 돌봄과 양육 부담’은 기관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대)도시지역과 수도권에서 어렵다는 응답이 좀 더 많았다. 불안/우울/스트레스 등 심리정서적 건강의 경우 기관규모가 작을수록, 읍면지역에서 어려움 응답이 많아, 기관의 재원아동 수(기관규모)와 지역특성(지역규모)에 따른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라. 아동양육시설 코로나19 대응체계에 대한 의견

‘아동양육시설’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 대응체제와 관련하여 대응지침의 이행과 소독/방역, 긴급돌봄 이용과 온라인/원격수업 참여와 지원 등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생각하는지 의견을 질문하였다.

〈표 IV-3-11〉 아동양육시설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

단위: %

아동양육시설의 대응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잘 모름	평균 (점)
지침 이행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 시 우리 기관의 대응은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	5.9	93.1	1.0	4.61
소독/방역	팬데믹 기간 우리 기관에서는 소독·방역과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	-	4.0	95.0	1.0	4.70
	우리 기관의 반/실 구성과 인력 배치 및 운영은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1.0	11.9	86.1	1.0	4.38
	공간 운영은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2.0	12.9	84.2	1.0	4.37
긴급 돌봄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필요한 만큼 이용하지 못했다	15.8	22.8	14.9	46.5	2.98
온라인 /원격수업	팬데믹 기간 온라인활동 및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아동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26.7	24.8	37.6	10.9	3.16
	휴일·휴업 및 원격교육 기간 동안 기관/학교와 가정(우리 시설)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8.9	33.7	48.5	8.9	3.53
	이제 우리 시설에서는 아동의 원격수업 참여와 온라인활동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잘 되어있다	5.0	26.7	60.4	7.9	3.83

팬데믹 기간 ‘아동양육시설’의 코로나19 대응지침 이행과 소독·방역이 (어느정도+상당히) 잘 이루어졌다는 긍정응답이 80~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5점평균 4.4~4.7점). 시설에서의 아동의 원격수업 참여와 지원에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별로+전혀) 그렇지않았다는 응답보다 많았으나(어려움: 경험함 37.6%, 경험하지 않음 26.7%), 전반적으로 아동의 원격수업 참여와 지원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잘 되어있다는 긍정응답(60.4%)이 그렇지않다는 부정응답(5.0%)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8점). 학교 휴업기간 기관-학교 간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다는 항목에서도 긍정응답(48.5%)이 부정응답(8.9%)에 비해 많았다(5점평균 3.5점).

전반적으로 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아동 학습지원과 학교연계, 긴급돌봄 이용에 부정적 의견보다 긍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2〉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의견

단위: %

정부/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대응		잘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	잘 이루어짐	모름	평균 (점)
기관	아동양육시설 대상 조치 전반(대응지침 등)	5.0	13.9	79.2	2.0	4.06
	감염차단을 위한 대면활동 제한과 통제	1.0	8.9	89.1	1.0	4.35
	교직원 필수인력(essential worker) 지정및지원	15.8	30.7	47.5	5.9	3.44
	재난상황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	5.0	31.7	55.4	7.9	3.75
아동	아동의 성장·발달 및 아동 관점의 대응	17.8	36.6	43.6	2.0	3.35
	아동의 바깥 및 신체 활동	46.5	29.7	22.8	1.0	2.77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 발달	33.7	33.7	31.7	1.0	3.04
	아동의 기본 생활습관	9.9	44.6	44.6	1.0	3.49
	아동의 언어·인지 발달	18.8	43.6	36.6	1.0	3.25
	아동의 심리정서적 건강(행복/웰빙,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27.7	37.6	33.7	1.0	3.12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예: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15.8	37.6	41.6	5.0	3.38
	결손/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중재와개입	11.9	30.7	53.5	4.0	3.65
	위기아동에 대한 감지와 발견, 신고 및 대응체계	9.9	34.7	47.5	7.9	3.59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평가하는 ‘정부/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전반과 감염차단을 위한 대면활동 제한과 통제에 대해서도 잘 이루어졌다는 긍정의견(79.2%, 89.1%)이 부정적 견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점평균 4.1~4.4점).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이용을 (비해당을 제외하고) 필요한 만큼 이용함 15.8%, 보통 22.8, 이용하지못함 14.9%으로 유효응답 평균 3.0점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장·발달과 아동관점의 대응에서 잘 이루어졌다는 긍정응답(43.6%)이 부정응답(17.8%)보다 많았으나(3.4점), 구체적으로 아동의 바깥/신체활동과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 발달, 심리정서적 건강 측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응답이 각 46.5%, 33.7%, 27.7%로 나타났다.

그밖에 취약아동 지원 및 모니터링, 결손/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중재

와 개입, 위기아동 감지와 발견에 대해서는 긍정응답이 각 41.6%, 53.5%, 47.5%로 부정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의 아동양육시설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응답이 55.4%로 부정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마. 코로나19가 아동 및 교직원에 미친 영향과 사각지대

1) 아동 적응 및 긍-부정 영향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 대해 아동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 67.3%, 보통 19.3%, 그렇지 않다 12.9%로 5점평균 3.6점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긍정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13〉 변화된 환경에 대한 아동의 적응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평균 (점)	계(수)
전체	1.0	11.9	19.8	56.4	10.9	3.64	100.0(101)
기관규모(아동수)							
20인이하	7.7	-	30.8	53.8	7.7	3.54	100.0(13)
21~50인이하	-	12.3	16.9	58.5	12.3	3.71	100.0(65)
51~80인이하	-	17.4	21.7	52.2	8.7	3.52	100.0(23)
지역규모							
대도시	-	15.0	20.0	57.5	7.5	3.58	100.0(40)
중소도시	2.5	12.5	15.0	57.5	12.5	3.65	100.0(40)
읍면지역	-	4.8	28.6	52.4	14.3	3.76	100.0(2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 돌봄과 교육, 관계상의 변화와 경험을 고려할 때, 긍-부정의 영향 중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응답이 76.2%로 많았다(2.1점). 아동의 적응과 마찬가지로 (대)도시지역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이 읍면지역에 비해 많았다.

〈표 IV-3-14〉 코로나19가 미친 긍정-부정의 영향 평가

단위: %, 점 %(명)

구분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부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비슷하다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평균 (점)	계(수)
전체	15.8	60.4	20.8	3.0	2.11	100.0(101)
기관규모(아동수)						
20인이하	15.4	61.5	23.1	-	2.08	100.0(13)
21~50인이하	12.3	66.2	18.5	3.1	2.12	100.0(65)
51~80인이하	26.1	43.5	26.1	4.3	2.09	100.0(23)
지역규모						
대도시	15.0	67.5	15.0	2.5	2.05	100.0(40)
중소도시	20.0	52.5	25.0	2.5	2.10	100.0(40)
읍면지역	9.5	61.9	23.8	4.8	2.24	100.0(21)

2) 코로나19가 아동양육시설에 미친 영향

가) 코로나19가 아동양육시설 아동, 교직원, 기관에 미친 영향

코로나19가 아동양육시설 재원아동 및 교직원, 기관에 미친 영향을 세부항목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동발달의 지연과 격차, 결손이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긍정적 의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깥/신체 활동 공백으로 인한 결손’과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의 결손’, ‘발달 및 학습 격차’, 그리고 ‘스트레스로 짜증과 다툼, 부적응과 문제행동이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발달 및 학습 결손과 격차, 부적응과 문제행동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교직원의 경우 아동 돌봄의 부담과 어려움 및 교직원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체계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5〉 코로나19가 아동양육시설 아동, 교직원, 기관에 미친 영향(전체, N=101)

단위: %, 점, %(명)

구분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평균 (점)
아동	아동발달에 늦어진 부분이 있음(발달지연)	9.9	38.6	51.5	3.50
	(아이들 간에) 발달 및 학습 격차가 있음	5.0	26.7	68.3	3.82
	바깥/신체활동 공백으로 인한 결손이 있음	2.0	12.9	85.1	4.14
	도래관계 및 사회정서 발달의 결손	4.0	22.8	73.3	3.88
	기본 생활습관 형성 지연	12.9	48.5	38.6	3.33
	언어발달 지연	10.9	45.5	43.6	3.40
	인지발달 및 학습능력 습득 지연	5.0	37.6	57.4	3.63
	심리정서적 건강 문제(우울, 불안, 무기력을 보임)	4.0	37.6	58.4	3.67
	스트레스로 짜증/다툼 및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임	5.0	25.7	69.3	3.81
	행복과 웰빙이 증가함	48.5	35.6	15.8	2.63
교직원	교직원의 아동 돌봄 부담과 어려움	2.0	19.8	78.2	3.92
	교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6.9	51.5	41.6	3.38
	교직원의 일가정양립 ³³⁾	2.0	49.5	48.5	3.51
	교직원의 정신건강(소진, 스트레스, 우울)	1.0	18.8	80.2	3.96
기관/사회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사회적인식-문제가 됨/심각성	12.9	51.5	35.6	3.26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문제가 됨/심각성	7.9	49.5	42.6	3.43

나) 발달지연 및 문제행동에 의견

그 중에서도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발달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5점척도로 질문한 결과, 아동발달에 늦어진 부분이 (어느정도+상당히) 있다 51.5%, 보통(변화없음) 26.7%, (별로+전혀) 그렇지않다 9.9%로 5점평균 3.5점으로 부정적 응답이 과반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규모가 클수록(재원 아동

33) 아동양육시설 교직원의 시간지원 이용 현황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단위: %

구분	제도가 없거나 잘 모름	제도는 있으나 이용하기 어려움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하지 않음	소극적 +충분히 이용	비해당
가족돌봄휴가	11.9	19.8	11.9	7.9	48.5
유급휴가(연차)	2.0	-	3.0	85.1	9.9
무급휴가	5.0	7.9	13.9	21.7	51.5
재택근무	6.9	12.9	7.9	6.9	65.3
육아휴직	1.0	7.9	5.0	29.7	56.4
근로시간 단축	5.0	11.9	8.9	15.9	58.4
육아시간 지원	5.9	9.9	9.9	10.9	63.4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5.9	12.9	5.0	18.9	57.4

수가 많을수록), (대)도시지역일수록, 수도권지역에서 그렇다는 부정적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6〉 코로나19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미친 영향- 발달지연

단위: %, 점, %(명)

구분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러함	평균 (점)	계(수)
전체	9.9	38.6	51.5	3.50	100.0(101)
기관규모(아동수)					
20인이하	23.1	38.5	38.5	3.15	100.0(13)
21~50인이하	9.2	40.0	50.8	3.49	100.0(65)
51~80인이하	4.3	34.8	60.9	3.74	100.0(23)
지역규모					
대도시	7.5	35.0	57.5	3.60	100.0(40)
중소도시	12.5	37.5	50.0	3.48	100.0(40)
읍면지역	9.5	47.6	42.9	3.38	100.0(21)
지역1-권역					
수도권	3.7	33.3	63.0	3.74	100.0(27)
충청권/강원	15.8	31.6	52.6	3.42	100.0(19)
경상권	13.3	40.0	46.7	3.40	100.0(30)
전라권/제주	8.0	48.0	44.0	3.44	100.0(25)

아동양육시설 재원 아동의 발달지연 및 문제행동과 같은 경계선적 행동에 대한 상담/치료와 모니터링/지원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 85.1%, 88.1%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표 IV-3-17〉 발달지연 의심/ 문제행동 아동에 대한 별도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

단위: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어느정도 필요하다	상당히 필요하다	평균 (점)	계(수)
별도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의 필요성	1.0	3.0	10.9	43.6	41.6	4.22	100.0(101)
상담/치료 연계의 필요성	-	1.0	10.9	48.5	39.6	4.27	100.0(101)

3) 개선이 시급한 과제 및 미래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 재구조화 방안(오픈응답 결과)

본 조사에 참여한 아동양육시설 현장실무자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개선이 시급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오픈응답을 받은 결과(중복응답), ‘아동의 외부활동 제약 해소’와 ‘아동의 발달권과 학습권 보장’, ‘사회정서적 지원 등’에 관한 아동 관련 개선 및 보완 과제 응답이 31.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지침/매뉴얼의 신속한 전달과 대응’, ‘통제 위주 지침의 개선’ 등 지침/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5.7%로 나타났다. 이어서 ‘인력 충원’의 필요성 23.8%, 시설운영 관련하여 ‘별도공간’의 필요성, ‘방역과 백신접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7.8%, ‘행정절차’ 관련 4.0%, ‘사회적 인식의 개선’ 관련 1.0%로 나타났다.

포스트코로나 미래 대응을 위한 아동 돌봄 및 양육의 최우선 과제와 전략, 변화가 필요한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는(중복응답),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와 지원체계 정비’에 대한 의견이 34.7%로 가장 많았으며, ‘인력 배치와 충원’ 관련 21.8%, ‘아동 교육 및 지원 강화’ 11.9%, ‘시설 운영관리’ 측면(환경개선, 놀이공간 확충, 방역시스템 등)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위드코로나 상황 및 향후 유사 위험/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양육시설 대응과 긴급돌봄의 이용이 아동의 발달권과 학습권 보장과 통제위주 지침의 개선, 놀이공간의 확충과 환경개선과 같은 공간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아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의 강화로 요약됨을 알 수 있다.

〈표 IV-3-18〉 코로나19 아동양육시설 대응 중 개선 시급 및 보완 과제(중복응답)

구분	%	사례수
전체	100.0	(101)
▣ 아동 관련	31.7	(32)
아동의 외부활동에 제약이 많다	14.9	(15)
정서지원이 필요하다	5.9	(6)
온라인학습 및 비대면교육을 위한 시스템구축과 지원이 필요하다	6.0	(6)
아동의 발달권 보장이 필요하다	5.0	(5)
아동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	5.0	(5)
아동에 대한 사회의 낙인효과가 우려된다	3.0	(3)

IV.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구분	%	사례수
사회와의 소통이 필요하다	2.0	(2)
아동별 문제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	1.0	(1)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0	(1)
안전한 아동놀이공간이 필요하다	1.0	(1)
시설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1.0	(1)
■ 지침/매뉴얼 관련	25.7	(26)
현장 특성이 반영된 지침/매뉴얼이 필요하다	14.9	(15)
통제 위주의 지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9.9	(10)
신속한 지침 전달과 대응이 필요하다	3.0	(3)
누적된 경험/사례의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1.0	(1)
■ 인력 관련	23.8	(24)
인력 총원/확보가 필요하다	15.8	(16)
종사자/아동 등 관련자 백신접종이 필요하다	5.0	(5)
대체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2.0	(2)
심리상담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1.0	(1)
보건인력 총원/확보가 필요하다	1.0	(1)
추가근무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1.0	(1)
■ 시설운영 관련	17.8	(18)
방역물품 지원이 필요하다	5.0	(5)
시설 운영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4.0	(4)
확진자 발생시 격리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다	2.0	(2)
시설 특성을 고려한 방역수칙 및 방역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2.0	(2)
교사의 담당 원아수 축소가 필요하다	2.0	(2)
연령별 시설분리가 필요하다	1.0	(1)
자가격리실 확보가 필요하다	1.0	(1)
시설 환경 개선 및 조성이 필요하다	1.0	(1)
국가차원에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정기 방역이 필요하다	1.0	(1)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1.0	(1)
■ 행정절차/정책 관련	4.0	(4)
행정업무 간소화가 필요하다	2.0	(2)
대응체계의 매뉴얼화가 필요하다	1.0	(1)
행정지원 체계가 부족하다	1.0	(1)
■ 인식 관련	1.0	(1)
사회적 차원에서 보건/방역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1.0	(1)
■ 없다/무응답	13.9	(14)
없다	13.9	(14)



IV.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구분	%	사례수
3교대 근무 체계 지원이 필요하다	1.0	(1)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1.0	(1)
투입 인력의 양성기간 확대가 필요하다	1.0	(1)
■ 아동 관련	11.9	(12)
아동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3.0	(3)
아동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3.0	(3)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2.0	(2)
사회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2.0	(2)
장애아동/심리치료 아동을 위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	1.0	(1)
온라인학습 지원을 통해 일반아동과의 학습격차를 줄여야 한다	1.0	(1)
다양한 소그룹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1.0	(1)
청소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1.0	(1)
■ 시설운영 관련	10.9	(11)
시설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3.0	(3)
필요에 따라 시설과 치료시설의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1.0	(1)
대규모 시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분리가 필요하다	1.0	(1)
학교/시설 내 방역 자동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1.0	(1)
실내활동이 가능한 장소가 필요하다	1.0	(1)
놀이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1.0	(1)
센터 수 확대가 필요하다	1.0	(1)
아동 및 종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1.0	(1)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	1.0	(1)
시설정원 축소가 필요하다	1.0	(1)
■ 기타	7.9	(8)
바람직한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0	(2)
아동에 대한 사회의 낙인효과가 우려된다	2.0	(2)
신종전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1.0	(1)
성교육이 필요하다	1.0	(1)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다	1.0	(1)
양육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다	1.0	(1)
개인위생의 중요성 홍보가 필요하다	1.0	(1)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1.0	(1)
■ 없다/무응답	26.7	(27)



4. 청년 조사 결과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에 대한 본 연구는 위드코로나 상황의 대응체계 점검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육아분야 미래 어젠더 및 미래 대응의 전략을 포함하여 논의하였다. 육아분야 주요 어젠더에서 저출생의 심화와 비대면 디지털 활성화(Digitalization), 주요 육아주체의 웰빙과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육아분야 미래 대응의 전략과 재구조화 방안은 미래 예비부모로 볼 수 있는 청년세대의 취업 및 사회경제적 환경과 같은 고용·노동의 특성과 미래 전망, 그리고 자녀 출산과 돌봄에 대한 인식과 연속선 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육아분야에 대한 미래 전망과 의견이 향후 양육지원체계의 대응과 방향의 설정에 의미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 장에서는 청년의 출산과 자녀돌봄에 대한 인식과 육아분야에 대한 현황 인식, 미래 방향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래 대응의 전략과 재구조화 방안 마련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가. 응답자 특성

1) 청년 응답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청년은 총 300명으로, 18~29세 연령과 성별, 지역별(5개권역)로 균등할당을 하였으며, 미혼/무자녀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참여 청년의 경우 현재 고등학생 12.0%, 대학생이상 45.3%, 현재 학업중 아님 45.7%로, 최종학력 중졸이하 12.3%, 고졸 51.7%, 대졸이상 36.0%로 나타났다.

〈표 IV-4-1〉 청년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50.0	(300)
성별		
남성	50.0	(150)
여성	50.0	(150)

IV. 아동·교육·보육·돌봄의 팬데믹 대응 현황 및 개선 요구 분석

구분	%	사례수
지역		
서울	20.0	(60)
인천/경기	20.0	(60)
충청/강원	20.0	(60)
경상	20.0	(60)
전라/제주	20.0	(60)
지역규모		
대도시	37.3	(112)
중소도시	48.0	(144)
읍·면	14.7	(44)
연령1		
18~19세	16.7	(50)
20~21세	16.7	(50)
22~23세	16.7	(50)
24~25세	16.7	(50)
26~27세	16.7	(50)
28~29세	16.7	(50)
재학여부		
고등학생	12.0	(36)
대학생 이상	45.3	(136)
학업중 아님	45.7	(128)
최종학력		
중졸 이하	12.3	(37)
고졸	51.7	(155)
3년제 대졸	6.7	(20)
4년제 대졸	28.3	(85)
대학원 이상	1.0	(3)
가구소득		
250만원미만	26.0	(78)
250~300만원미만	23.0	(69)
350~450만원미만	10.7	(32)
450~550만원미만	15.0	(45)
550만원이상	25.3	(76)

응답자의 취업과 경제적 독립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현재 정규직 취업 24.3%, 시간제취업 20.7%(규칙적 16.7%, 불규칙적 4.0%), (고등학생 등을 포함



하여) 자발적미취업 26.3%, 비자발적미취업 28.3%로 나타났으며, 부모 동거 여부는 함께 사는 경우 85.0%, 비동거 15.0%로 나타났다. 현재 가구원 수는 응답자 평균 3.4명으로, 1명 11.7%, 2명 9.0%, 3명 21.0%, 4명이상 58.4% 으로 조사되었다.

〈표 IV-4-2〉 청년 응답자의 취업 및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구분	%	사례수
전체	50.0	(300)
취업상태1		
취업	33.7	(101)
학업중	31.0	(93)
구직중	23.7	(71)
미취업	11.7	(35)
취업상태2		
정규직취업	24.3	(73)
시간제취업	20.7	(62)
자발적미취업	26.3	(79)
비자발적미취업	28.3	(86)
부모동거여부		
동거	85.0	(255)
비동거	15.0	(45)
경제적독립		
전적으로 지원 받음	30.3	(91)
일정부분 정기적 지원	14.3	(86)
일정부분 비정기적 지원	14.3	
거의 받지않음	18.3	(103)
전혀 받지않음	16.0	
비해당	6.7	(20)
근로소득		
소득없음	66.3	(199)
200만원미만	9.3	(28)
200~250만원미만	12.3	(37)
250~300만원미만	4.7	(14)
300만원이상	7.3	(22)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11.9시간, 월평균 가구소득(세후 기준) 487만 4천원(N=265: 1인가구 제외), 본인소득 69만원(세후, N=265: 1인가구 제외), 1인가구의 경우(N=35) 147만 8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층의 취·학업 경로과 사회경제적 현황에 다양성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일을 그만둔 경험 및 취업/미취업 이유

코로나19 이후 하던 일/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29.3%로 나타났으며, 그만둔 이유로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가 55.7%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로 어려워진 일자리/직장 상황으로 인해 33.0%, 개인적인 상황과 선택 27.3%로 나타났다.

〈표 IV-4-3〉 2020년 2월 이후 일을 그만둔 경험

하던 일/직장을 그만 둔 적 있음	하던 일/직장을 그만 둔 적 없음	비해당	계(수)
29.3	41.0	29.7	100.0(300)

〈표 IV-4-4〉 2020년 2월 이후 하던 일/직장을 그만둔 이유(N=88, 중복응답)

구분	%
더 나은 일자리/취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만 둔	55.7
팬데믹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일자리/직장 상황으로 인해	33.0
개인적인 상황 및 선택으로	27.3
기타	1.1

청년 응답에 의하면 현재 취업중 33.7%, 학업중 31.0%, 구직중 23.7%, 미취업 11.7%로 나타났다. 현재 비자발적 미취업 상태로(28.3%, N=85)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 지원을 해도 떨어진다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자리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22.1%로 나타났다.

〈표 IV-4-5〉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비자발적 미취업인 경우)

구분	%
가고싶은 일자리가 있어도 경쟁이 치열해 지원을 해도 떨어짐	34.9
일자리 기회 자체가 거의 없음	22.1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	16.3
하고싶은/맘에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	15.1
아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음.	11.6
계(수)	100.0(85)

본 조사에 참여한 청년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직장을 (새로) 구하고 취업할 계획이 (어느정도+상당히) 있다 65.8%, 보통 23.0%, (별로+전혀) 없다 11.3%(5점 평균 3.73점)로 나타났다.

나. 육아분야 미래 전망

1) 저출생이 가져오는 긍-부정 영향 및 미래 전망

초 저출생의 추세가 가져오는 긍-부정의 영향 중 '부정적 영향과 변화'가 클 것이라는 응답이 약 70%로 많았으며, 긍-부정의 영향과 변화 공존에 대한 의견이 23.7%, 긍정적 영향과 변화가 클 것이라는 응답은 6.6%로 나타났다.

현 시점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취·학업 중인 경우, 자녀출산의향이 있는 경우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6〉 저출생이 가져오는 긍-부정의 효과

단위: %, 점, %(명)

구분	부정적 영향/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다	부정적 영향/ 변화가 어느정도 클 것이다	긍-부정의 영향/변화가 공존한다	긍정적 영향/변화가 어느정도 클 것이다	긍정적 영향/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다	평균	계(수)
전체	43.0	26.7	23.7	3.3	3.3	1.97	100.0(300)

2040년 미래 전망을 현재와 비교하여 그 증감에 대해 5점척도로 질문한 결과, 개인의 삶의 질과 취업률, 결혼 및 출산, 가족의 가치에 대한 전망은 감소/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와 동거가구, 조손, 한부모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약 60%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인 전망에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문화의 확대(5점평균 3.2점),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화(3.2점), 아동권리 보장과 아동·청소년 관점의 교육·돌봄·복지 정책(3.2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IV-4-7〉 청년의 2040 미래 전망(N=300)

단위: %, 점

구분		감소 (하락)	현재 수준 (유지)	증가 (향상)	평균
개인 가정	개인의 삶의 질	30.7	37.0	32.3	2.98
	취업률(일자리를 가짐)	43.3	29.0	27.7	2.77
	결혼율	66.7	24.0	9.3	2.15
	출산율	73.7	15.3	11.0	2.00
	가족구조의 변화(1인가구, 동거가구, 조손/한부모가정 등 증가)	20.7	19.7	59.7	3.52
	가족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45.0	40.3	14.7	2.61
사회 경제	사회구성원 간 부의 균형적 분배	47.0	36.0	17.0	2.59
	보편적 복지 사회(연금, 실업수당, 의료보험 보장 등)	34.7	33.0	32.3	2.91
	자녀돌봄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문화(유연근로제, 육아 휴직 활성화, 부모의 돌봄권 보장 등)	26.0	32.0	42.0	3.16
	돌봄의 가치와 인식 향상, 공동체 참여의 실질적제고	27.3	38.3	34.3	3.03
	개인 간 디지털 역량 격차	25.3	29.7	45.0	3.32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	44.7	36.0	19.3	2.67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	26.3	28.0	45.7	3.18
	아동권리보장 및 아동·청소년 관점의 교육과 돌봄/복지 정책	23.0	33.0	44.0	3.22
	인공지능/로봇의 증가(노동의 감소)	11.7	20.3	68.0	3.82
	개인창업/스타트업/중소기업의 증가 및 영향력 확대	21.0	35.0	44.0	3.29
	과학기술강국(원천기술 보유)	19.0	34.3	46.7	3.35
외국인 유입과 정착	12.0	33.0	55.0	3.56	

특히 인공지능/로봇의 증가로 인한 노동의 감소(3.8점), 외국인 유입과 정착의 증가(3.6점), 과학기술강국(3.4점)에 대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응답률이 높았으며, 개인 간 디지털 역량의 격차(3.3점), 사회구성원 간 부의 분배(2.6점), 보편적 복지사회(2.9점),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2.7점)에 대해서는 부정적 전망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삶의 만족도는 만족 28.3%, 보통 45.3% 불만족 26.3%로 5점평균 3.0점으로 나타났으며, 2040년 예상되는 삶의 만족도는 만족 30.6%, 보통 50.7% 불만족 18.7%로 5점평균 3.14점으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았다.



〈표 IV-4-8〉 현재/2040년 삶의 만족도³⁴⁾

단위: %, 점, %(명)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평균	계(수)
현재 삶의 만족도	4.0	22.3	45.3	25.3	3.0	3.01	100.0(300)
2040년 삶의 만족도 예상	7.0	11.7	50.7	21.3	9.3	3.14	100.0(300)

2) 결혼/출산 및 입양 의향

청년의 향후 결혼과 출산, 입양 및 위탁양육의 의향을 질문한 결과, 결혼 의향 있음 63.7%, 출산 의향 48.7%, 입양 의향 15.7%, 위탁양육 의향 20.4%로, 출산 의향이 응답자 청년의 50%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⁵⁾.

〈표 IV-4-9〉 결혼/출산 및 입양 의향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계(수)
결혼 의향	63.7	36.3	100.0(300)
자녀를 낳을 의향	48.7	51.3	100.0(300)
아동 입양 의향	15.7	59.3	(300)
아동 위탁양육(foster parenting) 의향	20.4	56.3	(300)

주: 아동 입양 및 위탁양육 의향은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임³⁶⁾.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N=146), 희망 자녀 수는 1명 18.5%, 2명 63.0%, 3명 12.3%, 4명이상 6.2%로 나타났다.

3) 교육-취업-결혼의 생애주기 및 우리 사회의 돌봄친화 정도

청년의 현재와 향후 계획, 미래 사회상과 우리 사회의 아동/돌봄에 대한 친화

34) 2013년 선행연구(최윤경·민정원·김기환·이세원, 2013) 조사 결과, 미혼성인과 대학생의 현재 삶의 만족도 평균이 각 3.35점(미혼성인남), 3.38점(미혼성인여), 3.60점(대학생남), 3.62점(대학생여)이었음.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만족한다'는 응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40년 예상되는 삶의 만족도에서도 2013년 미혼성인/대학생의 응답 평균(3.66~3.91 점)과 비교하여 감소함.

35) 결혼/출산의 이유 응답은 부록 참조

36) 입양-위탁양육 의향 5점척도 응답 결과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보통	어느정도 있다	충분히 있다	계(수)	평균(점)
입양 의향	41.0	18.3	25.0	12.7	3.0	100.0(300)	2.18
위탁양육 의향	34.0	22.3	23.3	16.7	3.7	100.0(300)	2.34

정도를 5점척도로 질문하였다. 학업을 마치고 취업준비를 통해 적당한 시기에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9.3%, 보통 31.0%,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19.7%로 긍정응답이 많은 가운데 취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약 20%로 나타났다. 과거와 같은 교육-노동-결혼의 생애주기 경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46.7%로 많았다.

〈표 IV-4-10〉 향후 계획 및 미래 사회상이 미치는 영향

단위: %, 점, %(명)

	항목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함	평균
1	나는 학업을 마치고 취업준비를 통해 적당한 때에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7	31.0	49.3	3.34
2	나는 당장 생계와 일자리 해결이 절박하다	37.3	35.0	27.7	2.86
3	기후변화와 위기는 나의 삶의 양식과 미래 계획에 실제 많은 영향을 미친다.	14.0	37.7	48.3	3.44 ↑
4	미래전망과 기후변화가 나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삶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5.0	37.0	28.0	2.92
5	우리 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19.7	39.0	41.3	3.24
6	나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커플로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43.0	30.7	26.3	2.66 ↓
7	이제는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한 후 결혼과 출산을 하는 교육-노동-결혼의 생애주기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20.0	33.3	46.7	3.36
8	우리사회는 출산과 양육, 돌봄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40.3	38.3	21.3	2.73 ↓
9	현재 우리 사회는 돌봄의 양성평등 참여와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41.3	38.0	20.7	2.71 ↓
10	영유아교사와 돌봄종사자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	36.7	40.7	22.7	2.81
11	현재 우리나라 교육-돌봄-사회복지 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다.	34.3	43.3	22.3	2.83
12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예비부모라 할 수 있는 청년 대상의 지원 및 정책과 연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0	33.0	57.0	3.65 ↑

기후변화와 위기가 본인의 미래 삶의 양식과 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48.3%로 그렇지않다 14.0%보다 많았으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커플로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대해서는 그려함 26.3%, 그렇지않음 43.0%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출산과 양육, 돌봄 및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존중, 돌봄의 양성평등

참여와 아동권리와 아동·청소년 관점의 정책 설계에 대해서는 긍정응답보다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지원의 확대에도 출산과 양육, 돌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와 실질적인 토대, 아동 돌봄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존중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으며, 이로써 청년세대가 바라는 육아와 돌봄 친화적인 사회와의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다.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1) 출산장려정책 및 양육지원의 확대 필요성

청년들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4%, 필요하지 않다 12.3%, 보통 19.0%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의견이 많았다. 출생한 아동과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양육지원의 확대/강화에 대한 필요성 응답은 77.6%로 긍정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1〉 출산장려정책의 양육지원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

단위: %, 점, %(명)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	어느정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잘 모름	평균	계수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필요성	4.0	8.3	19.0	31.7	37.0	-	3.89	100.0(300)
출생한 아동과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이 현재보다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3.0	4.3	10.7	25.3	52.3	4.3	4.25	100.0(300)

2) 필요한 양육지원 정책

필요한 양육지원정책으로는 1+2순위 중복응답 결과,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의 강화’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금지원’과 ‘출산과 양육, 돌봄을 존중/지원하는 사회문화적 토대’,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기반’에 대한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지원뿐만 아니라 시간지원의 중요성과 함께 출산과 양육, 돌봄에 대한 존중과 지원의 사회문화적 토대와 양질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편적 기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IV-4-12〉 필요한 양육지원 정책(N=300)

단위: %

항목	응답률	
	1순위	1+2순위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지원 강화	30.3	49.0
현금 지원 확대	20.7	38.0
출산과 양육, 돌봄을 존중/지원 하는 사회문화적 토대	14.0	30.3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 기반	12.0	27.3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10.0	19.0
출산과 양육, 돌봄에 대한 양성평등 및 지역사회 참여	7.0	17.7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	3.0	6.3
교육/보육/돌봄 종사자, 교직원 처우와 사회적인식 개선	2.0	7.3
교육/보육/돌봄종사자교직원 전문성 강화	1.0	5.0

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및 변화와 적응

1)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및 적응 정도

청년세대가 경험한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중복응답 기준 일자리 구하기(35.0%)와 사회적교류 및 바깥활동의 제약(33.0%), 그리고 코로나 감염예방과 위생관리 및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 인근 확진자 발생 및 감염 관련 직간접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감염위험 관련하여 총 32.0%로 응답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 스트레스(16.7%)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심리정서적 어려움(9.7%) 응답과 합칠 경우 26.4%로 나타났다. 지출비용의 증가와 수입 변화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또한 24.3%로 나타났으며, 교육비용의 증가까지 고려할 경우 30.6%로 경제적 어려움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일자리구하기와 함께 고려할 경우 ‘일자리 및 경제적 어려움’이 중복응답 기준 65.6%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IV-4-13〉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N=300)

단위: %

항목	응답률	
	1순위	1+2순위
일자리 구하기	27.7	35.0
사회적 교류와 바깥 활동의 제약	15.3	33.0

항목	응답률	
	1순위	1+2순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우울/스트레스	7.0	16.7
지출비용 증가	6.0	11.3
비대면 온라인활동 참여 및 비대면 디지털환경에의 적응	6.0	12.0
수입 변화	5.7	13.0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5.7	10.0
학습/교육과정의 결손, 공백	5.0	6.3
코로나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5.0	13.0
마스크 착용 및 관리	4.3	15.7
교육비 증가	3.7	6.3
심리정서적 어려움	3.0	9.7
출근 및 일하기	3.0	8.0
감염확진자 인근 발생 및 감염 관련 직접 경험	1.0	3.3
가족관계 상의 어려움	1.0	3.0
특별히 없음	0.7	3.0

그밖에 비대면 온라인활동의 참여와 비대면 디지털환경에의 적응 12.0%, 일상 생활 유지의 어려움 10.0%, 학습과 교육과정의 결손 및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 6.3%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및 영향, 적응 정도

청년세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치는 긍-부정의 영향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상당히+조금)는 응답이 65.3%로 긍정적 영향 8.4%에 비해 많았다.

〈표 IV-4-14〉 2020년 2월 이후 팬데믹기간 사회경제적 변화의 긍-부정의 영향

단위: %, 점, (명)

구분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부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비슷하다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긍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평균	계(수)
비율	26.3	39.0	26.3	6.7	1.7	2.18	100.0(300)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완전히 종식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48.0%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위협/재난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정도+상당히) '있다'는 응답이 70.0%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15〉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예상 시기

단위: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완전히 종식되지 않음	계(수)
비율	6.0	18.7	13.7	13.7	48.0	100.0(300)

〈표 IV-4-16〉 코로나19와 유사한 위험/재난이 가까운 미래 재발생 가능성

단위: %, 점, (명)

구분	사실상 없다고 생각한다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보통정도로 생각한다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평균	계(수)
비율	1.3	4.7	24.0	49.7	20.3	3.83	100.0(300)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변화가 크다 48.3%, 포스트코로나에서 일-생활 균형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63.0%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대한 청년의 적응 정도를 질문한 결과, (어느정도+상당히) 적응했다는 응답이 51.3%로 적응하지 못했다(10.4%)는 응답보다 많았다. 도시보다 읍면지역, 18~20세 젊은층에서 적응에 대한 긍정응답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17〉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적응(N=300)

단위: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평균
포스트코로나에서 예상되는 일-생활 균형 전반의 변화	1.3	10.3	25.3	46.7	16.3	3.66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변화	8.3	14.0	29.3	38.0	10.3	3.28
팬데믹으로 변화된 환경/상황에 적응	1.7	8.7	38.3	44.0	7.3	3.47

3) 정부의 코로나19 재난 단계별 대응에 대한 의견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상황의 단계별 대응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응답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적 의견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팬데믹 이

전 단계의 재난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응체계 준비가 미흡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아, 위험/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와 예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표 IV-4-18〉 코로나19 재난 단계별 예측과 대응에 대한 의견(N=300)

단위: %, 점

구분	(전혀+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	(어느정도+상당히) 잘 이루어짐	잘 모름	평균
(팬데믹 이전) 재난 예측과 대응 준비(대응체계)	43.0	33.3	19.7	4.0	2.65
(2020년) 코로나 대응 초기	37.7	24.0	35.0	3.3	2.91
(2021년) 코로나 대응 중기 이후	31.7	33.3	32.7	2.3	2.96
(팬데믹 종식 시점) 재난 회복단계에 대비한 전략과 계획	37.7	34.7	22.0	5.7	2.74
(팬데믹 종식 이후-포스트코로나) 변화된 사회상에 대한 미래대응의 전략	36.3	36.3	18.0	9.3	2.70

마. 포스트코로나 육아분야 미래대응 전략

포스트코로나 시대 육아분야 어젠더 도출을 위해 ‘미래사회 모습’을 예상하게 한 결과, 청년들은 (중복응답 기준) ‘4차산업과 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전환’(37.3%)과 이로 인한 ‘사회적 격차와 사각지대의 심화’(46.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일자리의 감소’, ‘저출생/아동수 감소로 인한 새로운 삶의 방식(뉴노멀)의 등장’, ‘인구감소로 인한 인프라 소멸과 위기, 사회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에 대한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표 IV-4-19〉 미래사회 모습

단위: %(명)

항목	긍정응답률(청년)	
	1순위	1+2순위
4차산업혁명/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격차 및 사각지대 심화	25.7	46.0
일자리의 감소	24.7	30.7
4차산업혁명/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25.7	37.3
저출생 및 아동 수 감소로 인한 뉴노멀의 등장 및 이에 대한 적응	7.3	26.7
인구감소로 인한 인프라 소멸과 위기, 사회경제적 혼란과 어려움	6.3	25.7
기후위기 등 친환경/그린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4.0	13.3

항목	긍정응답률(청년)	
	1순위	1+2순위
기후위기 등 친환경/그린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으로 인한 뉴노멀의 등장과 이에 대한 적응	4.0	11.0
양육지원체계의 전반적 강화 및 선진화	2.3	9.3

코로나19 팬데믹 경험을 통해 드러난 격차와 공백,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육아 분야 과제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을 질문하였다. 청년들은 중복응답 결과 (부모 응답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출생 등’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25.3%), ‘교육과 돌봄의 격차 완화’(24.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공-사립 격차의 해소’(18.7%), ‘기후변화/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SDG) 전략’과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각 14.0%)에 대한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V-4-20〉 포스트코로나 육아/교육·돌봄 분야 중장기 중요 과제

단위: %(명)

항목	우선순위 (긍정응답률)(청년)		우선순위 (긍정응답률)(부모)	
	1순위	1+2순위	1순위	1+2+3 순위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6.0	10.3	20.3	29.2
공-사립 격차 해소	11.7	18.7	13.3	31.3
교육-돌봄 격차 완화	16.3	24.0	15.2	35.8
유아교육-초등교육 연계(유초연계)	4.7	8.3	6.2	21.6
(무상, 의무교육 등) 학제 개편	4.3	12.0	7.7	21.3
저출생 등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	13.0	25.3	12.3	33.2
(AI/메타버스/로봇/에듀테크 등)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대응	11.3	19.7	4.4	23.1
기후변화/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SDG)의 전략	5.7	14.0	5.4	19.3
미래세대의 양성-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웰빙 제고	3.0	12.7	5.0	21.7
미래세대의 양성- 디지털/그린 역량의 강화	3.7	9.3	-	-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2.3	4.3	1.5	12.4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	8.7	14.0	5.3	23.2
취약아동/가구 지원체계 보강	5.7	12.0	1.6	11.9
전 국민 평생 학습·교육 체계로의 전환	1.0	6.3	0.8	8.0
양질의 돌봄생태계 공고화	2.3	8.3	1.0	8.0

주: 부모조사 항목에는 '미래세대 양성-디지털/그린 역량 강화'가 없음. 응답률 비교 시 주의 필요

초 저출생의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예측되는 미래의 인구축소와 전환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과 교육-돌봄에서 나타나는 ‘격차 완화’에 대한 의견이 부모와 청년세대 공통적으로 포스트코로나에서 중요한 육아분야 과제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의 대응체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청년 중복응답 결과,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가정양립과 시간지원의 강화(61.3%)를 재난 상황의 양육지원체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응답하였다. 이는 부모조사 결과에서도 60.4%로 가장 응답률이 높은 과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녀돌봄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완화하는 ‘현금지원 강화’(37.0%), 부모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이용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 선택과 연계/지원의 강화’(36.3%)로 나타났다.

〈표 IV-4-21〉 미래 재난 대응체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과제-청년(N=300)

단위: %(명)

구분	가정내 자녀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현금지원 강화	부모의 가정내 자녀돌봄이 가능하도록 일가정양립/시간지원의 강화	긴급돌봄 체계 강화	재난상황 공적인 교육/보육/돌봄 체계 운영 지속	부모가 다양한 돌봄서비스 이용가능하도록 서비스선택 및 연계 지원 강화	비대면 온라인 교육/돌봄이 지속가능한 육아분야 스마트환경 구축 (AI, ICT, 에듀테크 등)	교육을 통한 교직원 및 부모, 아동, 사회구성원의 위기/재난 대응력 향상
1순위	28.3	37.3	9.0	9.0	9.3	4.3	2.7
1+2순위	37.0	61.3	16.3	20.7	36.3	17.7	10.7

이로써 청년조사 결과를 통해 미래 육아분야 우선과제와 재난 상황에서 보강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대체로 육아분야 과제와 방향성에 있어 부모 의견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한 청년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선행연구 조사와 비교하여 청년세대의 본인 삶의 계획과 미래 전망에 대해 부정적 응답의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저출생과 기후위기의 추세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의 마련과 향후 재난상황 대한 사전 예측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과 출생 아동과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양육지원이 현재 수준보다 확대/강화

되는 것에 대해 긍정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양육지원체계의 확장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돌봄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문화적 토대와 인식의 변화, 이를 반영하는 육아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비중있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FGI/면담조사 결과 분석

이 절에서는 영유아 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그리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중 경험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면담내용은 팬데믹 시 겪은 어려움과 실태, 그리고 개선 요구에 관한 것이며, 면담시기 및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IV-5-1〉 면담대상자 목록

구분	일시	대상	내용	
부모 (아동)	4.28(수)	영아, 유아, 초등자녀 어머니	부모 A (초등 저학년 자녀)	
			부모 B (초등 저학년 자녀)	
			부모 C (초등 고학년 자녀)	
			부모 D (유아 자녀)	
			부모 E (유아, 초등 고학년 자녀)	
			부모 F (초등 저학년 자녀)	
			부모 G (초등 고학년, 고등학생 자녀)	
	5.21(금)	영아, 유아, 초등자녀 어머니	어머니 A (초등 저학년, 고학년 자녀)	
			어머니 B (유아, 초등 고학년 자녀)	
			어머니 C (유아, 초등 저학년 자녀)	
			어머니 D (영아 자녀)	
	기관	4. 9(금)	대구지역 장애통합 어린이집 원장	대구 A 어린이집 원장
				대구 B 어린이집 원장
		5.25(화)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A 유치원장 (단설)
B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C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D 유치원장 (사립)				
지역사회	6.29(화)	돌봄공동체 운영자	돌봄공동체 운영자 A	
			돌봄공동체 운영자 B	
			돌봄공동체 운영자 C	

구분	일시	대상	내용
아동양육시설 및 관련 기관	9.16(목)	서울시 아동복지협회 담당자	협회 관계자 A
			협회 관계자 B
	10.5(화)	한국아동복지협회 담당자	협회 관계자 C
			협회 관계자 D
	9.23(목)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A	종사자 A
			종사자 B
종사자 C			

1) 코로나19 방역체계 관련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난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체계에 대한 시설장들의 평가는 “확진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매도로 인한 사회적 위축과 통제”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가 없어 현장에서 느끼는 혼선은 컸다.

정확하게 규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권유를 하되, 긴급 돌봄의 필요한 부분을 권유하되, 그리고 어머니 이 요구하시면 받아야 해요. 이런 공문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그런 상황이 없고, 초기에는 휴원 하라고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애매하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대구 A 어린이집 원장).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어머니들도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걱정이 되니까, 저희가 힘들었던 것은 식사하는 장소에서 처음 발생했다. 확진자가 나오면 조사를 해서 조심시켜라라고 하는 문서가 왔던 것 같아요. 당시는 초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어머니들한테도 전달을 했죠. 근데, 사실 그것도 공문으로 온 게 아니라 뉴스를 보고 얻은.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혼자서 살아야 한다. TV 매체를 보고, 몇 월 며칠 어디를 방문하신 보호자가 계시면 연락 달라고 전달을 해서 (후략) (대구 B 어린이집 원장)

구체적 지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각 기관장에 전가함으로써 개별 기관 책임자는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어 위축된 활동을 하고, 통제를 강화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원장의 스트레스는 극심해지는 거예요. 부모, 아이, 선생님의 스트레스를 제가 다 받아내고 감당해야 하는데, 게다가 학부모 중에 누구 남편의 한분이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다, 무사할 것인가. 이런 동안 며칠간 검사하고 음성이 나오면 좀 안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여러 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터지면 걱정하자고 할 정도로 마음을

여유 있게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낙인찍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불편함과 아이들이 검사해야 하는 상황들을 모두 듣다 보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오는 거예요. (C 어린이집 원장)

대구 같은 경우는 두건 정도가 코로나 감염된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책임을 물으러 오는 거죠. 와서 서류를 다 내고 체크하고, 저는 디테일한 것보다는 디테일보다는, 선생님들도 그 시기에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뒤따르는 책임이 부담스러운 거죠. (대구 A 어린이집 원장)

원장 뿐 아니라 현장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에 대한 업무지침과 교사의 건강권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긴급돌봄 체계에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채 어린이집에 나온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가정은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놓임에 따라 교사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의견이다.

작년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엄마들하고 밀접된 상황을 한 것처럼, 교사들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가 올해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가 교사들끼리의 갈등도 보이고,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면서. 청소나 이런 것도 외부 사람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쥐어짜서 동원을 하는데도, 선생님들이 요청해서 특별활동을 재개했어요. 오후 시간 되면 선생님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특별활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C 어린이집 원장)

현장은 어려움을 사실 교사나 원장이 전투복 없이 맨몸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빠지는 부분이 부모의 권리, 아동의 권리, 특히 장애 아동의 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확보되고 있지만, 교사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침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B 어린이집 원장)

이 현장은 부모님의 권리, 아동의 권리, 교사의 권리가 부딪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 누구도 책임지는 게 힘들니까. 직접적인 안내가 없으니까... 사실 원장이 다 감내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막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 A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은 계속 요구하세요. 교사의 건강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권. 그 말은 그거죠. 오로지 돌봄을 하는 분들은 돌봐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집에서 할 수 없잖아요. (대구 A 어린이집 원장)

2) 유치원·어린이집 대응체계

가) 과도한 지침과 지침 간 상충

팬데믹이 지속되고 방역 관련 상황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각 부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방역에 관련된 다수의 지침을 하달하게 되는데, 지침간 상충되거나 현장의 일과운영에 맞지 않고,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침이 내려오며 따라 교직원의 업무만 가중되는 등 이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도 표출되었다.

근데, 공문은 또 오잖아요. 행정적인 게, 실제적인 실효성이 없다고 느낀데, 하라고 해서 밴드를 만들었어요. 교사들이 하루 만들어서 반별로 올려서, 반마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것도 준비하느라 너무 힘드신 거예요. 작년에 사실 근무를 하고 이직을 한 교사들이 좀 있어요. 그 이유가 완전히 소진된 상태. 아이들이 덜 오고, 선생님들도 대구가 초기에 엄청 심했을 때, 교사들도 순번제 근무를 했거든요. 오히려 근무하는 요일들이 줄어들어서 편했을 것 같다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의 피로도... (대구 B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노래를 붙이고 해서 만들어도, 저희도 만들면서 가정에서 엄마들이 이걸 얼마나 할까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니, 흔적이 없으면 (안되니까), 그러니까 만들긴 만드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 그리고 급간식 키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아이들이 등원하지를 않으니까, (대구 B 어린이집 원장)

긴급 보육을 하는 상황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차량. 지자체는 차량 운영을 권고하지 않는데 근데 또 다른 매뉴얼에선 차량 안에서 거리두기를 하라. 그럼 10인승 버스에 아이를 몇 명을 못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타고, 못 타고를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타고자 하는 아이 수가 훨씬 많다면. 이 현장은 부모님의 권리, 아동의 권리, 교사의 권리가 부딪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걸 그 누구도 책임지는 게 힘드니까. 직접적인 안내가 없으니까... 사실 원장이 다 감내하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막아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 B 어린이집 원장)

나) 교사의 업무 가중과 어려움

유치원 현장에서는 초기 긴급 돌봄만 운영됨에 따라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 변화로 인한 어려움, 그리고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이 병행됨에 따라 수업 준비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보고되었다.

사실은 교사도 이런 걸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사는 수업에 대한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죠. 돌봄이 바뀌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과정 운영에 확실히 벗어나서, 갑자기 돌봄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교사가 굉장히 많았고. (D 유치원장)

저희는 긴급 돌봄 때, 긴급 돌봄만 진행하라고 했어요. 사실 참 어려웠어요. 교육과정 운영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긴급 돌봄만 진행하라고 했을 때,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긴급 돌봄. 정규교사가 정규시간에 돌봄으로만 진행하면서, 다시 돌봄에 관련한 프로그램 만들어야 했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중에 돌봄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원격수업도 다 만들어서 보내고 했거든요. (D 유치원장)

온 아이들은 그대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오지 않는 아이들을 이거 하고 관련한 대면 수업하고 있는 아이들과 관련된 원격수업 꾸러미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참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누리과정에서 진행되는 아이들과 관련된 원격수업 자료를 보내줄 수 없으니까, 별개로 하자고 해서 선생님들이 힘이 들었거든요. 원격수업은 그대로, 대면은 대면대로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시간상 이걸 돌보거나 교육과정이나. 그래서 제가 인력관리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A 유치원장)

어린이집 현장 역시 등원 영유아를 위한 보육활동과 등원하지 않는 영유아와 가정과의 연계활동 및 각종활동 꾸러미 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교사의 업무가 과중되었다. 원격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 교육부와 달리 교육, 보육 콘텐츠 상의 지원이 미비했던 상황도 주요 어려움으로 제시되었다.

네. 저희도 맨 처음에는 4~5월 정도 초반에는 많이 혼란을 겪었었죠. 그러다가, 계속 얘기가 11월까지, 내년까지 간다고 해서 했던 게 뭐냐면, 원격수업을 2주 분량을 제가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2주 분량은 있어요. 조금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원격 자료. 작년에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원격수업 자료를 200여 개의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개발한 걸,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있어요. (중략)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아교육진흥원 하고 위탁을 해서 그걸 이제 제가 맡아서 11개 교육청에 부장교사들하고 수십 개씩 저한테 올려주면 원격으로 심사하고, 거기서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개수를 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제가 알기로, 200여 개 정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개발은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서 그 유치원 사정에 맞는 걸로 꾸러미를 2주 분량으로 다 꾸러놓고, 꾸러미를 전달하는 방법, 피드백하는 방법, 인력 활용하는 방법을 매뉴얼을 정해놓는 거죠. (A 유치원장)

교육청 같은 경우는 EBS를 연계하든지, 뭔가 세세한 지침은 현장에서 아주 순발력 있게 적용하는 게 맞지만, 기본적인 틀 자체가 유치원하고 교육부에서 해주는 거랑 비교해보면, 저희는...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원아 모집도 해야 하고, 지침도 그렇게 내려오니까. 저희가 시스템적인 부분이 부재하다 보니까, 교사들이 온몸으로 아주 생으로 버텼던... 아주 힘들었다. 제가 디테일한 것까지 지침 내려주십사 하는 건 아니고, 구조적인 것들이라도 만들어 주시면, 하다못해 교육부에서 쓰시는걸 저희도 쓸 수 있게라고 해주신다면, 그래도 덜 힘들 것 같아요. (대구 B 어린이집 원장)

다) 교육과정 운영의 주요 대응의 유아교육-보육 격차 심화

한편 교육부와 복지부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지침이 상이함에 따라 누리과정이라는 공통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세 군데로 아이들을 보냈거든요. 작년엔 정신없는 때이긴 하지만, 다 달랐어요, 어린이집은 돌봄이 늘 가능했기 때문에, 돌봄 신청을 하면 가능했고, 확진자가 몇 명이든, 엄마의 판단에 의해서 아이를 보낼 수 있었고, 물론, 아이는 거기서 마스크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내려오는 방역수칙, 학교에서 내려오는 방역 수칙, 세 군데의 방역수칙이 모두 달랐어요. 학교는 문을 닫았는데, 어린이집은 마스크를 안 하고 가고, 아이러니한..., 기관별로 다 다르게 행동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의문이 들었거든요.(어머니 D)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놀이중심 영유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철학을 갖고 운영하던 곳에서는 오히려 더 큰 문제없이 아이들하고 놀면서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뭐였냐면, 원격수업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는, 어린이집은 그런 수업은 안 하고 어딘가에서는 동일 연령대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2번에 보면 쟁점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겠다고 생각해요. (B 어린이집 원장)

라) 개별 기관 및 교사 특성에 따른 격차 확대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는 교사의 교수학습능력 차이에 따른 격차 해소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교사의 역량차이는 기존부터 존재해 왔지만 이러한 차이로 인한 영향력이 원격 수업에서 더 커진다는 것이다. 교육 자체의 질과 더불어 학생들의 학습관리에 대한 차이가 두드러지며, 교사 역량에 따른 학생의 성과 차이가 커졌다.

저는 교사들의 프로그램, 수업 같은 게 이번에 비대면이 처음이지만, 많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사들 연수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저희 큰 아이 방과 후 수업을 못하시니까 본인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니까, 줌으로 수업을 전환하셨어요. 저는 이 분이 수업 준비해오시는 걸 보다가 학교 선생님 수업을 보면 의문이 들어요. 특히, 비대면 같은 경우는 교사의 역량의 차이가 크거든요. 이게 역량 조절이 어렵지만, 선생님마다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비대면에서는 파급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 B)

줌 수업 얘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이들 e-학습터에서 하는 온라인 수업을 선생님

들이 체크할 때, 작년에는 진도율만 봤던 것 같아요. 진도율이 100% 채워지느냐, 80%가 됐느냐, 이 정도 체크만 하시다가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사실 아이들이 그것만 들어놓고 다른 짓을 해도 모르잖아요. 학교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교과서를 건어서 확인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은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100% 다 들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교사의 재량도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교사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어떤 반은 교과서를 건어서 확인을 한 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교사의 재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하는 반은 어찌 되었든, 아이의 학습 공백의 유무는 엄마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니 C)

교사 뿐 아니라 각 개별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공간과 시설, 설비의 격차가 교육, 보육의 질적 차이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다. 감염병 특성상 환기시설 유무와 1인당 면적 등의 변수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관 내 설비와 환경적 여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유희 공간이나 사무 공간을 교실화 시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정상 수업을 시도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어린이집은 활동의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안되면 보내서라 해서 무조건 긴급 돌봄 뿐만이 아니라 애가 많아서 못 돌보겠다는 분들 보고 보내시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실을 교실화 시켜버렸어요. 여분이 있는 교실까지. 모든 공간을 교실로 만들어버렸어요. 교재실도 조금 공간이 있었는데, 그룹으로 서너 명 모여서 할 수 있도록. (A 유치원장)

저희는 실내에 여분 공간이 정말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외 놀이터는 괜찮은데, 실내 공간은 너무 없어서 (중략) 작년, 올해 운영이 좀 어려워진 면은 있어요. (중략) 저희 어린이집의 장점이 외부로 견학이나 현장체험이 많고 그런 부분인데. 원내에서 많이 놀긴 했지만 장점을 살리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B 어린이집 원장)

마) 운영상의 유연하고 체계적인 대응 요구

정상적인 교육, 보육 활동이 중단되고 긴급돌봄 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치원에서는 정규교사와 돌봄교사 간 업무 갈등도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증재 및 해결이 각 원장에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정규교사와 돌봄 교사 간의 이게 누구 업무인지, 이 시간에 이걸 내가 해야 하느냐 (중략) 교육청에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구청처리위원회 자문위원회 2년을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사로운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감정까지 상해서 서로 고소 고발하는 일까지 생겨서, 이거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매뉴얼이 먼저 작성이 되거나, 훈련이 되거나 하는

게, 이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예산 문제는 어떻게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5. 25. A 유치원장)

개별 원 수준에서의 인력배치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 간의 협업이나 기준 완화도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실제로는 별다른 조율 없이 기존 방식대로 이루어짐에 따른 아쉬움도 보고되었다.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사전 예약과 인원 수 제한 등을 통해 충분히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진흥원에 이 상황이 되니까, 그 많은 유아교육 담당들이 올스톱이에요. (중략) 사람들이 1년 동안 애들이 오지 않으니까, 유아교육사들이 일 년 내내 그냥 있어요. 왜 인력을 찾아서 그거 할 생각을 못하느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기준도 좀 풀어놔야 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간호사를 배치해서, 아이들의 건강, 안전, 교육, 학부모 교육시키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왔어요. 간호사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다 병원으로 가세요, 아무리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 꼭 간호사만 써야 하나.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보건의에 대한 일했던 사람들이나 퇴직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인력 활용에 대해 기준을 좀 넓게 풀어놓고, 쓸 수 있는 기관도 넓게 풀어놓고, 제가 아까 말한, 가까운 OO도서관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기준 때문에 그 장소를 못 쓴다는 거죠. 이런 기준도 좀 풀어주고 그래야 비상사태 때, 적절한 인력을 적절히 활용했다가 그때 기간 동안 풀어놓고, 정상화되면 다시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A 유치원장)

바) 기관보육과 가정내돌봄, 부모양육의 관계 설정

긴급보육 시 실질적으로 등원을 막을 수 있는 기제가 없는 것에 대해 기관 운영자들 역시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지침을 주지 않고 현장에 전가한 정책상의 문제와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를 기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모의 인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장애 영유아 부모라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부모의 양육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저희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긴급 돌봄이라고 나와있지만, 부모님들이 출석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권유는 하지만 막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의 경우도 긴급 돌봄의 공문을 보내드려도, 양육의 부담이 많으시니까. 보내는 상황이 있으시거든요. 저희가 막지를 못하니까. 국가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정부나 공문이 내려왔을 때, 이게 모호해요. 정확하게 규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부모님들한테 권유를 하되, 긴급 돌봄의 필요한 부분을 권유하

되, 그리고 어머니가 요구하시면 받아야 해요. 이런 공문의 내용을 다 읽어보면, 그런 상황이 없고, 초기에는 휴원 하라고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애매하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대구 A 어린이집 원장)

부모가 내 아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일과의 변인들을 제가 하면서 아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노력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기관보단 아이들이 좋아지는 속도가 명확하게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그 아이를 보며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가정의 역할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구 B 어린이집 원장)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집에 있을 수 있다. 장애 아이들이 꼭 치료실이나 어린이집에 가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만약에, 맞벌이가 아닌 이상,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부모들은 잘못된 생각을 두 가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이 터지면, 저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원이 아이들 지원보다는 부모들에게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 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대구 A 어린이집 원장)

사) 저출산과 팬데믹의 영향이 겹친 상황에서 기관운영 어려움 및 인프라 감소

초 저출생의 상황이 맞물리고 팬데믹이 장기화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 상황이 지속되자 이용 아동수가 감소하고 원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지원으로 단기적인 피해는 막았으나, 신규 원아 모집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과정 중에서 서서히 가정보육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유치원에서의 운영에는 사립 유치원은 거의 90%가 학부모의 수업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가 나가야 하는데, 교사의 급여가 훨씬 부족하게 되어서, 설립자가 일부 돈을 내거나, 제가 내거나 했는데도, 참 힘들게 작년에 진행했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교사가 반발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건 도와주지 않고, 우리 급여가 되지 않고 있느냐. 경영하는 원장으로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교육청에도 이렇게 힘들다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D 유치원장)

특별활동도 중지되고, 선생님들하고 하는 활동도 선생님들이 활동한 것을 카페에 올리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안 보낸 부모님들 입장에서 애들이 나가서 뭔가를 하는데, 우리 애는 집에 있다고 생각할까 봐, 이런 것도 중단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연말이 돼서 원아 모집할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는 곳으로 선호가 생기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좀 어려웠고, 나머지는 안 나와도 보육료 지원은 되고 하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작년엔 괜찮았는데, 원아수가 감소되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인건비 지원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유아반 30%, 영아반은 80% 받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 원운영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됐어요. (B 어린이집 원장)

3) 긴급돌봄체계 점검 및 재난대응 시스템 제고

긴급돌봄체계에도 불구하고 등원 여부를 학부모의 자율에 맡기고 이를 통제할만한 지침이 부재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정상보육과 긴급돌봄체계에서 해야하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기존의 엄밀한 의미의 긴급돌봄체계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해결은 현장의 몫이었다.

저희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긴급 돌봄이라고 나와있지만, 부모님들이 출석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권유는 하지만 막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부모님들의 경우도 긴급 돌봄의 공문을 보내드려도, 양육의 부담이 많으시니까. 보내는 상황이 있으시거든요. (대구 A 어린이집 원장)

긴급 보육 같은 경우에도요. 유치원 같은 경우엔 순번제 등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긴급 보육을 부탁드린다고 부탁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강제성이 없으니까, 거의 다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가정 보육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가정 보육하는 아이들의 건강도 매일 전화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와 동시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급 보육이 등 하원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침에 일찍 왔다가 아주 늦게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은 아이가 있는 순간에도 그 아이를 보느라 정신없고, 그리고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콘텐츠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개개인 교사들이 콘텐츠를 만든다고 한들...(대구 B 어린이집 원장)

4) 아동발달에 대한 회복/중재 대응 필요(Recovery, Resilience)

가) 아동의 학습 격차 가시화

팬데믹의 장기화로 학교 수업이 원격교육으로 대체되고,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함에 따라 아동 개인적 특성과 부모를 비롯한 가정환경의 특성이 아동의 학습·발달 격차를 심화시켰다. 우선 공교육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를 아동 개인이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가정에서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따라 학업성취의 차이가 나타나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한 공교육을 사교육이 대신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간의 학습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런 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사실 학교에서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좀 수업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 도입을 했어요. 물론, 작년 2학기 때도 도입은 했지만, 출석체크에 불과하고, 그냥 아이들 얼굴 체크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

했고요. (중략) 지금 이미 1년이 지나서, 이제 쌍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줌 수업이 작년보단 나아졌지만, 제가 봤을 때,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줌 수업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들의 학습 공백이 굉장히 걱정이 되어서, 기초가 탄탄히 쌓여야 나중에 중고등학생이 되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걱정이 돼서, 가정에서 이 부분을 이끌어줘야 하는 게 커져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B 어머니)

아까, 학습 공백 말씀하셨는데, 학습 공백의 격차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학교를 안 가고 공교육의 공백이 뜨는 시간에, 진짜 공부하는 아이들은 지금 사교육으로 공부를 한다. 그거에 따라가다 보면, 그거에 받쳐줄 수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바쁘셔서 조부모님이 대신 돌본다거나, (중략)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비는 시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으로 메꾸고, 자기 주도 학습으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학습 격차가 벌어진다고 말하잖아요. 중간이 없어진다고. 그 부분을 몸소 체험하고, (C 어머니)

주변에 공립학교 엄마들이 엄청나게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걸 들으니까, 이 학교(사립)가 되게 잘하는 거구나. 저도 불만은 없었거든요. 다른 학교도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여길 더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방역이나 이런 걸 철저하게 하고 필요한 물품도 빨리 갖추고, 애들에 대해서도 지나치다 심을 정도로 하니깐, 그리고 어쨌든 수업을 온라인 시기에 맞춰가지고 선생님들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부모 C)

저희 아이들이 작년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을 학원을 쉬었거든요. 그랬더니, 기존에 다니던 영어학원을 다시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3개월의 격차를 학원에서 받아들이 주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대기라도 하겠다고 했더니 대기를 하는 중에도 이미 커리큘럼은 이미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학원을 가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교육은 엄청나게 코로나 시대에 더 불이 붙어있는 상황이에요.(어머니 A)

나) 마스크 착용(face shield), 제한된 활동으로 인한 발달상의 어려움

마스크 착용이 감염병의 가장 중요한 예방책으로 제시되면서 가정이 아닌 타인과 접촉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함에 따라 발달상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언어발달이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인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는 언어발달 지연을 우려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에게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사회성 발달 문제도 보고되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언어를 배워야 하는 시기에, 어른들의 입모양을 보지 못해서, 언어 발달 시기가 늦어지는 아이들이 꽤 많다. 그래서, 집에서 계속해서 언어 자극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어머니 D)

그리고 마스크 때문에, 서로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분쟁이 생겼을 때, 발화 자체가 안된대요. 어른들은 답답해도 내 상황이 뭔지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마스크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회인지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중략) 표정이 굉장히 하관 밑으로 갖고 있는 맥락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능력도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부모 A)

마스크 뿐 아니라 활동이 제한되고 대인 간 접촉이 지양됨에 따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체적 활동 감소로 비만, 체력 저하, 학습능력 저하 등의 문제도 보고되고 있다.

아까도 코로나로 인해 가족중심이 되고, 더더욱 개인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협력하는 과제도 못할뿐더러, 일대일로 비대면으로 수업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지어,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도중에 전학 온 아이는 친구를 사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놀이터에도 사람이 없고, 비대면으로 만나는 건데, 자기가 먼저 말 걸어서 친해질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줌 수업 때, 사적인 채팅은 불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학교에서 고심해서, 아이들을 그룹을 만들어서 협동하는 과제를 주고, 비대면 안되면 4인으로 조직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개인주의를 좀 막는,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어머니 B)

저희 조카도 지금 전학을 간 상태인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한다고 한다더라고요. 근데, 학원도 친구 사귀려고 가게 되지는 않잖아요. 거긴 또 거기 나름대로 방역수칙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참 안타깝죠. 이게 또 길어지니까, 이거에 대한 정서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머니 A)

코로나 후로 제가 보기엔 변한 건 아이가 전반적으로 똥똥해지고, 조금만 뛰어도 숨을 뱉차고... , 저희 아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줌 수업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갔었는데, 학교에서 4시간 앉아있는 것을 굉장히 버거워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앉아있었는데, 아무래도 집에서 짧게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학교 생활을 가다 보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2년 이상을 유지하던 삶인데, 6개월 잠깐 못했는데도 무너지더라고요. 4시간 앉아있는 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면으로 아이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머니 B)

다) 유·아동 생활시간 설계의 부재

바깥활동이 제한되고 학습, 휴식, 놀이 등의 활동이 모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활동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생활시간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나 저나 게을러졌다고 생각해요. 이거에 익숙해져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생활에서 이 정도는 생활해야 한

다는 기준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거기에 익숙해져서 전반적으로 게을러진 삶을 사는 것 같고요. (어머니 B)

집에서 늦게 일어나는 건 좋은데, 전반적으로 늘어지고, 원래는 학교를 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어디를 가고 왔다 갔다 해서 생활습관이 잡히는 게 있는데, 집에서 수업들을 때도, 위에는 교복이고 아래는 내복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부모 C)

라) 미디어 이용의 증가: 긍·부정 영향 공존

바깥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한정됨에 따른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나 이에 대한 문제점도 보고되었다. 특히 원격교육 시행으로 유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는 점에서 원격교육 확대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가정에 있으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외부로 나가기 어려우니까 영상이나 학습교재를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존에 안 보였던 문제도 나타나고 이래서 올해 그런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3월부터 몇 달 동안 상담하고 그래서 많이 개선된 친구들도 있어요. (B 어린이집 원장)

좀 수업 듣고, 결국엔 아빠도 피곤하니까 같이 유튜브 보고 만화 보고 게임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디어 사용 시간이 정말 많이 늘었는데, (중략) 요즘 유튜브 영상들이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약간 행동이 커진다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요즘 되게 조마조마 하거든요. 학교에서 전화 올까 봐. 집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 할까 봐. 큰일 나겠다는 생각과 얘기는 하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서,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서 놀면서도 저희 애랑 같이 노는 애들도 다 그런 거예요. 다 막. 약간, 몸으로 세계 노는 애들이 많이 생겨서… (부모 B)

선생님들이 링크 보내주면, 링크 보다가, 다른 것도 좀 보고, 관심 있는 게 3, 4학년 되면 생기잖아요. 그럼 검색해서 엄청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하루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봤더라고요. 결국은 다 뺏고 그런 상황을 한번 겪었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아이 행동이나, (부모 C)

마) 부모 양육역량의 중요성 증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오롯이 가정으로 돌려놓았다. 그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육과 보육을 통해 부모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켰다면, 타인과의 교류가 통제되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가정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부모가 어떠한 양육역량을 갖고 자녀를 대하는지에 따라 발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결국은 부모 자녀 양육 스타일의 어떤 차이가 너무 심해졌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부모 자녀 문제가 있어도, 어린이집에 나와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해결하고 하는 게 교육기관이 완충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왔다가 집에 가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부모 자녀 관계가 더 극대화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가정은 더 심해져버리고, (중략) 부모들과 상호작용이 좋았던 케이스가 있었고, 그러면서 작년까지 굉장히 산만했던 아이인데, 오히려 집에 있다가 이번에 돌아왔는데, 훨씬 괜찮은 경우도 있고요. (B 어린이집 원장)

어머님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의 발달을 더 잘 이끌어 줄 수 있고, 부모가 좀 더 노력한다면, 어쩌면 기관에서 얻을 수 없는 발달을 가정에서도 기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구 B 어린이집 원장)

바) 긴급돌봄 이용 아동 vs. 기관 밖에 머무는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긴급돌봄에서의 등원 여부가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하더라도 부모가 어떠한 선택을 하던 간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특히 등원을 보류하고 기관 밖에 머무는 아동에 대해서도 이러한 선택이 불가피한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이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등원하지 않는 영유아의 부모의 욕구도 심층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어린이집에 오지 못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소통을 해달라. 원에서 소통을 해달라. 소통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한테 교육자료를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같이 풀어볼까. 외로운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국엔 소통의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소통들을 잘할 수 있는 지원이나 학습자료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도 해보고 싶어서, 타 어린이집을 보고 따라 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기회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있다면, 별도의 과업무가 생기지 않는 선상에서 소통의 지원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구 A 어린이집 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양육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원장 역시 장기간의 팬데믹을 경험하며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 보육하는 아이들이 많아진다면,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담임선생님도 1대 3이잖아요. 일반 아이들에 비해서 아동에 대한 부담이 적으니까, 화상으로 아이들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보고, 엄마가 중재도 해주시고, 애들도 일상생활,

식사나 대소변이나 이런 부분의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화상을 통해서 하면서 어머님들한테 가이드도 해드리고 아이가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교사가 판단과 평가를 하고, 특히, 치료사들이 물론 대면이 기본이고 중요한 걸 알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비디오 틀어놓고 울동 따라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착안해 본다면, 화상으로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평소에도 가정에 연계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걸 플랫폼화 시켜서 콘텐츠를 다양하게 만들어주신다면, 선생님들도 평상시에 부모님들과 소통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위기상황에서는 좀이나 양방향,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과의 끈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부모님들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대구 B 어린이집 원장)

5) 양육지원체계 개선

가) 노동시장 변화와 일자리 위기를 반영한 지원체제로 개선

코로나 팬데믹 확산은 유연근무제 도입과 재택근무 확산을 가속화 시켰다. 이러한 근로환경의 변화는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유연근무제 적용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가능하지 않으며, 재택근무만으로 돌봄체계의 부재를 대신하기에는 부족하다. 보편적 사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은 아이들을 등원을 하고, 재택을 하다가, 종일반에 등록을 하긴 했지만, 4시쯤 데려와서 4시부터 6시까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재택근무를 하는데, 사실, 18개월이다 보니 근무하기는 어려워요. 노트북을 거의 부엌 싱크대에 두고 아이가 못 만지게 하고, 메일 답장 정도만 하고, 기저귀 갈면서 전화 받고, 이런 수준으로 아이 데리고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죠. (어머니 D)

제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육아를 병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편들, 아버들의 육아 참여도도 높이려면 재택근무도 정착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남성의 육아휴직을 꽤 오랜 기간 동안 홍보하고 독려했던 것처럼 재택근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홍보와 장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머니 D)

(남편이) 육아휴직을 1년을 해서, 검사검사 남편이 아기 돌봄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남편이 쉬면서 케어해서 원격이나 학원이나.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부모 B)

나) 지역사회 자생적 양육지원체계 구축 필요

돌봄공동체와 같은 자생적 양육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러한 돌봄공동체는 그룹간 차이는 있지만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돌봄 활동을 지속했으며 만족도도 높았다고 보고되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는 방안이라면 기존 멤버들과의 소통을 잘해서, 새로운 멤버를 받는다면, 그런 도움을 줬을 때, 어떻게 참여하면 될지 방안을 알려주거나 그러면 홍보도 잘되면 좋을 것 같고, 그럼 기존에 있던 분들도 도움도 받아서 좋을 것 같고, 알음알음하고 있는 것들을 널리 알려서 벽을 없애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부모들끼리의 모임이 있으면 되게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것 같아요. (어머니 D)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그런 게 있다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한에서 사회성을 기르거나, 학교가 섰다운 되었을 때, 맞벌이 가정을 잘 책임져줄 수 있는 곳이거나,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참여시킬 생각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C)

돌봄 공동사업체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전업맘들은 완전 독박 육아. 기관이 다 쉬니까. 독박 육아가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돌봄 공동체로 친구들이라도 만나고 정말 다행이었다 이런 반응이 일부 있었고. (돌봄공동체 관계자 A)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공적 돌봄 체계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으로 전면 휴업 시 지역사회 별 돌봄공동체와 같은 소규모 돌봄체계가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동체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부는 모임이 돌봄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보고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어려움으로는 돌봄공동체가 주로 활용하던 실내·외 공공시설이 폐쇄됨에 따라 활동할 장소가 부족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주민 돌봄 공동체 같은 경우는 공간의 제약을 팬데믹 이후로 많이 받았어요. 주민 센터라든지, 공동 육아 나눔터라든지, 서울시 열린 육아방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을 무료로 사용하고 계신 팀들이 많았는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공공기관이 전부다 문을 닫게 되면서, 활동할 공간을 많이 상실하게 된 거죠. 공간 제약이 컸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하는 팀들이 많거든요. 야외 활동, 텃밭이나 놀이터 놀이라든지, 이런 걸 잘 활용하시는 팀들은 기관이 쉬고 있으니까, 더 활성화된 걸 경험하신 일부 팀들이 있었고, 일부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위축과 야외 공간을 활용할 정도의 단계가 크지 않거나 육구가 크지 않은 팀들은 활동 큰 제약이 있어서, 공동체도 양극화로. 활성화된 곳은 엄청 활성화되고 위축된 곳은 정말 위축되는 양극이 나타나는 듯한 느낌을 현장 다니면서 많이 받았고요. (돌봄공동체 관계자 B)

코로나 상황이 닥치면서, 공공기관이 모두 문을 닫은 거예요. 모두 휴관을 하니까, 대관해서 이용하던 것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이용했던 프로그램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서,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간 상황이 되었죠.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 활동을 했던 팀들. 숲에서 놀거나 텃밭을 하는 팀들은... 초반에는 근데,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가능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위축되어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같이 야외에서 돌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야외로 나갔던 경우가 있었어요. (중략) 그래서 보여줬던 게 아주 친밀한 사람들,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끼리는 더 자주 만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집까지 드나들 수 있는 정도의 관계라면 우리 집에 와서 한번 놀고 다른 집 가서 한번 더 놀면서 이렇게 모임과 활동이 이어지는 팀도 봤어요. 그런 팀들은 횡수에 구매를 받는 게 아닌 거죠. 근데 규모는 축소가 된 형태이지만. 이런 식의 변화도 있었어요. 공간에 대한 문제가 컸던 것 같아요. (돌봄공동체 관계자 A).

특히 돌봄활동의 주체가 수요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외부 규제에 통제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규모의 차이나 횡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아예 우리가 기관을 보냈다가 기관을 보내지 말아야 할까 이런 고민도 했을 법도 한데,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공백과 결핍. 팬데믹 기간에는 오히려 우리 모임이 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돌봄공동체 관계자 A).

6) 취약계층 지원: 보호대상아동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과도한 통제 위주의 정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추가적인 예산 지원 없이 폐쇄된 상황에서 종사자간 근무시간 조정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방역물품 지원, 백신 접종 등에서도 우선 지원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집단거주시설이라는 이유로 팬데믹 초기부터 외출을 금지시켜 활동을 제한하고 교우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보고되었다.

제일 많은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준은 외부에서 보기에 음.. 인권의 사각지대다 인권이 보장이 안된다 인권에서 많이 취약하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우리가 제일 그걸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외부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 여기가 인권이 정말 취약해 뭐가 제대로 안돼 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든 정책이든지 지원되는 거에 뒤에 있어서 우리를 옥죄는 거였죠. 우리는 2단계부터 애들이 외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피해를 본거예요. (아동복지협회 관계자 A)

나중에는 풀리긴 했지만 그전에는 2인 이상 안모이기도 하고 4인까지도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야 우리 떡볶이 먹고 가져하는데도 미안해 나 안 돼 왜 나하면 학교 끝나고 바로 와야되는거거든요. 모든 개인적인 사회생활이 차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번 두 번 거절하지 열 번 매번 하다보니까 아예 친구들이 그 이후에는 물어보지조차도 않는 상황이 되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관계도 다 단절이 돼 버렸고, (협회 관계자 A)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힘들 수밖에 없고 애들이 학교를 갔을때는 학교가는 시간이라도 조금 자유가 있지만 학교를 가지 않고 올 수업도 다 기관에서 해야 되니까 기존 양육에 학습까지 봉사자들이 와서 해줘야 되는 그 부분들까지도 직원들이 메꿔야 했으니까..(협회 관계자 B)

저희가 아무래도 취약계층에서 느끼는 거랑 비슷한 게 기초학습 격차나, 특히 시설은 운영비가 정해져 있고 아이들 급식 단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학교에 가지 않고 시설에 더 있다고 해서 더 주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대구경북 같은 경우엔 처음에 엄청나게 봉쇄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현금지원을 했었던거예요. 급식이나 간식을 운영비로 채울 수 없으니까. (협회 관계자 C)

시설 운영이나 일상생활에서는 가정에서 돌봄시간 증가에 따라 겪었던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입소아동에 대한 관리 업무가 늘었으며, 아동과 종사자 모두 상호 스트레스가 증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까 진짜 미처버릴거같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요 계속 통제를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는 아이들 간의 이제 다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생님, 같이 있는 선생님, 양육자들한테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 우리들만 자꾸 통제를 하는 거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설명 없이 계속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협회 관계자 B)

이 아이들은 밥 먹을 때와 잠잘 때 빼고는 마스크를 하루 종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지금 사무실에서만 있어도 집에서는 사실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거의 일 년 넘게 하다보니까 저도 귀에서 진물이 나고 상하게 되는데 정말 거의 하루 종일하고 있는 거라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협회 관계자 B)

그러니까 수업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들을 깨우고 깨우고 하는데 여기 깨우면 여기가 자고 있고 여기 깨우면 여기,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계속 연락이 오고 저희는 계속 애들을 깨우고. 제때 들어가는 아이들은 들어가지만 온라인 수업 때마다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각방마다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괜찮았어요. 지각도 안하고 잘 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이게 제대로 참여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B)

또한 전면 원격교육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전자제품이나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마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컴퓨터를 10명이 한 대 쓰거나, 아직도 그런 곳도 있거든요. 요즘은 워낙에 디지털 시대인데, 특히 코로나 터지고 온라인 수업이 많이 강화되면서 노트북과 태블릿이 엄청 중요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설에서 쉽게 구매할 수 없는 항목이어서 후원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받아서 한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것들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싶긴 해요. 초등학생들은 5명이 1대씩 쓰더라도. 고등학교 이상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1명당 1대. 핸드폰 1대, 태블릿 1대 일반가정은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시설 아이들은 그런 게 부족하긴 한 거죠. (협회 관계자 C)

저는 그 이제 1인1실 얘기했는데 그게 아이들의 뭐 장기적인 자립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도 되게 필요한 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격 수업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지 않냐고 이제 계속 해서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물어봤더니 친구들은 다 개인방에서 원격수업을 받는데 본인은 뒷배경에 다 애들 뛰어다니고 있고 다 단체로 하고 있으니 본인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게 너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더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한테 노출이 돼 버려서 상처가 더 깊어지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인1 그 IP 기기가 있어서 정말 본인만의 공간에서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설에 아무리 많은 공간이 있더라도 그런 제약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정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요즘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협회 관계자 B)

7) 온·오프라인 교육·보육·돌봄 과정 운영 체계

포스트코로나/또는 위드코로나 시대 교육·보육·돌봄 과정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우선 관련 설비가 현장에 갖춰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보육·돌봄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든,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든 관련 설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또다른 위기 상황에서 비상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월 하고 12월에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치원까지 다 와서 공사가 끝났어요. 설치가. 이게 다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것도 빨리 마련을 해주셔야지. 왜냐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다른 지역은 괜찮다고 해도 발생하고 있다 하면, 원격이나 다른 걸로 빨리 비상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한다. 국가가 지원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A 유치원장)

한편 영유아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보육·돌봄 과정 운영 체계 마련은 발

달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저희는 외부적으로는 계속 대면, 긴급 보육이 내려와도, 저희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 원 내가 아닌 원 밖으로 자연이 있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적인 지원보다는 사실은...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집안에서 계속 머물러있고, 또래 관계도 없고, 이 아픔은 향후 10년, 20년 후에 굉장히 크게 사회화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이쪽 전문 돌봄 하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구 A 어린이집 원장)

개정된 누리과정에서 놀이중심, 영유아 중심으로 2020년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원격수업 상황은 영유아 수업과 누리 수업을 제대로 구현하기엔 제한된 상황 같거든요. 새로운 개정된 누리과정이 현장에 자리잡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시 원격수업의 상태로 필요 불가결하게 도입이 돼서 많이 그쪽으로 진전되는 그런 양상들을 한편으로 보면서, 앞으로도 팬데믹이나 이런 상황이 계속 올 때 한편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 학생들하고 다르게, 영유아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올해, 작년에 많이 경험했잖아요. 좀 면밀하게, 뭐가 정답일지 모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고. (B 어린이집 원장)

6. 의견조사 결과의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재난/위기의 경험은 4차 산업혁명 및 초 저출생의 대세적 추이와 맞물려, 자녀 출산과 양육, 교육과 보육, 돌봄의 지형에 큰 변화와 문제점 및 주요 과제를 드러내었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약 2년이 경과하는 위드코로나의 지속으로 비대면 돌봄과 원격수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생애초기 결정적 시기에 해당하는 2년의 기간 동안 그간의 코로나 대응이 아동과 가족, 교육/보육/돌봄 현장에 미친 영향 전반과 주요 쟁점에 관한 구체적 실증자료는 축적된 자료가 많지 않아 제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선행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육아분야 주요 주체의 의견 및 교육-돌봄 운영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survey method)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험 상황의 주요 현황과 쟁점에 대한 자료(data, evidence)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0~9세(0~초등3학년) 자녀를 둔 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아

동양육시설 종사자, 예비부모 세대라 할 수 있는 청년 대상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상기한 육아분야 쟁점과 개선방안, 미래 대응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공통된 (또는 차이를 보이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주요 교육과 보육, 돌봄 서비스의 종사자인 교직원의 관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의 대응체계는 적지않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체계 운영의 인력 지원(추가인력의 배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로써 팬데믹 기간 확대된 가정내양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 원격수업의 진행 여부와 관련 법적 근거와 지침의 존재 여부, 온라인활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운영과 이행에 적지않은 공백과 차이를 드러내었다.

팬데믹 기간 교직원은 필수인력으로 지정된 핵심인력으로서 이에 합당한 지원과 업무 수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온-오프라인과 방역업무 및 가정내양육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역할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교육,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

휴원·휴업 시 취학전 어린 아동에 대한 원격수업의 진행과 긴급돌봄의 운영이 위험/재난 상황의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긴급한 수요와 요구에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 긴급돌봄체계에 대한 정비와 함께 돌봄에 내재된 다양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일상 및 재난 상황의 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수준의 취학전 교육과정인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이행이 개별 아동에게 격차와 공백, 단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 교육과 돌봄, 취학 전-후와 초등 교육이 연속성 있게 실행될 수 있는 토대와 편성·운영 기준에 대한 일원화 된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재원 아동과 교직원은 스스로 '가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공동생활가정인 상황에서 집단양육시설에 대한 제한과 통제 위주의 방역지침의 이행은 팬데믹의 감염위험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으나, 단절과 제한, 공백을 경험한 아동에게는 아동권과 돌봄 및 삶의 질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가정의 아동이 가족 생활과 대면 관계를 지속하고, 가족단위의 바깥 활동이 허용된 것과 비교하여 외부활동과 또래 대면관계의 제한이 과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적 돌봄서비스의 긴급돌봄의 이용률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임에 따라(예: 부모 응답 긴급돌봄 이용한적 있음 61.1%,

아동양육시설 약 15%로 차이를 보임),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즉 신체/바깥 활동의 제한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더욱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동의 관점 특히 교육-돌봄 서비스의 연속성(continuity)의 관점에서 위험/재난 상황에서 집단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소규모 운영과 공간/설비 운영에 대한 보다 선진화 된 기준과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돌봄과 교육 서비스의 이용에서 학습격차와 공백의 경험에서 개별 가구의 지역, 맞벌이여부, 부모의 소득 및 학력 등 사회경제적 특성과 취약여부, 고용·노동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리정서적 건강과 경제선적 문제행동에 대한 시의적절한 상담과 치료 등 중재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넷째, 향후 위험/재난 상황의 긴급돌봄체계 운영에 대한 인력배치와 예산운영에 대한 별도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특히 위험/재난상황에 대한 예측과 초기 및 중기 대응, 종식단계와 종식이후의 회복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지원에 대한 긴급돌봄체계의 구축, 이를 위한 상세한 검토와 개선방안의 적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섯째, 포스트코로나 장기적인 관점의 미래 육아분야 대응에 대해 육아주체 집단 간에 응답 비중에 차이가 있었으나, 교육·보육·돌봄의 종합적 접근 외에, 보건·의료와 복지, 상담/치료 등 적시의 중재 프로그램 연계, 위기아동의 발굴 관련 실행력 제고와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을 포괄하는 큰 틀의 통합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또한 저출생과 비대면 디지털화, 기후위기에의 대응이 실효성 있게 육아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 대해서도 공통의 의견을 보였다.

특히 청년세대의 경우, 과거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미래에 가족과 출산, 자녀양육에 대한 의향이 감소하는 추세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별 아동과 부모, 교직원 및 청년세대의 웰빙(행복)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육아정책의 설계가 보다 확장된 생애주기 관점에서 청년정책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하겠다.

V

포스트코로나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

- 01 어린이집·유치원 대응체계 개선방안
- 02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한 시간-비용-서비스 지원 개선
- 03 사각지대 해소 방안: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
- 04 포스트코로나 미래 대응 전략

V. 포스트코로나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의 틀(그림 I-4-2, 22쪽)에 제시된 주요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재난상황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육아분야 미래 대응의 방안을 논의 및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유치원 대응체계 개선방안

가. 인력 운영 및 배치: 대체교사, 비담임교사, 보건인력 보강

코로나19 시기의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개선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인력 운영, 시설 관리, 교육 방식, 소통 및 정보전달, 행정 업무로 나누어볼 수 있으나, 이 절에서는 인력운영과 교육과정(긴급돌봄운영)의 운영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인력 운영의 경우 대체교사 지원을 원활히 하고, 증가한 보건 업무와 소독·방역 업무를 수행할 보건 보조인력 또는 보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등하는 교사대아동비율 및 교실 내 아동수의 축소를 고려하여 전일제 비담임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다. 교사가 아동의 체온 측정기록 및 관리, 교실/공간 방역일지 기록 및 관리, 아동 건강검진 서류관리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가중이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 절차들의 일원화 및 간소화도 요구되고 있다(권혜진, 2021).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담임교사가 연가를 사용했거나,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보건복지부,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대응 지침을 통해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를 마련하여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 출근을 중단한 보육교직원 발생시 유급휴가 대상 인정 및 대체교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2021. 8. 20). 그러나 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한 대

체교사 지원은 여전히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권혜진, 2021). 어린이집에서 전염성 질환이 발생한 경우 별도로 돌볼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100인 이상 기관은 보건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100인 미만 기관의 경우 인력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최은영, 2020). 금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유치원의 경우 보건인력의 추가 배치를 통해 방역업무의 수행을 원활히 하였다. 보다 궁극적으로 어린이집 현장에 비등하는 질적 수요와 안전관리 강화, 학대의 예방을 위해 전일제 비담임교사의 배치를 통해 교사의 복지와 근로여건의 개선을 꾀하도록 한다.

나. 시설·설비 및 공간 운영

시설설비와 관리의 측면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와 격리공간 확보 등의 측면에서 공간운영의 전략과 개선이 필요하다. 보육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의 어려움과 함께 칸막이가 설치된 공간에서의 놀이과정 및 대면 상호작용 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유아의 식사 지도 및 놀이 지도시 영유아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특히 영아의 경우 대부분의 활동이 교사와의 밀접 접촉을 필요로 한다(구수연·최예린, 2021; 박영아·조미현, 2020; 손준희 외, 2020). 교사와 아동, 아동과 아동, 교구와 아동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회적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설비 운영의 대안이 필요하며, 이러한 대안으로 놀이공간 및 교실공간의 유연한 활용, 그리고 반/학급 내 아동 수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와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소규모화 진행을 통한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격리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대다수 기관에서 공간의 부족으로 원장실을 격리 장소로 활용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박영아·조미현, 2020; 최은영·김아름·이민경, 2017), 별도의 격리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계획 수립 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최은영, 2020).

다. 교육·돌봄 서비스 운영의 변화 및 타 서비스 연계 활성화

팬데믹 상황에서 집단 교육과 돌봄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집단돌봄 형태의 긴급보육은 개별돌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부모들이 자유롭게 다른 형태의 개별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연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비대면 수업의 구성과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으로, 비대면 수업 진행 시 부모 및 양육자가 콘텐츠를 실행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할 경우, 맞벌이, 일시적 대리양육 가정 등 부모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다양한 소규모 운영 전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과 아동에게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흥미와 역량을 제고하는 질 높은 교육 및 놀이 콘텐츠 제공이 필요하다(권혜진, 2021)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가정의 소통방식 개선을 통한 기관-가정 연계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영유아 건강, 감염증 대비 부모-교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유아, 교사, 부모가 함께 익히고 실천할 필요가 있으며(권혜진, 2021),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가정에서도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의 가정환경과의 연계 전략 및 확장된 교육과정 적용이 필요하다(Home Learning Environment).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부모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라. 재난상황 긴급지원체계의 마련 및 유치원·어린이집 재원과 비용지원 체계 개선

코로나19의 확산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는 원아 수 감소 및 등록취소, 환불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원아 수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본 조사결과 약 20~30% 기관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출생으로 나타나는 아동수 감소와 함께 나타나고 있어,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 인력배치를 하는 (1)팬데믹 재난상황의 긴급지원체계와 구분하여, (2)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비용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재고와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첫째, 팬데믹과 같은 재난상황의 긴급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과 한시적 추가인력의 배치에 대해 사회적 필수인력 운영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인력 배치(대체교사, 방역인력 등) 외에 방역 및 방역물품의 구입을 위한 비용 지원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식 체온 측정 및 기록 장비, 전자식 손 소독제, 영유아용 마스크, 소독 및 방역비 등 지원과 열 감지 체온계 지원과 이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가정에 전달하는 시스템의 개발이 긴급돌봄 지원체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와 같이 기관별로 정원충족을 하지 못하는 기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아동 1인당 단가로서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체계는 변화될 필요가 있다. 아동수의 감소로 유치원어린이집 인프라의 감소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프라가 소멸되지 않도록 기관 운영 고정비용 중심의 지원체제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재정을 통합하고, 비용지원의 체계를 점검하여 시설설비와 인력운영에 필요한 (최소) 고정비용을 지원하는 인건비/운영비 지원체제로의 변화를 고려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평가 및 컨설팅 장학 지원체계와의 연동을 필요로 하며, 현행 부모 바우처 중심의 비용지원체계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포스트코로나 대응 과제의 하나로 제안하고자 한다.

마. 긴급돌봄 및 교육·보육과정(커리큘럼) 운영

긴급돌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돌봄과정은 어떻게 구분 또는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별 원과 교사의 판단에 의해 긴급돌봄 과정으로 심 위주의 운영을 한 곳에서부터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충실히 적용한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커진 상황이다.

또한 긴급보육/긴급돌봄의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기관 등원이 감소하였다 다시 증가하는 변화를 경험함에 따라, 등원아동과 미등원아동에 대한 접촉과 교육과정의 제공 등에서 혼선과 공평성의 저해가 있었다. 이는 취학전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이 아닌데에서 오는 쟁점이 내포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취학전 교육과정에 대해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과 휴원기간 긴급돌봄체제로 교육과정의 이행을 준수하지 않는 기관 간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관 이용을 지속하는 등원 아동과 미등원이 지속되는 아동 간

의 격차의 대해서도 기관의 개입과 접촉의 근거와 교육과정의 제공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긴급돌봄/긴급보육의 과정을 위한 별도의 표준안을 필요하지 않겠으나, 이를 어떻게 개별 아동에 전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편성운영의 기본적인 기준과 지침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긴급돌봄 하의 교육·보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보육과 유아 중심·놀이 중심이라는 교육과정이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다.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는 놀이의 경우 이로 인해 또래 간 접촉 빈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교구를 교체하기도 하며, 등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서 연령 통합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연령에 적합한 자료나 교구를 제공하는 것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등원하지 못한 아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육과정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음이 보고되었다(구수연·최예린, 2021). 또한 2020년 개정된 누리과정에 대한 집합교육이 취소되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온라인 교육만 받은 상태로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의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개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교육과 모니터링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의 이행에도 적지않은 편차와 공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 가능한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중심/아동중심’ 교육을 실행, 융합하는 교실 내 실천방법이 모색될 필요하다.

바. 확장된 지원체계 - 포괄적 육아종합지원체계

재난상황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돌봄지원체계의 운용 및 유기적인 연계가 필수적일 것이다. 돌봄서비스가 부처별 기존 돌봄인프라에 기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설은 운영하고 일부 시설은 휴원하는 등 서비스의 분절성을 가져와 혼란을 주고 있음을 지적되고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며,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적 인프라의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돌봄체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시기 돌봄 분야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로 아이돌봄지원서비스의 이용자적 완화 및 이용시간 확대

등 아이돌봄지원서비스의 확대운영, 공동육아나눔터를 초등돌봄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운영하고 긴급돌봄을 적극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긴급상황 발생시 상시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다문화사례관리사업 등을 통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학습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 가족갈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심리정서 지원 강화,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역할 수행 등을 제시하였다(강주현,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양육지원체계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 유관 협력체계와의 긴밀한 협조와 연계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운영이 함께 가동되어 집합 대면 활동의 제약으로 발생하는 기관/학교 중심의 돌봄·교육의 공백과 결손을 보완하는 지원체계가 가동될 필요가 있다.

또한 팬데믹기간 문제행동과 발달지연의 초기 증상을 보이는 경계선적 아동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므로, 이들에 대한 조기중재와 상담 치료의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확장된 지원체계가 요구된다(최윤경 외, 2020).

2.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한 시간-비용-서비스 지원 개선

가. 뉴노멀이 된 주기적 재난과 이로 인한 육아환경의 변화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 주기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병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중국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이전에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Avian Influenza Human Infection), 신종 인플루엔자 팬데믹(H1N1 Pandemic),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등 다양한 신종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왔으며, 이러한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기존 유사 전염병인 MERS나 SARS에 비해 치명률은 높지 않

으나,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고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많아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빠르게 일어남으로써 일상적인 활동과 집단 대면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제한을 놓고 이로써 자녀 돌봄과 양육의 과정에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치료제가 개발되어 2020년에 비해 일정부분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노인과 만성질환자와 같은 취약계층에는 매우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고 이후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과 위기,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은 아동과 그 가족에게 새로운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아동 보호 및 돌봄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경우 2021년 하반기 백신접종이 집단면역을 형성할 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미크론 등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이후에도 대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수십년간 주기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이 발병하고 있어, 이러한 감염병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아동 보호 및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염병의 확산은 경제 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족에게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영세사업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아동 빈곤 가구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적절한 추가 소득지원이 양육지원체계에 중요한 요소로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의 확산은 학교와 보육시설 등 교육과 돌봄 기관의 서비스 중단 또는 축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근로가구에 일시적으로 대안적 긴급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며, 부모나 친인척 등 가족내 돌봄 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정내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제도와 수당제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확산은 기존 집단시설 중심의 돌봄서비스의 재구조화를 요구한다. 즉,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시 또는 감염병 발병 시 기존 보호·돌봄체계가 긴급돌봄서비스 체계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보호·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의 경우 감염병 예

방을 위한 위생, 공간 운영과 대면활동 등 새로운 기준과 접근이 필요하다.

더불어, 감염병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untact) 온라인 사회가 도래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에서는 IT와 온라인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근무형태를 가져가는 ‘스마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 등 유연화 된 근무형태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합한 소득지원 및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살펴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에 따른 정부의 아동돌봄 대응책 및 가구내 돌봄현황에 기초하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돌봄체계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주기적 상시성을 갖는 위험과 위기, 재난으로 인한 육아환경의 사회경제적 및 고용·노동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양육지원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나. 코로나19와 사회경제구조 변동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은 우리사회의 삶의 양식의 변화를 유발하였다³⁷⁾.

1)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빈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는 경제생태계의 연계망을 붕괴시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 근로계층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2020년 OECD회원 36개국의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주요 선진국의 경우 평균 -6.1%, 우리나라의 경우 -1.2%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대되던 지난해 4월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수³⁸⁾는 12만 3천명으로 2019년 같은 달 대비 3만 2천명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과 50대 이상 중심으로, 산업별로는 주로 숙박·음식업, 사업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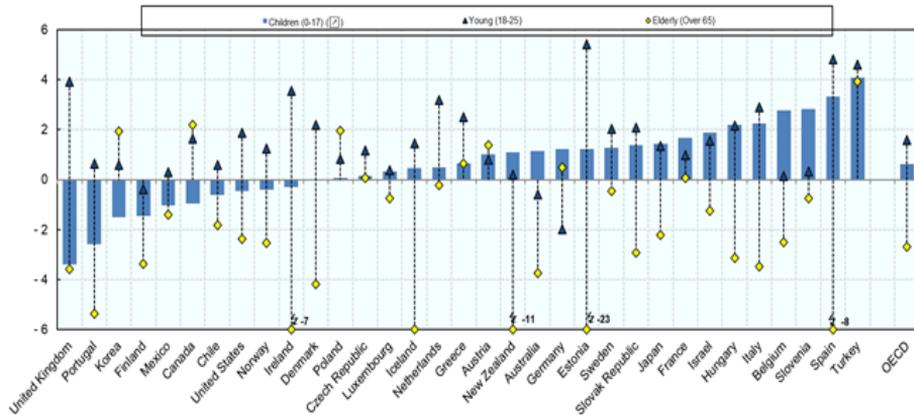
37) 이은영(2020). 코로나19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 디지털경제가속화. 삼일회계법인 이슈리포트.

3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1. 5. 11.). 고용행정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스, 도소매, 제조업 등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용가입자가 많은 건설업 등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수는 10만 3천여명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에 비해서는 많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특히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영세사업장,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뿐 아니라 중산층 근로계층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유자녀 가구에게는 보다 큰 위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OECD의 2014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회보고서에 따르면(OECD, 2014), 2007-2008년 세계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과 2010년의 상대빈곤율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OECD 국가의 평균 상대빈곤율은 아동(0-18세)의 경우 12.8%에서 13.4%로, 청년층(18-25세)은 12.2%-13.8%로 증가한 반면, 노인의 경우 15.1%에서 12.5%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2008년 사이의 세계경제위기가 유자녀가구와 25세 이하 청년층에 경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림 V-2-1〉 OECD국가의 2007-2008 경제위기 전후 상대빈곤율 - 연령별



출처: OECD(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 The crisis and its aftermath.

2)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기업문화 및 노동환경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장소 다양화 등과 같은 스마트 워크를 촉진하고 있다(이은영, 2020). 온라인화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유연하게 근무형태를 가져가는 ‘스마트워크’를 촉진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IT에 기반한 스마트워크 근무형태는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근로시간 유연화, 근무장소 다양화, 워케이션(work+vacation)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 등의 유연화된 근무형태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은영, 2020).

실제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및 노동환경 전망]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연근무제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확대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절반이상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하거나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응답하였다(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2021. 7. 20.).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기존 유연근무제 보완·확대 45.8%, 유연근무제 신규 도입 29.2%로 나타나, 조사대상 기업의 75%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형태는 재택·원격근무(26.7%), 시차출퇴근제(19.0%), 탄력적 근로시간제(18.3%), 선택적 근로시간제(15.4%)로 나타났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8.1%), 시간선택제(6.2%) 등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의 절반이상(56.7%)이 업무효율 및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절반이상(51%)의 기업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와 같은 근무형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 중 재택근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급격히 확대되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러한 형태의 근로형태 다양화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재택근무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대상기업의 48.8%가 재택근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1), 미국(50%)이나 유럽(37%) 등 외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조치 기간 중 재택근무를 시행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진, 2020).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1일 이상 재택근무 노동자는 전체의 8%, 상시재택근무자는 임금노동자의 2.5%에 불과했으나, 2020년 팬데믹 시기 조사에 따르면 20-64세 미국인 응답자의 41.9%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기홍, 2021), 코로나19 시기 동안 재택근무가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는 가족내 아동 돌봄의 욕구를 해결하는 가족친화적인 제도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며,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이미 유연한 근로형태를 통해 영유아기 자녀돌봄과 일의 양립을 추구하고 있다. 다만, UNICEF와 ILO(2020)가 언급한 바와 같이 유연한 근로형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의 유연화 뿐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근로조건 및 돌봄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표 V-2-1〉 유연한 근로형태 사례

유연한 시간	유연한 휴가	유연한 근무장소/역할
노동시간 저축 노동시간 축소 주간(week) 유연한 노동시간 일자리 쉐어링 일자리 전환(switch shifts)	유급 질병 휴가 유급 긴급 돌봄 휴가 추가 또는 연장 주말, 개인 휴가 고용이 보장된 장기 휴가 동일한 시간당 급여를 보장하는 시간 단축(reduced hours) 유급 수유 휴식	재택근무, 원격근무 돌봄 목적의 임시 원거리 근무 책임성 전환

출처: UNICEF, & ILO. (2020). Family-friendly policies and other good workplace practi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Key steps employers can take. p.4.

먼저 유연한 노동·돌봄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이나 승진 등 노동환경이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자로서의 기본권과 사회보장권이 확보되어야 하며, 유연한 근로가 종료되었을 때 원래 자리로의 복귀가 전제되어야 한다(홍희정, 2019). 또한 이러한 근무형태를 고려한 돌봄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족내 구성원이 질병, 사고 또는 육아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급휴가제도나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할 경우 동일한 시간당 급여 보장뿐 아니라 줄어든 소득보장을 위한 수당제도 등이 필요하다.

3) 비대면(Untact), 온라인 사회의 도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고 있고, 이에 따라 비대면(Untact), 온라인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이은영, 2020). 개인위생 개념이 강화되고 있고, 대면접촉을 꺼리게 되면서 나홀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무인화, 자동화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소비형태 또한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음식 등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감염병의 우려



로 다중 밀집사업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 사회의 도래는 돌봄에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가정내 돌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 친인척 등 가족내 돌봄이 부재한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우려 등으로 인해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나홀로 돌봄’이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한다(김영란, 2020b). 가정내 돌봄의 증가로 계층별 아동의 학습기회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부모의 아동양육 정보 제공 및 교육 관련 욕구가 증가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실직 등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내 경제위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정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한편, 취약계층, 맞벌이 아동의 경우, 공식적 돌봄 기관의 휴원으로 인해 자녀식사 제공의 어려움과 같은 급식문제(결식, 끼니거름, 영양불균형)가 발생하기도 한다. 외별이가구에서도 식사에 관한 어려움은 호소된다. 긴급돌봄 운영에서는 소수의 아동 이용으로 급식운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 상황의 아동 돌봄에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사의 제공이라는 급간식 제공 인프라의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의 다양한 상황에서(예: 미등원가정내돌봄, 소규모 긴급돌봄,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격리기간 등) 돌봄을 받는 아동 대상의 급간식 제공을 지원체계의 필수요소로 고려, 설계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늘어난 식비지출에 대한 (현금)지원 외에 각종 시설/서비스 운영에 반영된 급간식 예산의 집행과도 관련이 있다.

다. 지속가능한 아동돌봄체계 구축 과제

1) 빈곤예방을 위한 아동 중심의 소득보장제도 확충

가) 아동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 정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은 가구 구성원의 실업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이와 같은 가구내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아동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제도를 정비·확충하여 아동 양육가구의 빈곤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현재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보편적 수당(아동수당)과 다면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제도 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적용 대상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책으로 아동수당을 16세(또는 18세)이하 아동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생계비용 지원과 같은 소득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동양육가구에 대한 빈곤예방 효과가 크다. 금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돌봄의 (재)가족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보육·교육비와 여가활동비의 지출은 팬데믹 초기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교육과 돌봄 비용의 지출에서 소득계층의 차이(즉 회복력과 적응)를 보이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식비 지출의 부담은 유의하게 크게 늘어나, 코로나 이후 자녀양육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가구가 감소했다는 가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외, 2020; 최효미 외, 2020; 본 연구조사 결과).

이러한 가운데 자녀양육가구의 현금지원(아동돌봄쿠폰, 특별지원금)에 대한 만족도와 효용 체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므로(최윤경 외, 2020; 최효미 외, 2020; 본 연구조사 결과), 가정내돌봄 과정에 내재된 부담과 돌봄역할의 수행을 지원하는 소득보전의 기제를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돌봄·교육 서비스 제공 위주의 현행 양육지원체계를 보강 및 지지하는 중요한 틀이 될 것으로 보며, 특히 재난상황에서 가정내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지원 체계로서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특별현금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수당 도입 및 정합성 제고를 필요로 한다.

다) 다자녀 수당 도입

아동수당은 각 아동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됨으로 가구내 자녀가 많을 경우 수당 액수는 증가하게 된다. 다만, 현재 아동당 10만원으로 지급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욕구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대가족 지원을 위한 다자녀수당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아동수당을 시행 중인 많은 국가들이 다자녀가구에 보다 유리한 형태의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우 정액의 아동수당 이외에 대가족 지원을 위한 추가금을 대가족지원수당 형태로 지급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지원금액이 증가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다자녀가구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지원 설계의 보강은 저출생이 심화되는 사회적 변동에 대한 대응이자,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강하는 구체적인 변화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라) 기존 선별적 수당의 적정성 검토

현재 장애아동(월 10-20만원), 한부모가구 아동(월20-25만원), 위탁아동(월 15만원 내외) 등 다면적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 아동 양육 가구에 추가적인 양육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보편적 수당에 더해 추가적인 욕구에 따른 선별수당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욕구에 기반하여 수당금액을 상향조정하거나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마) 도입예정인 영아수당의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

2022년 도입 예정인 영아수당은 2세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시설이나 기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하나, 현금성 지원으로 인해 가구내 소득증가 효과가 있어 타 수당과의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타 돌봄서비스와의 정합성 또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유연한 노동·돌봄 지원 체계 구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선택 등 근로시간 유연화나,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장소의 유연화 등 유연한 근로형태가 급속히 도입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상황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에 따른 유연한 돌봄 지원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가) 돌봄관련 휴가 확충

우선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감염병 위험 때문에 긴급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들이 직접 돌보길 원하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급이었던 가족돌봄휴가를 한시적으로 유급화하여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까지 지원한 바 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위험뿐 아니라 가구내 구성원(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구내 돌봄부담 증가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년 10일)를 유급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나) 유연한 노동시간 확보를 위한 소득지원대책 마련

유연한 돌봄 지원을 위한 수당 도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비대면 접촉 활동 증가로 인해 노동형태의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 시간제근로, 시차출퇴근, 선택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활용하여, 부모의 가정내 돌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 자녀의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정규노동과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당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줄어든 노동시간에 비해 늘어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유연한 돌봄수당의 도입도 필요하다. 핀란드의 경우, 부모급여 이후에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30시간 이하로 줄일 경우 유연돌봄수당(Flexible care allowance)을, 학령기 저학년 아동을 돌보기 위해 노동시간을 30시간 이하로 유지할 경우 부분돌봄수당(partial care allowance)을 지급하고 있다(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 2021: 117에서 재인용).

3) 비대면(untact) 시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

가) ICT, 인터넷 활용 서비스 확충

ICT, 인터넷을 활용한 부모 육아 및 돌봄서비스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내 학습과 가정내 돌봄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업격차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기존 취약계층 아동대상 서

스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1:1 비대면 학습멘토링 서비스나 학습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내 돌봄의 증가에 따라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서비스나 육아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DATA에 기반한 빈곤 및 아동학대 등 위기사례아동 조기발견 및 예방과 위기사례아동별 공공사례관리 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가정내 돌봄의 증가에 따라 가정내 아동학대나 방임 증가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기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가정방문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기사례아동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군구 단위에 위기가구 아동에 위기도별 공공사례관리 체계(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아동보호팀 등)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사 기관의 가정방문형 서비스(예: 임신부 영아 건강관리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자들의 아동학대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위기가정 발굴시 공공사례관리체계와의 연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나) 가정형 보호 체계 구축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집단시설보호 체계의 전반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형보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집단시설 보호 형태는 코로나19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보호시스템이다(예: 노인요양원, 아동양육시설 등). 기존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의 집단보호에서 가정위탁이나 그룹홈과 같은 가정형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다 단기적인 대응이자 개선방안으로는, 아동양육시설의 재원 아동·청소년에게 강력한 코호트 분리와 통제를 적용한 금번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일반가정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적정수준의 자율적인 외출과 외부활동, 놀이가 가능한 양육 및 교육 환경에의 재량을 개별 시설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 기준과 매뉴얼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아동양육시설 구성원들이(아이들은 구성원 모두를 일반가정에서와 같이 ‘가족’으로 인식함) 소규모 형태로 일반가정에서와 같은 외부활동과 또래관계, 학습과 놀이의 기회

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분리와 통제 위주의 집단양육시설 대응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정형 돌봄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시간 유연 근무형태의 확산은 기존 9:00-17:00와 같은 고정적 근로시간과 상이하게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유형을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서비스도 이와 같은 유연화된 근로시간에 적합한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하다. 즉, 노동시간 유연화에 따라 기존 정규 보육서비스 이외에 유연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유연성이 높은 서비스이나 이용비용이 비싸고, 도우미의 가정방문시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단시간 이용에는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 취약가구의 영아나 일시적 돌봄욕구에 대응하는 기존 보육서비스의 틈새를 메우는 공적서비스로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기존 공식적 돌봄체계에 긴급 대응 능력 확충

상시 긴급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영유아대상 시설보육서비스의 경우 상시 긴급돌봄이 가능토록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과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 주기적, 상시적인 감염병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시설은 충분한 추가 여유공간 확보 및 공간운영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즉,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질환을 앓고 있거나 질병으로 아픈 경우 이들 아동을 시설내 분리해서 보호할 수 있는 공간과 인력의 배치와 운용, 보건·건강에 기초한 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초등방과후돌봄은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초등돌봄교실’이나 ‘다함께 돌봄’ 등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초등방과후돌봄서비스의 긴급돌봄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중심의 교육·돌봄체계와 지자체 및 마을 중심의 돌봄인프라 정비(예를 들면, 초등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 돌봄인프라를 지자체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수요자 부모와 아동의 돌봄 안전성과 연속성, 요구(needs)를 고려할 때 학교를 포함하여 지역사회(community) 사는 곳/배우는 곳 중심의 돌봄·교육 환경에 기

초하여 서비스의 이용이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가용한 인프라 간'에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A지역에서는 학교 초등돌봄 중심이 돌봄-교육 연계로, B지역에서는 (기초)지자체 운영관리가 체계화 된 학교돌봄터 운영을 중심으로, 또는 C지역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다함께돌봄/지역아동 센터/방과후아카데미 간 협력연계를 중심으로 일상 및 재난 상황의 돌봄인프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돌봄인력의 자격, 근로환경, 임금 등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지자체 중심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통합 운영되고, 지자체 직영 형태의 돌봄인력 운용 방식(예: 사회서비스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중장기관점의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교육-보육-돌봄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과 근로/처우 여건을 점검하고 그 안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중장기 계획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사각지대 해소 방안: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

가. 팬데믹 상황의 육아분야 취약지점의 문제점/쟁점 분석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학대 위험에 놓여있는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체계 작동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과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등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학대 위험 아동 및 가구를 조기 발견하는 체계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 2018. 3. 18.).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의미의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여 학대 또는 방임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과 같이 아동학대 보호체계에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최현수·김경희·김수영·최문정·최향석·천미경 외, 2019). 이에 따라 장기 결석 등 학교 출결, 어린이집·유치원 출결, 영유아 건강검진 미 실시, 치료 중단 등 병원기록, 예방접종 미 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아동학대 전력, 아동복지시설 퇴소, 학교 밖 청소년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으로 아동학대 등의 위험징후를 예측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될 경우에는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실제 위기 상태를 점검한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 2018. 3. 18.). 이후 포용 국가 아동정책과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에 따라 2020년 4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처벌법이 개정되고 2020년 10월부터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한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시행되면서,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아동보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기존의 아동보호 체계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2020년 2월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초·중·고등학교에 휴업 조치를 취하자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 머물게 되는 아이들에게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정 내 돌봄으로의 전환은 필연적으로 아동 돌봄 공백 및 사각지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정부는 아동 돌봄 시간의 양적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돌봄 쿠폰, 긴급 돌봄 등의 정책을 통해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돌봄 휴직, 유연 근로제와 같은 일-가정 양립 정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돌봄 체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은 아동 돌봄 공백 및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동권리보장원(2020c)에서 실시한 코로나19와 아동의 삶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만10-18세 아동의 아침 결식률은 39.7%로, 코로나19 발생 이전(학기 중 15.4%, 방학 중 17%)과 비교해 결식아동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가구의 경우 돌봄 공백의 문제에 더 쉽게 노출되었는데,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빈곤 가구(중위소득 50%이상)와 빈곤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모두 코로나 이후 아침 식사 결식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빈곤 가구의 경우 50.1%로 비빈곤가구 38.5%에 비해 그 차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방치 시간 역시 증가하여 만7-18세 취학아동의 경우 등교일 방치 시간은 평균 160.54분, 미등교일 평균 291.43분으로 코로나19 이전 평균 방치 시간인 118.7분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아동권리보장원, 2020c). 재난 상황에서 양적인 돌봄 공백만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 변화와 균열은 더 심각해졌을 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일상 격차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 돌봄의 격차가 아동 일상의 격차, 아동 미래의 격차로 이어지는 위험

에 처하게 되었다(정익중 외, 2020).

감염성 재난으로 인해 아동의 외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신체적·정서적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는 아동의 식사를 챙기고, 아동의 수면시간을 조절하며, 편안하게 산책하고 운동하도록 감염 위험이 없는 공간을 제공하는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하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0).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직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재택근무, 가족 돌봄 휴가 및 유연근무제 지원도 격차를 보이는 상황에서(김영미, 2020) 가족 친화 제도의 혜택과 거리가 먼 빈곤가정 아동의 경우 사각지대 아동 발굴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과 돌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는 재난 상황에서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정익중, 2020b).

재난 상황에서의 돌봄 사각지대 발생은 단순한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방임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아동들은 재난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겪는 부모 곁에서 예기치 않은 학대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Kousky, 2016; 정익중 외, 2020: 65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교 및 봉쇄로 인하여 아동이 폐쇄된 가정 안에만 머무르게 되자 신고의무자나 이웃들로부터의 신고를 통해 아동학대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 가정 내에서 온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돌봄의 많은 부분을 분담해 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등 돌봄 지원 공간의 이용제한과 장기휴교 상황은 아동에 대한 음식지원과 건강 및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의 접촉과 신고 기회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Hoffman & Miller, 2020).

2020년 2-4월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5%나 감소하였는데(윤혜미, 2020), 이 같은 이례적인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감소는 실제 학대가 감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견되지 못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연합뉴스, 2021. 1. 9.). 실제로 어린이재단 ‘코로나19 아동청소년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정익중 외, 2020)에서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전체 설문 아동의 53.2%로 나타나 코로나 이전 2018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에서 보고한 23.8%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정익중 외, 2020: 80).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초기 방역 조치의 하나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에 따른 위기아동 방문 조사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동아일보, 2020. 6. 10.)는 사회적 변화에 스스로 대응하기 보다는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아동의 경우, 국가의 개입 없이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 집단(아동권리보장원, 2020c)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아동 사각지대 발굴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나. 팬데믹상황의 취약지원체계 대응방안-위기발굴체계 개선

1) 위드코로나 개선 방안

가) 본인 신청과 외부 발굴 사이에서 선제적 맞춤형 정보 제공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기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와 외부로부터의 발굴 사이에서의 선제적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 사회복지제도는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제도가 충분해도 무의미하다. 반대로 외부에서 발굴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면 무용해질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재난문자, 국민비서처럼 우편이나 SNS, 문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정보와 간단한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신청과 발굴 사이의 중간단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멤버십이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수급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판정하여 대상자에게 안내해 맞춤형 신청을 유도한다면 제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수급에 대한 자발적 신청을 유도할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이 가능해질 것이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

나) 미취학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 및 보편적 가정방문 체계 확립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아동 조기 발견 체계 작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상에서 낮은 연령은 데이터가 충분히 쌓여있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 위기 상황에서 의사 표현이 어려워 아동학대 발견이 어려운 낮은 연령대 아동들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병원기록 등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미취학 아동 관련 정보 보강, 미취학 아동학대 사건 집중 분석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가정 내 학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연계해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3. 8.). 또한, 만 3세는 「유아교육법」상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면서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는 시기로(정익중·오정수, 2021) 아동에 대한 안전 소재 및 안전과 관련된 전수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던 만큼 국내 거주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가정방문도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가정방문이 아동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거부감이나 일부 사회적 낙인을 줄 수 있으므로 아동을 위한 가정방문을 아동학대 행위조사와 연계하기보다는 생애 발달 주기에 맞는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및 돌봄 지원과 연계될 수 있는 보편적 아동복지 지원 서비스 체계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e아동행복시스템의 목적이 가정돌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아니라 지원과 협조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이 사례사정과 개입지원이 가정별 맞춤형 성격을 띠어야 할 것이며, 이 개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프로세스가 정교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다만 위기 아동으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보호자가 방문 점검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녀에 대한 부모의 친권이 우선시되고, 대상 가구의 개인정보보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부모의 권리보다 아이의 권리를 우선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동의 생존권과 복지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적·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최현수 외, 2019).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2회 이상 방문 거부 시에는 관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소재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야한다(정익중·오정수, 2021). 또한 갑작스런 가정방문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지원을 위해 공무원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방문할 수 있다는 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국민 홍보할 필요가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의한 가정방문보다 만 3세 전수조사의 수용성이 높은 이유도 모든 영유아 가정이 보편적으로 대상이 된다는 점과 다양한 홍보 채널을 가동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 수요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사정 전문성 및 재량권 강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정으로 예측될 시 읍면동 공무원 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양육상담을 실시해야 한다(한은희·김윤민·이지은, 2019). 다만, 위기 의심 가구를 방문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가정에 대한 감시·감독인지, 복지 지원인지에 대한 역할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보호자들의 방문 거부 의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방문 시 사회복지사는 보호와 사회통제의 이중적 속성을 가진다 사실을 유념해 가정 내에서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점검과 수요자 중심의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등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최현수, 2019). 점검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도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서비스 연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정방문이 감시나 구속으로 느껴지기보다 필요한 사회복지 자원을 맞춤형으로 적극 지원해 연계해준다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기계적으로 발굴된 사례를 적절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갖춘 초기 방문자(intaker)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최현수·오미애·류정희·전진아·전지수·천미경 외, 2018). 초기 방문자는 지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 기관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이를 개별 사례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례관리자 간의 사례 회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동시에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경찰 동행 현장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3. 18.). 이 밖에도 법정 급여, 서비스 수급 자격 정의에 있어 소득, 재산 이외에도 개인 및 가족의 다양한 욕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에 기반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홍성대·박지영·정영철·한동훈·이대영·유명이 외, 2011). 초기 방문자의 사례관리 업무 수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발굴된 자원의 등록 단계에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함께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만드는 등 방문 현장에서 정보화를 통한 자원 연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고도화 및 자원 발굴 관리를 위한 운영 체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홍성대 외, 2011).

통합사례관리 수행 조직은 지자체에서 장기적으로 읍면동으로 하거나 시군구 내 권역별로 별도 통합사례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담당토록 해야 하며, 아동 영역의 특화를 위해서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홍성대 외,

2011). 앞서 언급한 초기방문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수퍼비전도 필요할 것이다(한은희 외, 2019).

라) 아동보호의 구심점으로써 학교기능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코로나 이후 아동에게 교육 공간이자 일상을 조율하도록 돕는 공교육 시스템(COVID-19 Guidance for Safe Schools, 2021)의 이용 제한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더 큰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와 교육격차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아동 일상에 가장 빈번하게 근접할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을 피해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과 돌봄은 빈곤한 가정의 아동이 교육적·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임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앞으로는 특히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체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정익중·오정수, 2021). 데이터 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기 결석 학생 현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공유하고, 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위기 학생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지속 협력해야 한다(교육부, 2020). 아동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 학교의 기능 강화는 다문화가정 학생, 북한 이탈주민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다양한 수준의 교육적 취약성을 지니거나 교육적 성취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아동과 빈곤가정 및 해체가정 등 발달 단계상 취약한 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집중 관리하도록 도울 것이다.

안타까운 학대 사례가 발생했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등 학교 밖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퇴소 심사와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해야 한다.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발견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 학적 정보 관리·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학교 내 모니터링 대상에서 벗어난 아동이나 시설 퇴소 아동, 학대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드림스타트나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시군구 아동보호팀 등을 통한 지자체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 9. 30.). 학교 내·외에서 발견된 사각지대 아동을 위한 지원 과정에 지역사회

회 기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드림스타트, 건강가정지원센터, 위(Wee) 클래스,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적절히 개입할 수 있도록 이들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허남순·고윤순, 2015). 아동보호 사각지대는 아동 및 가족을 둘러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해결책 또한 간단하지 않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인력들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 아동보호 관련기관간의 연계성을 증진시켜 다분야간의 통합적인 훈련을 실시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박명숙, 2001). 즉,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내 모든 기관 및 조직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교육 및 훈련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야의 시각을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는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을 위한 최적의 개입서비스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실시는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아동보호 관련 지역사회기관들 간의 접촉이나 지원 등을 요구함으로써 이후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연계성의 토대가 될 수 있다(정익중, 2009).

2) 포스트코로나 중장기 대응 전략

가) 빅데이터 한계 및 보완사항 점검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실무자 교육 강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은 전통적인 아동 학대 사례 사정 도구들과 비교하여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수학적 판단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Cuccaro-Alamin, Foust, Vaithianathan, & Putnam-Hornstein, 2017). 그러나 데이터가 완벽하다고 하여도, 데이터의 적합성 및 품질(예: 결측 데이터의 양, 입력 오류 등)이 예측 모형의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등(Connelly, Playford, Gayle, & Dibben, 2016) 어떤 예측 모형도 100% 정확성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데이터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최적화하는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뿐 아니라 아동의 인구학적 변화 및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임계값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Cuccaro-Alamin et al., 2017). 이 과정에서 위험예측모형의 성과 및 그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Cuccaro-Alamin et al., 2017) 아동보호 분야의 전문가들의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출된 위기아동은 통계적 예측일 뿐, 실제로 복지사각지대 아동이라고 확인하거나 아동학대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최현수 외, 2019)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예측모형은 학대의심사례 접수 및 판정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및 방임과 통계적으로 관련 있는 요소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상경험을 통해, 혹은 전통적 이론들이 제시한 위험 요소들을 기반으로 데이터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현장인력의 확충을 위한 자원의 투입이 요구된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 주 에커드 긴급안전조치(Eckerd Rapid Safety Feedback)는 고위험 아동으로 예측된 아동에 대해서는 에커드 커넥츠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전문가가 긴급안전조치(RSF) 도구를 활용해 사례를 검토한 후 24시간 이내에 사례관리사를 배치함과 동시에 사례관리사에 대한 코칭과 지원을 제공한다.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전문가는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사례 자체가 종결되거나 가족 내의 가장 어린 아동이 만 3세가 될 때까지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지속하여 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계층화(Theory of Risk Stratification)는 전략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주목적은 사전 개입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인 만큼, 이 사업의 책임자 및 실무자들은 빅데이터가 제시하는 위험 예측 모델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발굴 이후 위기개입과 사후관리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입 효과는 서비스 대상 가족이 학대 예방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여 관련 서비스에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Cuccaro-Alamin et al., 2017).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 모형의 설계 및 활용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하며 최종적 평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일련의 모니터링 과정에 아동보호 및 아동복지 전문가, 법률자문단, 아동복지기관, 아동의 부모 등 전문인력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나) 차등 대응체계를 통한 아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 강화

아동학대의 경우 과도한 신고·조사업무로 인해 서비스 제공 기능이 약화되고 있

는 현실에서 고위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려면 차등 대응 체계(differential response system)의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정익중·오정수, 2021). 차등 대응 체계는 최근 미국 아동보호서비스 개선 노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아동보호체계에서와 같은 조사 방식이 우선되고, 저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기관을 통한 서비스 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다(이봉주·김기현·안재진, 2015). 차등 대응체계에서는 아동학대 사례로 신고되면 무조건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통보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사법 체계가 개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자 또한 심리적인 부담 없이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소외된 저위험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학대 행위자 처벌 위주의 아동보호에서 벗어나 서비스의 폭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이봉주 외, 2015), 저 위험사례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지역사회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아동보호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원과 서비스가 고위험 사례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체계가 단순히 시스템만 바뀐다고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의 다른 유형에 비해 심각하지 않다는 근본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방임은 다른 학대에 비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을 개발·지정하고, 이 기관들과 업무를 분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모든 학대 신고를 동일하게 대응하기보다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나 방임 사례만 강제적 조사체제로 다루고 그 외에 덜 심각한 사례나 저위험 가족의 경우는 서비스 지향적인 대응체계를 제공해야 한다(이봉주, 2005). 차등 대응체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직원, 지역사회기관과의 좋은 관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분한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Waldfoegel, 2009) 저 위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심각한 학대나 방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그러나 대폭적인 예산과 인력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등 대응체계의 도입은 현재 과부하 상태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기능을 한층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담당 인력 확보와 적정 처우를 통한 위기 아동 누락 예방

담당 인력의 부족 문제는 위기 아동 누락과 연결되고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여러 번 발견되었지만,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려 방문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위기 의심 아동은 60만 명이 넘었으며, 위기 의심 아동 가운데 실제 방문 조사로 이어진 비율도 겨우 10%를 넘었다. 41종 자료로 1차 분류한 위기 의심 아동은 70여만명이지만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위기 아동을 포착하고도 누락하고 있다(동아일보, 2020. 6. 10.; 이데일리, 2019. 8. 21.; 헤럴드 경제, 2020. 6. 26.). 결국 일부 아동만 분기마다 대상으로 선별해 관할 읍면동에 통지하고 있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도입 뒤 방문 조사 대상에 오른 아동은 10만 2554명 뿐이다. 나머지 약 60만 명은 위험도가 낮다고 방문 조사에서 누락되었지만 실제로는 당국의 개입이 절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위기도에 맞게 최종 관리 대상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공무원의 점검 역량에 맞추어 방문 대상이 선정되거나 원칙적으로 재방문이 필요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역마다 위기 아동 숫자는 물론 서비스 수급의 실태가 다른 상황에서 각 지역별로 공무원 수급이나 관련 서비스 분포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대안 마련과 함께(최현수 외, 2018)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발굴이나 돌봄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인력들을 필수 노동자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동정책에 찬성하지만 이 아동들을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지한 경우가 많다. 학대 가정은 부모가 있어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은 가정외에서 다른 인력에 의해 보호되고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위기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쉼터 등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 대신 돌보는 인력이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돌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기며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아동서비스 분야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유인하지도, 장기근속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열악한 근무조건은 인력의 소진과 이직을 유발하기 쉬우며, 업무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 인력의 잦은 교체는 보호자가 자주 바뀌는 것과 같이 아동의 정서불안이나 기본적 신뢰감의 상실 등 심리적 외상을 일으키기 쉽다(정익중·오정수,

2021). 아동서비스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는 아동에게 제공될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아동에게 사회적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했으므로 향후에는 아동서비스 인력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기 위한 일자리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수노동자의 적정 처우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분절성 해결

현재의 아동청소년보호체계는 주무부처와 예산, 전달 체계 등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동에 대한 보호 신청이 산발적으로 접수되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보호 대상 아동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류정희 외, 2018). 또한, 이러한 체계들 간의 연계성 역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아동보호 조치의 공공성이 부재하다. 그 예로 만 12세 이하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 정책 대상으로, 만 13세 이상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복지)정책 대상으로 구분되어 만 12세가 넘어가면 똑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하거나,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나뉘어 지원과 관리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류정희 외, 2018). 각종 정책 역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기준연령이 달라 관리의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아동복지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양특례법 등에선 아동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했지만 아동·청소년이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선 같은 아동·청소년을 각각 19세 미만과 24세 미만으로 정하는 등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류정희 외,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복지원은 늘고 있어 현재 아동청소년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유관부처만 해도 교육부와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 경찰청, 복지부 등 5곳에 이르고 있다. 이들 부처의 정책에 따라 현장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은 보건소, 가정위탁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위(Wee) 클래스, 건강가정 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성격과 종류가 각기 다른 시설들이 난립하는 실정이다(류정희 외, 2018). 반면 이를 실제로 관리해야 할 지역사회의 관련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이 일선 현장에 몰려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청소년 관련 업무지침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동보호체계의 분절성은 특히 눈에

피지 않는 저소득 고위험군 방임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정익중·오정수, 2021).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장 업무를 중심으로 한 통합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분절적인 정책을 조정해 아동과 청소년, 청년 등 생애 주기별 보호 체계를 관리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시도의 아동권리보장원을 구축해 부처별로 다른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와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시군구 아동보호팀과 공공 통합사례관리팀을 운영해야 한다. 이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 보강이 시급하다(정익중·오정수, 2021).

이렇게 정부 부처 통합이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에서 부처와 상관없이 아동청소년 인력과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정익중·오정수, 2021). 이를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단일한 집행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의 정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정책 집행조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제철웅, 2021) 중앙정부 차원에서 배정된 예산과 인력을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효율적이면서 일관성있게 연계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과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아동 돌봄서비스 도입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특히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거대한 재난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 사회에 재난 상황으로 발전될 여러 가지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같은 잠재적인 재앙이 그 예로,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마련한 각종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한다(한겨레, 2021. 10. 13.).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대상은 아동이므로(정익중, 2020a: 2에서 재인용) 미래 사회에 아동에게 발생 가능한 위기 상황을 최대한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재난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일관된 양육을 제공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확대를 경험한 아동이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정익중 외, 2020)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 처

한 아동의 보호자가 일정하지 않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돌봄 인력 자체의 양적 부족과 돌봄 제공자의 역량에 따른 돌봄의 질적인 격차는 미래 사회문제에 더하여 부가적인 부정적 결과를 낳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돌봄 제공자의 개인적 요인은 아동의 심리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주영선·정익중·안은미·박지혜, 2020), 잦은 돌봄 인력의 교체는 안정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극단적인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미래 사회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미래의 위험요인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가 업무 형태의 변화 및 비대면 서비스의 기회를 보여주었던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방안 역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활용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노인 분야에서는 일찍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수요와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또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관련 기술 즉,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임정원·최종혁·김수완, 2021; Mørk & Vidge, 2010). 그 예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고령층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케어프레딕트(CarePredict)의 템포(Tempo)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사용자의 습성, 선호도, 습관 등을 배워 고령자가 선호하는 유튜브 동영상, 테드 동영상 등을 알려주고,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화를 걸어줄 수 있는 소셜로봇 엘리큐(ELLI Q)도 활용하고 있다(김정근, 2021).

우리나라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화재, 가스, 활동량 등의 IoT 센서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을 감지함으로써 응급 및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복지기술 기반 IoT 서비스인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IoT 센서를 기반으로 독거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솔루션 사업과 AI스피커를 활용하여 노인돌봄에 초점을 두는 인공지능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박선미·김수범, 2019; 보건복지부, 2020; 임정원 외, 2021).

이처럼 아동 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을 접목시킨 맞춤형 돌봄서비스 도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 돌봄은 아이돌봄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용하여 식사, 놀이 활동, 학습지도,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돌봄

인력의 양적 부족과 돌봄 제공자의 역량에 따른 돌봄의 질적 격차는 현장에서 피해갈 수 없는 한계로 지적된다. ICT/IoT를 활용한 소셜 로봇을 아동 돌봄에 적용시킨다면,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함께 동일한 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아동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IoT 센서를 활용하여 응급 및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많은 사건·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 시스템은 더 이상 불확실한 재난 상황에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다. 단기적 시각에서의 해결책은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는 미래 사회문제에 속수무책일 것이며, 그 자체로 2차 피해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고착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여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아동 돌봄서비스 도입은 급변하는 사회에도 적용 가능하며, 돌봄 인력의 양적 부족과 돌봄 제공자의 역량에 따른 질적인 격차에 대한 해결책 중 일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내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며, 국가가 돌봄영역에서 모범 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만이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동돌봄과 보호는 제자리를 잡을 수 있으며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4. 포스트코로나 미래 대응 전략

상기한 (1)ECEC 대응력 제고와 (2)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체계 개선 방안, (3) 위기아동 발굴시스템 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보완에 기초하여 포스트코로나 미래 대응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보육·돌봄과 아동보호(위기아동의 발굴과 보호)를 연계하는 통합적·포괄적인 접근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의 아동학대 의무신고 및 예방 체계와 실제 아동학대 발굴과 모니터링/신고에 관한 체계는 주요 주체 간에 실행단계에서 간극이 있으므로 이를 육아환경 내에서 상시 가동되고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보육·돌봄 및 보호 체계의 연동이 반영된 양육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함이다. 아울러 (앞서 논의한대로) 분절되어 있는 교육-돌봄의 과정과 운영체계에 대한 중장기 관점의 통합적 접근과 논의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저출생시대 주요 육아주체(아동, 부모, 교사)의 역량과 웰빙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주요 대상별로 보다 촘촘한 교육과 지원체계의 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하는 부모 중심의) 물리적인 돌봄(비용, 시간)의 부족과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및 시간 지원의 관점에서 확장되는 접근을 의미한다. 우선 미래 교육과정 운영에 기초한 아동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교사 정책에서도 처우개선과 같은 근로여건의 개선과 교사보호 체계가 교사의 전문성 증진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교사교육 및 교사복지에 균등한 비중을 두고 교사/돌봄인력 중심의 정책을 설계, 실행하는 것이다.

부모 및 가정내돌봄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종일제에 준하는 보편적인 기본보육과 돌봄, 교육과정의 운영과 함께(돌봄의 (재)가족화를 의미하지 않음), 자녀를 돌보고 지원하는 부모 및 가정환경(home learning environment)의 역량과 돌봄의 참여수준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양립 및 일생활균형의 양육지원체계는 부모의 양육·돌봄 참여와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촘촘한 지원 방식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행 서비스-비용-시간 지원의 체계 내에서 상당히 미시적이고 지속적이며 개별화 된 형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예: 아동수당 수령과 연계된 아동발달모니터링/학대예방검진 및 부모역량 증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육아공동체와 놀이환경의 제공 등). 즉 비등하는 조기 중재와 아동의 발달 및 양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촘촘한 양육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아동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모니터링과 상담 및 치료의 지원체계가 현재보다 서비스-시간-비용 지원의 설계내에서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는 보다 확장된 양육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비정형 시간제 일자리와 겸업/아르바이트 근무, 특수고용/플랫폼노동의 증가 등 변화하는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가정과 부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양과 내용, 비용 및 육아시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다 유연한 서비스-비용-시간 지원의 조합이 필요하다.

넷째, 이로써 그 간 비용지원과 서비스 공급과 확충 위주로 이루어진 양육지원체계에 확장성과 연계의 전략과 방향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포스트코로나 육

아분야 미래 대응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육·보육·돌봄 및 보호의 통합적 접근

정부의 유보격차 완화의 국정과제는 실질적으로 실행목표와 성과 면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유보통합의 정책 추진이 단절되고 이로써 유보 간 격차가 상당히 누적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출범이 약 5년 경과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현 시점의 유보통합에 관한 논의는, 그 간 육아환경에 나타난 지형상의 상당한 변화를 고려할 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8개요소 중심의 단계적 통합 로드맵의 접근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드러난 육아분야의 공백과 결손, 지연 및 격차(양극화), 사각지대의 단절이 중요한 쟁점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포괄하는 접근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과 보육, 돌봄 및 (학대예방과 모니터링 등의) 아동 보호와 조기중재의 상담·치료 지원체계가 연동되는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1) 아동 관점의 교육·보육·돌봄·보호의 연속성과 연계 확보

첫째, 분절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 돌봄 그리고 아동 보호의 영역은 아동관점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제공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교사/인력의 양성과 자격, 배치, 근로와 처우, 전달체계 간 협력의 측면에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에게서 아동돌봄 및 보호/학대예방의 직무가 배제될 수 없으며, 특히 어린 아동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방과후과정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인력 역시 교육과 학습 측면의 상호작용과 지원을 배제하는 단순 돌봄의 영역에 머무르거나 아동 보호와 학대예방의 모니터링 업무에서 배제될 수 없다. 따라서 업무 역할의 분장과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가 아동 대상의 교육과 돌봄, 보호의 분절로 귀결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연속성을 확보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육아분야 미래대응의 첫 번째 과제라 할 수 있다.

2) 유보통합의 단절된 논의를 회복-재정통합과 교사자격에서부터 논의 시작 (예: 교육·돌봄 인력의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구체적으로 취학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예산은 국고와 일반예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의한 누리과정특별회계에서 보듯 당면한 현안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보육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쟁점 외에, 유치원 재원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예: 원격수업)과 교사지원의 체계(예: 누리과정 지원금)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운영한다면, 어린이집 재원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방역지침과 평가관리 및 재무회계, 아동학대예방(예: CCTV 운영 및 민원 대응)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정비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이원화 된 교육-보육 환경에서 각기 다른 정책적 지향과 재정 운영을 통해 그 격차가 공고해지고 있다. 일원화 된 통합 논의의 시작으로 공고해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보육의 양자 간 특징점이 융합될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선 담임-비담임교사, 교육과정-방과후과정(돌봄) 및 기본보육-연장보육 및 통합보육 간에 교사의 업무분장과 협력을 체계화 하되, 교사/인력의 양성 및 자격체계와 교육·훈련 과정, 근로환경과 처우, 인력배치와 경력 및 전문성 개발에 관한 제 영역에서 통합된 접근을 필요로 한다. 공통의 과정과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하나의 틀로서 접근하는 노력이 (더 늦기전에) 시작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일례로 뉴질랜드/스웨덴과 같은 해외사례에서 접할 수 있는 0~8세 아동 대상 교사/인력의 통합된 교사자격체계(National Qualification system)에 관한 논의를 의미한다. 교사/인력 자격의 연속성은 교육돌봄과정(커리큘럼)의 공통요소를 마련하는 작업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관련 예산과 재정에 관한 확인 작업(예: 교사급여, 아동1인당 예산/단가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교사의 다면적혁신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의 지원 체계 및 보호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하겠다.

나. 저출생시대 역량과 웰빙에 기초한 양육지원체계

1) 비용지원 및 서비스 공급 중심에서 돌봄권과 역량 및 웰빙을 지원하는 촘촘한/찾아가는 육아지원체계로 변화

물리적인 돌봄의 공백을 지원하는 일하는 부모 중심의 지원체계는 이제 부모와

가정, 아동의 성장발달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 된 접근으로서의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 즉 아동과 부모, 교사의 역량과 웰빙의 측면에서 얼마나 적절히 작동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에 대한 부족과 공백을 세밀히 지원하는 형태로 교육돌봄의 운영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역량과 웰빙을 위해서는 놀이권, 신체/바깥활동과 대면 상호작용이 보장되는 교육돌봄의 환경을 필요로 하며, 미래세대 아동에게 이후 다시 올 수 있는 재난 및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회복/적응력을 갖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부모의 역량과 웰빙을 위해서는 자녀돌봄에의 양성평등 참여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등 육아행복(웰빙)을 실현하는 시간-서비스-비용 지원을 필요로 한다. 교사의 경우,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보다 다면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역량증진의 기회를 교사지원체계를 통해 충실히 제공하고, 교사의 근로복지와 민원응대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교사보호체계의 가동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부모 대상 보편적·포괄적 양육지원체계

: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양립 뿐만 아니라 일하지않는 부모의 양육의 질과 돌봄권의 역량/웰빙을 증진하는 양육지원체계

초등돌봄의 경우, 현재 시점 일하고있음을 증빙하지 못하면 돌봄필요사유에서 제한되어 초등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일하지않는 부모도 자녀출산 이전에 일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거나 틈틈이 일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기회가 되는대로 다시 노동참여의 기회를 갖기위해 노력하는 사실상 구직 및 재취업의 연속선상에 있다. 따라서 현행 돌봄서비스 제공이 일하고있음을 증빙하는 제한과 구분에 머물지않고 보다 보편적인 지원체계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일하고자 하는 부모를 수용하는 돌봄서비스의 제공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하지않는 부모의 가정내돌봄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맞벌이 가구의 양육 스트레스보다 크게 나타나므로(예: 한국아동패널 조사 결과), 이러한 돌봄의 부담과 어려움을 공적지원체계를 통해 완화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3) 육아정책의 청년정책과의 연계

예비부모 세대 청년의 결혼과 출산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큰 추이를 보인다. 이제 양육지원체계는 아동 출생 이후의 시점에 머무르지 않는, 산전돌봄의 단계에서부터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예비부모로서 미래에 결혼과 출산 의향이 있고 이를 선택하고자 하는 청년세대의 생애주기의 이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과 취업, 이후 자녀 출산과 양육 또는 위탁 양육의 과정에 이르는 생애 경로와 (가족)유형의 다양화, 아동 돌봄에의 양성평등 및 지역사회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돌봄친화 사회로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돌봄에 대한 법적 기반의 마련과 함께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양육지원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과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생태계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다.

다. 비용-서비스-시간 지원의 정합성 제고 및 비용지원체계 개선

현행 표준보육비용 및 유아학비, 아동양육시설의 비용지원체계는 모두 아동 1인당 단가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의 심화 및 지역별 인프라 이슈로 인해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의 발생이 가중되어 현장의 어려움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수한 질관리체계의 마련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사 처우와 인력배치를 추구하는 기관이 저출생으로 인한 인프라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고정비용으로서의 인건비+운영비 지원체계로의 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인 공공성 확대(국공립인프라 확충)와 연계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성을 확보한 사립/민간에 대한 질관리모니터링을 통해 아동1인당 단가에서 고정비용에 해당하는 인건비/운영비 지원의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로써 교사의 처우와 근로복지의 과제도 함께 개선될 수 있으며, 저출생 시대 아동수 감소 및 인프라 소멸/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참고문헌

- 강성리·허계형·Lee, J. J., Hix-Small, H., & Steed, E. (2020). 코로나 19 (COVID-19) 상황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조기중재 서비스 제공 실태 및 유아특수교육전문가들을 위한 지원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20, 135-157.
- 강주현(2020). 코로나 19 로 인한 돌봄 변화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토론1: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9-40.
- 경기도 공고 제2020-2301호. 2021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공고.
- 교육부(2021. 7.).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학년도 유치원 등원수업 및 원격 수업 가이드라인.
- 구수연·최예린(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 긴급보육의 실태와 과제.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1, 499-514.
- 권현숙(2020). 아이돌보미 코로나 19 생계대책 시행 및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 제2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1-124.
- 권혜진(2021). 코로나 19 (COVID-19) 감염증에 대응하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건강관리직무와 수행 경험. *어린이미디어연구*, 20(1), 57-74.
- 김경미(2021). 코로나 19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지원요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 271-287.
- 김기홍(2021).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 미국 내 재택근무 현황과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2021년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동훈·김은영(2020).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수업일수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민정·김희영·김남연·문가영(2020). 유아 대상 원격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탐색. *한국유아교육연구*, 22, 201-229.
- 김선숙·조소연·이정애(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동과 권리*, 24, 409-438.

- 김아름·박은영(2020). 코로나19 관련 보육정책 대응 백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 육아정책연구소.
- 김영란(2020a). 코로나 19 시기 가족생활과 가족 정책 의제. 제3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36.
- 김영란(2020b).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정책과제. KWDI Brief, 60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미(2020).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가족을 중심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변화와 아동행복 포럼 자료집.
- 김위정(2020). 코로나19가 던진 교육격차 문제와 과제. 서울교육, 241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정근(2021).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미국의 AI/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 사례와 이슈. 국제사회보장리뷰, 2021년 봄 16호, 16-26.
- 김혜진(2020).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BOK 이슈노트 2020-13호. 한국은행.
- 관계부처 합동(2018. 3. 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복지멤버십이 알려줍니다.
- 류정희·함영진·이상정·김지연·김가희·김지민·권영지(2018).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박명숙(200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연계방안. 인천광역시 아동학대예방협의회. 제5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자료집.
- 박미희(2020). 코로나 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교육사회학연구, 30, 113-145.
- 박선미·김수범(2019).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ICT 활용 사례 연구. 서울디지털재단.
- 박영아·조미현(2020).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어려움에 관한 연구.

- 한국영유아보육학, 125, 145-172.
- 보건복지부(2020).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2020.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 보건복지부(2020. 2. 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I판.
- 보건복지부(2020. 2. 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II판.
- 보건복지부(2020. 3.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IV판.
-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1. 8. 20.).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VIII-2판(어린이집용).
- 보건복지부(2021. 10. 7.).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VIII-3판(어린이집용).
- 보건복지부(2021. 11. 19.).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IX판(어린이집용).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921호. 「2021년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 서한욱(2020).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증가하는 아동학대 위험성: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동광, 115, 113-129.
- 손준희·김선희·이희영(2020). 어린이집 원장이 경험하는 코로나-19 속 어린이집 일상 들여다보기. 인간발달연구, 27, 213-236.
- 신나리·김상림·이주연·송승민·백선정(2021). 코로나 19 시대의 보육: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과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 1-28.
- 아동권리보장원(2020a). 감염병 관련 아동복지 현장 종사자 간담회 자료집. 미간행자료.
- 아동권리보장원(2020b).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 대응활동 기록서.
- 아동권리보장원(2020c). 코로나19와 아동의 삶 설문조사 보고서.
- 양신영(2021). 코로나19가 아동 발달에 미친 영향과 그 해법을 모색한다. ‘코로나19,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토론회 자료집. 온라인 국회토론회(2021. 6. 8.). 정춘숙 국회의원·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여성가족부(2020.10). 「2021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 공모. http://www.mogef.go.kr/nw/ntc/nw_ntc_s001d.do?mid=news400&bbtSn=707280에서 2021. 6. 14. 인출.
- 여성가족부·한국건강가정진흥원(2020). 마을이 키우는 아이, 함께 자라는 공동체. 2020년 여성가족부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2020).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아동의 목소리. <https://drive.google.com/file/d/1v8Hsu7aEOUMbsiUZ7C0kJ9wwIOBgdzU4/view>에서 2021. 5. 27. 인출.
-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2021).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윤혜미(2020). 코로나19와 아동학대. 아동권리 이슈 Brief, 1. 아동권리보장원 발간자료.
-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돌봄의 변화. 노동리뷰 11월호(통권 188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길호(2020). 또 하나의 기회, 해외에선 '원격수업' 어떻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 4. 13.
- 이봉주(2005). 통합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략과 모델 -사례관리와 지역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45-66.
- 이봉주·김기현·안재진(2015). 아동보호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서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 이봉주·장희선(2021). 코로나 19 발생 이후 아동폭력 잠재유형화와 잠재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0(1), 147-180.
- 이시효(2020). 코로나 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74, 172-207.
- 이은영(2020). 코로나19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삼일회계법인 이슈리포트.
- 임정원·최종혁·김수완(2021). 독거노인 대상 ICT/IoT 기반 복지기술 서비스의 현황과 쟁점: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55, 1-38.

- 정선재(2021). 코로나19 시대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실태. 2021년 보건 사회연구 콜로키움 발표 자료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익중(2009).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40(1), 297-322.
- 정익중(2020a). 아동은 우리의 미래인가, 마지막 식민지인가. 보건복지포럼, 283, 2-6.
- 정익중(2020b). 코로나19 전후 일상 변화와 아동행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 복지연구소.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변화와 아동행복 포럼 자료집.
- 정익중(2020c).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 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3, 47-59.
- 정익중·오정수(2021).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 정익중·이수진·강희주(2020). 코로나 19 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한국아동복지학, 69(4), 59-90.
- 제철웅(2021). 청소년복지지원법의 현황과 개선방향. 2021년 4대 청소년학회 연합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92-105.
- 조수빈·김현아(2020). 코로나 뉴노멀시대,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지원방향: 뉴노멀은 마을에서부터 온다. 마을활동가 400인이 기록한 변화의 증거들.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조숙인·송하나·김연수·김주련·김문정(2020).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매뉴얼 개발. 육아정책연구소.
- 주하나(2020). 코로나사태에서 영유아기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학부모연구, 7, 23-48.
- 주영선·정익중·안은미·박지혜(2020). 지역아동센터 교사 소진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교사-아동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2(1), 117-137.
- 진미정·성미애·손서희·유재연·이재림·장영은(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 최아라(2020). 코로나 19, 아동돌봄 쟁점과 과제. 인문사회 21, 11(4), 1379-1389.
- 최예린(2020). 코로나 19 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달라진 어린이집 일

- 상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253-279.
- 최윤경·문무경(2020). 코로나19와 영유아 교육·보육·돌봄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사회정책적 대응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 최윤경·민정원·김기환·이세원(2013). 미래 육아지원 정책 수요 전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 공백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2020). 유치원·어린이집의 코로나 19 대응체계 진단 및 과제. 육아정책 Brief, 제80호. 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김아름·이민경(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분석(연구보고 2017-34-02). 육아정책연구소
- 최지욱(2021). 코로나 19가 성인 및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 방안.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0(1), 2-10.
- 최청락·김혜정·문정희·이자형·박금식·이진숙(2020). 코로나 19 경험을 통한 여성가족 분야 대응전략(보고서 2020-2).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최현수(2019).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복지 패러다임 전환과 정보 인권. 월간 복지동향, 251, 12-19.
- 최현수·김경희·김수영·최문정·최항석·천미경 외(2019).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운영 개선을 위한 위기아동 발굴방안 연구. 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현수·오미애·류정희·전진아·전지수·천미경 외(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코로나19 진행에 따른 경제·사회·산업 충격대응-사회정책적 대응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 한국보육지원학회(2021). 2021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1). 비대면시대: 산업별 대응 현황과 시사점. ISC Issue Brief, 2021-01호.

- 한은희·김윤민·이지은(2019).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급여보장단위 인적정보 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진희·심재환·정세원·최진우(2020). 코로나 19 로 인한 발달장애 아동의 온라인 교육 문제 탐색 연구.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20, 1-31.
- 허남순·고윤순(2015).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37, 1-19.
- 홍성대·박지영·정영철·한동훈·이대영·유명이 외(2011). 통합 사례관리 및 자원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총론.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홍희정(2019).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9호, 109-121.
- Araújo, L. A., Veloso, C. F., de Campos Souza, M., de Azevedo, J. M. C., & Tarro, G. (2020). The potential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child growth and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Jornal de Pediatria*, 97, 369-377.
- Cabrera-Hernández, F., & Padilla-Romo, M. (2020). Hidden violence: How COVID-19 school closures reduced the reporting of child maltreatment. *Latin American Economic Review*, 29(4), 1-17.
- Connelly, R., Playford C. J., Gayle V., & Dibben C (2016). The role of administrative data in the big data revolution in social science research, *Social Science Research*, 59, 1-12.
- Cuccaro-Alamin, S., Foust, R., Vaithianathan, R., & Putnam-Hornstein, E. (2017). Risk assessment and decision making in child protective services: Predictive risk modeling in contex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9, 291-298.
- Fegert, J. M., Vitiello, B., Plener, P. L., & Clemens, V. (2020). Challenges and burden of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a narrative review to highlight clinical and research needs in the acute phase and the long return to normalit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14, 1-11.
- Griffith, A. K. (2020). Parental burnout and child maltreatment during

-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
- Hoffman, J. A., & Miller, E. A. (2020). Addressing the consequences of school closure due to COVID-19 on children's physical and mental well-being. *World medical & health policy*, 12(3), 300-310.
- Kousky, C. (2016). Impacts of Natural Disasters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26(1), 73-92.
- Mørk, T., & Vidje, G. (2010). *Focus on welfare technology*. Stockholm-Dronninglund: Nordens Välfärdscenter.
- OECD (2014). *Society at a Glance 2014*.
- UNESCO (2021). Adverse consequences of school closures. <https://en.unesco.org/covid19/educationresponse/consequences> 에서 2021년 5월 28일 인출.
- UNICEF (2021a). COVID-19 and school closures: One year of education disruption. <https://data.unicef.org/resources/one-year-of-covid-19-and-school-closures/>에서 2021년 5월 28일 인출.
- UNICEF (2021b). School closures database. <https://data.unicef.org/resources/one-year-of-covid-19-and-school-closures/>에서 2021년 5월 28일 인출.
- UNICEF, & ILO (2020). UNICEF, & ILO. (2020). Family-friendly policies and other good workplace practices in the context of COVID-19: Key steps employers can take. https://www.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gender/documents/publication/wcms_740831.pdf에서 2021년 6월 1일 인출.
- Wade, M., Prime, H., & Browne, D. T. (2020). Why we need longitudinal mental health research with children and youth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Psychiatry research*, 290, 113-143.
- Waldfoegel, J. (2009). Prevention and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he Future of Children*, 19(2), 195-210.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1.).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족돌봄휴가” 도입 3개월 만에 빠르게 확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0. 4. 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까지 지원확대.
- 고용노동부(2021. 5. 11.). 고용행정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8. 27.). 소통과 배려의 새로운 디지털 공동체 실현.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0. 9. 24.).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 교육부 보도자료(2020. 3. 27.). 체계적인 원격수업을 위한 운영 기준안 마련.
- 교육부 보도자료(2020a. 8. 11.).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마련.
- 교육부 보도자료(2020b. 8. 11.).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교육부 보도자료(2020. 8. 16.).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
- 교육부 보도자료(2020. 8. 25.).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적극적 조치로서 수도권지역 전면 원격수업 전환
- 교육부 보도자료(2020. 8. 27.). 2학기 원격수업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 교육부 보도자료(2020. 9. 15.).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학사 운영 및 원격 수업 질 제고 관련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 교육부 보도자료(2020. 10. 11.).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10.11.)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20. 11.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
- 교육부 보도자료(2021. 1. 19.).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교육부 보도자료(2021. 2. 18.). 교육부, 안전한 신학기 개학·개강을 위한 준비 상황 점검.
- 교육부 보도자료(2021. 3. 18.). 새 학년 학교 운영 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지원 계획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21. 6. 2.).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학습 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발표.
- 교육부 보도자료(2021. 8. 9.). 2학기 학사운영 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
- 교육부 보도참고자료(2020. 12. 6.).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 운영 조치사항 등 안내.
-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보도자료(2020. 9. 15.).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의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질 제고 관련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협의 및 결정사항.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 9. 30.).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학대 대책 보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22.).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5. 11.). 아동돌봄쿠폰으로 동네 상권에 활력 불어 넣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5. 29.). 어린이집 휴원 계획 해제.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8. 28.).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등 원제한 등 조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4. 22.). 어린이집 방역 관리 이행 사항 점검한다.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 1. 7.). 보건복지부 1차관, 어린이집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 실시.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 3. 3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접종, 장애아 돌봄 교직원·보육교사 4월부터, 일반교직원 6월부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1. 7. 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도자료(2018. 3. 18.). 아이가 보내는 위기 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2. 28.). 아이돌봄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부담

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15.).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11. 22.). 코로나19 극복, 돌봄·가족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1. 19.).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2. 23.). 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7. 7.).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계기, 아이돌봄 지원 사업 운영 점검.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7. 24.).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p 상향.

정부합동 보도자료(2020. 2. 28.). 안전하고 촘촘한 긴급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2021. 7. 20.). 코로나19 이후 근로형태 변화 및 노동환경 전망조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0. 5. 3.). 「긴급재난지원금」지급 개시.

〈신문기사 및 인터넷 기사〉

뉴스시스. 2020. 3. 31. 유치원 무기한 개학 연기...긴급돌봄도 연장 수순,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331_0000977109&cID=10201&pID=10200에서 2020. 5. 28. 인출.

뉴스에듀. 2020. 5. 31. 어린이집 등원 '휴원 해제', <http://www.newsedu.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89>에서 2021. 6. 1. 인출.

동아일보. 2020. 2. 13. 위기의심아동 파악하고도... 실제 방문조사 10명중 1명 밖에 안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213/99665614/1>에서 2021. 7. 1. 인출.

- 동아일보. 2020. 6. 10. 경보망 느슨한 새... 위기의 아이들 학대에 '신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610/101439154/1>에서 2021. 6. 14. 인출.
- 베이비뉴스. 2020. 8. 18. “코로나19 보육 공백, 공동육아로 해결해볼까요?”,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061>에서 2021. 6. 12. 인출
- 연합뉴스. 2021. 1. 9. 작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이례적 감소...“실제론 많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8162400004>에서 2021. 5. 27. 인출.
- 이데일리. 2019. 8. 21. 탈북모자 비극 막을수 있었다...복지부 위기아동 포착하 고도 놓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5126622589616&mediaCodeNo=257>에서 2021. 7. 2. 인출.
- 한겨레. 2021. 10. 13. 기후위기 시대, 자연의 눈으로 복지를 재설계하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14951.html에서 2021. 10. 19. 인출.
- 한국일보. 2020. 3.19. 한부모 가족 절반가량 “코로나 사태로 생계 끊겨 힘들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3191581748396>에서 2021. 6. 8. 인출.
- 헤럴드 경제. 2020. 6. 26. 아동학대 근절, 대책 필요하나 원활한 작동이 더 중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626000511>에서 2020. 6. 29. 인출.
- MBC 뉴스. 2021. 3. 10. 교육부 “온라인클래스·e학습터, 주말 이후 안정화 기대”,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14502_34873.html에서 2021. 6. 29.인출.
- News 1. 2021. 1. 19. 공간은 학교가, 운영은 지자체가... 학교돌봄터 1500실 신설, <https://www.news1.kr/articles/?4185564> 2021. 10. 11 인출.

<홈페이지>

- 우리동네 돌봄공동체 홈페이지 <https://dolbomnetwork.kr/introduce/>에서 2021. 6. 12. 인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에서 2021. 12. 10

인출.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skills/>에서 2021. 6. 10
인출.

Restructuring the ECEC and childrearing system for the post-covid19 time

Yoon Kyung Choi, Keun Jin Kim,
Ick-Joong Chung, Young Choi, Shinyeong Song

The covid-19 pandemic tremendously impacted the ECEC environment and system in Korea, by closing many ECEC public programs and facilities. To understand this impact and figure out the impending issues and problems, this study used multiple strategies, including a nationwide survey of parents and workforce in ECEC and child-welfare facilities; a review of national policies and guidelines for child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Based on the collected multiple data, this study analyzed how the pandemic has reshaped the ECEC and childrearing arena and ECE experiences and daily lifives of you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hroughout the past two years.

This study focused on the three main themes as follows, concerning the restructuring of childcare support system and policies for the post-pandemic time. First, the dual ECEC system of child care and educaiton revealed the gap of pandemic coping in childcare center and kindergarte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curriculum and pedagogy during the center closing and emergency care system. Second, covid-19 pandemic led to a huge change in the labour market of working parents and the on-off working styles. Thus the parenting support programs need to adjust the connection and the compatiblity among service, time, cash supports. Third, the most disadvantaged area(blind spot) such as the detection of child abuse and the child welfare facilities were reviewed and the improvement issues were discussed and proposed.

Considering the future agenda of Korea (low fertility rate, climate

crisis, digitalization, well-being and competence), the three main themes and improvements for better working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nd programs, need to be considered for policy making and program implementat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pandemic has highlighted already existing problems in the fragmented ECEC, primary education and care, and the child-welfare system. Pandemic-related problems may give rise to greater support for better integrated systems and consolidation in the public-private sectors but might also lead to support for an more expanded, comprehensive child care support system including mental health care and counseling, primary school education and care, and the community involvement.

Keyword: Covid-19 pandemic, Post-covid19, childcare system, ECEC curriculum, ECEC integration, transition, child allowance

부록 1. 부모 조사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에 관한 부모 의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연구소에서는 2021년 기본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의 일환으로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육아 서비스 이용과 과정상의 변화, 가정내돌봄 및 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인식,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여쭙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향후 아동 대상의 육아지원 및 교육·보육·돌봄 정책의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상희

※ 응답기한:

설문 문의: 육아정책연구소 02) 398-7750, 7706 song@kicce.re.kr

설문 응답 일자

2021년 10 월 _____ 일

SQ5. 귀 댁의 자녀의 생년과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응답해주세요

	5-1. 생년	5-2. 성별		5-3. 이용기관							
		남	여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기관 미이용	초등학교	중학교 이상	초등돌봄이용	
		1	2	1	2	3	4	5	6	7	
1. 첫째 자녀	()년										
2. 둘째 자녀	()년										
3. 셋째 자녀	()년										
4. 넷째 자녀	()년										

//SQ5-3=1.어린이집 OR 2.유치원 응답자(미취학자녀가 1명인 경우 중복선택 불가)//

SQ6-1. 현재 자녀가/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어린이집 기관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1. 국공립어린이집
- 2.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어린이집
- 3. 민간어린이집
- 4. 가정어린이집
- 5. 직장어린이집
- 6. 부모협동어린이집
- 7. 국공립유치원
- 8. 사립유치원
- 9. 기타()

//SQ5-3=7.초등돌봄이용 응답자//

SQ6-2. 현재 자녀가/자녀들이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중학생 대상 공공 돌봄서비스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1. 초등돌봄교실
- 2. 초등방과후과정
- 3.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 4.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 5. 방과후아카데미(여성가족부)
- 6. 온종일돌봄센터/지자체돌봄센터(각 지자체)
- 7. 기타()
- 8. 잘 모름

//SQ5. 1어린이집, 2유치원, 5초등학교 응답자 대상//

SQ6-3. 귀 댁의 자녀가/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는 현재 주5일 정상적인 등원/등교를 실시(즉 휴원/등교제한/긴급돌봄체제/집에서원격수업 실시가 없음)하고 있습니까?

구분	1	2	9
	예	아니오	잘 모름
어린이집을 다니는 자녀			
유치원을 다니는 자녀			
초등학교를 다니는 자녀			

//SQ6-3=2.아니오 응답자//

SQ6-3-1. 현재 주5일 정상적인 등원/등교를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타 응답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휴원기간임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
2. 주중 일부 원격수업 실시중
3. 주5일 모두 원격수업 실시중
4. 기타(적어주세요: _____)

SQ6-4. 귀 닥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맞벌이
2. 외벌이

SQ7. 귀하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4. 구직 중
5. 미취업

SQ7-1. 귀하의 배우자의 취업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4. 구직 중
5. 미취업
6. 비해당(부재 등)

SQ8. 귀 닥의 다음의 항목별 해당 여부를 표기해주시시오.

	1	2	3	4
	현재 그러함	과거 그러함	아님	모름
1. 기초생활수급여부				
2. 법정차상위계층 여부				
3. 다문화가족 여부				
4. 한부모가족 여부				
5. 조손가족 여부				
6. 장애가족 여부				
7. 장기입원·질환 여부				

//SQ8-6(장애가족 여부)=1.현재 그러함 OR 2.과거 그러함 응답자//

SQ8-1.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분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부모
2. 자녀
3. 기타(_____)

SQ9. 장기입원/질환을 갖고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해당되는 분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1. 부모
2. 자녀
3. 기타(_____)

팬데믹으로 인한 자녀양육가구의 사회경제적 변화

Q1. 귀 닥 및 본인의 경제활동과 소득, 근로시간 및 가족관계 등 사회경제적 활동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전-후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조손가족의 경우 조부모님은 부-모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현재 상황/수준(2021년 10월)을 팬데믹 전(2019년) 과거 일상과 비교하여 - 그 발생빈도가 증가 또는 감소 그 질적 측면이 좋아짐 또는 나빠짐					
	1	2	3	4	5	6
	상당히 줄어듦	약간 줄어듦	변화 없음	약간 늘어남	상당히 늘어남	비해당
가구 총 소득						
- 부 근로소득						
- 모 근로소득						
가구 총 지출						
- 자녀 돌봄비용 지출						
- 자녀 사교육비 지출						
근로시간						
- 대면 근로시간(오프라인 출근)						
- 비대면 근로시간(온라인 근무)						
- 재택근무시간						
자녀를 직접 돌보는 시간						
자녀의 수업과 공부를 챙기고 지원하는 시간						
여가 및 문화활동 시간						
휴식시간						
신체활동시간						
바깥활동시간						
TV/미디어 이용 시간						
온라인 소통 시간(SNS, 화상통화, 채팅, 유튜브 등)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시간						
부모-자녀 관계						
부부 관계						
부 경제활동(취업상태)						
모 경제활동(취업상태)						

Q2. 귀 댁에서는 2020년 2월 이후 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두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로 나누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직장을 그만 둔 적 있음	직장을 그만 둔 적 없음	비해당 (일하지않음)
부			
모			

Q2-1. (Q2에서 1.그만둔적 있음 응답자) 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해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타 응답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워진 직장 상황으로 인해
2. 자녀 돌봄 및 교육을 위해
3. 개인적인 상황 및 선택으로
4. 기타(적어주세요:)

Q3. 2020년 2월 이후 팬데믹기간 귀하가 경험한 자녀 양육과 돌봄, 교육(학업쟁기 등),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하여 긍정적 영향 중 어떤 것이 더 크다고/줬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2. 부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3. 비슷하다
4.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5. 긍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Q4. 귀하는 팬데믹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다음 중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1. 2021년
2. 2022년 상반기
3. 2022년 하반기
4. 2023년
5. 2024년 이후
6.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음(위드코로나 상황으로 살게됨)
7. 기타 (적어주세요:)

Q5. Covid-19 팬데믹이 종식되고 포스트코로나 상황이 된다면 자녀양육과 돌봄 및 일생활 균형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다
2. 변화가 별로 없을 것이다
3. 보통
4. 변화가 약간 있을 것이다
5. 변화가 매우 클 것이다

자녀양육가구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변화

Q6.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음 보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타 응답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 휴원·휴업 기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를 다니지 않고, 주로 집에서 가정내 양육을 함
2. 휴원·휴업 기간 다니던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초등돌봄교실 등) 이용을 지속하였음 (긴급돌봄 이용 등)
3.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기존에 이용하던 기관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이용함(학령변화에 따른 이동/변화는 제외)
4. 돌보는 사람(예: 아이돌보미, 민간베이비시터 등) 이용을 그만 둠/잠정 취소함
5. 조부모/친인척에게 돌봐달라고 하여 도움을 받음
6.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Q7. 현재시점 귀택의 막내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돌봄 유형 및 서비스 해당 항목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가장 어린 막내자녀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현황		2021년 현재시점 이용 모두 체크		미래에 현재와 유사한 재난상황이 다시 올 경우: 귀하는 다음 중 어떠한 서비스를 선택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이용중	아니오 -이용하지 않음	
부모	1-1. 부 (낮시간에 돌봄)			
	1-2. 모 (낮시간에 돌봄)			
	1-3. 부모가 함께 (낮시간에 돌봄)			
인력	2. 조부모/친인척 돌봄 이용			
	3.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이용			
	4. 민간 베이비시터/돌보미 이용			
영유아 기관	5. 어린이집 이용(긴급돌봄 포함)			
	6. 유치원 이용 (원격수업, 긴급돌봄 포함)			
	7. 시간제보육/돌봄 이용			
사교육 /사설	8.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 이용 (놀이학교, 영유아치원 포함)			
	9. 영유아 사교육 (시간제학원, 학습지 등)			

이용 현황		2021년 현재시점 이용 모두 체크		미래에 현재와 유사한 재난상황이 다시 올 경우:
		예 -이용중	아니오 -이용하지 않음	귀하는 다음 중 어떠한 서비스를 선택하시게 될 것 같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해주세요.
	10. 영유아 사설놀이공간 (예: 키즈카페 등)			
공공	11. 육아종합지원센터			
	12. 공동육아나눔터			
	13. 육아공동체/마을공동체			
	14. 자녀 혼자있음(주중에 하루라도)			
초등	15. 초등돌봄 이용			
	15-1. 초등돌봄교실 (뉴초등 긴급돌봄)			
	15-2.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15-3. 지역아동센터			
	15-4. 온종일돌봄(지자체 돌봄센터)			
	15-5.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15-6. 방과후아카데미 (여성가족부)			
	15-7. 기타(적어주세요:)			
초등사 교육	16-1 학원 - 학습관련			
	16-2 학원 - 예체능 관련			
	16-3 학원의(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 수강 등)			
	16-4 사교육 기타(적어주세요:)			
기타	17.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 (도서관등)			
	18. 문화/오락/체험활동			
	19. 기타 (적어주세요:)			

돌봄공백 발생 여부

Q8. 2020년 2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귀택의 자녀양육에 이전에 없던 돌봄공백이 발생하였습니까?

※ 여기서 ‘돌봄공백’이란 낮 시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당장 자녀돌봄이 문제가 되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1	2	3	4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어느 정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2020년				
2021년				

Q9. 귀하의 자녀/자녀들은 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업기간 제공되는 긴급돌봄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1. 이용하지 않았다 2. 가끔 이용하였다. 3. 자주/많이 이용하였다

Q10. 휴원·휴업 기간 긴급돌봄의 제공이 귀택의 돌봄공백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않다 2. 별로 그렇지않다 3. 보통
4. 어느정도 그렇다 5. 상당히 그렇다
6. 비해당: 휴원휴업기간 긴급돌봄 이용한 적 없음

Q11. 귀하의 막내자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에서 제공한 긴급돌봄을 이용한 기간을 해당 월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해당 월의 과반 이상을 이용한 경우 표기해주세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2021년											/	/

긴급돌봄 이용 여부/실제 및 긴급돌봄에 대한 평가

//Q8(긴급돌봄 이용 여부)=2~3 선택한 응답자//

Q12. 2020-2021년 긴급돌봄을 이용한 경우 이용 이유는 무엇입니까? 긴급돌봄 이용 전반을 고려하여, 다음 항목 중 1~3순위를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기1〉 이용이유

1. 긴급돌봄이 제공되어서
2. 현재 맞벌이 출근 및 가정의 상황으로 가정내양육이 불가능하여
3. 가정내양육을 할 수 있으나, 가정내양육만으로 아이(들)를 돌보는게 쉽지않아
4. 비용 지원이 되어서(긴급돌봄 이용 자격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아서)
5. 다들 보내는 분위기여서
6. 방역지침 준수 등 기관/학교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7. 자녀의 또래관계 등 다양한 경험과 발달 및 학습을 위하여
8. 기타(적어주세요: _____)

Q13. 2020-2021년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모든응답자 대상) 이용 이유는 무엇입니까? 긴급돌봄 이용 전반을 고려하여, 다음 항목 중 1~3순위를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기2〉 미이용이유

1. 공식적인 휴원·휴업 조치 (즉 긴급돌봄 이용 자제 권고로)
2.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
3. 가정내돌봄이 가능하여
4. 이용의향이 있(었)으나,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없어(기관/학교에서 이용이 어렵다고 함)
5. 이용의향이 있(었)으나 어디에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장소/방법/절차를 몰라
6. 다들 안 보내는 분위기여서
7. 비용이 부담되어
8. 원하는 시간/시기에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워서
9.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Q14. 다음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자녀양육가구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귀 댁에서 경험하신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1-3순위를 적어주세요.

(보기에 없는 경우, 기타 응답에 적고 1-3순위에 반영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기〉

1. 모 출근 및 근무(직장생활 유지)
2. 부 출근 및 근무(직장생활 유지)
3. 가계 수입 변화(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 4-1. 자녀돌봄비용 증가
- 4-2. 자녀 사교육비 증가
5. 자녀 돌봄공백의 발생 (자녀혼자/자녀들끼리있음, 식사거름 등)
- 6-1 자녀 양육 전반(예: 가정내돌봄 부담)
- 6-2. 자녀 온라인수업 및 학습 지원의 어려움
- 6-3. 자녀 학업/교과과정의 결손, 공백
7. 사회적 교류와 바깥 활동의 제약
8. 코로나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9.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우울/스트레스(심리정서적 건강)
10.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상의 어려움
11. 감염확진자 인근 발생 및 감염 관련 직접 경험(예: 치료, 자가격리, 한시적 직장폐쇄 등)
12. 자녀 마스크 착용 및 관리
13. 특별히 없음
14.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대한 의견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해 공적 돌봄 및 교육 체계의 휴원·휴업·휴관 조치를 취하고, 긴급돌봄체제로 전환하여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학교/기관 재원과 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돌봄센터 등은 휴원·휴업 조치와 등교/등원의 재개를 반복하며 온·오프라인의 과정과 가정내돌봄 지원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밖에 자녀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자녀돌봄휴가(연간 10일, 1일 5만원 유급지원)를 제공하고, 유연근로제 실시를 장려하였으며, 자녀긴급돌봄 쿠폰(40만원 현금지원)을 제공하고 및 휴원기간 부모에 대한 유치원의 유아학비 감면조치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유지하였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돌봄교실에서는 아동의 외부활동 및 신체활동을 최소화하고 마스크착용 하에 거리두기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Q15. 귀하는 지난 2년간 육아분야의 Covid-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전반적으로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1. 육아분야 팬데믹 대응이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육아분야 팬데믹 대응이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보통
4. 육아분야 팬데믹 대응이 어느정도 잘 이루어졌다
5. 육아분야 팬데믹 대응이 매우 잘 이루어졌다

Q16. 자녀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안과 지원 중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시는 1, 2순위를 응답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보기〉

1. (사회적거리두기에 기초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공공기관 휴원·휴업 조치
2. 가정내양육 최우선 권고
3.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긴급돌봄 시행
4. 비대면 온라인활동 및 원격수업의 실시
5. 2021년 2학기 전면 등교 실시
6. 가족돌봄휴가 적용 및 이용기준 완화
7. 유연근로제 및 재택근무 사용 권장
8. 아동수당 추가 지급(4개월 지역화폐, 취약계층 추가지원)
9.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Q16-1. 자녀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안과 지원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응(1)-검사, 자가격리 등의 대응체계

Q17. 다음은 육아분야 기관/학교에서 이루어진 코로나 팬데믹 대응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막내자녀가 이용하는 기관/학교를 중심으로 항목별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1	2	3	4	5	6	9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잘 모름	비해당
대응 지침/이행	원내 및 주변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시 우리 원에서의 대응은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소독 방역	팬데믹기간 우리 기관/학교에서는 소독·방역과 관리가 잘 이루어졌다							/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기관/학교 대상 소독·방역 및 관리 지침(예: 약품농도, 시행방법, 횟수 등)은 검증된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팬데믹기간 기관/학교에서의 소독·방역 및 관리 방법(예: 약품농도, 시행방법, 횟수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원의 (긴급돌봄 등) 반 구성과 인력 배치와 운영은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원의 공간 운영은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코로나 대응(2)-유치원/어린이집/학교 활동 관련

Q18. 귀하의 막내자녀가 이용하는 팬데믹기간 등원/등교 아동 및 미등원/등교 아동을 대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셨습니까? 막내자녀와 관련하여 귀하의 경험에 기초하여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2	3	4	5	6	9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잘 모름	비해당
긴급돌봄과정	긴급돌봄의 운영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긴급돌봄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필요한만큼 이용하지 못했다							
	팬데믹이 장기화 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제한이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미래에 또다른 재난상황이 온다고 가정할 경우, 긴급돌봄 이용 기준은 현재수준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 원격수업	팬데믹 기간 온라인활동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였다							
	팬데믹기간 온라인활동 및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기관/학교에서는 휴원·휴업 기간 및 원격교육 시 자녀의 건강과 현 상황을 파악하였다							
	기관/학교에서는 가정에서 가능한 온·오프라인 교육활동을 안내하고 관련정보(예: 사이트 정보, 동영상자료)를 제공하였다							
	기관/학교에서는 동영상수업을 직접 만들어 전송 및 탑재하였다							
	기관/학교에서는 원격교육을 학급 아이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운영하였다							
	기관/학교에서는 놀이/학습꾸러미와 물품 등을 가정에 지원하였다							
	휴원·휴업 및 원격교육 기간 동안 기관/학교와 가정간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활동 및 원격수업의 내용과 질은 우수하였다							
	아동 대상의 온라인활동과 원격수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과정으로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항 목		1	2	3	4	5	6	9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려함	상당히 그려함	잘 모름	비해당
	이제는 가정에서의 원격수업 및 온라인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 준비가 잘 되어있다							
	주변에 미등원/미등교가 지속되는 아동 중 건강 및 안녕에 대해 잘 몰라 걱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모 니 타 라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양육가구에서 감지되는 가정폭력과 학대의 징후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휴원·휴업 및 원격교육이 종료된 이후에도 미등원이 지속되는 경우, 아동에 대한 등원 및 가정방문 등의 별도의 지원체계와 대응이 필요하다							
	팬데믹 대응에 있어, 유치원과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의 대응은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다							
기타	(적어주세요:)							

코로나 대응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의견(3)

Q19. 전반적으로 2020~2021년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코로나 대응은 다음의 각 단계 및 상황/요소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택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 항목별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2	3	4	5	9
	전혀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별로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잘 이루 어짐	상당히 잘 이루 어짐	잘 모름
1	코로나 팬데믹 발생에 따른 조치 전반(긴급돌봄/휴업, 원격수업, 대응지침 등)					
2	긴급돌봄 운영 전반					
3	교사를 필수인력(essential worker)으로 지정					
4	아동의 성장·발달 및 아동관점의 대응					
	- 아동의 바깥 및 신체 활동					
	-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					
	- 기본생활습관					
	- 언어발달					
5	- 인지발달					
	- 심리정서적 건강 (행복/웰빙,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5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예: 다문화, 한부모, 조손, 빈곤, 장애/질환 가정 등)					
	결손/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					
6	위기가구/아동에 대한 감지와 발견, 신고 및 대응체계					
	재난상황 자녀양육가구/부모에 대한 가정내돌봄 지원 (예: 부모 대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육아휴직, 돌봄휴가, 긴급돌봄지원금 등의 실행정도)					

Q20. 코로나 팬데믹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재난 단계별로 정부의 정책은 얼마나 잘 준비 또는 대응하였다고/(또는)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귀 맥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경험에 기초하여 항목별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2	3	4	5	6
		전혀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별로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잘 이루 어짐	상당히 잘 이루 어짐	잘 모름
재난 단계 별	(팬데믹 이전) 재난 예측과 대응 준비 (대응체계)						
	(팬데믹 기간: 2020년) 코로나 대응 초기						
	(팬데믹 기간: 2021년) 코로나 대응 중기이후						
	(팬데믹 종식 이전) 재난 회복단계에 대비한 전략과 계획						
	(팬데믹 종식 이후-포스트코로나)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한 아동 돌봄과 교육에 관한 미래대응의 전략						

Q21.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대해 귀 맥의 자녀(들)는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추가 의견이 있으면 기타 응답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 전혀 그렇지않다 2. 별로 그렇지않다 3. 보통
- 4. 어느정도 그렇다 5. 상당히 그렇다 6. 잘 모르겠음
- 7. 기타의견(적어주세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영향 및 사각지대와 격차

Q22. 귀하의 막내자녀의 발달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로서 귀하가 자녀에 대해 체감하시는 바를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자녀의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자녀의 발달에 늦어진 부분이 있음					
(아이들 간에) 발달 및 학습의 격차가 있음					
자녀에게 바깥활동 및 신체활동의 공백으로 인한 결손이 있다고 생각함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의 결손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연					
언어발달 지연					
인지발달 및 학습능력 지연					
심리정서적 건강 문제(우울, 불안, 무기력을 보임)					
스트레스로 짜증/다툼 및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임					
행복과 웰빙이 증가함					
기타(적어주세요:)					

Q23.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부모와 교사 등 양육·교육환경과 아동 및 사회전반에 관해 제시된 항목의 문제 또는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귀하의 경험과 주변에서의 간접경험의 경험을 토대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2	3	4	5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심각함	상당히 심각함
부모/가족	가정내돌봄 부담					
	부모의 양육역량					
교사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교사의 웰빙					
	교사의 정신건강(소진, 스트레스, 우울 등)					
유치원-어린이집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취학전 유아교육·보육(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교육의 연계					

항 목		1	2	3	4	5
		전혀 심각하지 않음	별로 심각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심각함	상당히 심각함
	국공립과 사립 기관의 격차					
	교육과 돌봄의 구분 및 차이					
아동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아동의 정신건강					
	아동의 신체건강					
사회 전반	영유아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동 수의 감소(저출생의 심화)					
	기후변화의 위기					
	육아친화적 양육환경					
기타	(적어주세요:)					

Q24. 귀하 및 귀 자녀(들)의 현재에 대해 다음 항목에 응답해주시시오.

귀하 본인	전혀 좋지 않음	별로 좋지 않음	보통	약간 좋음	상당히 좋음	비해당
나의 삶의 질						
나의 부모됨 역량(양육역량)						
양육의 어려움과 부담, 스트레스 관련						
업무스트레스 관련						
부모의 성평등 양육참여						
육아행복(부모역할의 행복감, 자긍심)						
일-생활균형/일-가정양립						
귀 덕의 자녀(들)	전혀 그렇지 않 음	별로 그렇지 않 음	보통	약간 그려함	상당히 그려함	
집에서 돌봄/보호를 제대로 받음						
집밖에서 돌봄/보호를 제대로 받음						
돌봄공백(예: 자녀 혼자/자녀끼리 있음, 아픈데 돌봐줄사람이 없음 등)의 발생						
식사/끼니를 거름						
자녀(들)의 삶의 질/행복						
기타(적어주세요:)						

Q34. (전문적인 소견과 진단에 앞서) 문제행동과 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모니터링 및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시 상담·치료 체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
| 3. 보통 | 4. 어느정도 필요하다 |
| 5. 상당히 필요하다 | |
| 6.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 |

팬데믹 이후 육아 및 돌봄·교육 분야 포스트코로나 미래 어젠더

Q35. 귀하는 Covid-19 팬데믹과 유사한 (혹은 다른 형태의) 재난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없다고 생각한다 | 2.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
| 3. 보통정도로 생각한다 | 4.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
| 5.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 |

Q36. Covid-19 팬데믹과 유사한 (혹은 다른 형태의) 대규모 재난상황이 미래에 다시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가장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되어야 할 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 가정내 자녀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현금지원의 강화
2. 부모의 가정내 자녀돌봄이 가능하도록 일가정양립 및 시간지원의 강화(예: 유연근로제, 비대면 재택근무, 돌봄휴가/돌봄휴직, 근로시간단축/육아시간지원 등)
3. 긴급돌봄체계의 강화
4. 재난상황에서의 공적인 교육·보육·돌봄 체계 운영 지속
5. 부모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선택 및 연계 지원 강화 (예: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체서비스 이용의 가능성 제고)
6.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돌봄이 지속 가능한 육아분야 AI, ICT, 에듀테크 및 스마트환경의 구축
7.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Q37. 귀하가 생각하시는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음에 제시된 항목 중 우선순위 1~2가지를 선택해주시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1. 일자리의 감소
2. 4차산업혁명/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3. 4차산업혁명/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 및 사각지대의 심화(취약계층의 어려움 증가)
4. 양육지원체계의 전반적 강화 및 선진화
5. 출산 및 아동수 감소로 인한 새로운 삶의 양식(뉴노멀) 등장과 이에 대한 적응
6. 전반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인프라 소멸과 위기, 사회경제적 혼란과 어려움
7.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친환경/그린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8.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친환경/그린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양식(뉴노멀) 등장과 이에 대한 적응

Q38. 팬데믹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 육아분야 미래대응 전략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제시된 항목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1, 2순위를 응답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1. 저출산/저출생에의 실질적 대응력 제고
2. 기후위기에의 실질적 대응력 제고
3.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비용지원체계 강화
4. (비용지원 외) 질적·내용적 양육지원체계의 강화(아동발달모니터링 및 지원, 상담, 부모/교사의 역량 강화)
5. 시간지원의 강화(예: 유연근로제, 비대면 재택근무, 돌봄휴가/돌봄휴직, 근로시간단축/육아시간지원 등)
6. 서비스 지원의 강화(다양한 서비스 종류 및 서비스 이용시간/질 강화 등)
7. 아동중심의 교육·보육·돌봄 정책 기조 전환
8. 공적 교육·보육 체계 공고화 및 돌봄운영과의 연계(예: 재난상황 교육·돌봄체계 구축)
9. 디지털사회 전환에의 적극적인 대응: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돌봄이 가능한 AI, ICT, 에듀테크 및 온-오프라인 스마트환경 구축
10. 기후위기 대비 교육·학습 체계 및 교육과정의 변화
11.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Q39. 위와 같이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격차와 공백 및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육아분야 포스트코로나 미래 대응 전략으로서 중요한 어젠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제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제안해주시고, 5점척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1	2	3	4	5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함	상당히 중요함
1 유아교육-보육 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2 공-사립 격차 해소					
3 교육-돌봄 격차 완화					
4 유아교육-초등교육 연계(유초연계)					
5 (무상, 의무교육 등) 학제 개편					
6 저출생 등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					
7 (AI/메타버스/로봇/에듀테크 등) 디지털사회로의 변화 대응					
8 기후변화/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SDG)의 전략					
9 미래세대의 양성-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웰빙 제고					
10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11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					
12 취약아동/가구 지원체계 보강					
13 전 국민 평생 학습·교육 체계로의 전환					
14 양질의 돌봄생태계 공고화					
15 (제언: _____)					

Q40. 다음에 제시된 육아 및 교육·돌봄 분야의 중장기 대응 전략에서 중요한 과제를 1~2순위로 꼽으면 무엇인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Q41. 귀하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육아분야 최우선의 과제와 전략, 변화가 필요한 재구조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D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20대
- 2. 30대
- 3. 40대
- 4. 50대
- 5. 60대 이상

DQ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수료, 중퇴, 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류

- 1. 고졸 미만
- 2. 고졸
- 3. 전문대(2~3년제)졸업
- 4. 4년제 대학 졸업
- 5. 대학원 이상

//SQ7=1, 취업 or 2. 휴직 중만 질문//

DQ3.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관리자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3. 사무 종사자
- 4. 서비스 종사자
- 5. 판매 종사자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9. 단순노무 종사자
- 10. 군인

DQ4. 귀하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무급가족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1. 임금근로자
-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 DQ7로 이동
-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 DQ7로 이동

DQ5. 귀하의 고용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정규직
- 2. 비정규직(계약직)

DQ6. 귀하의 근무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전일제
- 2. 시간제(파트타임)

DQ7. 귀하의 1주일 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출퇴근, 휴식시간 제외하고 기록

주당 평균 ()시간

DQ1-1. 귀하의 배우자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20대
- 2. 30대
- 3. 40대
- 4. 50대
- 5. 60대 이상

DQ2-1. 귀하의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수료, 중퇴, 재학/휴학은 이전 학력으로 분류해주세요.

- 1. 고졸 미만
- 2. 고졸
- 3. 전문대(2~3년제)졸업
- 4. 4년제 대학 졸업
- 5. 대학원 이상

DQ3-1. 귀하의 배우자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1. 관리자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 3. 사무 종사자 | 4. 서비스 종사자 |
| 5. 판매 종사자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9. 단순노무 종사자 | 10. 군인 |

DQ4-1. 귀하의 배우자의 근로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무급가족종사자는 돈을 받지 않고, 일주일에 18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고용주 등) →DQ7-1로 이동
3. 무급가족종사자(18시간 이상 근로만 응답) →DQ7-1로 이동

DQ5-1. 귀하의 배우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계약직)

DQ6-1. 귀하의 배우자의 근무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단수]

1. 전일제
2. 시간제(파트타임)

DQ7-1. 귀하의 배우자의 1주일 당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출퇴근, 휴식시간 제외하고 기록

주당 평균 ()시간

DQ8. 다음 중 귀하 및 배우자의 근로형태가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해주세요.

구분	부	모
본업 외 부업/아르바이트를 함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한다		
-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받아 일한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근로시간(대)와 일의 형태/양이 비정형적		
해당없음		

DQ8. 귀댁의 소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개월간의 월평균 소득(세후소득)을 기입해 주십시오.

항 목		월평균(만원)
1	부 근로 소득	월평균 ()만원
2	모 근로 소득/	월평균 ()만원
3	양육 관련 공적이전소득(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	월평균 ()만원
4	기타소득(사업 및 부업, 부동산 및 금융, 공적·사적 이전, 기타 등)	월평균 ()만원
총 합계		

DQ9. 귀 댁에서 자녀 양육(모든자녀)을 위해 지출하는 한 달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월 평균 () 만원

DQ9-1. 귀 댁에서 자녀의 사교육(모든자녀)을 위해 지출하는 한 달 평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공공아이돌보미, 육아종합지원센터/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공적 교육돌봄 서비스 이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학원/학습지/인터넷강의/문화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사교육·보육 서비스 비용을 의미합니다.)
월 평균 () 만원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조사표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어린이집 교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1년 기본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린이집 운영 및 아동발달 상의 주요 변화와 쟁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팬데믹이후 변화와 대응). 응답해주시는 내용을 통해 장기화 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어린이집의 대응과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쟁점과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단기대응),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집의 운영과 발전 방안(장기대응)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34조)에 따라 보호되오니, 정책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문의사항이나 제언은 연구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기한:

귀 원에서 현재 원감/주임교사 (또는 담임교사 경력이 (가장) 많은 교사)의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귀하는 현재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3년이상 되셨습니까? (최소 2019년부터 근무)

예 → 설문계속

아니오 → 현재 어린이집에서 3년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 3년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가 없는 경우, 경력이 가장 많은 선생님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전체 현황에 대한 응답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의 현황을 확인하시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 문의: 육아정책연구소 02) 398-7750, 7706 song@kicce.re.kr

문. (현재 기준) 귀 기관의 전체 연령별 반 수와 현원 영유아 수를 적어주시고,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반이 있는 경우, 이를 표기☑ 해주세요.

구분	기관 현황		현재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학급/반을 모두 표기☑ 해주세요.
	학급/반 수	영유아 수	
0세반	반	명	
1세반	반	명	
2세반	반	명	
3세반	반	명	
4세반	반	명	
5세반	반	명	
혼합연령반	반	명	
연장보육반	반	명	
시간연장반	반	명	
시간제보육	반	명	
장애아반	반	명	
			현재 담임 반 없음 ☐
기타(적어주세요:)	반	명	

문. 다음 항목에서 현재 귀 원의 재원아동 구성 비중을 백분율로 기입해 주세요.

- ① 맞벌이가구 기관 전체 아동 중
약 ____%
- ② 장애/치료 등 개별요구를 가진 경우
약 ____%
- ③ 저소득/한부모/조손 등 취약가구
약 ____%
- ④ 다문화가구
약 ____%

코로나 전-후 기관운영 현황 및 자원/재직 추이

문. 코로나 휴원 전-후로 귀 원의 연령별 아동 수(현원)와 반 구성 현황 및 추이를 적어주십시오.
아동이 없는 경우 0을 적어주십시오.

- 2019-2020년의 경우 긴급돌봄이 진행되던 시기의 평균적인 운영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시기	2019년 동월					2020년					2021년 현재					
	팬데믹 이전					긴급보육 운영 기간 동안 ()월 기준으로 응답함					현재 긴급보육 운영 여부: 현재 운영중 <input type="checkbox"/> 운영하지않음 <input type="checkbox"/>					
	기본 보육		연장 보육		야간 연장	기본 보육		연장 보육		야간 연장	기본 보육		연장 보육		야간 연장	
구분	반수	영유아 수	반수	영유아 수	반수	영유아 수	반수	영유아 수	반수	영유아 수	반수	영유아 수	반수	영유아 수	반수	영유아 수
현원																

주) 야간연장은 19:30에 시작

문. 팬데믹 기간 긴급보육의 운영이 귀 원의 운영과 영유아 변동에 미친/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시지요.

문. 휴원 전-후 연도별로 귀 기관의 교직원 현황에 대해 적어주십시오.

※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방역업무 등 정부/지역의 지원으로 추가 배치한 인력이 있으면 이를 구분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에 포함하지 않고 적어주세요.

(단위: 명)

구 분	원장	원감	담임 교사	연장반 전담 교사	비담임 교사 (보조교사)	보육 도우미	특수교사 (장애아 전담)	직원	기타		계
									방역 업무	(적어주세요:)	
2019년	총계										총명
2020년	총계										총명
	(※코로나로 추가 배치된 인력)										
2021년 현재	총계										총명
	(※코로나로 추가 배치된 인력)										(0 명)

주) 직원은 조리원, 영양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으로 고용된 경우

문. 2020년 2월말 코로나 발생 이후 현 시점(2021년 10월)까지, 퇴사 한 교직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없으면 0을 적어주십시오, _____ 명

문. (위 질문에서 퇴직자가 1명 이상인 경우)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 이후 현 시점까지 교직원이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에 모두 표기☑ 해주세요.

- ① (다른 기관으로의) 이직
- ② (다른 직업으로의) 전업
- ③ 입학/등록 취소 등 재원아동 수 감소로 인한 반 조정(축소)
- ④ 교직원의 개인적인 이유
- ⑤ (대체교사 등) 계약기간 만료
-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 2020년 2월말 코로나 발생 이후 현 시점까지, 신규로 채용된 교직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없으면 0을 적어주십시오, _____ 명

문.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 이후, 귀 원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와 자가격리의 경험에 대해
 최대한 아시는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 모름□에 체크해주시시오.

구분	감염 확진자 수			자가격리 경험자 수			(전체 교직원 중) 예방접종 비율	
	교직원	재원 아동	재원아동의 부모/가족	교직원	재원 아동	재원아동의 부모/가족	1차 접종	2차 접종완료
2020년	0명 모름□	0명 모름□	1명 모름□	0명 모름□	1명 모름□	1명 모름□	%	
2021년 (현재시점)	0명 모름□	0명 모름□	0명 모름□	0명 모름□	0명 모름□	2명 모름□	% 모름□	% 모름□

문. 귀하는 감염여부 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진키트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경우 0을 적어주십시오.

본인의 감염여부 검사(보건소에서): 2020년 총 2 번, 2021년 총 3 번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한 검사: 2020년 총 0 번, 2021년 총 0 번

문. 귀하는 예방접종을 하셨습니까?

1차접종여부 2차접종여부

코로나 대응(1)-검사, 자가격리 등의 대응체계

다음은 정부/지역(청)/지자체 및 귀 원에서 실시한 어린이집의 대응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1	2	3	4	5	6	9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렇함	상당히 그렇함	잘 모름	비해당
검사 실시	정부/지자체의 교사에 대한 감염여부 검사의 실시(예: 시행 기준, 시기와 방법, 횟수 등)는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교사의 자가진단 실시가 좀 더 활성화 될 필요가 있었다							
예방 접종	정부/지자체의 교사에 대한 예방접종의 시행(시행 기준, 시기 등)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교사에 대한 예방접종 시기는 좀 더 일찍 이루어졌어야 한다							
대응 지침 / 이행	원내 및 주변에 자가격리 및 확진자 발생 시 어린이 집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해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대응지침>은 잘 마련되어있다							
	원내 및 주변에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발생 시 우리 원에서의 대응은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교사로서 자가격리 및 확진자 발생 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있다							
전면 휴원	집단 확진자 발생으로 어린이집이 일시 전면휴원을 하는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 <대응지침>은 잘 마련되어있다							
소독 방역	팬데믹기간 우리 원에서는 어린이집 소독·방역 지침과 관리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다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소독·방역 및 관리 지침(예: 약품농도, 시행방법, 횟수 등)은 검증된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팬데믹기간 어린이집에서의 소독·방역 및 관리 방법(예: 약품농도, 시행방법, 횟수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력 운영	팬데믹기간 대체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대체인력의 파견과 배치는 잘 이루어졌다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원의 인력 배치와 운영은 적절히 잘 이루어졌다							

문. 어린이집에서의 코로나 관련 대응체계와 지침, 현장에서의 실행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응(2)-교사 배치 및 근로/처우

문. (교사 근무/배치 현황) 귀 원에서는 2020-2021년 휴원기간(긴급보육 운영) 및 정상운영 기간 교사의 근무 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기☑ 해주세요.

항 목	2020년	2021년(현재까지)	
	휴원기간 ()월 기준으로 응답함	현재시점	
교사 전원 출근/정상 근무			
교대근무			
재택근무 운영			
당직교사 위주로 출근			
1일 근로시간 조정(근로시간 단축)			
무급휴가 사용			
유급휴가 사용			
기관 문을 열지않은 날이 일부 있음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로제 적용			
어린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가족돌봄휴가 등 적용			
급여 조정			
기타 (적어주세요:)			

문. 팬데믹 이전 대비 교사의 근로현황과 아동의 재원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다음의 항목별로 응답☑ 해주세요(5점척도).

	교사들은....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려함	상당히 그려함
재원율	재원아동이 줄었다					
교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사의 근무패턴과 방식에 변화가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사 업무량이 증가하였다					
	교사의 소독/방역 등 추가된 업무가 부담이 된다					
	휴원기간 교사의 업무량이 줄었다.					
과정 운영	휴원기간 등원아동이 줄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 및 하루일과가 편안해진 측면이 있다					

	교사들은....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려함	상당히 그려함
전반	휴원기간 등원아동이 줄어 누리과정/보육과정 운영 과 교사의 역할 수행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휴원기간 등원아동이 늘어남에 따 라 반/학급 운영은 팬데믹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팬데믹 기간 등원 아동 수를 고려하여 기존 반/학급 을 통합 운영하였다.					

문. (앞의 질문에서 재원아동이 ‘줄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1,2,3 순위로 응답해주세요

- ① 팬데믹 발생 및 이로 인한 휴원조치(긴급보육 운영)
- ②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
- ③ (국공립기관 확대, 주변에 많은 기관 및 신규개원 등) 인프라 변화
- ④ 기관이 위치한 지역적인 특성(예: 아파트 재개발 공사중)
- ⑤ 우리 기관의 특성(규모, 유형, 경쟁력, 영아-유아반 편성현황 등)
-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코로나 대응(3) - 휴원기간 긴급보육의 운영

문. 귀 원에서 2020년 2월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긴급보육의 최고-최저 이용률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긴급보육 최저 이용률: 약 _____ %

긴급보육 최고 이용률: 약 _____ %

문. 2020-2021년 휴원기간 어린이집(긴급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경우 이용 이유는 무엇입니까?

긴급보육 이용 전반을 고려하여, 다음 항목 중 1~3순위를 적어주세요.

- ① 맞벌이가구로 낮시간 집에서 돌봄 사람이 없음
- ② 다문화/장애, 저소득/조손/한부모 등 돌봄에 대한 필요가 있음
- ③ (돌봄필요사유는 없지만, 팬데믹 장기화 등으로) 가정내양육이 힘들어서
- ④ 긴급보육 이용 자격에 대해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되어서
- ⑤ 다들 어린이집에 보내는 분위기여서
- ⑥ 방역지침 준수 등 어린이집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 ⑦ 자녀의 또래관계 등 다양한 경험과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⑨ 없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문. 2020-2021년 휴원기간 어린이집(긴급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미이용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항목 중 1~3순위를 적어주세요.

- ① 공식적인 어린이집 휴원 조치로 (즉 긴급보육 이용 자체 권고로 인해)
- ② 자녀의 코로나 감염 위험 우려 때문에
- ③ 가정내돌봄이 가능해서(예: 맞벌이가 아님, 조부모도움을 받을 수 있음 등)
- ④ 다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분위기여서
- ⑤ 원에서 부모님들에게 긴급보육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안내를 했기 때문에
- ⑥ (자녀 등원을 꺼리거나 힘들어하는 등) 개별가정 및 부모의 특성으로 인해
- ⑦ 미등원의 정확한 사유를 모름
-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⑨ 없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문. 긴급돌봄의 제공이 휴원기간동안 돌봄이 꼭 필요한 가구의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 ④ 어느정도 그렇다. ⑤ 상당히 그렇다

문. (위 질문에서 ①②그렇지않다고 응답한 경우)

긴급돌봄이 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긴급보육과정(curriculum, program)에 대해 별도의 편성·운영 지침을 전달받았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귀 원에서는 팬데믹기간 등원아동 및 미등원아동을 대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셨습니까?

실제 운영이 어떠했는지 선생님의 경험에 기초하여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2	3	4	5	9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비해당
온라인/원격수업	팬데믹 기간 온라인활동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였다						
	팬데믹기간 온라인활동 및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와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활동 및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었다						
긴급보육과정	팬데믹기간 온라인활동/원격수업 준비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자원의 제공 또는 연수 기회가 있었다						
	휴원기간 긴급보육의 운영은 개정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 맞게 편성 및 운영하였다.						
	휴원기간 긴급보육의 운영은 개정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과 구분되므로, 별도의 놀이/쉼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휴원기간 긴급보육의 운영과 정상운영 기간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의 운영 간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긴급보육적용	휴원기간에 요구되는 긴급보육 운영을 위한 별도의 과정(curriculum, program)과 편성·운영 지침이 필요하다						
	휴원조치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기준에 대해 부모님에게 설명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등원하도록 하였다						
	팬데믹이 장기화 됨에 따라 휴원조치 및 긴급보육 이용 제한이 실효성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보육지원체계개편)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미래에 또다른 재난상황이 온다고 가정할 경우, 긴급보육 이용 기준은 현재수준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휴원기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보육-연장보육은 운영시간 구분과 인력배치(담임교사-연장반전담교사)를 중심으로 적용되었다						

	항 목	1	2	3	4	5	9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려함	상당히 그려함	비해당
	휴원기간 기본보육-연장보육 과정(curriculum, program)은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가정 돌봄 지원/ 온라인 활동	휴원기간 미등원아동에 대한 가정내돌봄 지원과 (아동 건강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은 원활히 이루어졌다						
	유아의 원격교육 참여 지원과 모니터링이 원활히 이루어졌다.						
	휴원기간 미등원아동의 부모(주양육자)와 정기적으로 소통하였다						
	휴원기간 미등원아동의 건강과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휴원기간 미등원아동과 직접 소통을 하였다						
	휴원기간 가정에서 가능한 온오프라인 보육활동을 안내하고 관련정보(예: 사이트정보, 동영상자료)를 제공하였다						
	휴원기간 동영상수업을 직접 만들어 전송 및 탑재하였다						
	미등원기간 반 아이들과 함께 하는 온라인 보육활동(원격수업)을 실시간으로 운영하였다						
	휴원시간 놀이꾸러미보육활동키트와 물품 등을 가정에 지원하였다						
	미등원아동에 대한 가정내양육 지원의 역할 수행이 어려웠다						
미등원 아동 지원 및 현황	미등원기간 가정에서 이루어진 보육활동에 관한 자료나 소식을 공유하도록 하였다						
	미등원기간 아이들을 위해 언택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미등원기간에 이루어진 소통과 지원에 참여도와 호응이 좋았다						
	미등원이 지속되는 아동 대상 소통과 지원 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부모의 참여도와 호응이 낮았다)						
	휴원기간이 종료되고 정상운영이 된 상황에서 미등원아동은 일정비율 지속되었다						
	팬데믹기간 전반적으로 취약가구(조손/한부모/장애/빈곤 등) 아동의 미등원 비율이 비취약가구보다 높았다						
	취약가구 미등원아동의 경우, 가정내양육지원에 대한 참여와 호응이 비취약가구에 비해 낮았다						
모니 터링	미등원이 지속되는 아동 중 건강 및 안녕에 대해 잘 몰라 걱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아동의 건강 및 안녕에 대해 매우 우려되는 경우, 교사로서 어디에 문의하고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알고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자녀양육가구에서 감지되는 가정폭력과 학대의 징후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						

	항 목	1	2	3	4	5	9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비해당
	팬데믹 상황에서 재원아동 가구에 대해 폭력과 학대의 우려가 제기된 경우가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재원아동 가구에서 폭력과 학대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재원아동 가구에 대해 폭력과 학대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휴원기간) 취약가구(조손/한부모/장애/빈곤 등) 에서 미등원이 지속되는 아동에 대한 등원 및 가정방문 등의 별도의 지원체계와 대응이 필요하다						
	팬데믹 상황에서 부모의 민원과 요구가 증가하였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활동 및 원격수업의 내용과 질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취학전 영유아 대상의 온라인활동과 원격수업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긴급)과정으로서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를 위한 온라인활동과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와 지원, 연수가 필요하다						
	현재 온라인활동 및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와 활용에 대해 이해가 잘 되어있다						

문. 팬데믹 대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대응체계에 관해 다음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2	3	4	5	9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비해당
유보 차이	팬데믹 대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있었다						
	팬데믹 대응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팬데믹 대응에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저학년)의 대응은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다						

문. 다음은 팬데믹 휴원기간 긴급보육 및 교육과정의 온·오프라인 운영에 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제시된 2개 항목 중에 보다 가까운 (또는) 좀 더 동의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휴원기간 긴급보육/긴급돌봄의 시행과 운영에 있어,

- ◀ ① 긴급보육의 운영 취지와 이용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해달라고 적극 설명하였으며, 최대한 이용을 자제시키고자 하였음 vs.
 - ② 긴급보육의 운영 취지와 이용기준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등원시키는 경우 이에 대해 별도의 질문이나 확인없이 등원하도록 하였음

- ◀ ① 팬데믹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긴급보육의 운영과 이용 기준을 유지하는게 적절함 vs.
 - ② 팬데믹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긴급보육의 운영과 이용 기준을 유지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위 질문 ②번 응답자 대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긴급보육의 과정(curriculum, program)은
 - ①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교사가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긴급보육에 관한 국가수준의 표준안이 마련될 필요는 없음) vs.
 - ② 국가수준의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에 해당하므로, 연령별로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위 질문에서 ① 응답자 대상) 긴급보육 과정(curriculum, program)을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에 준하여 교사가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 ① 이를 위한 <운영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vs.
- ② 이를 위한 <운영지침>을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없음

◁ (모든 응답자 대상) 휴원기간 긴급보육 과정(curriculum, program)을 마련할 경우,

- ① 재원아동-미등원아동(가정내보육)으로 구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vs.
- ②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등원 아동을 대상으로 구성하는게 적절함.
(즉 긴급보육과정은 등원아동 대상, 미등원아동대상은 가정내보육지원 및 모니터링으로 구성함)

◀ 팬데믹 경험을 통해 디지털 중심의 변화가 가시화 된 상황에서,

- ①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온라인(원격수업) 편성에 대해 체계적인 연령별 표준안과 운영지침의 마련이 필요함 vs.
- ② 개정 누리과정 및 보육과정의 아동중심/놀이중심의 운영기준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국가수준 온라인(원격수업) 교육과정 표준안은 필요하지 않음. (현재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교사 자율로 편성 및 운영이 가능함)

문. 휴원기간 긴급보육 및 교육과정의 온·오프라인 운영에 관한 위 질문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나 제언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대응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의견

문1. 전반적으로 2020년 2021년의 어린이집에서의 코로나 대응은 다음의 각 단계 및 상황/요소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어린이집에서의 대응에 대해 다음 항목별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코로나 상황 모든 어린이집에서의 대응에 관한 평가	1	2	3	4	5	9
		전혀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별로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짐	상당히 잘 이루 어짐	잘모름 / 비해당
1	코로나 팬데믹 발생에 따른 조치(휴원/긴급돌봄, 대응지침 등)						
	표준보육과정의 운영						
2	휴원기간 긴급돌봄/긴급보육의 운영 전반						
	-휴원기간 긴급돌봄/긴급보육의 이용기준 및 제한 적용						
	-긴급보육 과정(curriculum, program)의 운영						
	-기본보육-연장보육 운영과의 관계 설정						
	-휴원기간 긴급보육의 취지(감염예방, 전파차단, 동시에 필수인력의 긴급돌봄수요 해소)를 고려할 때						
	-교사대아동비율, 아동중심/놀이중심의 측면에서						
	-긴급보육의 실제 이용률 추이를 고려할 때						
3	-교직원 복지(건강관리, 업무부담 등)의 관점에서						
	팬데믹기간 아동/놀이중심 개정누리과정 운영 및 적용						
4	기관 운영 지원 (전체)						
	-휴원기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및 감면						
	-휴원기간 교사 근속 유지						
	-보건의료·건강 지원 체계와의 연계						
	-정부의 팬데믹 관련 주요 정보 전달과 공유, 소통						

	코로나 상황 모든 어린이집에서의 대응에 관한 평가	1	2	3	4	5	9
		전혀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별로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짐	상당히 잘 이루 어짐	잘모름 / 비해당
	팬데믹기간 사회적거리두기에 기초한 어린이집 운영 및 대응체계 전반						
5	-팬데믹기간 실내외 공간 운영 및 활용 팬데믹 하 공간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예: 교사대야동비율/공간활용의 변화와 연계 등)						
	-재원영유아에 대한 거리두기/마스크 관련 지침의 적절성						
	-재원영유아에 대한 거리두기/마스크착용 시행 실제						
	-재원영유아의 실내외활동						
6	교사를 필수인력(essential worker)으로 지정						
7	아동의 성장·발달 및 아동관점의 대응						
	-아동의 바깥 및 신체 활동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						
	-기본생활습관						
	-언어발달						
	-인지발달						
	-심리정서적 건강(행복/웰빙,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8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예: 다문화, 한부모, 조손, 빈곤, 장애/질환 가정 등)						
	결손/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 위기가구/아동에 대한 감지와 발견, 신고 및 대응 체계						
9	재난상황 자녀양육가구/부모에 대한 가정내돌봄 지원 (예: 부모 대상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육아휴직, 돌봄휴가, 긴급돌봄지원금 등의 실행정도)						

문. 코로나 팬데믹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재난 단계별로 정부의 정책은 얼마나 잘 준비 또는 대응하였다고/(또는)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코로나 상황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정부 대응에 관한 평가	1	2	3	4	5
		전혀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별로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잘 이루 어짐	상당히 잘 이루 어짐
재난 단계별	(팬데믹 이전) 재난 예측과 대응 준비 (대응체계)					
	(팬데믹 기간-2020년) 코로나 대응 초기					
	(팬데믹 기간-2021년) 코로나 대응 중기이후					
	(팬데믹 종식 시점) 재난 회복단계에 대비한 전략과 계획					
	(팬데믹 종식 이후-포스트코로나) 변화된 사회상에 대한 ECEC 미래대응의 전략					
대상별	등원 아동 대상 (코로나 대응 및 지원 전반)					
	미등원 아동 대상 (코로나 대응 및 지원 전반)					
	교직원 대상 (코로나 대응 및 지원 전반)					
	부모 대상 (코로나 대응 및 지원 전반)					
	어린이집/유치원 기관운영의 관점에서 (코로나 대응 및 지원 전반)					

문.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대해 아이들은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않다 ② 별로 그렇지않다 ③ 보통
④ 어느정도 그렇다 ⑤ 상당히 그렇다 ⑥ 잘 모르겠음

코로나팬데믹으로 드러난 영향 및 사각지대와 격차

문. 코로나 팬데믹이 드러낸 사각지대와 문제점, 공백과 결손, 격차와 관련하여 아이들의 발달 지연과 (아동들 간의) 격차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원에서의 경험과 귀하가 간접접촉한 타 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다음의 항목에 대해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	1	2	3	4	5
		전혀 증가하지 않음	별로 증가하지 않음	보통	약간 증가함	상당히 증가함
아동	아동의 발달 지연		√			
	(아이들 간) 발달 및 학습의 격차		√			
	아동의 바깥활동 및 신체활동의 공백과 결손		√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발달의 결손 및 지연		√			
	아동의 기본생활습관 지연		√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		√			
	아동의 인지발달 및 학습능력 지연		√			
	아동의 심리정서적 건강 문제(우울, 불안, 무기력을 보임)		√			
	스트레스로 짜증/다툼 및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임					
	아동의 행복과 웰빙					
기타 (적어주세요:)						

문. 코로나 팬데믹 기간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가장 큰 공백과 사각지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유로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부모와 교사 등 양육·보육환경에 관해 제시된 항목의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귀 원에서의 경험과 간접접촉한 타 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2	3	4	5
		전혀 심각 하지 않음	별로 심각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심각함	상당히 심각함
부모/ 가족	가정내돌봄 부담				√	
	부모의 양육역량				√	
교사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		
	교사의 웰빙			√		
	교사의 정신건강(소진, 스트레스, 우울 등)			√		
	민원 대응의 어려움		√			
유-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		
	국공립과 사립 기관의 격차				√	
	교육과 돌봄의 구분 및 격차				√	
사회 전반	영유아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	
	아동 수의 감소(저출생의 심화)					√
	유치원·어린이집 인프라 변화 및 감소				√	
기타	(적어주세요:)					

문. 선생님께서는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에 변화가 있습니까?

- ①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 ②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가 대체로 증가하지 않았다
- ③ 보통
- ④ 코로나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가 어느정도 증가하였다.
- ⑤ 코로나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문. 다음은 교사로서 귀하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항목입니다.

만족도와 스트레스 등 다음 항목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2) 교사로서 현재 직무에 만족한다					
3) 교사로서 현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4)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5)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6) (영)유아교사로서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					
7) 현재 기관에서의 근무만족도가 높다					
8) 교사로 일하면서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다					
9) 앞으로 교사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10) 기회가 있다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싶다					
11) (영)유아교사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					

문. 다음은 귀하의 소진에 관해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 내용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체크해 주세요.

항목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별로 그렇지 않았다	보통	약간 그랬다	매우 그랬다
1) 나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나면 보람을 느낀다.					
2) 나는 어린이집 근무에 활기찬 느낌을 갖는다					
3) 나는 업무 때문에 정서적으로 지치고 메마른 느낌이다					
4) 하루 업무가 끝나면 기진맥진하다					
5) 일을 하면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 분야(ECEC) 포스트코로나 미래 어젠더

문. 위와 같이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격차와 공백 및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ECEC 미래 대응 전략으로서 중요한 어젠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제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제안해주시고, 5점척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1	2	3	4	5
		전혀 중요 하지 않음	별로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중요함	상당히 중요함
1	유보통합					
2	공-사립 격차 해소					
3	교육-돌봄 격차 완화					
4	유초연계					
5	(무상, 의무교육 등) 학제개편					
6	저출생 대응					
7	(AI/메타버스/로봇/에듀테크 등) 디지털사회로의 변화 대응					
8	기후변화/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SDG)의 전략					
9	미래세대의 양성-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웰빙 제고					
10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11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					
12	취약아동/가구 지원체계 보강					
13	(제언:)					
14	(제언:)					

위에 제시된 유아교육과 보육(ECEC) 분야의 중장기 대응 전략에서 중요한 과제를 1~3순위로 꼽으면 무엇인지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8. 귀하가 받고 있는 월 급여는 얼마입니까? ‘세전’을 기준으로 적어주십시오. 없으면 0을 적어주세요.

기본급	() 만원
수당	() 만원
월 총액 ※ 한 달 기본급과 제 수당(처우개선비 등 정부지원금 포함)을 모두 합친 금액	() 만원

9. 귀 기관은 교사에게 시간외 수당을 지급합니까?

- ① 지급함 V ② 지급하지 않음 ③ 시간외 근무 없음

10. 선생님은 본인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1	2	3	4	5

11. 선생님의 1일 근무시간과 하루 일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의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근무시간의 구성을 대략 적어주십시오.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업무는 직접 적으시고 해당시간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관에서 근무하는 시간	1) 교육·보육 시간	하루 ()시간 ()분
	2) 수업준비 시간	하루 ()시간 ()분
	3) 행정업무 시간	하루 ()시간 ()분
	4) 점심시간	하루 ()시간 ()분
	5) 휴식시간	하루 ()시간 ()분
	6) 기타(적어주세요:)	하루 ()시간 ()분
	7) 기타(적어주세요:)	하루 ()시간 ()분
	8) 1일 총 근로시간	하루 총 ()시간 ()분
	9) 주당 총 근로시간	주당 총 ()분 ()분
퇴근 후 일하는 시간	10) 퇴근 후 집에서(남아서) 일하는 시간	주당 약 ()시간 ()분

12. 선생님의 연간 휴가일은 얼마이며, (2020년 기준) 실제 며칠을 사용하셨습니까

연간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 () / 연간 사용가능한 휴가일수 ()

13. 선생님은 (위에 적어주신) 본인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1	2	3	4	5

♣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3.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설문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 아동양육시설 -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21년 기본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나타나는 **아동양육·보호시설** 운영 및 아동발달 상의 주요 변화와 쟁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시는 내용을 통해 장기화 된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응과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쟁점과 어려움을 파악함으로써, 팬데믹 종식 이후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아동 양육과 보호 체계의 운영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34조)에 따라 보호되오니, 정책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문의사항이나 제언은 연구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기한:

현재 기관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3년이상** 되신 교직원의 응답을 요청드립니다.

귀하는 **현재의 기관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3년이상** 되셨습니까? (최소 2019년부터 근무)

예 → 설문계속

아니오 → 3년이상 경력자가 없는 경우, 경력이 가장 많은 분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전체 현황에 대한 응답은 최대한 정확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원의 현황을 확인하시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 문의: 육아정책연구소 02) 398-7750, 7706 song@kicce.re.kr

다음 질문에 직접 응답을 적어주시거나, 표기 해주세요.

○ 설문 응답 일자

2021년 월 일

○ 기관 소재지

() 시·도 () 시·군·구

기관 특성

※ 다음은 기관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칸에 V표 하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

문1. 귀 기관의 소재지 및 기관 유형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1) 지역	<input type="checkbox"/> ① 서울 <input type="checkbox"/> ② 부산 <input type="checkbox"/> ③ 대구 3-1. <input type="checkbox"/> 경산 3-2. <input type="checkbox"/> 청도 3-3. <input type="checkbox"/> 봉화 <input type="checkbox"/> ④ 인천 <input type="checkbox"/> ⑤ 광주 <input type="checkbox"/> ⑥ 대전 <input type="checkbox"/> ⑦ 울산 <input type="checkbox"/> ⑧ 경기 <input type="checkbox"/> ⑨ 강원 <input type="checkbox"/> ⑩ 충북 <input type="checkbox"/> ⑪ 충남 <input type="checkbox"/> ⑫ 전북 <input type="checkbox"/> ⑬ 전남 <input type="checkbox"/> ⑭ 경북 <input type="checkbox"/> ⑮ 경남 <input type="checkbox"/> ⑯ 제주 <input type="checkbox"/> ⑰ 세종
2) 지역규모	<input type="checkbox"/> ① 대도시(특별시/광역시) <input type="checkbox"/> ②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③ 읍면지역
3) 기관유형	<input type="checkbox"/> ① 아동양육시설 <input type="checkbox"/>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input type="checkbox"/> ④ 공동생활가정 <input type="checkbox"/> ⑤ 자립지원시설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2. 귀 기관의 전체 아동 정원/현원 현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1) 정원

정원 아동 수	총 명
---------	-----

(2) 현원

구분	현원(현재시점)
① 영아 (0~3세)	명
② 유아 (4~6세)	명
③ 초등 1~3학년 (7~9세)	명
④ 초등 4~6학년 (10~12세)	명
⑤ 중학생이상 (13~18세)	명
아동 계	총 명
실/반 계	1총 실/반

문7. 귀 시설의 아동(들)은 지난 2년간 대략 몇 번의 감염여부 검사를 받았습니까?
 2020~2021년 총 _____ 번 (아동 1인당 평균)

코로나 전-후 기관운영 현황 및 재원/재직 등 변화

문8. 기관운영과 귀하의 근로시간, 아동과의 관계 및 아동의 생활 전반에서 팬데믹 전-후로 변화가 있었습니까?

귀 시설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구분	항 목	팬데믹 전(2019년)과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수준(2021년 10월)						
		1	2	3	4	5	6	
		상당히 줄어듦	약간 줄어듦	변화 없음	약간 늘어남	상당히 늘어남	잘모름	
기관 운영	(1) 기관 전체 아동 수							
	(2) 교직원 수							
	(3) 기관 총 수입							
	(3-1) 지자체 지원금/보조금							
	(3-2) 기부금							
	(3-3) 기타(적어주세요: _____)							
	(4) 기관 총 지출							
	(4-1) 아동 교육비 지출							
	(4-2) 인건비							
	(4-3) 급식비/간식비							
	(4-4) 관리운영비							
	(4-5) 교재교구 및 비품/설비 구입							
	(4-6) 기타(적어주세요: _____)							
	교직원 (본인 기준 으로 응답해주세요)	(5) 총 근로시간						
(5-1) 대면 근로시간(오프라인 출근)								
(5-2) 비대면 근로시간(온라인 근무)								
(6) 아동을 직접 돌보는 시간								
(7) 아동의 수업/공부를 챙기고 지원하는 시간								
(8) 휴게시간								
아동 (0~9세 아동을 중심 으로 응답해주세요)		(9) 학습/공부하는 시간						
		(10) 놀이 및 여가/ 문화활동 시간						
	(11) 휴식시간							
	(12) 신체 활동시간							
	(13) 바깥 활동시간							
	(14) TV/미디어 이용 시간							

구분	항 목	팬데믹 전(2019년)과 비교하여 현재의 상황/수준(2021년 10월)					
		1	2	3	4	5	6
		상당히 줄어듦	약간 줄어듦	변화 없음	약간 늘어남	상당히 늘어남	잘모름
	(15) 온라인 소통 시간(SNS, 화상통화, 채팅, 유튜브 등)						
	(16) 오프라인으로 친구/사람을 만나는 시간						
구분	항 목	상당히 나빠짐	약간 나빠짐	변화 없음	다소 좋아짐	상당히 좋아짐	잘모름
관계	(17) 교직원아동 관계						
	(18) 아동 간 관계						
상담/치료	(19) 상담/치료 등 개별요구(special needs)를 갖는 아동에 대한 지원과 중재						
구분	항 목 (현재 기준)	상당히 좋지 않음	다소 좋지 않음	보통	약간 좋음	상당히 좋음	잘모름
공간 /설비 /인력	(20) 공간/실 운영의 밀집도 및 적정성						
	(21) 온라인/디지털 설비와 환경						
	(22) 성인 대 아동 비율						
	(23) 실/반별 아동 수(규모)						
	(24) 시설 양육환경 전반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1)

문9. 초등3학년 이하 아동(0~9세)을 중심으로 다음의 항목별로 팬데믹 전-후 증감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수준(2021년 10월)을 팬데믹 전(2019년) 과거 일상과 비교하여		1	2	3	4	5	6
		상당히 줄어듦	약간 줄어듦	변화 없음	약간 늘어남	상당히 늘어남	비해당 (애초 미이용)
모든아동 공통	(1-1) 원가정과 교류/연락이 가능함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1-2) 원가정 교류(직접대면)						
	(1-3) 원가정 교류(비대면 온라인/통화 등)						
	(2)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 활동						
	(3) 상담/치료 등 개별요구를 갖는 아동						
	(4) 아이돌보미(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공동	공공 (5)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타 (6) 기타 공공기관/센터/인프라 이용(도서관 등)						
	(7) 문화/오락/체험활동						
	(8)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
영유아	영유아 기관 (9) 어린이집 이용(긴급돌봄 포함)						
	(10) 유치원 이용(긴급돌봄 포함)						
	(11) 시간제보육/돌봄 이용						
	영유아 사교육/사설 (12)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 이용(놀이학교, 영어유치원 포함)						
	(13) 영유아 사교육(시간제학원, 학습지 등)						
	(14) 영유아 사설 놀이공간(예: 키즈카페 등)						
초등	초등 돌봄 (15-1) 초등돌봄교실(누초등 긴급돌봄)						
	(15-2) 초등학교 방과후과정(방과후학교)						
	(15-3) 지역아동센터						
	(15-4) 온종일돌봄(지자체 돌봄센터)						
	(15-5) 다함께돌봄센터(보건복지부)						
	(15-6) 기타 돌봄(적어주세요: _____)						
	초등 사교육 (16-1) 학원 - 학습관련						
	(16-2) 학원 - 예체능 관련						
	(16-3) 학원 외(학습지, 방문과외, 온라인수강 등)						
	(16-4) 기타 사교육(적어주세요: _____)						

〈보기2〉 미이용이유

1. 공식적인 휴원·휴업 조치 (즉 긴급돌봄 이용 자제 권고로)
2. 코로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해
3. 시설에서 아이들 돌봄이 가능하여
4.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방역조치와 통제로 인해
5. 이용의향이 있(있)으나, 이용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없어(기관/학교에서 이용이 어렵다고 함)
5. 원하는 시간/시기에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워서
7. 기타(적어주세요: _____)
8. 비해당: 이용함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문12. 다음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입니다.

귀 기관에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 1-3순위를 적어주세요.

(보기에 없는 경우, 기타 응답에 적고 1-3순위에 반영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p>〈보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관 수입/지출 변화 2. 아동 돌봄공백의 발생(아이들끼리 있음, 식사 거름 등) 3-1. 시설에서의 아동 양육/돌봄 부담 3-2. 아동 온라인수업 및 학습 지원의 어려움 3-3. 아동 학업/교과과정의 결손, 공백 4. 사회적 교류와 바깥 활동의 제약/통제 5. 코로나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6.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 우울/ 스트레스(심리정서적 건강) 7. 관계(아동간 관계, 교직원-아동 관계) 상의 어려움 8. 감염확진자 인근 발생 등 감염 관련 대응과 경험(예: 치료, 검사실시, 자가격리, 일시 시설폐쇄 등) 9. 아동 마스크 착용 및 관리 10. 특별히 없음 12.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코로나 대응(1)-검사, 자가격리 등의 대응체계

문13. 다음은 시설에서 이루어진 코로나 팬데믹 대응체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1	2	3	4	5	6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잘 모름
대응 지침 /이행						
소독 방역						

코로나 대응(2)-유치원/어린이집/학교 활동 관련

문14. 귀 기관의 초등3학년 이하 아동(0~9세) 아동의 팬데믹기간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수업 참여와 시설내 돌봄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2	3	4	5	9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비해당
긴급 돌봄						
온라인 /원격 수업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코로나 대응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의견(3)

문15. 2020~2021년 정부 및 지자체의 아동양육시설 대상 코로나 대응은 다음의 각 단계 및 요소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경험에 기초하여 다음 항목 별로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세요.

항 목	1	2	3	4	5	9
	전혀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별로 잘 이루어 지지 않음	보통	어느정 도 잘 이루어 짐	상당히 잘 이루어 짐	잘 모름
1	코로나 팬데믹 발생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대상 조치 전반 (대응지침 등)					
2	감염차단을 위한 대면활동 제한과 통제					
3	교직원 필수인력(essential worker)으로 지정 및 지원					
4	아동의 성장·발달 및 아동관점의 대응					
	-아동의 바깥 및 신체 활동					
	-아동의 또래관계 및 사회정서 발달					
	-기본 생활습관					
	-언어·인지 발달					
	-심리정서적 건강(행복/웰빙,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5	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및 모니터링 (예: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결손/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동에 대한 개입과 중재					
	위기 아동에 대한 감지와 발견, 신고 및 대응체계					
6	재난상황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원					

문16.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대해 귀 기관의 아동들은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추가 의견이 있으면 기타 응답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
- ④ 어느 정도 그렇다
- ⑤ 상당히 그렇다
- ⑥ 잘 모르겠음
- ⑦ 기타 의견(적어주세요: _____)

문17. 2020년 2월 이후 팬데믹 기간 귀하가 경험한 아동 양육과 돌봄, 교육(학업 챙기기 등), 관계와 관련하여 **긍-부정의 영향** 중 어떤 것이 더 크다고/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 ② 부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 ③ 비슷하다
- ④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 ⑤ 긍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영향 및 사각지대와 격차

문18. 귀 기관 아동의 발달은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3학년 이하 아동을 중심으로 귀하가 체감하시는 바를 5점 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아동의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약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아동의 발달에 늦어진 부분이 있음 (아이들 간에) 발달 및 학습의 격차가 있음					
바깥활동 및 신체활동의 공백으로 인한 결손이 있다고 생각함					
도래관계 및 사회정서 발달의 결손					
기본 생활습관 형성 지연					
언어발달 지연					
인지발달 및 학습능력 지연					
심리정서적 건강 문제(우울, 불안, 무기력을 보임)					
스트레스로 짜증/다툼 및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보임					
행복과 웰빙이 증가함					
기타(적어주세요: _____)					

문19.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여 제시된 항목의 문제 또는 심각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귀하의 경험과 주변에서의 간접경험의 경험을 토대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항 목	1	2	3	4	5
	전혀 문제되지 않음	별로 문제되지 않음	보통	어느정도 문제가 됨	상당히 문제가 됨
기관 /교직원	교직원의 아동 양육·돌봄 부담과 어려움				
	교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교직원의 일가정양립				
	교직원의 정신건강(소진, 스트레스, 우울 등)				
사회 전반	학대/폭력/유기 아동의 증가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동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				
기타(적어주세요: _____)					

교직원 시간지원 이용

문20. 팬데믹 기간 다음 제도 중 이용한 것에 대해 적어주세요.

구 분	제도가 없거나 잘 모름	제도는 있으나 직장 상황 및 분위기상 이용하기 어려움	이용할 수 있으나 이용하지 않음	소극적으로 활용	충분히 활용	해당 없음
(1)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10일간 이용 가능, 최대 50만원 지원						
(2) 유급휴가(연차)						
(3) 무급휴가						
(4) 재택근무						
(5) 육아휴직						
(6) 근로시간 단축						
(7) 육아시간 지원						
(8)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9)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아동의 경계선적 행동에 대한 지원/모니터링

문21. (전문적인 소견과 진단에 앞서)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문제행동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및 모니터링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
- ④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⑤ 상당히 필요하다
- ⑥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22. (전문적인 소견과 진단에 앞서) 문제행동과 지연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학교에서 모니터링 및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시 우리 시설에서의 상담·치료 체계와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
- ④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⑤ 상당히 필요하다
- ⑥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문23. 귀하는 Covid-19 팬데믹과 유사한 (혹은 다른 형태의) 재난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없다고 생각한다
- ②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 ③ 보통 정도로 생각한다
- ④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 ⑤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문24. 팬데믹 경험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대응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응체계와 지침, 현장에서의 실행에 대해 개선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25. 귀하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돌봄 및 양육의 최우선 과제와 전략, 변화가 필요한 재구조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로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DQ8. 선생님은 본인의 급여 수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1	2	3	4	5

DQ9. 선생님은 본인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하는 편	보통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1	2	3	4	5

♣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마지막으로, 음료권 지급을 위해 응답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

부록 4. 청년 설문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전망 및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청년 대상-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육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해 청년 세대의 현재 삶과 일-생활 균형,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전망과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해주시는 내용을 통해 위드코로나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아동 돌봄과 교육 및 양육지원체계의 향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있는 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제33조, 34조)에 따라 보호되오니, 정책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쁘신 중에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문의사항이나 제언은 연구진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문의: 육아정책연구소 02) 398-7706 ykchoi@kicce.re.kr

다음 질문에 직접 응답을 적어주시거나, 표기 해주세요.

○ 설문 응답 일자

2021년 월 일

○ 주소

() 시·도 () 시·군·구 () 동·읍·면

취업 현황

Q1. 귀하의 현재 취업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중 해당되는 1곳에 체크해주세요.

- ① 정규직 취업을 함 ② 규칙적인 시간제 일/아르바이트를 함
- ③ 불규칙적인 시간제 일/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 ④ 현재 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
- ⑤ 현재 비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

Q2. 귀하의 구직중/학업예정 여부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① 구직 중(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정보 탐색과 준비, 원서제출 등)
- ② 학업 예정(현재보다 공부를 더하기 위해 정보 탐색과 준비, 원서제출 등)
- ③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
- ④ 학업 예정 없음

Q3. (Q1 에서 ⑤현재 비자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 응답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를 응답해주세요.

- ① (일자리 기회는 있으나) 하고싶은/맘에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근무여건/일의종류/시급 등)
- ② 일자리 기회 자체가 거의 없음
- ③ 가고싶은 일자리가 있어도 경쟁이 치열해 지원을 해도 떨어짐
- ④ 아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음.
- 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
-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Q4. 귀하는 2020년 2월 이후 일을 하다 그만두신 적이 있습니까?

하던 일/직장을 그만 둔 적 있음	하던 일/직장을 그만 둔 적 없음	비해당 (일하지않음)

Q5. (Q4에서 1.그만둔적 있음 응답자) 하던 일/직장을 그만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해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타 응답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1. 팬데믹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일자리/직장상황으로 인해(일을 그만두라고 함)
- 2. 더 나은 일자리/취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만 둬

3. 개인적인 상황 및 선택으로(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4. 기타(적어주세요:)

Q6. 귀하는 가까운 장래에 직장을 (새로) 구하고 취업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않음 ②별로 그렇지않음 ③ 보통
 ④ 어느정도 그러함 ⑤상당히 그러함

Q7. 귀하는 현재 부모님(원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부모님(원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② 따로 살고 있다

Q7-1. 현재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 (1인가구의 경우, 1을 적어주십시오)

총 _____명(본인포함)

Q8. 귀하는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였습니까? 다음 중 해당되는 1곳에 체크해주세요

- ①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의 상당부분을 거의 전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②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의 일정부분을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③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의 일부를 비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④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에 관한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
 ⑤ 부모로부터 생활비 등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
 ⑥ 비해당
 ⑦ 기타(적어주세요:)

미래전망

Q9. 귀하는 심화되는 초 저출생 현상이 가져오는 미래를 전망할 때, 저출생이 가져오는 긍정의 효과 중 어떤 것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저출생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다
 ② 저출생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변화가 어느정도 클 것이다
 ③ 저출생으로 인한 긍정-부정의 영향과 변화가 공존할 것이다
 ④ 저출생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과 변화가 어느정도 클 것이다
 ⑤ 저출생으로 인한 긍정적 영향과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다

Q9-1. (모든 응답자 대상) 미래에 저출산/저출생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9-2. (모든 응답자 대상) 미래에 저출산/저출생이 가져오는 부정적 변화와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10. 다음은 약 20년 뒤 2040년의 우리나라 사회상에 대해 전망해보는 것입니다. 제시된 내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또는 현재와 비교하여 증가(향상)할지 감소(하락)할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2040년 우리나라 사회·경제 전망	매우 감소 (하락)	다소 감소 (하락)	현재 수준 (유지)	다소 증가 (향상)	매우 증가 (향상)
가. 개인, 가정					
① 개인의 삶의 질	1	2	3	4	5
② 취업률(일자리를 가짐)	1	2	3	4	5
③ 결혼율	1	2	3	4	5
④ 출산율	1	2	3	4	5
⑤ 가족구조의 변화 (1인가구, 동거가구,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1	2	3	4	5
⑥ 가족에 대한 높은 가치 부여	1	2	3	4	5
나. 사회, 문화, 경제					
① 사회구성원 간 부의 균형적 분배	1	2	3	4	5
② 보편적 복지 사회(연금, 실업수당, 의료보험 보장 등)	1	2	3	4	5
③ 자녀돌봄과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문화(유연근로시간제, 육아휴직 활성화, 부모의 돌봄권 보장 등)	1	2	3	4	5
④ 돌봄의 가치와 인식 향상, 공동체적 참여의 실질적 제고					
⑤ 개인 간 디지털 역량 격차	1	2	3	4	5
⑥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과 참여	1	2	3	4	5
⑦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	1	2	3	4	5
⑧ 아동권리 보장 및 아동·청소년 관점의 교육과 돌봄/복지 정책	1	2	3	4	5
⑨ 인공지능/로봇의 증가(노동의 감소)	1	2	3	4	5
⑩ 개인창업/스타트업/중소기업의 증가 및 영향력 확대	1	2	3	4	5
⑪ 과학기술강국(원천기술 보유)	1	2	3	4	5
⑫ 외국인 유입과 정착	1	2	3	4	5

Q10-1. 제시된 내용 외에 귀하가 예측하는 2040년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관적 만족도

Q11. 현재 귀하의 삶의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해당 항목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1) 현재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	1	2	3	4	5
2) 2040년 예상되는 삶의 만족도	1	2	3	4	5

결혼/출산 의향

Q12. 귀하는 미래에 결혼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Q12-1. (Q12에서 1. 있다 응답자) 결혼을 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1.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
2. 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
3. 가족을 이루고 싶어서
4. 사회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5. 자녀를 낳고 싶어서
6. 기타(적어주세요:)
7. 없음

Q12-2. (Q12에서 2. 없다 응답자)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결혼하고 싶으나 기회가 없음/배우자 만남의 어려움			
2. 가족관계, 자녀양육이 부담이 되서			
3. 경제적·직업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4. 내 삶이 중요해서(직업적 성공, 진로 등)			
5. 필요성을 못 느껴서			
6. 기타(적어주세요: _____)			
7. 없음			

Q13. 귀하는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실 계획입니까?

1. 있다 (희망 자녀 수 : 명)
2. 없다

Q13-1. (Q13에서 1. 자녀를 낳을 의향이 '있다' 응답자)
자녀를 낳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나의 자녀를 갖기를 위해서			
2. 자녀가 있어야 가족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3. 노후 대비를 위해서			
4. 부모/배우자(이성친구)가 위해서			
5. 미래 우리사회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6. 후손을 두어 대를 이으려고			
7. 사회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낳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			
8. 기타(적어주세요: _____)			
9. 없음			

Q13-2. (Q13에서 2. 자녀를 낳을 의향이 '없다' 응답자)
자녀를 낳을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순위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1. 나의 삶이 더 중요해서			
2. 나와 배우자의 삶이 더 중요해서			
3. 자녀를 돌볼 사람/지원 체제가 부족해서			

4.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
5.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심리정서적) 부담이 커서
6. 자녀양육에 대한 신체적 부담이 커서
7. 필요성을 못 느껴서
8. 미래사회 암울한 전망 때문에
9.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0. 없음

Q14. 귀하는 미래에 아동을 입양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정도 있다
5. 충분히 있다

Q15. 귀하는 미래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탁양육(부모는 아니지만 일정기간 양육자(forster parent) 역할을 수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정위탁이란? 친부모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 보호대상 아동을 개별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일정기간 위탁 보호하는 것을 말함.

1. 전혀 없다
2. 별로 없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정도 있다
5. 충분히 있다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Q16. 귀하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
- ④ 어느정도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Q17. 귀하는 출생한 아동과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지원이 현재보다 확대·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

- ④ 어느정도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 ⑥ 잘 모름

Q18. (모든 응답자 대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육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시된 항목 중 1,2순위를 선택해주시시오. 추가 의견이 있는 경우, 기타응답란에 적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①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지원의 강화(예: 육아휴직, 육아시간지원, 근로시간단축 등)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 기반(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		
	③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④ 현금지원 확대(예: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⑤ 출산과 양육, 돌봄을 존중·지원하는 사회문화적 토대		
	⑥ 출산과 양육, 돌봄에 대한 양성평등 및 지역사회 참여 (독박육아 방지)		
	⑦ 교육·보육·돌봄에 종사하는 교직원 처우와 사회적인식 개선		
	⑧ 교육·보육·돌봄에 종사하는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⑨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예: 부모교육 및 지원)		
	⑩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및 적응

Q19. 귀하가 경험한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중 1-2순위를 적어주시고, 보기에 없는 경우 기타 응답에 적고 1-2 순위에 반영해주세요.

1순위		2순위	

〈보기〉

1. 일자리 구하기
2. 출근 및 일하기(직장생활 유지)
3. 수입 변화(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4. 지출비용 증가
5. 교육비 증가
6. 일상생활 유지의 어려움 (예: 식사거름, 불규칙한 생활 등)
7. 학습/교육과정의 결손, 공백
8. 비대면 온라인활동 참여 및 온라인 환경에의 적응
9. 사회적 교류와 바깥 활동의 제약
10. 코로나 감염 예방과 위생 관리
11.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불안감/우울/스트레스(심리정서적 건강)
12. 가족관계 상의 어려움
13. 감염확진자 인근 발생 및 감염 관련 직접 경험(예: 치료, 자가격리, 한시적 직장폐쇄 등)
14. 마스크 착용 및 관리
15.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의 적응
16. 심리정서적 어려움(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17. 특별히 없음
18. 기타(적어주세요: _____)

Q20. 2020년 2월 이후 팬데믹기간 귀하가 경험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긍-부정의 영향 중 어떤 것이 더 크다고/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2. 부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3. 비슷하다
4.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크다
5. 긍정적 영향이 상당히 더 크다

Q21.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언제로 예상하시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 2022년
2. 2023년
3. 2024년
4. 2025년이후
5. 완전히 종식되지 않을 것 같음(위드코로나 상황으로 살게됨)
6.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Q22. 귀하의 코로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다음의 재난 단계별로 정부의 정책은 얼마나 잘 준비 또는 대응하였다고/(또는)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세요.

구 분	전혀 잘 이루어지지 않음	별로 잘 이루어지지 않음	보통	어느정도 잘 이루어짐	상당히 잘 이루어짐	잘 모름
(팬데믹 이전) 재난 예측과 대응 준비 (대응체계)						
(팬데믹 기간: 2020년) 코로나 대응 초기						
(팬데믹 기간: 2021년) 코로나 대응 중기이후						
(팬데믹 종식 시점) 재난 회복단계에 대비한 전략과 계획						
(팬데믹 종식 이후-포스트코로나) 변화된 사회상에 대한 미래대응의 전략						

Q23.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대해 귀하는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않다
2. 별로 그렇지않다
3. 보통
4. 어느정도 그렇다
5. 상당히 그렇다

Q24. 귀하는 코로나상황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에 변화가 있습니까?

1.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2.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가 대체로 증가하지 않았다
3. 보통
4. 코로나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가 어느정도 증가하였다.
5. 코로나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 스트레스가 매우 증가하였다.

Q25. 코로나 팬데믹 기간 귀하가 경험한 가장 큰 공백과 사각지대는 무엇이었습니까?

Q26.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포스트코로나 상황이 된다면 귀하의 일-생활 균형 전반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 변화가 전혀 없을 것이다
2. 변화가 별로 없을 것이다
3. 보통
4. 변화가 약간 있을 것이다
5. 변화가 매우 클 것이다

현재 현황 및 향후 계획, 우리사회의 아동·돌봄 친화 정도

Q27. 다음은 귀하의 현황과 향후 계획, 미래 사회상이 미치는 영향, 우리사회의 아동/돌봄 친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항목별로 5점척도로 응답해주시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음	별로 그렇지 않음	보통	어느정도 그러함	상당히 그러함
1 나는 학업을 마치고 취업준비를 통해 적절한 때에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나는 당장 생계와 일자리 해결이 절박하다					
3 기후변화와 위기는 나의 삶의 양식과 미래 계획에 실제 많은 영향을 미친다.					
4 미래전망과 기후변화가 나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삶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우리 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					
6 나는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커플로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					
7 이제는 학업을 마치고 직장을 구한 후 결혼과 출산을 하는 교육-노동-결혼의 생애주기 경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본다					
8 우리사회는 출산과 양육, 돌봄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9 현재 우리 사회는 돌봄의 양성평등 참여와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10 영유아교사와 돌봄종사자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다					
11 현재 우리나라 교육-돌봄-사회복지 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다.					
12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예비부모라 할 수 있는 청년 대상의 지원 및 정책과 연계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 이후 포스트코로나 육아 및 돌봄·교육 분야 어젠더

Q28. 귀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혹은 다른 형태의) 재난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실상 없다고 생각한다
2.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3. 보통정도로 생각한다
4.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5.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

Q29. 귀하가 생각하시는 포스트코로나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다음에 제시된 항목 중 우선순위 1~2가지를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1. 일자리의 감소
2. 4차산업혁명/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3. 4차산업혁명/디지털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 및 사각지대의 심화(취약계층의 어려움 증가)
4. 양육지원체계의 전반적 강화 및 선진화
5. 출산 및 아동수 감소로 인한 새로운 삶의 양식(뉴노멀) 등장과 이에 대한 적응
6. 전반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인프라 소멸과 위기, 사회경제적 혼란과 어려움
7. 기후위기 등으로 친환경/그린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8. 기후위기 등으로 친환경/그린사회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양식(뉴노멀)과 이에 대한 적응

Q30. 코로나19 팬데믹과 유사한 (혹은 다른 형태의) 대규모 재난상황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에 대한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 육아 및 돌봄·교육 분야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제시된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1, 2순위를 응답해주시시오.

1순위		2순위	
-----	--	-----	--

1. 가정내 자녀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현금지원의 강화
2. 부모의 가정내 자녀돌봄이 가능하도록 일가정양립과 시간지원의 강화(예: 유연근로제, 비대면 재택근무, 돌봄휴가/돌봄휴직, 근로시간단축/육아시간지원 등)
3. 긴급돌봄체계의 강화

4. 재난상황에서의 공적인 교육·보육·돌봄 체계 운영 지속
5. 부모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선택 및 연계 지원 강화
(예: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체서비스 이용의 가능성 제고)
6.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돌봄이 지속 가능한 육아분야 AI, ICT, 에듀테크 등 스마트환경 구축
7. 교육을 통한 교직원 및 부모, 아동, 사회구성원의 위기/재난 대응력 향상
8. 기타 (적어주세요:)

Q31. 다음은 팬데믹 경험을 통해 드러난 격차와 공백 및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육아분야의 세부과제입니다.

제시된 항목 중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1, 2순위를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보기〉			
	1. 유아교육-보육 통합(유치원-어린이집 일원화)		
	2. 공-사립 격차 해소		
	3. 교육-돌봄 격차 완화		
	4. 유아교육-초등교육 연계(유초연계)		
	5. (무상, 의무교육 등) 학제 개편		
	6. 저출생 등 미래 인구축소와 전환에의 대응		
	7. (AI/메타버스/로봇/에듀테크 등) 디지털사회로의 변화 대응		
	8. 기후변화/친환경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SDG)의 전략		
	9. 미래세대 양성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역량/웰빙 제고		
	10. 미래세대 양성 - 디지털/그린 역량의 강화		
	11. 교사의 역량과 웰빙 제고		
	12. 부모의 양육역량과 일가정양립 강화		
	13. 취약아동/가구 지원체계 보강		
	14. 전 국민 평생 학습·교육 체계로의 전환		
	15. 양질의 돌봄생태계 공고화		
	16. (제안:)		

Q32. 끝으로 미래사회 육아분야 정책 과제와 전략,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 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일하지 않는 경우, 0을 적어주세요.

※ 출퇴근, 휴식시간 제외하고 기록

주당 평균 ()시간

DQ2. 귀하의 근로현황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본인
취학업 여부	1. 취업 2. 휴직 중 3. 학업 중 4. 구직 중 5. 미취업
직업군 (이하 취업여부=1~2일 때)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노무 종사자 10. 군인
근로/고용 형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일때) 1. 전일제 2. 시간제(파트타임)
	(임금근로자일때) 1. 정규직 2. 비정규직(계약직)
평일 출근시각 ※ 24시간 기준으로 응답	시 분
평일 퇴근시각 ※ 24시간 기준으로 응답	시 분
1주 평균 근로시간 ※ 출퇴근, 휴식시간 제외	주 평균 () 시간

DQ3. 현재 귀하의 근로형태가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기해주세요.

구 분	본인
본업 외 부업/아르바이트를 함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한다	
- 플랫폼에서 일거리를 받아 일한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근로시간(대)와 일의 형태/양이 비정형적	
해당없음	

DQ3. 지난 3개월 월평균 가구 및 본인 소득(세후소득)을 기입해주세요.

1인가구인 경우, 아래 칸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가 아닌 경우		월평균(만원)
1	가구소득(본인소득 제외)	월평균 ()만원
2	본인소득	월평균 ()만원
총 합계		
1인가구인 경우		월평균(만원)
가구소득=본인소득		월평균 ()만원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5. 조사결과 표

〈부표 1〉 특수고용/비정형일자리 등 근로형태(중복응답)-부모조사

단위: %(명)

구분	본업 외 부업/아르 바이트를 함	특수 고용 직	플랫 폼 노동 자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한다	플랫폼 에서 일거리를 받아일함	프리 랜서	자영 업자	근로시간(대)와 일의형태/양이 비정형적	비해당	사례수
부	12.2	6.4	3.9	2.9	2.2	2.6	5.9	7.5	63.5	(993)
모	6.2	3.1	1.9	2.5	2.4	4.6	2.9	5.9	75.7	(986)
학력										
고졸이하	13.5	9.0	5.6	2.2	2.2	2.2	10.1	9.0	58.4	(89)
3년제 대졸	13.6	4.9	4.3	3.3	3.3	3.3	5.4	14.7	54.3	(184)
4년제 대졸	11.9	6.9	3.8	3.1	2.1	2.8	5.4	5.9	66.0	(612)
대학원이상	10.2	4.6	2.8	1.9	0.9	0.9	6.5	2.8	69.4	(10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8	7.4	3.6	2.2	3.0	3.2	7.0	8.6	60.8	(500)
외벌이	10.5	5.5	4.3	3.7	1.4	2.0	4.9	6.3	66.3	(493)
취약여부										
취약가구	21.6	9.2	8.6	4.9	8.1	3.8	6.5	8.6	45.4	(185)
비취약가구	10.0	5.8	2.8	2.5	0.9	2.4	5.8	7.2	67.7	(808)

〈부표 2〉 결혼을 하려는 주된 이유(N=191) -청년조사

단위: %

항 목	응답률	
	1순위	1+2순위
가족을 이루고 싶어서	42.4	69.6
심리적/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	34.0	58.6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	16.2	30.9
사회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서	5.2	16.8
자녀를 낳고 싶어서	2.1	17.3
없음	-	6.8

〈부표 3〉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N=109)-청년조사

단위: %

항 목	응답률	
	1순위	1+2순위
내 삶이 중요해서	36.7	58.7
필요성을 못 느껴서	20.2	51.4
경제적/직업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16.5	34.9
가족관계, 자녀양육이 부담이 되서	12.8	30.3
결혼하고 싶으나 기회가 없음/배우자 만남의 어려움	13.8	18.3
없음	-	6.4

〈부표 4〉 자녀를 낳으려는 주된 이유(N=146)-청년조사

단위: %

항 목	응답률	
	1순위	1+2순위
나의 자녀를 갖기를 위해서	58.2	71.9
자녀가 있어야 가족을 이룬다고 생각해서	16.4	48.6
부모/배우자(이성친구)가 위해서	7.5	13.0
노후 대비를 위해서	4.8	11.6
미래 우리사회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4.8	23.3
후손을 두어 대를 이으려고	4.1	11.0
사회문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낳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	4.1	13.7
없음	-	6.8

〈부표 5〉 자녀를 낳을 의향이 없는 주된 이유(N=154)-청년조사

단위: %

항 목	응답률	
	1순위	1+2순위
나의 삶이 더 중요해서	39.6	51.9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서	22.1	45.5
필요성을 못 느껴서	9.7	20.8
자녀양육에 대한 정신적(심리정서적) 부담이 커서	9.1	22.1
자녀양육에 대한 신체적 부담이 커서	5.8	11.0
미래사회 암울한 전망 때문에	4.5	18.2
나와 배우자의 삶이 더 중요해서	4.5	13.6
자녀를 돌볼 사람/지원 체제가 부족해서	4.5	13.0
없음	-	3.9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